
국어사개론

학교문법의 관점에서

쉬라몬 문법

국어사개론: 학교문법의 관점에서

오르비 쉬라몬(아구몬)문법

목차

서론	3
제1장 국어사 연구	5
제2장 고대 국어	8
1. 국어의 계통	8
2. 전기 중세국어	10
3. 자료와 표기	11
4. 음운 체계	26
5. 어휘와 음운의 변화	35
6. 문법 체계	36
7. 참고 문헌	72
제3장 후기 중세국어	77
1. 문자와 표기법	77
2. 음운론	84
3. 형태론	106
4. 통사론	132
5. 어휘론	158
6. 참고 문헌	163
제4장 근대 국어	166
1. 문자와 표기법	
2. 음운론	
3. 형태론	
4. 통사론	
5. 참고 문헌	
불임	167

1. 서론

이 글은 수능 국어의 「언어와 매체」 영역의 심화 내용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과 수능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해 작성하였다. 「언어와 매체」 지문형 문제(35-36)의 소재가 다루는 내용의 깊이는 교과서 수준을 넘어선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사설 콘텐츠 팀들이 교과서 이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학생들이 그러한 자료를 접하기는 쉽지 않다. 국어사 공부에 흔히 참고되는 전문 서적은 인터넷에서 접하기 어려울 뿐더러 수능이나 내신 수준에서 보기에는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다. 따라서, 이 책은 교과서와 기출에 기반하되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고, 동시에 「학교문법 체계」에 맞추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지엽적인 국어사 지식까지 알고 싶은 학생 혹은 참고할 자료를 찾고 싶은 콘텐츠 제작자들이라면 이 책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 내신 대비를 위해 심화 학습이 필요한 학생 혹은, 다양한 내용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습자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식상한 얘기겠지만 국어사는 왜 배우는 것일까? 언어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의 과정에 있다. 선인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언어의 변화를 관찰하며 음운·문법·어휘 체계의 통시적 변천을 살펴 볼 수 있는 바, 국어사를 연구함으로써 단순히 과거의 언어 모습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¹⁾

이 책은 교과서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국어사를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다만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중세국어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는 반면, 고대국어와 근대국어는 교과서에서 간략히 언급되거나 사실상 학습 부담이 크지 않은 영역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수험생은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읽는 것으로 충분하며, 고대국어와 근대국어를 깊이 있게 학습할 필요는 없다. 수험생의 경우, 이 두 시기는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고대국어와 근대국어 단원은 교과서에 비해 압도적으로 자세하게 서술되었다. 학교문법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이 두 시기는 교육과정의 중심 영역이었던 적이 없고²⁾,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비중 역시 없다시피 하다. 그렇지만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국어의 흐름을 개괄적으로나마 이해하는 것은 국어사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제에 「학교문법의 관점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 필자가 설정한 하나의 제한선이다. 과도한 학계 용어나 전문적인 이론을 배제하고, 학교문법의 용어와 체계만으로 국어사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다만 앞서 강조했듯이 수험생의 경우 고대국어와 근대국어 단원은 굳이 읽지 않아도 되며, 출제자나 교습자, 혹은 콘텐츠 제작자의 입장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선택적으로 읽기를 권한다. 만약 고대국어를 읽겠다면 우선 중세국어를 먼저 읽고 고대국어를 읽는 것이 좋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세국어 단원이다. 중세국어는 실제 출제 빈도가 높고,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다. 또한 과거 학교문법에서 「옛말의 문법」이 하나의 영역으로 다루어지던 시기에는, 현재 시중의 중세국어 개론서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이 교육 현장에 포함되었던 만큼, 중세국어는 국어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책의 중세국어 단원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와 기출을 토대로 서술하되, 교과서와 기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서 수준을 고려한 개론서인 나찬연(2020)과 임지룡(2020)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였고, 고

1) 국어사 교육과 학교문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병기(2023)가 참고된다.

2)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고대국어 단원의 위상은 김유범(2019)이 참고된다. 또, 고대국어 단원의 문제점은 김유범(2019)과 성우철(2020)에서 비판하고 있으니 참고가 된다.

영근(2020), 구본관 외(2016) 등의 개론서 역시 사용하였다. 지문형 문제의 소재가 교과서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중세국어 단원의 각 소단원에는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 별의 개수로 임의로 중요도를 표시하였다. 별 4개는 대다수의 교과서³⁾에서도 언급되었고 비중이 높은 내용, 3개는 일부 교과서에서 언급되었고 해당 교과서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내용, 2개는 교과서에서 비중이 적은 경우 또는 기출에 나왔거나 함께 알면 좋을 지엽적인 내용, 1개는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은 없으나 국어사 연구의 관점에서 참고될 만한 내용이다(개론서의 ‘심화’에 해당). ‘더 알아보기’라고 쓴 부분 역시 심화 내용이므로 읽지 않아도 괜찮다. 수능 언매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후기 중세 국어」 단원에서 별 3~4개로 표시된 내용만을 읽어도 충분하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국어사를 지나치게 깊이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설령 빈출 단원인 중세국어라 하라도 과도한 심화 학습은 효율이 떨어진다. 언매 영역이 약하다면, 국어사보다는 현대 문법에 집중하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수능에서 요구되는 심화 내용은 문제의 지문이나 보기에서 충분히 설명되기 때문에, 심화 내용을 깊이 공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반면, 콘텐츠 제작자들이나 교습자의 경우에는 「후기 중세 국어」뿐 아니라 「고대 국어」, 「근대 국어」도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다만 이 두 단원은 성격상 지엽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별도로 중요도 표시는 하지 않았다.

비록 언매가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여전히 수능에서 문법 영역은 존재하므로 앞으로도 국어사가 배제될 일은 없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이 지속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 책은 꼭 수능 또는 학교 시험을 위한 학습서에 국한되지 않고, 교양으로 국어의 역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도 좋은 책이 될 것이다. 시중의 개론서들은 한자 사용이 많거나 서술 방식이 초보자가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나치게 어렵지 않게, 그렇다고 지나치게 얕지도 않게 서술하였으니 수능/내신 공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선인들이 어떠한 언어 생활을 향유하였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⁴⁾

이 책은 독자가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서술하였다. 즉 아직 음운이나 형태소, 문장 성분 등의 개념을 배우지 않았다면 당장 이 책을 덮고 기초를 공부하려 가길 바란다. 중세국어 단원의 각주에는 관련 기출 문항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며 읽으면 좋다. 평가원 시험은 ‘학년도’에서 1년을 뺀 연도에 시행된 시험이고 교육청 학력평가는 ‘학년도’에 해당하는 연도에 시행되었으며 고3 학력평가만 언급하였다. 임용 기출은 이 책이 학교문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언급했다. 또한 이 책의 각주를 보면 “~이 참고된다”라고 하며 논문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심화 과정이므로 수험생은 무시하면 되고, 교습자라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학교문법 수준을 넘어서기에 국어사를 심도 있게 알고 싶다면 따로 찾아보길 바란다.

한편, 교과서에선 ‘형태론’이나 ‘어휘론’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5종 교과서 모두 ‘음운’, ‘단어’, ‘문장’으로 단원명을 기술하고 ‘단어’ 단원에서 형태론과 어휘론을 함께 다룬다. 그러나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기에 일반적인 개론서를 따라 형태론과 어휘론을 분리하였다. 품사와 형태소는 형태론에서, 어휘의 의미와 차용 등은 어휘론에서 다루도록 한다.

3) 현행 『언어와 매체』 5종 교과서(미래엔, 창비, 지학사, 천재, 비상)에 중점을 두어 분류하였다.

4) 최대한 교과서/개론서를 따르고 필자의 주관을 배제하려 하였으나 제2편 고대국어의 ‘2.1. 국어의 계통’에 필자의 주관이 강하게 들어갔고, 학교문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해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1 장 국어사 연구

1.1 언어와 변화

언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살아 있는 체계이다. 국어사 연구는 바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밝히는 학문으로, 언어의 변화가 어떠한 방향과 원리에 따라 진행되었는가를 탐구한다. 언어의 변화는 음운·문법·어휘 체계 등 언어의 전 구성 요소에서 일어나며, 이들 체계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언어의 변화는 우연한 변이가 아니라, 체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힘(주로 음운변화)과 이를 회복하려는 힘(주로 유추)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⁵⁾. 즉, 언어는 덜 효율적인 체계에서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이행하려는 방향성을 지니며,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파악할 때 비로소 언어사 연구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언어사는 역사이지만, 동시에 역사 그 자체가 아니다. 언어사의 목적은 정치사나 문화사적 해석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의 구조와 발달을 서술하는 데 있다. 국어사 연구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어에서 일어난 제 변화의 실증적 탐구를 통해 그 속에서 작용한 보편적 규칙과 원리를 찾아야 한다.

1.2 국어사 연구와 문헌 자료

언어의 역사는 문자로 기록되어 전해지므로, 국어사 연구는 문헌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문헌의 성격과 그 속에서 사용된 문자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헌이 반영하는 언어적 실상을 분석하고 그 가치와 한계를 평가해야 한다. 문헌을 통한 언어사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문자의 환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문자는 언제나 일정한 음운을 완전히 동일하게 반영하지 않으며, 문자 체계의 가치 또한 시대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⁶⁾ 둘째, **문자의 보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문자는 언어보다 변화 속도가 느리며, 따라서 어떤 표기가 실제 언어의 현상을 반영하는지, 혹은 관습적으로 유지된 옛 표기인지 판단해야 한다. 국어사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언어사 연구와 차별된다. 특히 고대국어의 경우 자료의 결핍이 심하므로, 현존 문헌 하나하나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언어적 단서를 최대한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표기의 제약과 전승 과정에서의 소실 등으로 인해 현존 문헌만으로는 언어 변화를 완전히 복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문헌 자료의 분석과 더불어 비교 연구와 방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비교 연구**는 국어와 주변 언어를 대조함으로써 언어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방법이다. 일본어, 만주어, 몽골어 등과의 대조는 차용어/동원어를 알아내거나, 특정 음운이나 문법 요소의 기원을 탐색하거나, 공통된 역사적 변화를 밝히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반드시 엄밀한 음운 대응과 형태 대응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언어 외적 유사성이나 단편적 유사에 근거한 추정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실증적 근거 없이 음운 대응을 인위적으로 끼워 맞추는 비교 방식은 학문적 타당성을 잃게 된다. 비교 연구는 유사성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대응 규칙을 ‘입증’

5) “Sound change is regular and causes irregularity; analogy is irregular and causes regularity.” 이러한 음운 변화(음 변화)와 유추의 관계를 ‘*Sturtevant's paradox*’라 한다.

6) 단적인 예로 중세국어의 ‘ㅐ, ㅔ, ㅚ’ 등이 현대어와 다른 음자를 지녔다는 사실이 논증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선 이승녕(1949)이 참고된다. 현대인의 편견은 극복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어사 연구의 기본적인 관점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러한 해석상의 오류가 답습될 수 있다.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방언 연구** 역시 문헌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문헌이 남기지 못한 음운적, 어휘적 특성이 방언 속에 잔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일부 방언에 보존된 형태는 중세국어 이전의 모습을 유추할 단서를 제공한다. 이를 **내적재구(內的再構)**라 한다. 그러나 방언의 형성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곧이곧대로 옛 형태의 보존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어떤 방언형은 오히려 근대 이후에 새로 생긴 변이일 수도 있기에 방언 자료를 통해 과거의 형태를 재구할 때에는 그 변이의 연대와 확산 양상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국어사 연구는 문헌 자료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비교 언어학적 접근과 방언학적 접근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3 음운 현상과 음운 변동의 이해

언어사 연구에서 음운 현상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음운 현상**이란 음운이 특정한 조건에서 변하거나 달리 실현되는 모든 현상을 말하며, 이는 통시적인 변화와 공시적인 변동을 모두 포함한다. 즉, 음운 현상은 어떤 시점에서 음운이 변화하는 과정뿐 아니라, 그 시점에서 특정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상태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음운의 변화 또는 변천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일어난 변화를 뜻하고, 음운의 변동은 같은 시대 안에서 조건적으로 실현되는 교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중세국어의 경음화나 현대국어의 유음화는 공시적인 **음운 변동**, 고대국어에서 중세국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모음 체계 변천 혹은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두자음군의 소멸 등은 통시적인 **음운 변화**로 본다. 따라서 언어사의 기술에서는 변동이 누적되어 체계 변화를 일으킨 과정을 **음운 변화**로 파악하고, 변화의 과정을 개별 시점에서 관찰할 때는 **음운 변동**으로 이해해야 한다.

음운 변화 외에도 언어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유추(analogy)**와 **차용(borrowing)**이 있다. 유추는 기존의 규칙이나 형태를 본떠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용이다. 가령, 중세국어 시기 ‘오다’는 다른 용언이라면 선어말어미 ‘-거-’가 쓰일 환경에 ‘오나둔, 오나늘’과 같이 선어말어미 ‘-나-’가 쓰였다. 그러나 다른 용언의 활용형에 영향을 받아 근대국어 시기에 ‘오거든, 오거늘’로 바뀌었다. 이처럼, 유추는 불규칙 형태를 규칙화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차용은 다른 나라 언어에서 단어, 형태소, 문자나 개별적 표현 따위를 빌려 쓰는 작용으로 어휘 차원의 차용이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 고대국어의 상고한어 차용, 중세국어의 몽고어 차용, 현대국어의 서구어 차용 등이 있다. 외래어가 언어 체계에 들어오며 음운 체계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데 외래어의 차용으로 뼈 두음법칙의 예외가 생긴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음운 변화, 유추, 차용은 언어 변화를 설명하는 세 가지 전통적인 기본 틀로 여겨진다.

1.4 국어사 연구의 과제와 의의

국어사 연구는 단순히 과거의 언어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궁극적 목적은 국어의 변화 원리를 밝히고, 이를 통해 국어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 언어가 어떻게 민족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는지를 해명하는 데 있다. 국어사는 국어학의 기초이자 핵심 분야로서, 음운론·형태론·통사론 등 각 영역의 공시적 연구를 통시적 관점으로 확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1.5 국어사의 시대 구분

1928년에 G. J. Ramstedt⁷⁾가 한국어를 알타이어족에 포함시킨 이래로 Ramstedt와 그의 제자 Nicholas Poppe를 비롯하여 John C. Street와 이기문 등의 초기 한국어 연구자들은 한국어를 알타이어족에 포함하여 논지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때, 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한국어의 조상 언어가 알타이어족에서 분화된 이후를 분류하는 것이다. 언어사의 시대 구분은 꼭 역사적인 시대 구분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대표적으로 ‘근대국어’가 나타내는 ‘근대’는 국사학계에서 정의하는 ‘근대’와 시작 시기가 다르다.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결정하는 기준은 언어 내적인 변화와 언어 외적인 변화가 고려되는데 여기서는 현행 교과서의 서술대로 둘을 굳이 나누지 않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교과서의 서술에 따르면 고대국어는 한국인의 조상이 한반도에 내려온 시기부터 고려 건국 전 시대까지의 언어를 의미한다. 즉 1000년도 넘는 시기를 포함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언어 연구가 가능한 시기는 어느 정도 자료가 남아 있는 5세기 전후 즉 삼국시대부터이다. 고려 건국이 된 10세기부터 중세국어로 분류되며 이때 14세기를 기준으로 중세국어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된다.⁸⁾ 이는 14세기에 그 음운체계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고대국어에 좀 더 가까운 시대 즉 10세기~14세기를 전기 중세 국어로⁹⁾,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국어의 전면적 표기가 가능해진 15세기~16세기를 후기 중세 국어로 나눈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경계는 16세기~17세기의 교체기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기와 겹친다. 근대국어와 현대국어의 경계는 대체로 개화기로 보며 갑오개혁과 시기가 겹치는 19세기 말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민현식 외 (2019: 210)



이삼형 외 (2019: 221)

7) 한국어와 알타이어족 간의 친연성은 엄밀히는 Поливанов(Polivanov)가 1927년에 최초로 제시하였으나, Ramstedt의 연구로부터 한국어 계통론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흔히 Ramstedt가 한국어-알타이어족 연구의 창시자이자 선구자로 여겨진다.

8) 학계에서는 다른 시기 역시 전기와 후기로 나누기도 하나 학교문법에서는 이기문 교수를 따라 오로지 중세국어만이 시대가 구체적으로 양분된다. 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비판점이 있다. 장윤희(2019)가 참고된다.

9) 전기 중세 국어를 고대국어에서 다루는 이유는 전기 중세 국어 단원에서 언급하였다.

제2 장 고대 국어

‘고대 국어’는 우리말의 기원을 탐색할 수 있는 고대 시기의 국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10세기 고려 건국 이전까지, 곧 통일신라(≈후삼국 시대)까지의 언어를 포함한다. 이 시기는 우리말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극히 적은 데다 우리말을 직접 표기할 고유의 문자도 없었기 때문에 차자표기(借字表記)를 통해 남아 있는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 고대 국어 연구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완전한 복원이 어렵지만, 중세 국어의 기반을 형성한 시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고대 국어 자료에는 향가를 비롯한 향찰(鄉札) 표기 자료, 삼국시대의 비문이나 목간, 『삼국사기』의 고지명이나 관등명, 『일본서기』 등에 남은 어휘 기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당시 우리말의 음운 체계와 문법적 특징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한 연구가 얼마나 “실증”되는가 즉 그 “재구 체계를 신뢰할 수 있는가”는 이견이 분분하겠지만 고대 국어는 국어사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중세국어 이전의 언어 변천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라 할 수 있다.

2.1. 국어의 계통

국어사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언어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조상 언어로부터의 분화와 그로 인한 독자적인 발달 그리고 주변 언어와의 접촉 속에서 발전하고 변화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국어의 계통을 밝히는 일은 단순히 ‘언어의 친족 관계’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한민족의 역사적 이동과 문화적 교류의 흔적을 추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국어의 계통에 대한 연구는 대략 19세기 말부터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어는 주변 언어들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어떤 학자는 국어를 ‘알타이어족(Altaic) 언어’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일본어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한일조어’¹⁰⁾를 가정하기도 하며, 근거가 부족해 계통을 밝힐 수 없는 ‘계통론적 고립어’로 보기도 한다.

언어의 계통을 논할 때 사용되는 ‘어족’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어족(語族)’이란, 하나의 공통된 조상 언어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여겨지는 언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현대의 관점에서 같은 어족에 속하더라도 각각의 언어는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화된 결과일 뿐이다. 하나의 조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세대를 거치며 각기 다른 모습을 갖게 되지만, 결국 그 뿐리는 같다. 언어학에서 특정 언어가 같은 어족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몇 단어가 비슷하다는 인상을 넘어, 비교언어학이라는 엄밀한 방법론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이 방법은 기초 어휘(신체, 숫자, 친족 등), 문법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음운 대응 관계’를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같은 기원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족의 개념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조어(祖語)’ 즉 ‘조상 언어’이다. 조어는 대부분 문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오늘날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가설적이고 재구된 언어이다. 학자들은 비교언어학적 방법을 통해 후손 언어들에 남은 공통된 흔적들을 역추적하여 조어의 모습을 복원한다. 예를 들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수많은 언어들이 ‘인도유럽어족’이라는 거대한 어족을 형성하는데, 이들의 조어인 ‘인도유럽조어’는 후손 언어들의 통시적인 비교를 통해 재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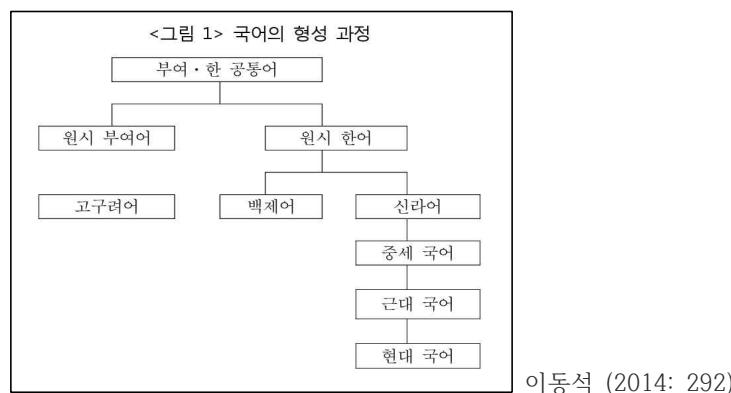
국내 학계의 전통적인 통설은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국어를

10) 한국어와 일본어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조상 언어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어가 튀르크어, 몽골어, 통구스어 등과 함께 ‘알타이조어(Proto-Altaic)’라는 공통의 조상 언어에서 분화되었다는 가설을 의미한다. 20세기 초중반에는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으며 그러한 국어학계의 견해를 수용하여 교과서도 한국어의 어족은 알타이어족이라는 서술을 실은 적이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후반에 알타이어족의 근거가 사실 대부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언어들 사이에 규칙적인 음운 대응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알타이어족 의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해외 학계에서는 알타이어족은 실질적으로 부정되기에 이르렀으며, 국내 학계에서도 신중론 또는 부정론으로 돌아선 학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이 고려되어 교과서의 서술도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에서 ‘한국어의 어족은 확실치 않지만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의 언어학계를 볼 때 일반적으로 알타이어족 자체가 크게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¹¹⁾ 한국어의 계통을 논함에 있어 “알타이어족이 유력하다”라고 하기에는 애초에 무리가 있다. 알타이어족 자체가 가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타이어족은 단순히 하나의 후보군일 뿐이지, 유력한 후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즉 한국어는 계통론적 고립어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처사이다.

그러나, 교과서는 그 특성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현행 5종 교과서 중 4종이 여전히 한국어를 알타이어족으로 보거나 혹은 그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2022 개정 지학사『화법과 언어』의 교사를 위한 문법 지도서의 ‘확인 문제’에선 “①국어의 계통은 알타이어족설이 가장 유력하다.”가 적절한 선지로 되어 있기도 하다. 즉 여전히 학교문법 체계에서의 정설은 알타이어족이다. 또한, 전통적인 국내 학계의 의견을 따르자면 알타이어족에서 분화된 원시국어가 한반도 북쪽의 원시부여어와 남쪽의 원시 한어로 나뉘고, 다시 원시 부여어는 고구려어로, 원시 한어는 백제어¹²⁾와 신라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며 한계 언어인 신라어가 고려의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우리말의 조상은 신라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견해 차가 큰 이론이므로 교과서에 한정하면 몰라도 교과서를 넘어선 수준에서도 이러한 설명이 사실이라고 믿어선 안 될 것이다. 한국어의 계통론은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다. 전행 교과서인 이남호 외(2012:104)¹³⁾에서는 “알타이 어족설은 기초 어휘의 일치 및 음운 대응의 규칙성을 보여 주지 못한다”라고 덧붙였음을 생각하면 현행 및 차기 교과서의 서술은 자못 아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된다.



11) 알타이어족의 비판점은 Clauson, Doerfer, George, Vovin의 논의가 참고된다. 왜 대다수의 학자들이 알타이어족을 부정하는지는 Campbell & Poser(2008)의 Chapter 7과 Chapter 9이 참고되며 대략적인 알타이어족 연구사는 김주원(2008)이 참고된다.

12) 국내에서 백제어는 부여계로 보기도, 한계로 보기도 하며 그 두 언어층이 모두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13) 이동석(2014:292)에서 재인용. 이남호 외(2012)는 『독서와 문법 Ⅱ』(비상)을 말한다.

2.2 전기 중세국어

고대국어라는 단원명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의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어의 초기 모습을 다루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전기 중세국어 자료까지 포함하여 고대국어를 논의하도록 한다. 이는 교육적 효율성과 학계의 연구 관행을 함께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고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계에서는 전기 중세국어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사의 시기를 고대·중세·근대로 구분하면서도, 실제 중세국어 단원은 주로 15세기 이후의 한글 자료, 즉 후기 중세국어에만 집중된다. 이 때문에 전기 중세국어를 중세 단원 내에서 충분히 다루기 어렵고, 고대국어 단원에서 차자표기 자료와 함께 다루는 것이 교육 측면에서 현실적이다. 고교 과정의 “중세국어” 단원은 “후기 중세국어” 단원이라고 봄이 적절하다.

둘째, 학계의 연구 전통 또한 고대국어와 전기 중세국어를 한 축으로 묶어 기술하는 방식이 널리 퍼져 있다. 석독구결을 비롯한 다양한 차자표기 문헌이 발굴된 이후, 이 자료들이 문법적으로 향가나 이두와 더 가까운 성격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은 고대국어와 전기 중세국어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다루며, ‘차자표기 국어’라는 공통된 자료적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국립국어원의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 국어)』(1998)에도 반영되었다. 이는 학계의 연구뿐 아니라 교과서 체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전은주 외(2025:214)에선 고대국어 구결의 예시로 『합부금광명경』(1250) 권3:14의 “衆生 發菩提心”¹⁴⁾을 제시하였고, 이관규 외(2025:211)에선 이두와 구결의 예시로 각각 『대명률직해』(1395)와 『구역인왕경』(12세기)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많은 이두 및 구결 자료가 고려 시대 즉 전기 중세국어 시기에 발간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을 제외할 시 고대국어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차자 표기 자료가 매우 적어진다.

셋째, 한글 창제가 국어사의 시기 구분에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한글 창제가 곧바로 언어 구조의 변화를 초래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의 성격 변화가 연구 방법론을 완전히 달리 만들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한글 자료는 표기 방식이 안정적이고 음운 정보가 정교하게 반영되는 반면, 차자표기 자료는 한자의 제약 속에서 한국어의 음운·문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성상 해독·해석 과정에서 고도의 재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자료 성격의 변화가 연구의 접근 방식까지 분화시키고 있으므로, 교육에서도 두 자료를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황선엽(2013)의 제안대로 차자표기 자료의 시대로서 고대국어와 전기 중세국어를 하나의 단원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물론 고대국어라는 시대 구분은 유지하되 교육과 자료의 이점을 위해 전기 중세국어도 고대국어 단원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때, 14세기의 음독구결은 후기 중세국어의 성격과 가깝고 13세기까지의 석독구결은 후기 중세국어와는 다른 요소를 많이 포함하므로 전기 중세국어 자료에서 다룰 자료는 13세기의 자료까지로 한정하도록 한다.

이제, 앞으로의 단원들을 읽을 텐데 다 배우고 나면 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가 국어사에서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되는지 자연스레 이해될 것이다. 조잡하고 불완전한 차자표기만을 근거로 고대국어의 모습을 복원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히도 난해한 작업이다.

14) 전은주 외(2025)에서 “衆生 發菩提心”的 출처를 제시하진 않았으나 이는 『합부금광명경』 권3:14의 24행에 쓰인 “無量衆生 發菩提心[量 無 1 衆生 1 菩提心 2 發 3 4 5 6 7 8 9 10]”와 일치한다.

2.3 자료와 표기법

고대국어 연구는 본질적으로 제한된 자료와 불완전한 표기 체계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이 시기는 한글 창제 이전이므로, 모든 기록이 한자라는 외래 문자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자는 본래 한국어의 음운 구조와 문법 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대 한국어의 발음과 문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 없었다. 특히 소리를 빌려 쓰는 음차 표기의 경우에도, 그 한자가 고대 중국에서 어떤 발음(재구음)을 지녔으며 그것이 한국어 화자에게 어떤 소리로 인식되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만 대응 관계를 밝힐 수 있어 분석이 매우 복잡하다. 더구나 현존하는 자료의 양 역시 현저히 적어, 남아 있는 이두·향찰·구결 문헌의 일부 구절을 바탕으로 전체 체계를 추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고대국어의 음운·형태·통사 구조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연구는 필연적으로 간접적 추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체계적으로 비교·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자료들은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의 한국어 모습을 담고 있는 만큼, 한자 차용 방식과 표기 원리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고대국어의 구조, 그리고 중세국어로 이어지는 변천 과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국어사의 자료는 크게 한국어 화자가 직접 적은 국내 자료와 외국인이 적은 국외 자료로 나눌 수 있는데 현존하는 고대국어 국외 자료는 전무하다시피 하므로 국내 자료를 위주로 알아볼 것이다.

고대 국어 시기에는 고유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입으로는 우리말을 사용하면서도 기록은 한문으로 하는 언문이치(言文二致)의 생활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말을 직접 한문으로 번역하여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우리말을 항상 한문으로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결국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해 낼 방법을 찾아내었는데 이것이 바로 ‘차자 표기’이다. 차자 표기란 타국의 글자를 빌려서 자국의 언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 조상이 선택한 타국의 글자는 바로 한자인데, 차자 표기의 원리는 크게 음독자, 음가자, 훈독자, 훈가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 알다시피 한자는 문자 자체가 뜻을 나타내기에 외국인 입장에선 한자의 음과 뜻 두 가지를 모두 배워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天’이란 한자를 보고 [천]이란 소리와 ‘하늘’이라는 뜻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소리를 빌리면 ‘음차’라 하고 뜻을 빌리면 ‘훈차’라고 한다. 음차에서 소리를 빌리면서 뜻도 살리면 ‘음독’이라고 하고, 소리만 빌리고 한자의 의미를 무시하면 ‘음가’라고 한다. 훈차에선 해당 한자에 부합하게 뜻을 빌리면 ‘훈독’, 뜻을 빌리되 본래의 한자 뜻과는 별 상관없는 방향으로 읽으면 ‘훈가’라고 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쓴 한자는 ‘자(字)’를 붙여 음차자, 훈차자 등으로 부른다. ‘春’으로 예를 들자면, 음독자는 ‘春’이라 쓰고 [spring]이라는 뜻을 가진 [춘]으로 읽는 것이고, 음가자는 ‘삼춘(삼촌)’을 소리나는 대로 ‘三春’과 같이 써 [춘]으로 읽는 것이며, 훈독자는 [spring]이라는 뜻을 가진 [봄]으로 읽는 것이고, 훈가자는 ‘春’이라 쓰고 [see]라는 뜻을 가진 [봄(보--ㅁ)]으로 읽는 것이다.¹⁵⁾ 이를 독가(讀假)의 원리라 한다. 그리고, 문장을 어떻게 옮겼는지에 따라서 차자표기는 이두, 향찰, 구결로 분류되며 이외의 차자 표기로 어휘 표기(고유명사 표기)도 있다¹⁶⁾

15) 현행 교과서는 ‘독가(讀假)’의 원리를 언급하지 않아 한자의 음을 읽는 ‘음독’과 한자의 뜻을 읽는 ‘훈독(석독)’만 제시한다. 그러나 독가의 원리는 무척 효율적인 체계이므로 여기서는 이를 따른다. 자세한 것은 이 글이 참고되며 성우철(2020), 김유범(2019) 등에서도 교과서에 독가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16) 이두, 구결은 표기 체계를 말하기도, 그 표기 체계의 문자를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일관성을 위해 표기 체계만을 뜻하는 단어로 쓸 것이다.

2.3.1 이두¹⁷⁾

이두는 한문 문장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고 조사나 어미도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문의 어순을 재배열하였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 표기를 빼도 온전한 한문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밥을 먹다’를 뜻하는 한문 ‘食飯(식반)’이 있다고 하자. 이를 이두식으로 바꾼다면 우리말의 어순은 SVO(주어-서술어-목적어)가 아니라 SOV(주어-목적어-서술어)이므로 ‘食’과 ‘飯’을 뒤집어야 하고, 목적격 조사도 필요하니 ‘을’을 나타내는 ‘乙’을 추가하게 된다. 즉 ‘飯乙食’과 같은 표기가 이두식 표기인 것이다. 여기서 ‘乙’을 빼더라도 온전한 한문이 되지 않는다. 실제 용례를 보자.

ㄱ. 임신서기석(522)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부터 삼 년 이후에 충도를 지녀 과실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일 이 일을 어기면 하늘에 큰 죄를 얻을 것이라고 맹세한다)

ㄴ. 갈항사석탑기(758)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 立在之 姊姊妹 三人 業以 成在之
(두 탑은 천보 17년 무술년에 세웠다. 남자매 세 사람이 업으로 세웠다.)

ㄷ. 대명률직해(1395)

凡男女定婚之初良中 萬一殘疾老弱及妾妻子息收養子息等乙 兩邊弋只 仔細相知爲良只
(무릇 남녀가 정혼할 즈음에 만일 병이 있는 노약자 및 청의 자식이거나 수양 자식들을 양쪽으로 자세히 서로 알도록 하여)

5세기경부터¹⁸⁾ 7세기까지를 초기 이두라 한다. 이 시기에는 ‘中, 節, 之’ 등 몇 안 되는 형식 형태소만이 보이거나¹⁹⁾, (ㄱ)처럼 우리말 형식 형태소는 나타나지 않지만,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 ‘大罪得’ 등과 같이 문장 자체가 우리말 어순으로 된 표기가 보인다. 만약 이들이 한문이라면 ‘誓天前’, ‘自今三年以後’, ‘執持忠道’ ‘誓無過失’, ‘得大罪’ 등과 같이 표기되어야 한다. 설총이 이두의 창시자라는 말이 있지만 창시자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표기를 정리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두는 대략 5~6세기에 시작되었다고 추정되며 때문이다.

8세기부터는 (ㄴ)과 같이 부사격조사 ‘에’를 나타내는 ‘中’, ‘으로’를 나타내는 ‘以’ 등의 형식 형태소가 본격적으로 표기되었고, 동사나 부사와 같은 실질 형태소도 일부지만 차자 표기를 하기도 하였다. ‘및’이라는 부사를 ‘及’으로 쓰는 것이 그 예이다. 이두는 고려 시대에 널리 쓰였으며 (ㄷ)과 같이 조선 초기부터는 완전히 정형화된 체계를 갖추게 된다. 주로 하급 관리들의 행정 문서 기록에 이용되었고 조선 후기까지 쓰였다.

이제 어휘 및 문법 단원에서 다룬 이두 자료를 소개할 것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늦어도 13세기의 자료까지만 다루기로 하였으므로 14세기에 작성된 자료는 제외하였다.²⁰⁾

17) 이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는 서종학(2011)과 김영욱(2011)이 참고된다.

18) 기존 견해에서는 중원고구려비, 광개토대왕릉비 등의 5세기 비문(碑文)을 이두 자료로 보았으나 김병준 (2009)을 시작으로 이를 부정하는 연구가 여럿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엄밀히는 현존하는 자료만 따질 시 6세기 자료부터 확실한 이두가 쓰였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19) 다만 7세기 이전의 형식 형태소 표기가 국어의 요소가 아니고 한문의 요소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 阿彌陀如來造像記 = 慶州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720)
- 華嚴經寫經 =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755)
- 慈寂碑陰 = 慈寂禪師凌雲塔碑碑陰(941)
- 校里磨崖石佛(977)
- 无垢淨光塔 =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1024)
- 淨兜寺形止記 =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1031)
- 尙書都官貼(1262)
- 松廣寺奴婢文書(1281)

2.3.2 향찰

향찰은 한국어를 차자로 가장 완전히 기록할 수 있던 표기법으로 평가받으며, 우리말 어순과 한문 어순이 섞여 있는 이두와 달리 향찰은 우리말 구조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신라 고유의 시가였던 향가를 위한 전용 표기법이었기에 향가의 유행이 끝나가는 고려 말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음독이 기본인 이두와는 달리 실질 형태소는 훈독, 형식 형태소는 음독하는 식으로 쓰였다.²¹⁾

원문(처용가)	해독(중세국어)	현대어역
東京明期月良	東京 불기 드라라	동경 밝은 달에
夜入伊遊行如可	밤 드리 노니다가	밤 들도록 노니다가
入良沙寢矣見昆	드러사 자리 보곤	들어 자리를 보니
脚鳥伊四是良羅	가로리 네히러라	다리가 넷이러라
二脇隱吾下於叱古	두블른 내해엇고	둘은 내 해였고
二脇隱誰支下焉古	두블른 누기핸고	둘은 누구 해인고
本矣吾下是如馬於隱	본디 내해다마른 눈	본디 내 해다마는
奪叱良乙何如為理古	아사늘 엇디흐릿고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

ㄱ. 明(불- = 밝-), 月(드랄 = 달), 夜(밤), 入(들-), 遊(놀-), 行(나-), 寢矣(자리 = 자리), 見(보-), 脚鳥(가를 = 다리), 四(넷 = 넷), 二脇(두블 = 둘), 吾(나/내), 下(하 = 해(것)), 誰支(누기 = 누구), 奪叱(앗-), 等
ㄴ. 期(-기), 良(아 = 애), 伊(-이), 如可(-다가), 沙(아 = 야), 昆(-곤), 伊(이), 是(이-), 良(-어-), 羅(-라), 隱(은 / 은), 등

(ㄱ)은 실질 형태소, (ㄴ)은 형식 형태소인데 보이다시피 실질 형태소는 훈차, 형식 형태소는 음차가 기본이었다. 이처럼 앞부분을 훈으로, 뒷부분을 음으로 읽는 것을 훈주음종의 원리라고 한다. 다만 이중 ‘是’와 ‘如’는 음차가 아닌 훈차이고 그중에서도 훈가인 경우로 이들은 형식형태소임에도 음차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로 다룰 수 있다.²²⁾

2행에서 한자를 어떻게 썼는지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 이두 자료의 목록은 국립국어원(1998)에 실린 남풍현(1998)을 참고 바람.

21) 향가의 해독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현행 및 차기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김완진의 해독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서는 박지용 외(2012)에 실린 김완진(1980)의 해독을 제시하도록 한다.

22) 사실 엄밀히 실질 형태소는 독, 형식 형태소는 가의 원리로 쓰였다고(讀主假從)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김지오·이용(2024:15-16)).

표기	夜	入	伊	遊	行	如	可
뜻	밤	들	저	놀	닐(갈)	다(같을)	옳을
음	야	입	이	유	행	여	가

‘夜’는 뜻(훈)으로 읽으며 맥락상 ‘밤’을 뜻하는 것이 맞으므로 훈독자이며, ‘入’과 ‘遊’, ‘行’ 모두 마찬가지로 훈독자이다. ‘伊’는 ‘이’라는 소리를 나타내는 데 쓰였으므로 음차자인데 ‘저’라는 뜻과 상관없이 읽으므로 음가자이다. ‘可’ 역시 음가자이다. 반면에 ‘如’는 소리는 ‘여’인데 ‘다’를 나타내므로 음으로 읽는 것이 아닌 훈으로 읽는 것이다. 그렇다면 훈차자인데 그중에서도 ‘如’의 뜻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훈가자이다. 이처럼 기본적인 원칙은 훈주음종인 것이 확인된다.

향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말음첨기’²³⁾가 있다. ‘말음첨기’란 우리말을 훈차로 적을 때 뒤에 음차자를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말음’은 종성이 될 수도, 하나의 음절이 될 수도 있다. 가령 위 처용가의 ‘奪叱(앗-)'을 보면 ‘奪(빼앗을 탈)’을 훈차로 쓰고 그 뒤에 ‘叱’을 썼는데 ‘叱’은 종성 ‘ㅅ’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이다. 비슷한 예로 「혜성가」의 ‘城叱(잣)’과 「모죽지랑가」의 ‘夜音(밤)’이 있는데 이들 모두 종성 말음 첨기의 예로, 훈차자인 ‘城(재 성)’과 ‘夜(밤 야)’ 뒤에 음차자 ‘叱’과 ‘音(소리 음)’을 덧붙여 ‘ㅅ’과 ‘ㅁ’을 나타냈다. 또한, 음절을 덧붙인 예로 현화가의 ‘岩乎(바회)’와 원가의 ‘世理(누리)’가 있다. 훈차자인 ‘岩(바위 암)’과 ‘世(세상 세)’ 뒤에 음차자 ‘乎(어조사 호)’와 ‘理(다스릴 리)’를 덧붙여 ‘회’와 ‘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말음첨기는 훈차자만 쓸 경우 그것을 한자의 훈으로 읽어야 할지 한자의 음으로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독법을 분명히 하고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말음첨기는 향찰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의 다른 차자 표기에도 널리 수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구결에도 자주 쓰인다. 향찰에서 주로 쓰인 말음첨기자는 아래와 같다.

- ㄱ: 只 (唯只=오직)
- ㄴ: 隱 (一等隱=호 든=하나)
- ㄹ: 尸 (二尸=두 불=둘)
- ㅁ: 音 (雲音=구름=구름)
- ㅅ: 叱 (汀叱=곳=가)

다른 대표적인 향가의 해독도 제시할 테니 한번 분석해 보자. 분석이 어렵다면 고대국어 문법을 배우고 오자. 편의를 위해 김완진(1980)의 중세국어 해독과 동일한 단위로 원문을 띄어 썼다.

원문(모죽지랑가)	해독(중세국어)	현대어역
去隱 春 皆理米 ²⁴⁾	간 봄 몯 오리매	지나간 봄 돌아오지 못하니
毛冬 居叱沙 哭屋尸 以 蒼音	모듈 기쓰샤 우를 이 시름	살아 계시지 못하여 우울 이 시름
阿冬音乃叱 ²⁵⁾ 好支賜烏隱	모둠곳 불기시온	殿閣을 밝히오신
兒史 年 數就音 壮支行齊	즈시 히 혜나삼 헐니쳐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헐어 가도다
目煙 廻於尸 七史 伊衣 ²⁶⁾	누늬 도랄 업시 데웃	눈의 돌음 없이 저를
逢烏支 惡知 作乎下是 ²⁷⁾	맛보기 엇디 일오아리	만나보기 어찌 이루리
郎也 慕理尸 心未 行乎尸 道尸	郎이여 그릴 모 수미 쯔 녀을 길	郎 그리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
蓬次叱 巷中 宿尸 夜音 有叱下是	다보짓 굴형히 잘 밤 이샤리	다복 굴형에서 잘 밤 있으리

23) 훈주음종이나 말음첨기의 정의를 다소 다르게 설명하기도 한다. 관련해서 김지오·이용(2024)이 참고된다.

원문(현화가)	해독(중세국어)	현대어역
紫布 岩乎 过希	지뵈 바회 ㅋ새	자줏빛 바위 가에
執音乎 手 ²⁸⁾ 母牛 放教遣	자부문 손 암쇼 노하하시고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吾貽 ²⁹⁾ 不喻 懈貽伊賜等	나를 안디 봇그리샤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花貽 折叱可 獻乎理音如 ³⁰⁾	고줄 것거 바도림다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원문(찬기파랑가)	해독(중세국어)	현대어역
咽嗚爾 處米 ³¹⁾	늦겨곰 브라매	흐느끼며 바라보매
露曉 邪隱 ³²⁾ 月羅理 ³³⁾	이슬 불간 드라리	이슬 밝힌 달이
白 雲音 逐于 浮去隱 安支下	흰 구름 조초 떠간 언저레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沙是 ³⁴⁾ 八陵隱 汀理也中	몰이 가룬 물서리여히	모래 가쁜 물가에
耆郎矣 良史是史 蔽邪	耆郎이 즈诋올시 수프리야	耆郎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逸烏川理叱 ³⁵⁾ 罪惡希	逸烏나릿 지벼그	逸烏내 자갈 별에서
郎也 持以支如賜烏隱	郎이여 디니더시온	郎이 지니시던
心未 際叱貽 逐內良齊	무수미 ㅋ술 쪽누라져	마음의 갓을 쪽고 있노라
阿耶 柏史叱次 高支好	아야 자식가지 노포	아아, 잣 나무 가지가 높아
雪是 ³⁶⁾ 毛冬 乃乎尸 花判也	누니 모듈 두풀 곳가리여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원문(서동요)	해독(중세국어)	현대어역
善化公主主隱 ³⁷⁾	善化公主니리믄	善化公主님은
他 密只 嫁良 置古	님 그속 어려 두고	남 몰래 짹 맞추어 두고
薯童 房乙 ³⁸⁾	薯童 방울	薯童 방울
夜矣 卯乙 ³⁹⁾ 抱遣 去如	바매 알흘 안고 가다	밤에 알을 안고 간다.

- 24) 대부분 皆를 어간의 일부(양주동은 '그리워하-'로 파악하나, 김완진(1980)은 '몬 오-'의 의미로 본다.)
- 25) 대부분 阿冬音을 음차(아룸, 아둠, 아드룸 등)로 보나 김완진(1980)은 殿閣으로 본다. 김완진(1985)에서는 다시 수정을 가하긴 했으나 위들 해독과 다르다. 김완진의 해독의 문제점은 김유범(1998)이 참고된다.
- 26) 어떻게 끊어 읽을지 이견이 있으며 김완진(1980)은 七을 无의 잘못(轉訛)으로 봐 '없-'으로 해독한다.
- 27) 作은 '일오-'로 보는 견해와 '짓-'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 28) '암소를 잡고 있는 손'이라는 뜻이다.
- 29) 貄를 '률/률'로 읽을지 '흘/흘'로 읽을지는 이견이 있으나 대부분 '흘/흘'로 읽는다.
- 30) 理音如는 '리이다'로 읽기도 했으나 석독구결 연구가 충분히 된 현재에는 '림다'로 읽는 것으로 굳어졌다.
- 31) 대부분 咽嗚爾處米를 전체로 보고 '열치매(열어 젖히매)' 정도로 해독하나, 김완진은 5글자 전체를 음독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여 咽嗚爾/處米로 끊어 읽는다. 관련해서 서정목(2014)이 참고된다.
- 32) 대부분 露를 '드러나다, 나타나다'로 훈독하지만 김완진은 '이슬'로 훈독한다. 邪隱 역시 露曉邪隱으로 볼 지, 露曉/邪隱으로 볼지 또 邪의 의미는 무엇으로 볼지에 따라 학자마다 해독이 다르다.
- 33) 羅를 종성 말음첨기로 보아 '돌이'로 보기도, 하나의 음절을 담당한다고 보아 '드랄이'로 보기도 한다.
- 34) 沙를 음독하면 접두사 '새-'로 보아 '새파란'으로 해독한다. 훈독할 경우 '모래'로 본다.
- 35) 대부분 逸烏를 고유명사로 보아 '내'의 이름으로 보나, 음독하여 해석하기도 한다(양주동은 '이로부터')
- 36) 雪是를 훈독하여 '눈이'로 보는 견해와, 음독하여 '서리'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양주동은 후자)
- 37) 主隱을 '님은'으로 보는 것은 이견이 없고 모음조화 등의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대부분 중세국어는 '니믄/니문'으로 보지만 김완진은 『일본서기』의 표기를 바탕으로 '님'의 옛 형태 '*니림'을 재구하였다.
- 38) 房乙을 목적어로 보느냐 부사어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다. 김완진은 의미상 부사어로 본다.
- 39) 卯를 卯로 보느냐 卯로 보느냐, 또 그것이 목적어이냐 부사어이냐에 따라 견해가 갈린다. 김완진은 卯乙을 목적어로 보고 '알을'로, 양주동은 부사어로 보고 '몰래'로 해독한다. '무엇을'로 해독하는 학자도 있다. 卯를卯으로 보고 다른 해독을 제시하기도 한다. 근래의 연구는 '卯乙'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박재민(2018:55)).

원문(제망매가)	해독(중세국어)	현대어역
生死 路隱	生死 길흔	生死 길은
此矣 有阿米 次貽伊遣	이에 이샤매 머뭇그리고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吾隱 去內如 辭叱都	나는 가누다 말ㅅ도	나는 간다는 말도
毛如 云遣 去內尼叱古	몰다 니루고 가누닛고	몰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於內 秋察 早隱 風未	어느 ㅋ술 이른 ㅂㄹ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此矣 彼矣 浮良 落尸 葉如	이에 떠에 빤려딜 넙꼰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一等隱 枝良 出古	흐든 가지라 나고	한 가지에 나고
去奴隱 處 毛冬乎丁	가는 곳 모드론뎌	가는 곳 모르온저
阿也 彌陀刹良 逢乎 吾	아야 彌陀刹아 맛보올 나	아아 彌陀刹에서 만날 나
道 修良 待是古如	道 닷가 기드리고다	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현존하는 향가는 크게 세 계열로 나뉜다. 『삼국유사』(1285)에 실린 14수, 『원통양중대사균여전』(1075)에 실린 11수, 『평산신씨장절공유사』에 실린 1120년에 고려 예종이 지은 「悼二將歌(도이장가)」⁴⁰⁾ 1수로 총 26수가 있다. 『원통양중대사균여전』에 실린 향가는 약칭을 따라 ‘균여전 향가’ 또는 ‘균여 향가’라 부르며, 보현보살의 행적과 서원을 노래한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보현십원가’라고도 부른다. 작성 연대만 놓고 보면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가 균여 향가보다 늦게 기록된 것이 사실이나, 두 자료의 언어적 성격은 단순한 연대 비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삼국유사』 향가는 (통일) 신라 시기에 창작된 노래가 고려 시대까지 전승된 것을 고려의 승려 일연이 기록한 것이고, 균여 향가는 고려의 승려 균여가 직접 지은 작품이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의 서술을 볼 때, 서동요나 혜성 가는 6세기에 지어진 매우 이른 시기의 작품이고 안민가나 우적가는 8세기에 지어진 작품이며 쳐용 가는 9세기에 지어진 작품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상적으로는 균여 향가는 고려 시대의 언어를, 『삼국유사』 향가는 (통일)신라 시대의 언어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삼국유사』 향가에는 목적격조사를 나타내는 데 주로 ‘膀’을 사용한 반면 균여 향가는 乙을 사용하는 등 표기 차원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그러나 『삼국유사』 향가가 (통일)신라 시대의 언어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 향가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단어의 형태 또는 차자 표기 방식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삼국유사』 편찬 당시의 고려 시대적 표기 관습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초기 향가 연구에서부터 『삼국유사』 향가에는 (통일)신라 시기의 언어 요소와 고려 시기의 언어 요소가 함께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향가 자료는 고대국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동시에 전승과 기록의 층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자료라는 한계를 지닌다.

또 다른 한계는 대부분의 해독이 중세국어를 기반으로 했다는 사실이다. 고대국어의 음운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부득이하게 해독을 중세국어 어형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향가 역시 여타 차자 표기와 다름없이 오자나 탈각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가령 小倉進平은 일찍이 「칭찬여래가」의 ‘切德’을 ‘功德’의 오자로, 「안민가」의 ‘知右如’는 ‘知古如’의 오자로 보았는데 후대의 학자들에게 모두 인정된다. 이외에도 몇몇 오자가 인정되며 최근에는 「칭찬여래가」의 ‘間王冬留’가 ‘間毛冬留’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이 고대국어 연구의 난점이라 할 수 있다. 아래는 최성규(2016:13-14)에서 정리한 표이다.⁴¹⁾

40) 「悼二將歌」를 향가로 보지 않는 학자도 있으나 대체로 향가로 보므로 여기서도 향가로 본다.

신라 향가		
향가 이름/문헌 (남)	향가 이름/문헌 (북)	연대
서동요(薯童謠)	마보노래 / 서동가	진평왕대 (599년 이전)
혜성가(彗星歌)	살별노래 / 혜성가	진평왕대 (579~631)
풍요(風謠)	오다노래 / 오라가	선덕여왕대 (632~647)
원왕생가(願往生歌)	극락노래(원왕생가) / 달하가	문무왕대 (661~681)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다마리화랑노래 / 죽지랑가	효소왕대 (692~702)
헌화가(獻花歌)	꽃노래(헌화가) / 꽃을가	성덕왕대 (702~737)
원가(怨歌)	잣나무노래(궁정백수)가 / 잣나무가	효성왕 원년 (737)
제망매가(祭亡妹歌)	누이노래(제망매가) / 누이제가	경덕왕대 (742~765)
도솔가(兜率歌)	두레노래 / 도솔가	경덕왕 9년 (760)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기바화랑노래 / 기파랑가	경덕왕대 (742~765)
안민가(安民歌)	백성노래(안민가) / 백성가	경덕왕대 (742~765)
도천수대비가(禱千手大悲歌)	관음부처노래(천수관음가) / 관음가	경덕왕대 (742~765)
우적가(遇賊歌)	영재노래(영재우적가) / 도적가	원성왕대 (785~798)
처용가(處容歌)	제옹노래 / 처용가	현강왕 5년 (879)
『삼국유사』		1281년 저술 1310년대 간행 1512년 중간(重刊)

고려 향가		
향가 이름/문헌 (남)	향가 이름/문헌 (북)	연대
예경제불가(禮敬諸佛歌)	부처노래 / 부처가	967년 이전
칭찬여래가(稱讚如來歌)	여래노래 / 여래가	"
광수공양가(廣修供養歌)	공양노래 / 공양가	"
참회업장가(懺悔業障歌)	뉘우침노래 / 참회가	"
수희공덕가(隨喜功德歌)	공덕노래 / 공덕가	"
청전법륜가(請轉法輪歌)	법륜노래(부처바퀴노래) / 법륜가	"
청불주세가(請佛住世歌)	누리노래 / 누리가(제불왕세가)	"
상수불학가(常隨佛學歌)	고난의 노래 / 고행가(상수불학가)	"
항순증생가(恒順衆生歌)	증생노래(항순증생가) / 증생가	"
보개회향가(普皆廻向歌)	돌아갈 노래(보개회향가) / 회향가	"
총결무진가(總結無盡歌)	마무리노래(총결무진가) / 총결가	"
『균여전』		967년 이전 창작 1076년 기록 1251년 판각
도이장가(悼二將歌)	두 장수 노래	1120년
『장절공유사』		필사 연대 미상

41) '남'은 우리나라 학계를, '북'은 북한 학계를 의미한다.

2.3.3 구결⁴²⁾

구결은 한문의 어순대로 쓰되 한문의 문맥을 파악하기 쉽도록 필요할 때만 우리말의 형식 형태소 즉 조사나 어미 등을 첨가한 표기법이다. 구결은 기본적으로 어순을 바꾸지 않고 한문 문장 사이에 형식 형태소만 추가한 것이므로 형식형태소를 제외하면 한문이 된다. 구결은 하나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분류되며, 서로 다른 분류 기준으로 체계를 이루며 크게 기입 도구, 표기된 문자, 읽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문자 기호의 기입 방식에 따라 붓과 먹을 이용한 묵서 구결과 뾰족한 도구를 이용한 각필 구결로 나뉜다. 다음으로, 기입된 문자 기호에 따라 구결은 한자의 획을 간략히 하거나 본자를 빌려 쓴 자토(字吐) 구결(차자구결)과 글자 대신 점이나 선 등의 부호를 찍어 문법 정보를 나타낸 점토(點吐) 구결(부호구결), 그리고 한글을 쓴 한글 구결로 구분된다. 또한, 구결은 읽는 방식에 따라 한문의 순서대로 읽는 음독(音讀) 구결과 순서를 재배열하여 읽는 석독(釋讀) 구결로도 나뉜다. 음독구결은 순독(順讀) 구결로도 부르고, 석독구결은 훈독(訓讀) 구결로도 부른다.

ㄱ. 『훈민정음』

- (1)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
- (2) 國之語音이 異乎中國호야 與文字로 不相流通할씨 故로 愚民이
- (3) 나랏 말쓰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소못디 아니할씨 이런 전초로 어린百姓이

ㄴ. 『동몽선습』(1543)

- (1) 天地之間 萬物之中僅 惟人伊 最貴爲尼 所貴乎人者隱 以其有五倫也羅
- (2) 천지 사이에 있는 만물의 무리 가운데에서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五倫이 있기 때문이다.

ㄷ. 『구역인왕경』(12C)

- (1) 信行具足 復有五道一切衆生 復有他方不可量衆
- (2) 信行乞 具足^フ 復^フ 有^{ヒナフ} 五道^セ 一切^リ 衆生^リ 復^フ 有^{ヒナフ} 他方^セ 不^{ホリヒセ} 可^セ 量^フ 衆^リ
- (3) 信行乞 具足^フ 復^フ 五道^セ 一切^リ 衆生^リ 有^{ヒナフ} 復^フ 他方^セ 量^フ 可^セ 不^{ホリヒセ} 衆^リ 有^{ヒナフ}
- (4) 清信行을 구족하셨으며, 또한 五道의 일체중생이 있으며, 또한 他方의 해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있으며

(ㄱ1)은 『훈민정음』(해례본)의 원문이고, (ㄱ2)와 (ㄱ3)은 언해본이다. 이때 (ㄱ2)와 같이 한문 원문에 한글로 된 구결자를 달면 한글 구결이 된다. (ㄴ1)과 같은 음독구결은 한문을 어순 그대로 읽되 읽기 쉽도록 구절 아래에 문법 요소만을 덧붙여 읽는 구결이다. (ㄷ)과 같은 석독구결은 한문 어순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재배열하여 풀어 읽는 구결이다. 석독 구결은 음독 구결보다 우리말의 형태를 더 많이 보여 주고 있으며 실질 형태소 역시 우리말로 번역하여 읽는다. 예를 들어, 한문 원문 '人'에 구결자 '字'을 써 '人字'과 같이 쓴다면 이는 '人'을 'ㅁ'으로 끝나는 우리말로 읽으라는 뜻이다. 즉 '인'이 아니라 '사람'으로 번역하여 읽는다.

42) 구결은 본래 표기법이 아닌 토씨 즉 조사와 어미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두와 향찰과의 일관성을 위해 '구결'을 표기 체계로, '구결자'를 구결 표기애 쓰인 문자/기호(吐)를 뜻하는 말로 쓰겠다.

(ㄷ1)은 한문 원문, (ㄷ2)는 구결 원문이며 (ㄷ3)은 구결이 지시하는 대로 재배열한 문장이다. 이때 석독구결은 어순을 재배열하여 읽는다는 점에서 음독구결과 다르다. 음독구결은 써져 있는 순서대로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의(天地之間 萬物之中 唯人伊)”와 같이 읽는다. 그러나 석독구결은 (ㄷ2)와 같은 구결 원문이 써진 순서대로 읽지 않고, 우선 위첨자가 있는 것부터 읽다가 역독점(‘·’)이 보이면 거슬러 올라가 아래첨자가 있는 것을 읽는다.⁴³⁾ 예를 들자면,

구결문(약자): 復^복 有^有 五道^{五道} 一切衆生^{一切衆生}

구결문(본자): 復^復 為^隱 有^有 在^在 弥^弥 五道^{五道} 叼^{一切衆生} 是^是

현대국어 번역: 또한 있으며 오도의 일체중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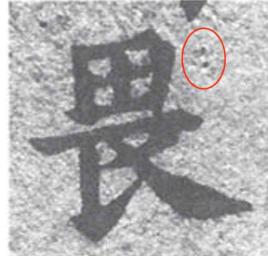
위의 문장은 위첨자부터 읽어 “또한 오도의 일체중생이”가 되고, ‘이(이)’ 뒤에 역독점이 있으니 다시 뒤로 되돌아가 아까 읽지 않은 ‘있으며’를 읽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하면 위 구결문은 “또한 오도의 일체중생이 있으며”로 읽히게 된다. 이때, 구결자는 본래의 한자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이두와 달리 한자의 획을 따거나 기존에 있던 한자를 간략화해서 쓰였다. 간략화한 것을 ‘약자(구결자)’라고 부르고 원래 형태의 한자를 ‘본자’라고 부른다. 위의 구결 원문을 본자로 쓰면 다음과 같다.

석독구결은 한문이 전래됐을 때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진 시대에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음독구결은 고려 말 중국(명)이 동아시아의 패권자의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한문 구사력의 중요성이 커져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독구결은 13세기까지 쓰였고 음독구결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쓰였다. 음독구결은 아직까지도 쓰이는데 바로 논어 등의 한문 경전을 읽을 때다. “學而時習之 不亦悅乎(학이시습지 불역열호)”라는 원문을 읽을 때 “學而時習之面 不亦悅乎牙(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 앙)”라고 읽으면 음독구결이다. ‘面’과 ‘牙’를 덧붙였기 때문이다.

위는 대표적인 구결자를 문자로 쓴 자토구결인데, 점토구결도 알아보자. 점토구결이란 한자 주변에 점/선과 같은 기호를 기입하여 쓴 구결이다. 점토구결은 일본의 오코토점(ヲコト点)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점이 기입된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문자를 나타낸다. 점토구결의 해독은 문헌마다 다르며 그 해독이 매우 복잡하기에 여기선 간단히 그 원리만 설명하도록 한다. 우선 순서대로 『유가사지론』 권5와 주본 『화엄경』 권57, 『유가사지론』 권66이다.



안대현(2020: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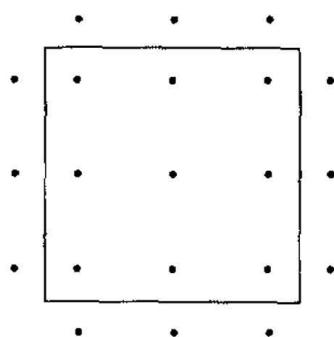
장경준(2009:253)



연합뉴스

43) 위첨자는 실제 문헌에서는 한자 오른쪽에 쓰인 구결자이고, 아래첨자는 실제 문헌에서 한자 왼쪽에 쓰인 구결자이다. 과거에는 세로 쓰기를 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할 수 있던 것이다. 전산화된 구결 자료는 역독점을 고려하여 이미 어순을 한국어순으로 재배열한 것이므로 사진을 보고 분석하는 게 아닌 이상 역독점을 신경 쓸 일은 없다. 여기서도 앞으로 예문을 어순에 맞게 재배열된 문장을 제시할 것이다.

위의 사진들처럼 점이나 선을 한자 주변에 나타냈다. 아래의 왼쪽 사진에 있는 사각형은 한자가 들어가는 곳이고 점은 점 또는 선이 들어가는 위치이다. 이를 '점토'라 한다. 학자들은 각 점에 번호를 부여하여 몇 번 위치에 점/선이 기입되었는지 표기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안대현(2020:119)에서 제시한 번호와 구결 해독은 아래의 오른쪽 사진이다.



11	12	13	14	15	·	·	·	·	·
21	22	23	24	25	·	·	·	·	·
31	32	33	34	35	·	·	·	·	·
41	42	43	44	45	·	·	·	·	·
51	52	53	54	55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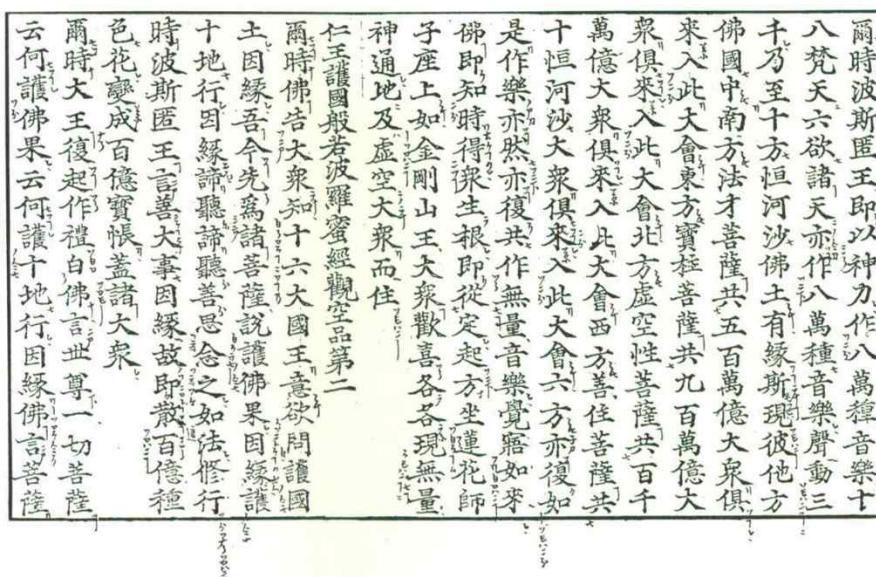
[그림1] 점토의 변별 위치(좌표)

위치(모양)	해독 결과	위치(모양)	해독 결과
12(·)	· [·]	14(·)	· [·]
12(:)	· · [·]	14(:)	· · [·]
12(..)	· · [·]	14(..)	· · [·]
12('·)	· · [·]	14('·)	· · [·]
12()	· · [·]	14()	· · [·]
12(—)	· · — [·]	14(—)	· · — [·]

[표1] 안대현(2008→)에서 제시한 12와 14 위치의 '동형성'

그러나 점토구결은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 표기법 자체도 워낙 복잡하기에 자토구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점토구결을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⁴⁴⁾ 점토구결은 주로 상아나 나무 등의 뾰족한 부분으로 자국을 파 표기되었다. 이와 같이 각필을 사용한 구결은 각필구결이라 한다. 이는 붓으로 쓴 묵서 구결과 구별되는 것으로 표기해 쓰인 재료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이다.

아래는 앞서 설명한 자토석독구결 사진으로 [우리역사넷](#)에서 제공하는 『구역인왕경』 권상의 일부이다.



44) 점토 및 각필구결에 대한 논의는 이승재(2000/2002), 장경준(2008/2009), 안대현(2020), 등이 참고된다.

아래는 장윤희(2004:61-63)에서 제시한 자토석독구결에서 보이는 구결자(약자)를 정리한 표다.⁴⁵⁾

구결자	원자	독음	빈도	화소	화엄	금광	구인	유가
去	去	거	175	26	92	22	8	27
在	在	거	481	152	135	73	46	75
古	古	고	295	89	47	39	42	78
果	果	과/와	290	47	15	27	24	177
尔	尔	곰	358	51	164	0	20	123
尗	尗	곰	55	0	0	55	0	0
這	這	즈	8	0	4	0	4	0
艮	艮	즈/ㄱ	7	0	0	1	0	6
只	只	ㄱ/기	385	77	76	31	43	158
乃	乃	나	39	8	1	7	2	21
奴	奴	노	6	4	0	2	0	0
メ	奴	노	6	1	4	0	1	0
ト	臥	누	85	5	18	33	19	10
ニ	尼	니	5	1	4	0	0	0
飞	飛	느	465	19	340	26	50	30
斤	斤	늘/늘	32	0	1	0	0	31
ㄱ	隱	ㄴ/은/은/는/는	2840	472	701	358	309	1000
多	多	다	700	136	134	85	72	273
支	支	다/히	299	49	113	29	0	108
大	大	대	1	0	0	1	0	0
丁	丁	뎌/영	141	32	12	9	3	85
刀	刀	도	106	30	29	26	18	3
斗	斗	두	93	9	5	1	0	78
地	地	디	1	0	0	1	0	0
矢	知	디	225	44	60	37	24	60
の	入	드/ㅌ	58	0	16	0	42	0
入	入	드/ㅌ	669	108	168	102	0	291
冬	冬	들	67	3	3	29	3	29
ム	矣	더	136	23	46	30	12	25
矣	矣	더	1	0	1	0	0	0

45) ‘거’은 ‘늘/늘’이 아닌 ‘근’으로 읽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황선엽(2003)이 참고된다.

구결자	원자	독음	빈도	화소	화엄	금광	구인	유가
ㆍ	羅	라	56	56	0	0	0	0
𠂊	羅	라	46	6	11	10	0	19
四	羅	라	78	9	10	19	13	27
呂	呂	려/리	4	0	0	4	0	0
…	以	로	9	0	0	0	9	0
…	以	로	432	0	57	95	36	244
𠂊	以	로	70	70	0	0	0	0
个	令	리	393	94	91	35	33	140
牙	利	리	319	0	124	71	18	106
禾	利	리	71	71	0	0	0	0
尸	尸	ㄹ/을/을/률/률	1229	259	343	226	49	352
し	乙	ㄹ/을/을/률/률	2283	307	718	329	129	800
爾	尗	마	27	15	4	4	2	2
彑	彑	며	992	170	242	189	98	293
毛	毛	모	3	0	0	0	3	0
勿	勿	믈	5	5	0	0	0	0
𠮩/立	音	ㅁ	217	42	48	39	18	70
巴	邑	ㅁ	2	0	0	0	2	0
火	火	etrofit/ㅂ	10	1	5	3	1	0
邑	邑	ㅁ?	2	1	0	0	0	1
沙	沙	사/싸	280	44	43	15	28	150
三	三	삼	14	14	0	0	0	0
立	立	셔	147	7	140	0	0	0
彳	彼/徐	셔/뎌	14	3	5	4	2	0
一	三?/-?	삼?/일?	5	0	0	2	0	3
ニ	示	시	199	0	4	76	115	4
𠂊	賜	시	77	44	32	0	0	1
白	白	술	95	4	28	31	23	9
七	叱	ㅅ	1590	338	384	166	217	485
ㄋ	良	아/애	1797	265	518	266	139	609
与	与	?	1	1	0	0	0	0
𠂊	亦	여	443	0	5	191	0	247
𠂊	亦	여	571	247	202	0	122	0
𠂊	良	아	3	0	0	0	3	0
𠂊	乎	오	57	0	0	0	57	0

구결자	원자	독음	빈도	화소	화엄	금광	구인	유가
五	五	오	1	1	0	0	0	0
于	于	우	3	0	0	2	1	0
衣	衣	의/이	329	76	78	33	33	109
是	是	이	1560	328	317	286	187	442
弋	弋	익	2	2	0	0	0	0
印	印	인/?/인?	1	0	1	0	0	0
成	成	일	1	0	0	0	0	1
第	第	데	1	0	0	0	1	0
齊	齊	쳐/제	382	30	45	70	51	186
止	止	텨	25	24	0	0	0	1
之	之	의?/예?	9	2	1	1	4	1
造	造	짓?	1	0	1	0	0	0
下	下	하	157	21	1	35	17	83
乎	乎	호/오	1268	195	178	243	78	574
乎	乎	호/오	343	92	1	0	137	113
兮	兮	히	67	1	4	6	5	51
爲	爲	흐	3220	489	780	486	302	1163
中	中	괴/흐	951	119	259	96	82	395
中	中	괴/흐	1	0	0	1	0	0
子	子?/孫?	?	5	1	0	0	3	1
甲	甲	?	1	1	0	0	0	0

어휘 및 문법 단원에서 다룰 구결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kohico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주로 썼으나 그외의 것도 일부 사용하였다.⁴⁶⁾

자토석독구결

- 화엄 14 = 『화엄경』 권14 (12~13세기)
- 화소 35 = 『화엄경소』 권35 (12세기)
- 자비 = 『자비도량참법』 (13세기)
- 구인 상 = 『구역인왕경』 권상 (13세기)
- 금광 3 = 『합부금광명경』 권3 (13세기)
- 유가 20 = 『유가사지론』 권20 (13세기)

점토석독구결

- 주엄 34 = 주본(周本) 『화엄경』 권34
- 주엄 36 = 주본(周本) 『화엄경』 권36
- 유가 8 = 『유가사지론』 권8

결론적으로 구결은 기본적으로 읽는 방식에 따라 음독과 석독으로 나뉘고, 표기 문자를 고려하면 자토와 점토, 한글로 그리고 표기 재료를 고려하면 묵서와 각필로 나눌 수 있다.

46) kohico에서 제공하지 않는 문헌은 여러 논문에 제시된 예문을 사용하였다. 점토석독구결은 자토석독구결보다 좀 더 이른 시기의 자료로 추정된다.

2.3.4 어휘 표기

고대국어 연구에서 다루는 어휘 표기는 일반적으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서 보이는 고유명사 표기, 즉 고유어로 된 인명·지명·관직명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 차자 표기를 가리킨다. 그러나 자료의 범위와 시대를 조금 더 넓게 설정하면, 중국에서 편찬된 『양서(梁書)』(7세기)와 일본에서 편찬된 『일본서기』(720)나 삼국의 목간 자료 등의 고대국어 자료와 전기 중세국어 자료인 『계림유사』(1103), 『향약구급방』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⁴⁷⁾ 따라서 고유명사 표기보다는 어휘 표기가 더 적절한 명칭이다. 여기서는 고유명사 표기만을 알아볼 것인데, 그외의 자료는 나중에 알아볼 것이다.

차자 표기를 통해 고대국어의 어형을 추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여러 표기, 즉 이표기(異表記)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 등에는 하나의 지명에 대해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훈차 표기와 소리를 빌려 표기한 음차 표기가 함께 실려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買忽一云水城

[매흘(買忽)은 수성(水城)이라고도 한다]

ㄴ. 松山縣, 本高句麗夫斯達縣

[송산현(松山縣)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부사달현(夫斯達縣)이었는데]

ㄷ. 鵝洲縣, 本巨老縣

[아주현(鵝洲縣)은 본래 거로현(巨老縣)인데]

가령 (ㄱ)에서 보이듯 ‘水城’이라는 지명을 ‘買忽’이라고도 한다는 것은 동일한 지명을 서로 다른 원리에 따라 표기했음을 뜻한다. ‘水城’은 한자의 의미를 빌린 훈차이고, ‘買忽’은 소리를 빌린 음차 이므로, 이를 비교하면 당시 ‘물’을 뜻하던 어휘는 ‘買(매)’와 유사한 음가를, ‘성’을 뜻하던 어휘는 ‘忽(흘)’과 유사한 음가를 지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훈차와 음차의 대응 관계는 고대국어 어휘의 의미와 음상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ㄴ)의 경우 ‘松(소나무)’에 대응하는 음차 ‘夫斯(부사)’, ‘山(산)’에 대응하는 ‘達(달)’을 통해 해당 어휘들의 옛 음가를 추정할 수 있으며, (ㄷ)에서는 ‘鵝(거위)’와 ‘巨老(거로)’ 사이의 대응을 통해 비슷한 방식으로 음가를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훈차 지명은 한화(漢化) 지명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부르던 지명에 대해 이후 시간이 흐르며 한자의 의미를 적용해 새롭게 지은 명칭을 뜻한다. 이는 주로 통일신라 경덕왕대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동일 명칭에 대한 이표기는 지명뿐 아니라 인명과 관직명 표기에서도 확인된다.

ㄱ. 異斯夫【或云苔宗】

[이사부(異斯夫)【혹은 태종(苔宗)이라고도 한다】]

ㄴ. 居柒夫【或云荒宗】

[거칠부(居柒夫)【혹은 황종(荒宗)이라 한다】]

ㄷ. 四曰波珍浪【或云海干, ...】

[4등은 파진찬(波珍浪)【혹은 해간(海干)이라 한다, ...】이다]

47) 앞서 언급했듯 전기중세국어 자료는 교육의 이점을 위해 포함하는 것이다.

ㄹ. 一曰伊伐漁 ... 【或云角干, ... 或云舒發翰】

[1등은 이별찬(伊伐漁)【혹은 각간(角干)이라 한다, ... 혹은 서발한(舒發翰)이라 한다】이다]

ㅁ. 酒多後云角干

[주다(酒多)는 후에 각간(角干)이라고 불렸다]

(ㄱ~ㄴ)은 인명, (ㄷ~ㅁ)은 관직명이다. 지명의 이표기와 마찬가지로 음차와 훈차를 비교하여 고대국어의 어휘를 추정할 수 있다. (ㄱ)에선 ‘異斯(이사)’와 ‘苔(이끼 태)’가, (ㄴ)에선 ‘居柒(거칠)’과 ‘荒(거칠 황)’이 대응하므로 ‘이끼’의 고대국어 어형은 ‘異斯’와 비슷했음을, ‘거칠-’의 어형은 ‘居柒’과 비슷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ㄷ)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波珍浪’과 ‘海干’이 대응하므로, ‘바다(海)’를 뜻하던 고대국어 어형이 ‘波珍’과 비슷한 소리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ㄹ)과 (ㅁ)은 무척 재미있는 예시이다. 동일한 관직명에 대한 이표기인데 (ㄹ)은 『삼국사기』 권38, (ㅁ)은 『삼국사기』 권1의 문장이다. ‘角干-舒發翰-酒多’의 대응이 보이는데 이때 ‘角’과 ‘酒’는 훈차, ‘舒發’은 음차이다. ‘角’은 ‘뿔’, ‘酒’는 ‘술’을 의미하는데 언뜻 보면 ‘뿔’과 ‘술’이 ‘舒發(서발)’과 음가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중세국어를 고려하면 명쾌해지는데, ‘뿔’과 ‘술’의 중세국어 어형이 각각 ‘뿔’과 ‘수을’이기 때문이다. ‘뿔’은 본래 ‘*스블’이던 단어가 어중 모음 탈락으로 이루어진 말이고, ‘수을’은 ‘*수를’에서 ‘릉’의 소리가 사라진 결과이므로 고대국어 시기에서는 ‘角’과 ‘酒’의 훈이 모두 ‘sVpV’⁴⁸⁾를 나타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결국 고대국어를 연구하기 위해선 중세국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위의 이표기는 동일 문헌의 기록인데 다른 문헌의 표기도 이표기로 볼 수 있다. 『일본서기』의 ‘助富利智干’도 ‘伊伐漁’의 이표기이다. 여러 이표기들을 통해 고대국어의 어형을 재구하는 것은 2.5 단원에서 배울 것이다.

48) V는 모종의 모음, C는 모종의 자음을 뜻한다. ‘k, n, t, l, m, p, s, c, h, z, W’는 각각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ㅎ, ㅊ, ㅋ’이다. 이는 예일식 표기이며 격음을 평음 뒤에 h를 붙인다.

2.4 음운 체계

고대국어의 음운은 무척이나 이견이 많으며 정설로 인정될 만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대국어가 고유 문자를 갖추지 못한 채 한자를 이용한 차자표기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고대국어의 음운을 추정하기 위해 한자의 음가를 재구해야 한다는 뜻인데 한자의 음가를 재구하는 것뿐 아니라 그 재구음이 고대국어에 어떻게 수용되었을지 역시 고려해야 하기에 무척이나 복잡하다. 예컨대 ‘天’이 중고한어에서 특정한 음가로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그 음가가 동일한 형태로 한반도에 수용되었는지, 혹은 고대국어에서 음운론적·음성적 변형을 거쳤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한자는 본래 중국어의 체계를 반영하도록 설계된 문자로, 한국어의 자음 및 모음 체계의 정밀한 표시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음차 표기의 존재만으로 고대 한국어의 모음 체계를 복원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따른다. 한자는 표음성이 부족한 문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존하는 고대국어 자료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음운 현상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실증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대국어의 음운론 연구는 필연적으로 추론적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학자 간 견해 차도 크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비교적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인정되는 견해들과 최근에 제시된 몇 가지 견해들을 중심으로 고대국어의 음운 체계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⁴⁹⁾

2.4.1 자음 체계

우선 중세국어의 음운 체계를 바탕으로 논지가 전개되는데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의 평음과 비음은 대체로 고대국어에서도 동일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ㄱ, ㄴ, ㄷ, ㅁ, ㅂ, ㅅ’은 고대국어에도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외의 여러 측면에서는 견해가 나뉜다.

2.4.1.2 경음의 여부

아주 다행히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좋은 부분이다. 고대국어 시기에는 경음이 발달하기 전이라고 여겨진다. 우선 전통적으로는 조선 한자음에는 경음이 없다는 것이 그 근거로 거론되었다. 현대국어에서 경음을 보이는 한자음 역시 모두 평음이었는데 가령 ‘氏’는 ‘씨’가 아니라 ‘시’였다. 중국어에는 유성장애음에 해당하는 전탁음이란 것이 있는데 만약 한국어 화자가 한자를 받아들이던 시기에 경음이 음운 체계에 있었다면 전탁음이 경음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탁음은 체계적으로 모두 평음에 대응한다. 물론 조선 한자음이 고대국어 시기의 한자음과 동일한 체계를 가졌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으나, 한자음은 어느 정도 고정된 체계를 가졌으므로 중세국어 시기에 경음을 가지는 한국 한자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자를 받아들였을 무렵 고대 한국어에는 평음과 경음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다른 근거로는 종성의 불파음화가 있다. 경음은 음운의 결합 내지는 응합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불파음 [k, t, p]와 그 다음 음절의 초성의 평음이 서로 만날 때 경음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견해에서 고대국어는 그 기본적인 음절 구조가

49) 여러 학자들의 재구 체계는 신성철(2022)에 대부분 실려 있으니 이를 참고 바란다. 한자음은 굳이 상술하지 않겠다. 권인한 교수와 김무림 교수의 연구를 찾아보길 바란다. 위국봉(2014) 역시 참고된다. 전승한자음은 고대국어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여기서 다루긴 너무 복잡하다.

개음절 즉 모음으로 끝난다고 보거나, 또는 개음절이 아니라 자음으로 끝나는 폐음절이지만 많은 자음이 종성에서 불파음으로 발음되지 않고 외파음으로 발음되었다고 본다. 즉 고대국어 시기에는 애초에 불파음화가 일어날 환경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경음 자체가 발달할 수 없었기에 음운 체계에 경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중세국어 시기 경음으로 여겨지는 ㅅ계 합용병서의 경우도 고대국어 시기에는 ‘*sVCV’의 구조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중세국어의 ㅅ계 합용병서를 경음으로 해석하더라도 고대국어에서도 그 어휘가 경음을 지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종성에서의 불파음화는 파열음을 시작으로 마찰음을으로 확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시작 시기는 학자마다 다르겠으나 대체로 전기 중세국어 시기에 불파음화가 시작된다고 추정된다.

2.4.1.2 격음의 여부

경음과 달리 격음은 있었다는 의견과 없었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두 주장 모두 원시 한국어 시기에는 격음이 없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전자는 적어도 삼국시대 또는 통일신라 시대에는 격음이 발달되었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고려 중후반에 형성되었다는 입장이다. 두 견해 모두 격음은 어중에서 생성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어두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우선 격음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조선 한자음에도 격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격음을 나타내는 중고한어의 차청(次淸)음 성모와 한국한자음의 격음 초성 간의 대응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경음과 달리 한자음에 격음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격음의 역사를 일찍 소급할 수 있다. 또, 고대국어 차자 표기 중, ‘厭(염)’에 대응하는 ‘異次(이차)’나 ‘伊處(이처)’는 중세국어의 ‘잇다’에 해당하며 ‘居柒’은 ‘거출-’(‘거칠-’의 옛말)에 해당하는 표기라는 점도 근거가 된다.

격음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조선 한자음에 격음이 나타나긴 하지만 차청(次淸)음과 조선 한자음의 격음 초성의 대응이 불규칙하다는 점을 근거로 댄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자음을 받아들일 당시 격음이 음운체계에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異次’나 ‘居柒’ 등의 표기에서 격음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는 ‘次’와 ‘柒’은 다른 차자 표기를 볼 때 격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과연 저 표기에서 격음을 나타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전기 중세국어 역시 근거로 제시하는데, 『계림유사』의 기록을 보면 후기 중세국어에서 격음 ㅊ, ㅋ, ㅌ, ㅍ을 가지던 어휘가 ㅎ을 가진 한자와 함께 표기되고 있다. 이는 12세기 고려에서도 아직 격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두 견해를 절충하기도 한다. 이 견해에서는 고대국어 시기에 격음이 있긴 했으나 ‘ㅋ, ㅌ, ㅍ, ㅊ’라는 모든 격음이 있던 것은 아니고 일부만 존재했다고 본다. 고대국어에는 ‘ㅊ’과 ‘ㅌ’만 있었고 전기 중세국어에 다른 격음(ㅋ과 ㅍ)이 형성되어 격음 체계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ㅊ으로 시작하는 고유어도 많고 한자음도 많기 때문에 ㅊ은 그 존재를 비교적 일찍 소급할 수 있으나, ㅋ이나 ㅍ으로 시작하는 한자음은 거의 없고 그 차청음과의 대응이 규칙적이지 않으므로 이 둘은 고대국어에 있었다고 보기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또, ㅋ으로 시작하는 고유어는 극히 드물다는 점도 근거가 된다. 여기서는 절충안을 따르도록 한다. 격음을 아예 부정하기에는 일부 인명 표기가 있고 그렇다고 격음을 아예 긍정하기에는 ㅋ은 너무나 그 존재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2.4.1.3 유성 마찰음의 여부

여기서 유성 마찰음이란 중세국어에 존재하던 반치음(△)과 순경음 崩(崩)을 의미한다. 고대 국어에 이들 음운이 존재하였는가 역시 이견이 있으나, 유성마찰음 계열의 경우는 고대 국어에 존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전기 중세국어 시기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단 ‘△’은 중세국어 한자음의 초성으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그 역사를 일찍 소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崩’은 조선 한자음에 보이지 않으나, 이는 중국어 내적인 문제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차자 표기를 바탕으로 추정하는데 전기 중세국어 자료인 『계림유사』와 『향약구급방』에서 유성 마찰음의 존재가 확인될 수 있다.

『계림유사』

한문	고려어(중세국어 한자음)	중세국어	현대국어
四十	麻刃(마신)	마순	마흔
弟	丫兒(아수)	아수	아우
酒	酥李(소발)50)	수을	술
秤	雌李(조발)	저울	저울

『향약구급방』

한문	항명(남풍현 재구)	중세국어	현대국어
漆姑	漆矣於耳(옻이 어시)	옻이 어시	옻의 목심(木心)
蚯蚓	居叱兒乎(거승휘)	겁위	거위
麌	只火乙(기블)	기울	기울
馬蹄	態月背(곰돌부)	곰돌외	곰취

중세국어에서 ‘△’을 가지던 어휘는 『계림유사』와 『향약구급방』에서 日母 즉 초성이 ‘△’인 한자로 표기되었다. ‘刀, 兒, 耳’의 중세국어 한자음은 각각 ‘신, 수, 시’였다. 한자음의 보수성을 생각하면 후기 중세국어의 한자음은 적어도 전기 중세국어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日母로 표기했다는 것은 ‘△’의 존재를 안정적으로 전기 중세국어까지는 소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崩’은 전기 중세국어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주로 순경음 계열이 아닌 파열음 계열의 한자로 쓰였고 중세국어 한자음에는 순경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암시되는 바가 있다. 일단 전기 중세국어 자료에서 /p/를 나타낸 한자는 중세국어 어형의 ‘노/느’ 계열 혹은 ‘一’ 모음으로 나타난다. 이는 곧 ‘ㅂ→崩→노/느(또는 ㅇ)’의 변화를 겪은 것인데 문제는 과연 『계림유사』나 『향약구급방』에서 ‘崩’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15세기에 崩이 하나의 음소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崩’이 곧 비음운화를 겪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소의 생성과 소멸을 고려할 시 ‘崩’의 존재를 전기 중세국어까지는 소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 ‘崩’이 전기 중세국어에 없었다면 ‘崩’은 고작 50여년밖에 존속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이렇게 생존 기간이 짧은 음운은 너무 부자연스럽다.

50) 李은 중세한자음을 찾을 수 없어 ‘발’로 옮김.

이처럼 고려 시대의 문헌은 ‘ㅅ’과 ‘ᠩ’의 존재를 어느 정도 확인하게 해 주나, 그 이전의 고대 국어 자료에서는 이 둘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것을 실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ㅅ’과 ‘ᠩ’이 기원적인 것이냐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 의견이 나뉜다. 만약 ‘ㅅ’과 ‘ᠩ’이 기원적인 것이라면, 고대국어 시기에는 ‘ㅅ, ㅅ, ㅂ, ᠩ’이 모두 음소로 존재하였고, 형태소 경계에서는 ‘ㅅ’과 ‘ㅂ’이 ‘ㅅ’과 ‘ᠩ’으로 약화되는 반면에 형태소 내부에서는 애초부터 ‘ㅅ’과 ‘ᠩ’이었다고 본다. 이 견해에서는 기원적 ‘ㅅ’과 ‘ᠩ’이 방언에 따라 ‘ㅅ’과 ‘ㅂ’으로 강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와 달리 기원적 ‘ㅅ’과 ‘ᠩ’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ㅅ’과 ‘ᠩ’이 본래 ‘ㅅ’과 ‘ㅂ’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물론 어째서 모음 사이의 ‘ㅅ’과 ‘ㅂ’이 모두 약화되지 않고 일부만 ‘ㅅ’과 ‘ᠩ’으로 약화되었는가는 해명해야 할 문제이지만 공명음 사이의 ‘ㅂ[b]’>‘ᠩ[β]’ 그리고 ‘ㅅ[s]’>‘ㅈ[z]’은 언어보편적인 현상이다. 이와 반대되는 변화 즉 ‘ᠩ[β]’>‘ㅂ[b]’과 ‘ㅈ[z]’>‘ㅅ[s]’는 언어보편적 현상이 아니다. 또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이는 고유명사 표기와 향가에서 ‘ㅈ[z]’와 대응시킬 만한 표기가 마땅히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표기의 조합성을 고려해야겠지만, ‘ㅅ’이 ‘ㅅ’이나 ‘ㅊ’을 지닌 한자로 표기되었고 이처럼 유성음이 실증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성 마찰음을 고대국어까지 소급하기 어려운 점이 된다.⁵²⁾

중세국어의 유성 마찰음으로 ‘ㅇ[ɦ]’도 있으나 학계에서 고대국어 시기 ‘ㅇ[ɦ]’의 존재는 관심을 덜 받았고, 또 일반적으로 형태소 내부든 경계이든 ‘ㄱ’에서 온 것으로 보기에 대체로 고대국어 까지 그 존재를 소급하지 않는다.

결국 고대국어에 유성 마찰음이 있다고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전기 중세국어까지는 무리 없이 소급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는 실증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국립국어원(1998)에 실린 김무림(1998)과 같이 유성 마찰음은 전기 중세국어 시기 정확히는 고려 시대 전후에 음소로서 성립되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

2.4.1.5 ㅈ의 여부

秀宗或云秀升 [수종(秀宗)은 어떤 책에서는 수승(秀升)이라고도 하였다.]

未鄒尼叱今 一作未炤 又未祖 又未召

[미추(未鄒)이사금 미소(昧炤), 미조(未祖), 미소(未召)라고도 한다.]

‘ㅈ’계 초성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가 ‘ㅅ’계 초성의 한자와 호응된다는 사실에서 ‘ㅈ’(/tʃ/)를 음소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조선 한자음에 ‘ㅈ’을 초성으로 가지는 단어가 많다는 것, 『계림유사』에 /ㅈ/의 음가를 가지는 표기가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적어도 고려 초기까지 즉 전기 중세국어까지는 무리 없이 ‘ㅈ’의 존재를 소급할 수 있다. 특히 중고한어

51) 음성적으로 ㅂ은 어두에서 [p], 어중에서는 [b]이다. [p]는 표이 아니고 [pʰ]가 표이다. 여기서 유성파열음을 음소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견해가 또 나뉘기도 하나, 유성 파열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체계상 더 적절해 보인다. 유성파열음 긍정론은 Ramsey(1991)와 박창원(1985)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Vovin(2003)과 김무림(2009), 위국봉(2014) 등이 참고된다.

52) 관련해서 소신애(2012)가 참고된다. 또한, 이는 향가 재구에서 ‘ㅅ’을 쓸 것인지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향가 재구는 중세국어를 바탕으로 하나 일부 어휘는 고대국어 어형을 재구하여 쓰기 때문이다.

에서 파찰음인 한자는 절대 다수가 ‘ㅈ’으로, 마찰음인 한자는 절대 다수가 ‘ㅅ’으로 조선 한자음에 반영되었다.

또 ‘次’라는 한자가 고대국어 시기 차자 표기에 말음의 ‘ㅈ’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 따라서 통일 신라 전후에서도 ‘ㅈ’이 음소로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대 국어의 ‘이차돈’이나 ‘거칠부’와 같은 표기에서 ‘ㅊ’이라는 격음을 상정한다면 ‘ㅊ’은 기원적으로 ‘ㅈ’에서 온 것이므로 당연히 ‘ㅈ’ 역시 고대국어 시기에 존재하였을 것이란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격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중세 때 ‘ㅊ’이었던 것은 고대에선 ‘ㅈ’이었을 것이라고 재구하기에 ‘ㅈ’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단순히 한자가 호용되었다고 하여서 그 음가가 음소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이다. 특히 이러한 논리를 확대시키면 치음과 설음의 혼용도 보이기에 결국 이들의 음도 구별이 없었다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호용은 다수의 예가 아니며 대부분 파찰음은 파찰음끼리, 마찰음은 마찰음끼리 대응한다. ‘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찾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다. 그리고 ‘ㅈ’이 없었다면 ‘ㅈ’이 어떻게 후세에 음소로 확립되었는지 설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2.4.1.6 ㅎ의 여부

父骨正 一作忽爭[아버지는 골정(骨正)어떤 글에서는 훌쟁(忽爭)이라 하였다]

諱理洪 一作恭[이름은 이홍(理洪) 또는 〈홍(洪)을〉 공(恭)이라고도 적는다.]

‘ㅎ(/h/’ 역시 한자의 호용으로 인해 고대국어에 존재하지 않았고 후세에 ‘ㄱ(/k/)’에서 분화된 음소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骨’과 ‘忽’처럼 ‘ㄱ’과 ‘ㅎ’이 대응한다는 점을 근거로 드는데, 그러나 이것으로 어두에서 ‘ㅎ’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의 ㅈ과 마찬가지로 조선 한자음에 ‘ㅎ’을 초성으로 가지는 한자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계림유사』에 ‘ㅎ’을 나타내는 표기가 있다는 점은 적어도 고려 초기까지 ‘ㅎ’을 상정하는 근거가 된다. 한어에서 후 음 성모인 曉母(h)와 匣母(h)가 조선 한자음에서 ‘ㅎ[h]’ 초성으로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ㅎ’이 늦게 발달한 음소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 격음은 기원적으로 ‘ㅎ’과 평음의 결합으로 인해 형성된 음소이기에 ‘ㅎ’을 보다 일찍 소급시켜야 한다.

물론 중세국어의 모든 ‘ㅎ’이 고대국어에서도 ‘ㅎ’이었던 것은 아니며 실제로 ‘ㄱ’에서 나중에 ‘ㅎ’이 되기도 하였다.⁵³⁾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ㅎ’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ㅎ’도 일단 고대 국어에는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4.1.6 두 가지 ㄹ의 여부

현대국어에서 ‘ㄹ’은 기본적으로 설측음 [l]로 발음되나 모음 사이에서는 탄설음 [r]로 발음된다. 현대국어에서 [l]과 [r]은 별개의 음소가 아니고 변이음이라 음성적 차원에서 다뤄진다. 그러

53) 이를 설명하는 것은 무척 복잡하다. 그 중간적인 소리 [x]나 [y] 등을 재구하기도 하며 이견이 많다.

나, 고대국어 시기에 ‘乙’과 ‘尸’가 구별되어 쓰였다는 점에서 [l]과 [r]이 변이음이 아니라 별개의 음소 /l/과 /r/이 존재했다고 보기도 한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향찰 표기에서의 용법 차이 그리고 알타이어족과의 관련성이 주로 언급된다. 다만 이러한 의견을 부정하고 형태론적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국어사에서 시간이 흐르며 종성이 불파음화되었다는 특징을 고려하면 [l]은 [r]이 불파음화되어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 가지 둘에 대해 별개의 음소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를 바탕으로 고대국어의 자음 체계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이 무조건 맞는 정설이 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재구 체계라 볼 수는 있을 것이다.⁵⁴⁾

			연구개음	치조음	양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ㄱ	ㄷ	ㅂ	
		격음		ㅌ		
	파찰음	평음		ㅈ		
		격음		ㅊ		
	마찰음	평음		ㅅ		
		격음				ㅎ
공명음	비음		ㄴ	ㅁ	ㅇ 55)	
	유음		ㄹ			

2.4.2 모음 체계

후기 중세국어에는 단모음이 /ㅣ, ㅓ, ㅡ, ㅏ, ㅗ, ㅜ, ㅓ/의 총 7개가 있었다. 이러한 모음 체계를 바탕으로 고대 국어의 모음 체계를 재구하지만 그것이 충분히 실증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단모음의 개수를 중세국어와 동일하게 7모음 체계로 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적은 6 모음 또는 5모음 체계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모음의 음가가 과연 중세국어와 동일했는가 역시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일단 통설은 7모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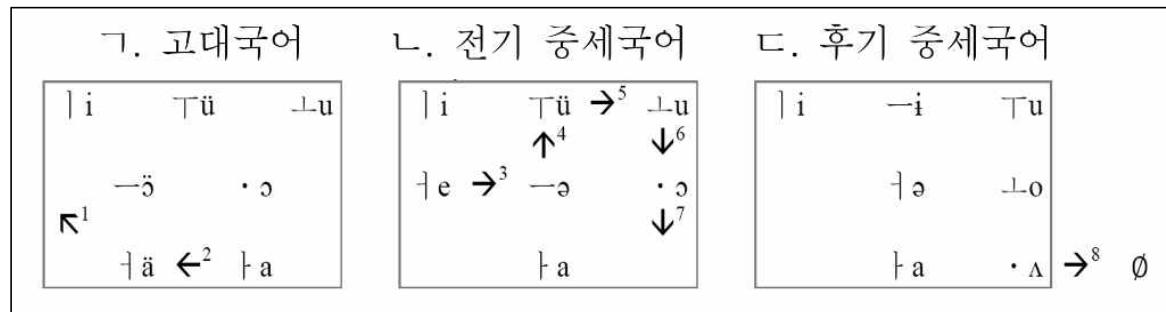
(1) 15세기 중세 국어의 모음 체계
ㅣ [i]
ㅡ [i]
ㅓ [ə]
ㅏ [a]
ㅜ [u]
ㅗ [o]
ㅓ [ʌ]

54) 현행 및 차기 교과서에서는 고대국어에는 ‘예사소리-거센소리’의 대립만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서술을 신고 있다. 그 격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교과서의 통설은 알기 어렵지만, 아마 이기문 (1998)과 같이 모든 격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도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일부 격음만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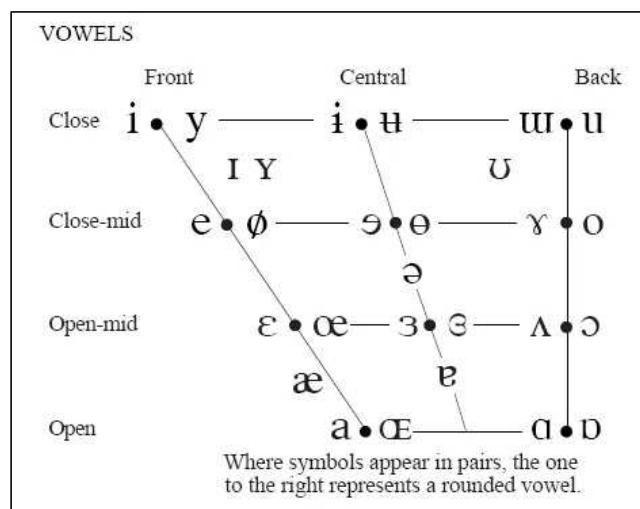
55) 종성의 ‘ㅇ[ŋ]’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일단 여기서는 그 존재를 인정하도록 한다.

2.4.1.1 모음추이의 여부

7모음 체계로 보는 견해가 그나마 널리 퍼져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7모음 설에서는 이기문 교수가 제시한 모음추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음추이란 모음 체계 내의 모음의 연쇄적인 변화로 체계 전체가 다른 구조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⁵⁶⁾ 학교문법에선 이 설을 채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모음추이의 첫째 단계는 고대국어에서 전기 중세국어 사이에 ‘ㅏ’⁵⁷⁾가 전설 중모음 영역으로 이동하고 이어 ‘ㅏ’가 중설화하는 당기는 연쇄(drag chain)에 의한 추이이다. 둘째 단계는 전기 중세국어로부터 후기 중세국어에 이르는 동안 ‘ㅏ’의 중설화([e]>[ə])를 필두로, ‘ㅡ’의 상승, ‘ㅜ’의 후설화, ‘ㅗ’의 하강, ‘ㅡ’의 하강으로 이어지는 미는 연쇄(push chain)에 의한 추이이다. 이후 ‘ㅡ’는 대체로 비어두 음절에서는 ‘ㅡ’, 어두 음절에서는 ‘ㅏ’와 합류하여 근대국어 시기에 소실되고 만다. 아래의 일반적인 모음사각도를 함께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⁵⁸⁾



56) 이기문 교수의 [ä]와 [ɔ]는 [ε]와 [ɔ]와 비슷할 것이고, [ü]는 [u]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ü]는 [y]를 나타내나 이기문 교수는 [u]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하였다.

57) 물론 15세기 이전에는 ‘װ’라는 문자는 없었다. 그러나 후기 중세국어에서 /װ/에 해당하는 음성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이전에 /װ/에 해당하는 음성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여기서는 음소를 나타내기 위해 한글 모음을 그대로 쓰겠다. 후기 중세국어에선 ‘װ’이 치조음이었으나 현재는 경구개음을 나타내는 것을 생각하면 15세기의 ‘װ’에 해당하는 그 음소를 /װ/로 쓰는 것이 이해가 될 것이다.

58) 위의 표에서 보이듯 당기는 연쇄는 어떤 음이 먼저 움직여서 빈자리를 만들고, 다른 모음들이 그 빈자리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고, 미는 연쇄는 어떤 모음이 이미 존재하는 모음의 위치로 가 그 모음을 압박하고 압박의 결과로 밀려가는 것을 말한다. 아래 모음사각도의 영어 용어를 번역하면 'Front=전설모음, Central=중설모음, Back=후설모음, Close=고모음, Close-mid=중고모음, Open-mid=중저모음, Open=저모음'이다.

그러나 이기문 교수의 모음추이설은 최근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에⁵⁹⁾ 모음추이를 긍정하기는 어렵다. / ㅏ /의 중설화로 인해 다른 모음들의 연쇄적 추이를 이끄는 그 동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또 불완전한 몽골어 재구를 모음추이의 근거로 쓰는 것도 문제이다. 이기문 교수는 모음추이설을 중세 몽골어와 비교하면서 제시하였는데 그 당시의 몽골어 재구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기문 교수가 제시한 몽골어-한국어 대응 예시들은 재고되어야 한다. 물론 몽골어 차용어에 보이는 /e/와의 대응, 東音 자료에 보이는 한어의 /ɛ/와의 대응, 『계림유사』에 보이는 /ɛ/와의 대응 등을 종합하면 / ㅏ /가 전기 중세국어에서 전설모음이었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 ㅏ /가 전기 중세국어에서 후기 중세국어로 넘어갈 때 중설모음으로 혀의 위치가 옮겨지면서 다른 모음까지 연쇄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 ㅏ /만 그 음가가 달랐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또, ‘ ㆍ ’와 ‘ ㅡ ’의 존재도 논란이 있다. 몇몇 학자는 ‘ ㆍ ’와 ‘ ㅡ ’가 고대 국어에 없었으나 중세국어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 한자음이나 전기 중세국어 자료를 고려하면 ‘ ㆍ ’와 ‘ ㅡ ’는 전기 중세국어까지는 무리없이 소급해야 할 것이다. 고대 국어에 과연 이들이 있었을지는 확실히 실증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논의에서는 없다고 보기보다는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고대국어 시기의 정확한 모음 체계를 복원하는 것은 한자음의 재구와 그 층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 자음체계표와 달리 모음체계표를 제시하지는 않겠다.

2.4.1.2 중모음의 여부

전통적인 논의에서는 고대국어의 이중모음은 후기 중세국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즉 반모음 ‘j’나 ‘w’를 앞세우는 상향 이중모음이나 ‘j’를 뒤로 하는 하향 이중모음이 중세국어와 비슷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조선 한자음의 음절 유형에 이러한 이중모음이 잘 보일 뿐더러 고유어에서도 흔히 발견되기 때문에 이중모음은 그 존재를 일찍 소급할 수 있다.

또한 후기 중세국어에 보이지 않는, 즉 고유어 또는 조선 한자음에 보이지 않는 이중모음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가령 반모음 ‘j’와 ‘ ㆍ ’로 이루어진 ‘ ！」와⁶⁰⁾ 반모음 ‘j’와 ‘ ㅡ ’로 이루어진 ‘ ㅡ ’와 같은 이중모음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 ![jʌ] ’는 ‘ 으답(여덟) ’과 같이 제주 방언에 남아 있으며 현대 방언에 ‘ ㅑ ~ ㅓ ’의 대응이 보이는 것은 ‘ ![jʌ] ’를 재구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여덟-야덟’은 기원적으로 ‘ *으덟 ~ 여덟 ’이었는데, 후기 중세국어로 넘어갈 때 중앙어에선 ‘ ! ’가 ‘ ㅓ ’로 합류하였기에 15세기 문헌에서는 ‘여덟 ~ 여덟 ’만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또, 방언에서 ‘야덟’과 같이 ‘ ㅑ ’형이 보이는 것은 일부 방언에는 ‘ ! ’가 남아 있었고, 그러나 아래아의 음가가 ‘ㅏ’로 바뀌는 시기에 ‘ ! ’가 ‘ ㅓ ’로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⁶¹⁾ 물론 이러한 이중모음이 고대 국어에도 존재하였는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59) 김주원(1992), Vovin(2000), 고성연(2014/2020), 고경재(2017/2022) 등이 참고된다.

60) 이를 표기할 때는 주로 쌍아래아를 이용해 ‘ 으 ’로 쓴다.

61) 관련하여 백두현(1994)과 김현(2015)이 참고된다.

또한, 모든 후기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이 그 과거에도 동일하게 이중모음이었던 것은 아니다. 'j'계 하향 이중모음은 'CVli(X리)'에서 'ㄹ(l)'의 약화로 인하여 'ㄹ'이 탈락하고 'ㅣ'가 'j'로 변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예시가 많다. 'ㅋ'는 그 빈도가 다른 이중모음에 비해 현저히 많다는 점에서 그 기원이 의심스럽게 여겨지는 모음이다. 후기 중세국어의 'ㅋ'를 'ㅣ'에서 온 경우(소위 i-breaking 현상), 'ㅓ'에서 온 경우, 그리고 'ㅣ'에서 온 경우로 나눠서 고대 국어 시기에는 'ㅋ'가 없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물론 'ㅋ'는 고대 국어에도 있었지만 그 수가 적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고대국어에서는 중모음 체계가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전기 중세국어에 중모음이 발달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논의를 따라 고대국어의 중모음은 대체로 중세국어의 그것과 유사했을 것이고 'ㅣ'와 같은 일부 중세국어에는 없던 중모음이 있었다고 보겠다.

2.4.3 운소 체계

후기 중세국어는 운소, 즉 초분절음운으로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를 가지고 있었다. 고대국어의 자료에서 중세국어 성조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그렇지만 성조의 일반적인 발달 과정을 고려하면 성조의 언어적 기능이 더 뚜렷했을 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한자음의 성조를 중고음의 성조와 비교하였을 때 그 대응이 비교적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고대국어까지 성조를 소급하는 경우가 있다. 한자음이 고정될 시기에 성조가 없었다면 이러한 대응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고대국어의 성조 체계가 중세국어보다 더 뚜렷했을 것이라는 견해와 중세국어의 그것보다 더 간단했을 것이라는 견해로 나뉜다. 비록 고대국어의 성조가 정확히 어땠는지 확정할 수는 없겠으나, 고대국어는 운소 체계로서 고저의 요소를 기본으로 한 성조 언어였다고 보는 것이 기존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²⁾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중세국어를 바탕으로 했기에 확실치 않을 수 있다.

62) 성조를 통한 재구와 관련해선 Ramsey(1986/1991/1993), Ito(2013) 등이 참고된다. 물론 이는 가설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며 이렇다 할 정설은 아직 없다.

2.4 어휘와 음운의 변화

여기서는 현존하는 고대 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 국어 시기에는 단어의 형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재구된 단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중세국어의 형태로 변하였는지 알아볼 것이다. 음운 체계부터가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기에 어형을 재구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고대 국어에도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합의된 음운 체계와 통시적인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어떤 음운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여러 어휘의 이전 형태를 역추적해 보도록 하자.

2.4.1 음운의 변화

2.4.2 고유어

2.4.3 한자어

2.4.4 차용어

2.4.5 단어 형성법

2.4.5.1 합성

2.4.5.2 파생

2.5 문법 체계⁶³⁾

2.5.1 격조사

2.5.1.1 주격

주격조사는 고대국어부터 중세국어,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이’라는 형태로 쓰였다. ‘이’는 향가에서는 ‘是’와 ‘伊’로, 이두에서는 ‘亦’으로, 구결에서는 ‘丿’로 표기되었다. 다만 ‘亦’의 독법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 주격조사가 아닐 때는 ‘여’로 읽히기에 주격의 ‘亦’을 ‘여’로 읽기도 한다. 여기서는 일단 잠정적으로 ‘이’로 읽도록 한다.

- (1) 雪是(눈이) 毛冬 乃乎尸 花判也 [눈이 못 덮을 고깔이여] <讚耆婆郎歌>
- (2) 脚鳥伊(가롤이)⁶⁴⁾ 四是良羅 [다리가 넷이러라] <處容歌>
- (3) 崔忠獻亦(이) 聚類結黨爲 [최충현이 무리 지어 당파를 만들어] <尚書都官貼 20>
- (4) 大衆丿(대중이) 爰然 丿 而 丿 坐... [대중이 모두 그렇게 앉아 있었다] <구인 상>
- (5) 諸 丿 菩薩丿(菩薩이) 善 丿 其 心 丿 [모든菩薩이 잘 그 마음을] <화엄 14>

이외에도 ‘익’으로 추정되는 ‘弋只’도 쓰였으나, 그 용례가 많지 않고 또 ‘이’와의 차이도 불분명하다. ‘익’은 석독구결에선 대개 ‘弋’로 쓰였으나 음독구결에선 ‘丿’로 쓰였다. ‘이기’ 또는 ‘익기’로 읽기도 한다. 「常隨佛學歌」의 ‘身靡只’는 ‘모막’으로 읽히는데 여기서도 주격조사 ‘익’을 추출할 수 있다.⁶⁵⁾

- (6) 所司弋只(익) 界官良中 出納 [所司가 界官에게 出納하여] <長城監務官貼>
- (7) 我 丿 身 丿 戀(몸이) 充樂 丿 丿 [내 몸이 充樂하여야] <화소 35>

2.5.1.2 목적격

목적격조사는 주로 ‘乙(을/을/ㄹ/를)⁶⁶⁾’이 쓰였으나 ‘𦨇’도 보인다. ‘乙’은 향가, 이두, 구결(구결자로는 ‘乙’에 모두 등장하는 반면 ‘𦨇’은 향가에서만 보인다. ‘𦨇’을 대체로 ‘흘/흘’로 읽지만 ‘을/을’로 읽기도 한다. 중세국어와 달리 모음조화에 따른 이형태의 변이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𦨇’은 주로 삼국유사 향가에, ‘乙’은 주로 균여 향가에 쓰였다.

- (1) 夜矣 夯乙(앓을) 抱遣 去如 [밤에 알을 안고 가다] <薯童謡>
- (2) 花臉(꽃) 折叱可 [꽃을 껴어] <獻花歌>

63) 2.5단원에서 향가의 해독은 김완진(1980)을 기본적으로 따르되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몇몇 표현을 수정하였다. 구결의 현대어역은 kohico에 공개된 번역을 따랐다.

64) 황선엽(1997)에선 ‘허튀’로 읽고 ‘伊’를 말음첨기로 파악하였다.

65) 최성규(2016:114-117)에서 ‘弋只’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있으니 참고된다.

66) ‘를’은 ‘(으)ㄹ’의 중첩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비슷한 설명이 보조사 ‘는’에도 적용된다. 이 견해에선 ‘(으)ㄴ’의 중첩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를 형태소의 중가(重加)라 부르기도 한다.

- (3) 光賢亦 ... 石塔伍層乙(을) [광현이 ... 오층석탑을] <淨兜寺形止記>
 (4) 國家 大體乙(을) 想只 得爲遣 [國家의 大體을 생각하지 못하고] <尙書都官貼>

- (5) 衆生乙(衆生을) 隨 住 住 [衆生을 好아 머물러서] <화엄 14>
 (6) 菩薩 1 云何 何 1 乙(엇흔을) [菩薩은 어떠한 것을] <구인 상>

2.5.1.3 관형격

관형격조사는 고대국어도 중세국어와 같이 ‘ㅅ’과 ‘이/의’ 두 가지가 쓰였다. ‘ㅅ’은 향가와 이두에서는 ‘叱’로, 구결에선 약자인 ‘叱’로 쓰였다. ‘이/의’는 향가에서는 ‘矣’나 ‘衣’로, 이두에서는 ‘之’나 ‘矣’로, 구결에선 ‘衣’의 약자인 ‘之’로 쓰였다. 이때 교체 조건도 중세국어와 같아 ‘ㅅ’은 무정명사와 존칭 체언에, ‘이/의’는 유정명사에 결합하였다. 구결 자료에서는 존칭 체언 뒤의 ‘ㅅ’이 ‘ノ’로도 표기되었다.⁶⁷⁾ 그러나 이두에선 ‘叱’의 용례가 극히 적으며 13세기 이전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다.

- (1) 直等隱 心音矣(의 숨을) 命 [곧은 마음의 命] <兜率歌>
 (2) 吾衣(나의) 身 不喻 [나의 몸 아닌] <隨喜功德歌>
 (3) 經之(의) 成內 法者 [經의 이룬 法은] <華嚴經寫經>
 (4) 師矣(의) 啓以 [師의 啓로] <慈寂碑陰>
 (5) 牛之(소의) 二 角 [소의 두 뿔] <구인 상>
 (6) 彼之(여의) 威力乙 [저의 威力を] <화엄 14>
 (7) 蓬次叱(다붓스) 巷中 [다북쪽의 구렁에서] <慕竹旨郎歌>
 (8) 佛體叱(부덧) 刹亦 [부처의 절이며] <禮敬諸佛歌>
 (9) 神通叱(神通ㅅ) 力乙 現 顯 顯 [神通한 힘을 나타낼 것이며] <화엄 14>
 (10) 其 佛叱(부덧) 座前 座前 [그 부처의 자리 앞에] <구인 상>
 (11) 菩薩ノ(菩薩ㅅ) 功德聚 [보살의 공덕 덩어리] <화엄 14>

(1~6)는 평칭 유정 체언에 ‘이/의’가 쓰인 것이고, (7~11)는 ‘ㅅ’이 쓰인 것이다. 이 중 (7, 9)는 무정 체언, (8, 10, 11)은 존칭 체언 뒤에 쓰인 것이다. (11)에서 보이듯 존칭 체언 뒤의 ‘ㅅ’은 ‘ノ’로 표기되기도 했다.

고대국어 시기에도 주어적 속격이 보인다. (12)과 (13) 모두 관형격조사가 쓰였지만 의미적으로는 주어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간달파가 논 성을’과 ‘자신이 空寂함을’, ‘무리들이 아뢰신’이므로 주어적 속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2) 乾達婆衣(乾達婆의) 遊鳥隱 城叱貯 [乾達婆의 논 성을] <彗星歌>
 (13) 身之(身의) 空寂ノ 1 乙 [자신의 空寂함을] <화엄 14>
 (14) 衆矣(의) 白賜臥乎 兒如 [무리들의 아뢰신 바와 같이] <慈寂碑陰>

67) 균여 향가의 ‘衆生叱’에 대해선 최성규(2016:175-181)와 김지오(2025:14-15)가 참고된다. 속격으로 쓰이는 ‘ノ’에 대해선 ‘叱’로 본 황선엽(2000)과 최성규(2016:192-197)가 참고된다. 여기선 일단 ‘ㅅ’으로 읽겠다.

2.5.1.3 부사격

학교문법의 부사격조사는 그 기능에 따라 처소(처격), 수여(여격), 도구(구격), 인용 등으로 의미를 기준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가. 처격

처격조사는 ‘아’와 ‘고’ 그리고 이 둘의 결합형인 ‘아고’가 쓰였다.⁶⁸⁾ 향가에서는 ‘良’, ‘中’, ‘良中’으로 쓰였으며 구결 자료에서는 ‘+’와 ‘; +’로 쓰였다. 일부 향가에는 다른 표기도 쓰였는데 ‘그’이 ‘ㅎ(또는 Ø)’으로 약화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구결에서는 대개 ‘; + (아고)’로 나타나나 ‘時, 上, 世(시)’ 등 특정 단어 뒤에서는 ‘+(고)’와 ‘: + / - + (여고)⁶⁹⁾’가 쓰였다. 이두의 경우, 초기 이두에선 ‘中(고)’가 쓰이다가 나중에는 ‘良中(아고)’와 ‘亦中(여고)’가 주로 나타난다.

- (1) 東京 明期 月良(드랄아) [동경 밝은 달에] <處容歌>
- (2) 巷虫(굴렁크) 宿尸 夜音 [구령에서 잘 밤] <慕竹旨郎歌>
- (3) 千手觀音叱 前良中(얇아고) [천수관음의 앞에서] <禱千手觀音歌>
- (4) 衆生叱 海惡中(바돌아고) [중생의 바다에서] <普皆廻向歌>
- (5) 佛會阿希(佛會아희) 吾焉 頓叱 進良只 [佛會에 나는 바로 나아가] <請轉法輪歌>
- (6) 南無佛也 白孫 舌良衣(혓아이(희?)) [南無佛이여 사뢰는 혀에] <稱讚如來歌>

- (7) 作作處中(고) 進在之 [만드는 곳에 나아간다] <華嚴經寫經>
- (8) 淨兜寺良中(아고) 安置令是白於爲 [淨兜寺에安置시키어야 한다고] <淨兜寺形止記>
- (9) 此亦中(여고) 父祖別爲 [여기애 그 父祖가 特別한] <尚書都官貼>

- (10) 寶蓮花_+ (寶蓮花아고) 坐_+ _+ [寶蓮花에 앉으시며] <구인 상>
- (11) 佛佛_+ {於}世_+ (누리고) 出現_+ _+ [부처들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구인 상>

그런데 차자 표기에서도 관형격조사가 처격조사로 쓰인 예가 보인다. 중세국어의 특이처격과 같은 것인데 ‘矣’나 ‘衣’ 따위가 체언에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였다.

- (9) 此矣(이의) 有阿米 [여기애 있으매] <祭亡妹歌>
- (10) 佛體 前衣(얇아) 拜內乎隱 [부처 앞에 절하는] <禮敬諸佛歌>

- (11) 前_+ (얇아) 已_+ 我_+ 等_+ 1 大衆_+ [전에 이미 우리와 같은 大衆을] <구인상 >

특이한 예로 「請佛住世歌」의 ‘群良 哀呂舌’이 있다. 기존의 논의에선 ‘良’을 말음첨기로도, 호격조사로도 보았으나 황선엽(2006)에선 처격조사로 볼 것을 제안하였고 최성규(2016)와 김지오(2019)에서도 처격조사로 보았다. 처격조사 ‘良’과 대응하는 서술어가 ‘哀(술-? 설-?)’인데 일반적인 처격조사와 달리 [원인]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이에 의하면 ‘무리로 인하여 슬퍼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중세국어에는 “가지에 슬노라(가지에 슬퍼하노라)”라는 문장이 보인다.

68) 중세국어의 조사 ‘애/에/예’는 기원적으로 ‘아고/어고/여고’로부터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中은 그 독법이 ‘고’와 ‘히’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일단 ‘고’로 읽겠다.

69) ‘여고’의 출현 환경을 ‘_’로 끝나는 체언 뒤로 놓기도 하나 예외가 있어 문제가 있다. 최성규(2016) 참고.

나. 여격

여격조사로는 주로 ‘의 + (의기)’⁷⁰⁾가 쓰였는데 존칭 체언 뒤에서는 ‘+ (기)’나 ‘+ (스기)’가 쓰이기도 했다. 이두 자료에서는 주로 ‘亦中(여기)’가 여격으로 쓰였는데 『松廣寺奴婢文書』(1281) 이후에 쓰인다.⁷¹⁾ 향가에서 여격은 잘 보이지 않지만 「願往生歌」에 ‘尊衣希’로 한 번 나타난다. 처격과 여격에 보이는 ‘기’는 본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였으나 문법화하여 조사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박진호 1998:182-183)). 여격조사는 처격조사보다 늦게 발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 (1) 大小師~~テ~~十 詣~~ム~~ 1 1 + 1 [大小의 스승께 나아갈 경우에는] <화엄 14>
(2) 文殊師利菩薩~~ム~~十 問~~ム~~ 3 言~~ム~~ ~~ム~~ [文殊師利菩薩께 물으시기를] <화엄 14>

다. 구격

구격조사는 고대국어에서도 '(으/으)로'가 쓰였다. '로'는 균여 향가에서는 '留'로, 이두에서는 '以'로, 구결 자료에서는 '…'로 나타난다. '乙以'와 '乙…'도 보이는데 매개모음까지 반영한 표기로 보인다. '로'는 탈격 즉 [출발점]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 단독으로도 가능했지만 보통 강세 보조사 'ㄱ'이나 'ㅅ'이 덧붙어 '록, 롯'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15세기 국어의 양상과 비슷하다.

- (1) 心未 筆留 慕呂白乎隱 [마음의 붓으로 그리온] <禮敬諸佛歌>

(2) 大悲咤 水留 潤良只 [대비의 물로 젖어서] <恒順衆生歌>

(3) 身病以(으로) 遷世爲去在乙 [몸 병으로 세상 떠났거늘] <淨兜寺形止記>

(4) 花燈燭乙以(으로) 供養爲白內 乞 [花와 燭燭으로 供養하오며] <无垢淨光塔>

(5) 縣以(으로) 入京爲使臥 [縣으로부터 入京하도록 부림을 받은] <慈寂碑陰>

(6) 方便乙…(方便으로) 群生乙 化…口ヒキ分 [방법으로 群生을 教化할 것이며] <화엄 14>

(7) 諸1法1因緣…(因緣으로) 有…分 [모든 법은 인연으로 있으며] <구인 상>

(8) 彼一塵乙…ハ(塵으로) [저 하나는 티끌로부터] <화엄 14>

(9) 各ヲ各ヲ3亦 座前セ花…セ(꽃으로) [제각각 자리 앞에 있는 꽃으로부터] <구인 상>

위에서 (5), (8), (9)가 [출발점]을 나타낸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에서 ‘로’가 주로 [지향점]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차자 표기 자료에는 [지향점]을 나타낸 ‘로’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로’는 본래 [출발점]을 나타냈으나 후에 [지향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로’는 [원인/인과]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구결 자료에선 주로 의존명사 ‘ㅅ(ㄉ)’와 함께 쓰일 때 [원인/인과]로 사용되었다. 관형사형 어미의 수식을 받아 ‘ㄱ ㅅ ㅋ(ㄉ ㄷ ㄹ)’ 또는 ‘ㄹ ㅅ ㅋ(ㄹ ㄷ ㄹ)’의 꼴로 쓰였다. 이를 하나의 연결어미로 볼 수 있는데 자세한 건 후술한다.

- (10) 究竟 安住 ㅋㅋ 1 ㅅ ㅅ (혹견드로) [끝내 안주하는 까닭으로] <유가 20>
(11) 衆生 乙 爲 人 ㅋㅋ 2 ㅅ ㅅ (혹실드로) [중생을 위하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구인 상>

70) ‘+ (의미)’는 일부지만 처격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하였다.

71) 종래의 견해와 달리 납풍현(2000)은 <淨兜寺形止記>의 “金直田箇亦中”을 여격으로 파악하고 이두에서 여격조사의 출현을 일찍 소급한다.

라. 인용

인용 부사격조사는 중세국어 자료에는 보이지 않으나 고대국어 자료에는 ‘亦’의 약자인 ‘: (여)’ 또는 ‘- (여)’가 쓰였다. 현대국어의 ‘고’나 ‘(이)라고’는 근대 국어 이후에 보이기 시작한다.

- (1) 幻諦_セ 衆生_{: (衆生여)} ノオリナ | [幻諦의 중생이라 하는 것이다] <구인 상>
- (2) 二_リヒ_セ 義_{: (義여)} ノオイハ… 故ノ: | [둘인 것의 義라 하는 까닭에서이다] <구인 상>
- (3) 菩提心因_ニ (菩提心因여) ノオナイニ | [菩提心因이라 하는 것이다] <금광 3>

2.5.1.4 호격

중세국어의 호격조사는 ‘아’, ‘야’, ‘하’가 있었는데 고대국어에서도 ‘아’와 ‘하’가 확인된다. 중세국어와 같이 ‘아’는 평칭, ‘하’는 존칭 체언 뒤에 붙었다. ‘아’는 향가에서는 ‘良’으로, 구결에서는 ‘:’로 쓰였다. ‘하’는 ‘下’와 ‘下’로 표기되었다. 감탄의 의미가 포함된 ‘(이)여’⁷²⁾는 향가에서는 ‘也’로, 구결에서는 ‘:’ 또는 ‘-’로 표기된다. 고대국어의 조사 ‘여’의 특징은 구격조사 ‘로’나 목적격조사 ‘을’ 뒤에도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 (1) 哀反 多矣 徒良(물아) [서러운 중생의 무리여] <風謠>
- (2) 彗星也(彗星이여) 白反也 人是 有叱多 [혜성이여 아뢴 사람이 있다] <彗星歌>
- (3) 佛道 向隱 心下(모숨하) [부처 향한 마음이시여] <常隨佛學歌>
- (4) 善男子_ノ(善男子아) 是 如_キノ 1 [善男子여 이와 같은] <금광 3>
- (5) 佛子_ノ(佛子아) 若_セ 諸_ノ 菩薩_ノ | [佛子여 만약 모든 菩薩이] <화엄 14>
- (6) 世尊_ト(世尊하) 一切 菩薩_ノ | [세존이시여 一切 菩薩은] <구인 상>
- (7) 大王_ト(大王하) 當_ハ 知_{ロハ}而立 [대왕이시여 마땅히 아십시오] <화소 35>
- (8) 仁者_{: (仁者여)} 諦_ノ 聽_ハ | [그대여 자세히 들으시오] <화엄 14>

중세국어와 같이 고대국어의 호격조사도 높임에 따라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향가와 구결 자료 모두 ‘하/여/아’ 순으로 높임의 정도가 나뉜다고 볼 수 있다. (2)에서 ‘하’는 ‘心’과 결합했지만 문맥을 고려하면 ‘부처를 향한 마음’을 뜻하므로 존경하는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두 자료에는 호격조사가 보이지 않는데 이두는 대화 상황을 직접 화법으로 기록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2.5.1.5 접속

접속조사는 격조사가 아니지만 편의상 함께 다루도록 한다. 석독구결 자료에선 ‘: / - (여)’가 접속조사로 기능하였다. 접속문의 경우 거의 항상 아우를 동사 ‘-’가 사용되었다. 아우를 동사란 접속 표현으로 나열된 구/절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동사를 말하며 해당 접속 구문의 마지막에 나타난다. 현대국어의 “교수니 정치가니 하는 전문가들이 ...”에 보이는 ‘하-’가 아우를 동사이다. 뒤아우를 동사라고도 한다. 중세국어와 같이 ‘과’ 역시 접속조사로 쓰였는데 이두에서는 ‘果’로, 구결에서는 ‘-’로 나타난다. 중세국어처럼 접속되는 마지막 체언에도 ‘과’가 결합할 수 있었으며 ‘여’와 달리 아우를 표현은 잘 나타나지 않았다. 부사격조사 ‘과’는 확인되지 않으며 오로지 접속의 ‘과’만 보인다.

72) ‘여’를 단순히 호격조사로만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박진호(1998:189-190)). 최성규(2016)에서도 ‘여’를 호격으로 보지 않고 여러 기능을 하는 종결보조사로 보았다.

- (1) 菩薩: 比丘: 八部: ノ々セ(호릿) 大衆 [보살이니 비구니 八部니 하는 大衆] <구인 상>
- (2) 慈: 悲: 喜: 捨: ノ々乙(호릴) [慈니 悲니 喜니 捨니 하는 것을] <화엄 14>
- (3) 聲聞: 緣覺: ノアヲ(홀이) [聲聞니 緣覺니 하는 것의] <금광 3>
- (4) 色: 受: 想: 行: 識: リナ | [色과 受와 想과 行과 識이다] <화소 35> 5
- (5) 增上: 最勝心: 쑤乙(호릴) 得乙アヘ | [增上과 最勝心과 하는 것을 얻으면] <화엄 14>

구결의 ‘의’ 즉 ‘이’라는 조사도 접속조사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⁷³⁾

- (6) 佛의 菩薩: 부처와 보살에게] <화엄 14>
- (7) 道의 非道 [道와 非道] <주엄 36>

그런데 특이한 점은 향가에서 일부 격조사가 쓰이지 않는 현상이 매우 빈번하다는 점이다. 한국어에서 조사의 생략이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이를 시기의 언어를 반영하는 향가에서 특정 조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고대 국어의 한 특징일 가능성이 있다. 주로 생략되는 조사는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이다.

	향가 ※A박진호(2016) B김지오(2024)	석독구결 ※황국정 · 차재은(2004)	석보상절 ※황국정 · 차재은(2004)
주격조사 미실현율	A 49% B 47%~84% ⁴⁾	47.6%	8.3%
대격조사 미실현율	A 64% B 57%	36.4% ⁵⁾	28.6%

김지오(2025:11)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는 아직 명확히 합의된 것은 아니나 박진호(2016가/나)에서는 주격조사가 늦게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전 자료가 매우 적고 용례가 많지 않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격조사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⁴⁾

73) 김완진(1980)은 <隨喜功德歌>의 ‘佛伊衆生’을 ‘부텨여’로 읽고 ‘부처가 되어 衆生이’로 해석하였으나 구결의 ‘의’를 고려하면 ‘부처와 衆生’으로 해석하고 ‘伊’도 접속의 ‘이’로 볼 수 있다.

74) 고대국어의 격조사를 정리한 연구로는 최성규(2016)가, 보조사를 정리한 연구로는 하귀녀(2005)가 참고된다. 조사 전반을 다룬 연구로는 김지오(2025)가 참고된다.

분류	기능	향 찰		석 독 구 결		
		삼국유사	균여전	화엄계 화소, 화엄, 진본/주본점토	유가계 유가, 금광, 유가금광점토	구인, 자비
격 조 사	주격	是 이 (?史, ?理, ?伊, ?是)	靡只 익 _{1회}	이 이 弋 익	이 이	이 이
	대격	胎 을, 乙 을 _{1회}	乙 을, 胎 을 _{1회}	乙 을	乙 을	乙 을
	관형격 ₁	矣 의 [未]	衣 의	チ 의	チ 의	チ 의
	관형격 ₂	叱 人 (?叱 人 _{1회})	叱 人	叱 人 (?叱 人)	叱 人 (?叱 人 _{1회})	叱 人 (?叱 人 _{1회})
	처격 (단독형)	良 아 乃, 希 고 中 아, ?於 어 _{1회}	良 아, 中 고	+ 고	+ 고	+ 고
	처격 (복합형)	良中 아고 _{1회} 也中 여고 _{1회} 惡希 악고 _{1회} 衣希 의고 _{1회}	良衣 아고 _{1회} 於衣 어고 _{1회} 惡中 악고 _{1회} 阿希 악고 _{1회}	3 + 아고 チ + 의고 ス + 여고	3 + 아고 チ + 의고 ス + 여고	3 + 아고 チ + 의고 ス + 여고
	특이 처격	矣 의, 衣 의 [未]	衣 의 _{1회} [米, 未]	·	チ 의	チ 의
	처관 형격	之叱 ?액 阿叱 앗 _{1회}	惡之叱 ! ?액액 / 1회 阿叱 앗 _{1회}	3 셔 앗 チ 셔 윗 + 셔 긋 _{1회}	3 셔 앗 チ 셔 윗 + 셔 긋	3 셔 앗 チ 셔 윗
	구격	·	留 로 乙留 으로 _{1회} 留叱 롯 _{1회}	·· 로, 乙·· 으로 乙·· 셔 으 롯··· 롯 乙··· 으 록	·· 로 ·· 셔 롯 _{1회} ···· 롯 ···· 으 록	·· 로 乙·· 으로 1회 ·· 셔 롯 _{1회} ···· 롯 ···· 으 록
	공동격	·	·	·	·	·
	호격/ 감탄	下 하 良 아 也 야	下 하	下 하 3 아 : 야	下 하 3 아	下 하 3 아

김지오(2025:8)

2.5.2 보조사

보조사는 중세/현대국어와 같이 그 종류와 의미가 다양하다. 그중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자.

현대국어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로 주로 ‘은/는’이 쓰이는데 향가와 구결에도 동일하게 쓰였다. 향가에선 주로 ‘隱’으로 표기되나 드물게 ‘焉, 恨’으로도 표기되었고, 구결에는 ‘이’이 흔히 쓰였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이두에선 ‘隱(은/는)’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 초 이두인 『대명률직해』에 와서야 ‘隱’이 쓰였다. 고려 시대 이두 자료에는 ‘段(돈)’, ‘叱段(돈)’, ‘矣段(의돈)’이 보이며 중세국어의 ‘잇돈’에 대응한다. 관형격조사 뒤에 ‘段(돈)’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段’이 기원적으로 명사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두에는 [주제]를 나타낸 중세국어의 ‘으란/으란’에 해당하는 ‘乙良’이 보인다. 향가에선 ‘盼良’으로 한 번 나타나고 석독구결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⁵⁾

- (1) 二盼隱(두흘은) 吾下於叱古 [둘은 내 것이고] <處容歌>
- (2) 吾焉(나노) 頓叱 進良只 [나는 또 나아가] <請轉法輪歌>
- (3) 香_1(香은) 車輪 {如}⁷⁶⁾ | 〃 『香은 車輪 같고』 <구인 상>
- (4) 右崔瑄矣段(의돈) 賤母所生是在亦中 [崔瑄는 賤母의 所生인 터에] <尚書都官貼>
- (5) 田民家財乙良(으란) 奪取自持爲齊 [田民과 재산을 빼앗아 차지하였습니다] <尚書都官貼>
- (6) 城叱盼良(잣으란) 望良古 [성을 바라보고] <彗星歌>

중세국어의 강세 보조사 ‘사’는 고대 국어 자료에는 ‘沙’와 ‘사’로 표기되었는데 본래 ‘*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8)과 같이 중세국어와 달리 ‘사’ 뒤에 다른 조사가 더 결합한 경우도 나타난다.

- (7) 入良沙(들어사) 寢矣 見昆 [들어와 자리 보니] <處容歌>
- (8) 鬼史沙叱(죽이사) 望阿乃 [모습을 바라보나] <怨歌>
- (9) 賦給事是 後良中沙(아기사) [내려주신 후에야] <松廣寺奴婢文書>
- (10) 登 〃 〃 〃 1 〃 (호거기신이사) [등하신 이어야] <구인:11>

또한 중세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던 강세 보조사 ‘곳’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붓(火セ/火)’이 고대국어 자료에 보인다. 중세국어의 ‘곳’과 달리 ‘붓’은 목적격과 처격조사 뒤에도 붙을 수 있다.

- (11) 福德火セ(福德붓) 具 〃 未 〃 〃 1 [福德을 갖추지 않은] <금광 3>
- (12) 說法師乙속(說法師를붓) 種種 〃 [說法師를 갖가지로] <금광 3>

강세보조사 ‘ㄱ’은 중세국어에도 흔히 보이는데 주로 어미 뒤에 쓰였다. 기존에는 ‘只’만이 ‘ㄱ’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支/支’도 강세보조사 ‘ㄱ’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소리는 없으나 선행 문자의 의미를 분명히 해 주거나 훈독하라는 지시를 하는 지정문자⁷⁷⁾로 보거나 말음첨기 등으로 이해하였으나 김지오(2025)에서는 보조사로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라 아래 표에 물음표가 달려 있는 것이다.

75) ‘으란’의 기원에 대해선 하귀녀·황선엽·박진호(2009)가 참고되며 김지오(2024/2025)는 차자표기에는 이형태를 반영하지 않은 표기가 많다는 점에서 ‘良’을 처격조사뿐 아니라 ‘(으)란’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도 한다.

76) { }는 원문에 나타나지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읽지 않는 한자인 부독자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부독자와 관련해선 김지오(2020)가 참고된다.

77) 이용(2013)에서 이를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가 된다.

보조사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⁷⁸⁾

보 조 사	(주격) 주제	隱 은, 焉 은 _{1회}	焉 은, 隱 은, 恨 은 _{1회} , [萬隱]	니은	니은	니은
	(대격) 주제	勝良 으란 _{1회} , 良 란 _{1회}	良 란	.	.	• 11란 _{1회}

분류	기능	향 칠		석 독 구 결		
		삼국유사	균여전	화엄계 화소, 화엄, 진본/주본점토	유가계 유가, 금광, 유가금광점토	구인, 자비
보 조 사	첨가	置 도, ?都 도	置 도, 刀 도	刀 도, 乙 3 刀 을 아도	刀 도, 乙 4 刀 을 라도 _{1회}	刀 도
	강세1	沙 사, 沙叱 삿, 沙隱 산	沙 사, 沙叱 삿	沙 사	沙 사	沙 사, 沙火七 사불
	강세2	只 ㄱ [惡, 惡只] 支/支 ?ㄱ	只 ㄱ [玉, 惡] 支/支 ?ㄱ	八 ㄱ 支 ?ㄱ 八/支 군	八 ㄱ 支 군	八 ㄱ 八/支 군
	강세3	.	尗 곰	尗 곰	尗 곰	.
	강세4	?乃叱 곳
	서술 (영명, 김탄, 도치)	也 여, 耶/邪 여	也 여, 耶/邪 여	: /- 여 [丁]	- 여 [丁]	:/- 여 [丁]
	나열	也 여	也 여, 亦 여	:/- 여 시 과	- 여 시 과	:/- 여 시 과
	접속	.	伊 이	이 이	.	.
	양보	馬於隱 마란	.	기 도	.	牛 도
	매개	.	每如 마다 馬洛/落 마락	午 1마다	.	午 1마다
	정도3)	.	.	午 마	午 마	午 마
	한정	.	.	火七 붓 乙火 을붓	火七 붓 乙火 을붓	火七 붓
	의문 조사	古 고	古 고	口 고 3 아	口 고 3 아 속 가	속 가 _{1회}

김지오(2025:9)

78) 김지오(2025:9)에선 접속의 ‘이’와 나열의 ‘여, 과’를 보조사로 분류하였다. 학교문법 체계에도 ‘와/과, (이)
랑, 하고, (이)니’ 등과 같은 접속조사와 ‘든가, 든지, 라든지’ 등의 나열/열거의 보조사가 나뉜다는 점에서
나열의 보조사로 볼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고대국어의 ‘이, 여, 과’를 모두 접속조사로 보고 격조사와 보
조사와 분리되는 별개의 범주로 보도록 한다. 중세국어의 ‘과’도 접속조사로 보았기에 여기서도 ‘과’를 접속
으로 보는 것이 일관적이며 또 ‘이, 여’는 ‘과’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2.5.3 의존명사와 의존명사 구문

2.5.3.1 는

후기 중세국어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 의존명사 ‘는(는)’가 석독구결 자료에 보인다.

- (1) 卽 〃 1 는 (即호 는) 不矢リナ 1 1 3 [상즉한 것 아닌 것이며] <구인 상>
- (2) 化 〃 1 는 (화 는) 有セナ 1 3 [화하는 것도 있었는데] <구인 상>
- (3) 無セ 1 2 는 (없으신 는) 前 3 + [없으신 전에] <구인 상>

‘는’가 관형사형 어미 ‘-ㄴ’ 뒤에 왔다는 점 그리고 관형격조사 ‘ㅅ’과도 결합한다는 점에서 명사임이 분명하다. (1~2)는 ‘것’과 같은 실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나 (3)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를 지닌다. ‘-ㄴ 는’은 관형사형 어미로 굳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2.5.3.2 다⁷⁹⁾

석독구결 자료에는 ‘경우’, ‘때’를 의미하는 의존명사 ‘다(1)’가 확인된다. 석독구결의 연결어미 ‘-ㄴ다괴/다귄(1 1 + / 1 1 + 1)’와 후기 중세국어의 ‘-ㄴ다마다(-ㄹ 때마다)’의 ‘다’가 이 ‘다’이다. 특히 ‘-ㄴ다괴/다귄’ 구성이 ‘-時(:) + 1’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다’를 ‘때,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관형사형 어미 ‘-ㄴ(1)’과 의존명사 ‘다(1)’, 처격조사 ‘괴(+)’, 주제 표시 보조사 ‘ㄴ(1)’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ㄴ다괴/다귄’은 후기 중세국어의 ‘-ㄴ댄’의 선대형으로 추정되는데 ‘저괴>제’, ‘새바기>새배’ 등의 변화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⁰⁾

- (1) 在家 〃 1 1 + 1 當 〃 [在家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엄 14>
- (2) 具 〃 未 〃 〃 1 1 + 1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금광 3>
- (3) 捨 〃 〃 1 時 + 1 [버릴 때에는] <화엄 14>

이외에도 비유 구문에 쓰이는 의존명사 ‘다(1)’가 있는데, ‘처럼’, ‘와 같이’ 정도를 의미하는 부사(부사성 의존명사)로 추정된다. 중세국어에서 ‘곧-’으로 쓰일 부분에 ‘다-’로 나타나는데 ‘곧’과 ‘다’ 모두 ‘듯’과 비슷한 부사성 의존명사로 볼 수 있다. 「安民歌」의 ‘如’와 ‘多支’도 이 역시 의존명사 ‘다’로 파악 가능하다. ‘如’가 어미 ‘-다’를 나타낸 훈가자로 쓰일 수 있던 것이 이 때문이다.

- (1') 臣 多支(臣다히) 民隱如(民다) 爲內戶等焉 [신답게 민답게 한다면] <安民歌>
- (2') 香 1 車輪 {如} 1 〃 〃 (다호야) [향은 車輪 같고] <구인 상>
- (3') 水 如 1 〃 1 〃 (다호올) [물 같은 것을] <화엄 14>

2.5.3.3 듯

중세국어와 같이 고대국어에도 ‘듯’은 다양한 용법을 보여준다. ‘듯’ 앞에는 동명사 어미 ‘-ㄴ’이나 ‘-ㄹ’이 올 수도 있고 뒤에는 조사 ‘ㄴ’, ‘ㄹ’, ‘로’, ‘여’가 올 수 있다. ‘듯’과 ‘로’가 결합하면 ‘원인/

79) 시간 의존명사 ‘다’는 김유범(2001)이, 비유의 ‘다’는 박진호(1996)가 참고된다.

80) 이와 관련한 변화는 박진호·황선엽·이승희(2001)가 참고되며 ‘아괴>애’도 같은 변화로 볼 수 있다.

인과’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앞서 구격조사 단원에서 다뤘다. 동명사 어미와 ‘는’, ‘여’가 결합하면 ‘ㄴ/르며’가 감탄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종결표현의 감탄 단원에서 다룰 것이다.

2.5.3.4 이

의존명사 ‘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의존명사로도 쓰이나 주로 실제적인 의미보다는 형식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가 관형사형 어미 ‘르’ 뒤에 쓰일 땐 ‘르’이 연철되어 ‘리’로 발음되는데 ‘리’는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개 ‘수’로 쓰인다. ‘수’에 대해선 후술한다. 반면 관형사형 어미 ‘ㄴ’ 뒤에 쓰일 땐 ‘니(ニ)’로 쓰이지 않고 ‘ㄴ’과 ‘이’가 각각 표기되어 ‘니(ニ)’로 쓰였다.

- (1) 成辦ノ尸乙 見ノ仝+(見홀 이고) [이루는 것을 보는 것에] <유가 20>
- (2) 入ノキハニ 1 二:(入호거기신 이여) ノキナ [들어가신 것이라고 한다] <구인 상>

2.5.4 종결 표현⁸¹⁾

2.5.4.1 평서

평서문은 중세/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다’에 의해 실현되었다. ‘-다’는 향가에서는 ‘多’나 ‘如’로, 이두에서는 ‘之’나 ‘如’로, 구결에서는 ‘丨’로 나타났다.

- (1) 夂乙 抱遣 去如(가다) [알을 안고 가다] <薯童謠>
- (2) 待是古如(기드리고다) [기다리겠노라] <祭亡妹歌>
- (3) 人是 有叱多(잇다) [사람이 있다] <彗星歌>
- (4) 而 坐ノモハニ 1 (坐호 누기시다) [그렇게 앉아 있었다] <구인 상>
- (5) 等 3 ノ 無セナ 1 (업겨다) [대적할 이 없다] <화엄 14>
- (6) 二種 有セ 1 (잇다) [두 가지가 있다] <유가 20>
- (7) 作作處中 進在之(낫겨다) [만드는 곳에 나아갔느니라] <華嚴經寫經>
- (8) 賣如(다) 白 貫甲一 [팔았다 아린 貫甲 하나] <新羅村落文書>
- (9) 經 寫在如(쓰겨다) [경을 베낀다] <華嚴經寫經>

이외에도 중세국어에는 보이지 않는 평서형 종결어미 ‘-져’도 쓰였는데 구결 자료에는 보이지 않고 향찰과 이두에만 보인다. 삼국유사 향가에서는 ‘齊’로, 균여 향가에서는 ‘齊’와 ‘制’로 표기되었고, 초기 이두에서는 ‘哉’로, 후대에는 주로 ‘齊’로 표기되었다. 이때, ‘-져’를 평서형 종결어미로 보지 않고 기원/원망(願望)형 종결어미로 보기도 한다. 관련해서 최성규(2019:23-25)가 참고된다. 齊는 ‘제’로 읽기도 하며 그 의미가 평서, 청유, 명령 감탄 등 넓은 범위에서 해석될 수 있다.

- (1') 遂內良齊(좇느라져) [쫓고 있노라] <讚耆婆郎歌>
- (2') 周物叱 供爲白制(흐술져) [온갖 供하옵져] <廣修供養歌>
- (3') 盡良 禮爲白齊(禮흐술져) [내내 절하옵져] <禮敬諸佛歌>

81) 종결어미를 시대별로 그리고 자료별로 정리한 최성규(2019)가 참고된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로 나누었다.

- (4') 此善 助在哉(돕겨져) [이 善을 도왔저(?돕기를 바란다)] <阿彌陀如來造像記>
 (5') 並只 陞失令是齊(墜失 陞 이져) [모두 品秩을 올려 주었습니다] <尚書都官貼>

또한, 백제 자료에 ‘耳’와 ‘矣’가 보이는데 이를 국어의 종결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 ‘耳’는 신라의 영일냉수리비에도 보인다. 물론 독법에 대해 합의된 견해는 아직 없으며 국어의 요소인지 중국어의 요소인지도 아직 확실치 않다.

2.5.4.2 의문82)

고대국어의 의문문은 의문 보조사(첨사) ‘고’와 ‘가’가 결합한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고’는 ‘古’나 ‘故’로, ‘가’는 ‘去’로 표기되었다. 「隨喜功德歌」의 「過」도 ‘가’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 (1) 誰支下 焉古(한고) [누구의 것인가?] <處容歌>
 - (2) 去內尼叱古(가느닛고) [가는가?] <祭亡妹歌>
 - (3) 彗叱只 有叱故(?잇고) [慧星이 있으리오?] <彗星歌>
 - (4) 四十八大 願成遣賜去(일고실가) [四十八大 이루실까?] <願往生歌>
 - (5) 心音 至刀 來去(올가) [마음이 이르러 올까?] <隨喜功德歌>
 - (6) 置乎理叱過(두오릿가⁸³⁾) [두리이까?] <隨喜功德歌>

구결에도 ‘가/고’가 보이는데 그 약화가 적용된 표기도 나타난다. ‘고’는 ‘고’, 그 약화가 적용된 ‘오’는 ‘으’로, ‘가’는 ‘가’, 그 약화가 적용된 ‘아’는 ‘으’로 표기되었다.

- (7) 衆生 丨 住 ヴ 丨 丨 3 セロ (住^한이^아고) [중생이 머무른 것인가?] <화소 35>
(8) 得 ヴ タ 可 セ ヴ オ ルロ (짓^한릴^고) [얻을 수 있을까?] <구인 상>
(9) 因縁 丨 丨 ロ ヴ リ ルロ (한^고오리오) [因縁이라 하겠습니까?] <구인 상>
(10) 有 セ 丨 ロ ヴ リ ル3 (한^고오리안) [있다 하겠습니까?] <구인 상>
(11) 退失 ヴ ル ルロ (退失^한걸^가) [잃을 것인가?] <유가 20>

다만 ‘-닛고’나 ‘-이았고’ 등의 ‘가/고’는 보조사가 아닌 의문형 어미 ‘-가/고’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닛’의 정체는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체언류로 파악되지는 않으므로 보조사 ‘고’가 붙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았고’의 ‘았’은 선어말어미이므로 역시 ‘고’를 조사로 보기 어렵다. 어간 뒤에 오는 ‘가/고’는 어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만, 차자 표기의 생략 표기를 고려할 시 (3)은 ‘이실고’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확실한 예는 아니다.

의문 보조사 ‘고’는 주로 의존명사 ‘이’나 명사형 어미 ‘-ㄴ’ 뒤에 쓰였다. ‘리고’, ‘리오’는 중세국어의 ‘-리오/료’에 대응하는데 이들은 기원적으로 관형사형 어미 ‘-ㄹ’, 의존명사 ‘이’, 의문보조사 ‘고’가 결합한 것이다. 중세국어의 의문형어미 ‘리아/려’, ‘니오/뇨’, ‘니아/녀’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쳤다. 중세국어의 의문형 어미 ‘-ㄴ가/고’나 ‘-ㄹ가/고’도 기원적으로 명사형어미 ‘-ㄴ/ㄹ’ 뒤에 의문보조사 ‘가/고’가 결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을 하나의 굳어진 어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일단 ‘-ㄴ + 가/고’, ‘-ㄹ + 가/고’, ‘-ㄹ + 이 + 가/고’ 등으로 보겠다. 차자 표기 자료에서 ‘-ㄴ가’나 ‘-닢가’ 등이 보이지 않는 것은 자료의 한계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82) 국어의 의문법의 역사는 고은숙(2008)이 참고된다.

83) 김완진(1980)에선 제주 방언을 고려하여 '과'로 읽었다.

향찰에는 ‘下是’나 ‘下呂’로 표기되는 의문형이 있었는데 ‘-아리’ 정도로 읽는다. 중세국어의 반말체 의문형 어미와 비슷한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12) 惡知 作乎下是(일오아리) [어찌 이루리?] <慕竹旨郎歌>

(13) 人音 有叱下呂(이샤리) [사람이 있으리?] <隨喜功德歌>

중세국어의 2인칭 의문문인 ‘-ㄴ다’, ‘-ㄹ다’는 여말선초의 음독 구결 자료에서는 ‘-ㄴ뎌’, ‘-ㄹ뎌’로 나타난다. 향가에서는 ‘丁’이 보이나 이는 의존명사 ‘드’와 조사 ‘여’가 결합한 것이라 엄밀히는 어미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문법화한 것으로 보고 ‘-ㄹ뎌’를 의문형 어미로 보겠다. ‘-ㄴ뎌’로 볼 예가 13세기 이전의 자료에서 확실히 보이지 않지만 ‘-ㄹ뎌’를 고려하면 ‘-ㄴ뎌’도 존재했을 것이다. 이것이 중세국어의 2인칭 의문 종결어미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14) 於冬是 去於工(가눌뎌) [어디로 가겠는가?] <安民歌>

(15) 見恒河水 〃1底-(호뎌) [見恒의 물을 보았느냐?] <남권희본 능엄경 2>

(16) 見恒河水 〃1丁(호뎌) [見恒의 물을 보았느냐?] <기림사본 능엄경 2>

한편, 기존의 견해에선 「願往生歌」의 ‘去賜里遣’을 ‘가시리고’로 읽어 의문문으로 해석하곤 하였다. ‘遣’은 현대 한자음으로는 ‘견’이지만 이두 학습서에는 ‘고’로 독법이 써져 있었기에 선행 연구에선 ‘고’로 읽고 연결어미 ‘-고’ 또는 의문 보조사(또는 어미) ‘고’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중후반의 초기 향가 연구 시절뿐 아니라 최근 논의(황선엽(2002), 장윤희(2005))에서도 ‘遣’을 ‘견(겨)’으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를 ‘견’으로 읽을 시 의문문이 아니라 연결어미가 쓰인 접속문이 되고 ‘가시리견(가실 것이니)’⁸⁴⁾으로 해석된다. 독법 자체가 논란이 있고 또 아예 의미가 달라지므로 위의 예는 의문법에 포함하지 않겠다.

2.5.4.3 명령

중세국어의 ‘-쇼서’에 대응하는 고대국어의 명령형은 ‘-고기시서’ 또는 ‘-고시서’이다. 이때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이므로 명령형 종결어미는 ‘-서’라고 할 수 있다. 향찰에서는 ‘立’으로, 구결에서는 약자인 ‘坐’으로 표기되었다. 명령형 어미 ‘-라’도 보이는데 주로 ‘良’으로 표기되었다.

(1) 有如 白遣賜立(속고시셔) [있다 사리소서] <願往生歌>

(2) 闕遣只賜立(마기시셔) [증거하소서] <懺悔業障歌>

(3) 彌勒座主 陪立 羅良(별라) [彌勒座主 모셔 별어라] <兜率歌>

(4) 一念惡中 涌出去良(솟나거라) [一念에 솟나거라] <稱讚如來歌>

(5) 功德 乙 演暢 〃口ハ坐(演暢 ㅎ 고기시셔) [功德을 演暢하소서] <화엄 14>

(6) 當 〃 知口ハ坐(알고기시셔) [마땅히 아십시오] <화소 35>

(7) 逼迫 乙 免支 モ坐(벗느셔) [逼迫을 벗으소서] <화엄 14>

특이한 점은 ‘坐(느셔)’가 명령형 어미임에도 형용사나 서술격조사 뒤에 결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형용사나 서술격조사가 자동사에 가까운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고 설명한다.

84) 황선엽(2002)에선 ‘-견’을 ‘-으니’와 같은 기능을 하는 어미라고 파악하였다.

『계림유사』에는 ‘-쇼서(受勢/少時)’가 보인다. ‘受勢’와 ‘少時’의 표기가 서로 다른 하나 아마 형태상 가장 가까운 ‘-쇼서’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 (8) 語話曰 替里受勢(드르쇼서) [‘語話’은 ‘替里受勢(들으소서)’라 한다]
(9) 相別曰 羅戲少時(여?희쇼서) [‘相別’은 ‘羅戲少時(여의소서)’라 한다]

다만 고대국어 자료의 명령형은 학자마다 그 해석이 달라 평서형 또는 감탄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2.5.4.4 감탄

고대국어에는 후기 중세국어의 ‘-애라/에라’와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 ‘-아라(良羅)’가 보인다. 다만 이 ‘-아라’를 감탄형으로 보지 않고 명령형 또는 평서형으로 보는 연구자도 많다.⁸⁵⁾

- (1) 噉惡支 治良羅(다스리아라) [먹여 다스리는구나] <安民歌>
(2) 哀反 多羅(하라/해라) [서러운 이 많구나] <風謠>

균여 향가에는 ‘-라’나 ‘-아라’로 읽을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고, ‘여/야’로 읽히는 ‘也’나 ‘耶’, ‘兮’가 보인다. 이들을 종결어미로 볼 수도 있으며 기원적으로 감탄의 조사 ‘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 평서형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아예 ‘여’로 읽지 않기도 한다.

- (3) 喜賜以留也(깃그시리로여) [기뻐하시리로다] <恒順衆生歌>
(4) 佛體叱 事伊置耶(일이도야) [부처의 일이로다] <總結無盡歌>
(5) 白乎隱 乃兮(솔본 너여) [사로니여] <稱讚如來歌>

석독구결 자료의 감탄문은 명사형 어미 ‘-ㄴ’이나 ‘-ㄹ’ 뒤에 감탄의 조사 ‘여’를 결합시켜 ‘-ㄴ여’나 ‘-ㄹ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그 사이에 의존명사 ‘ㄷ’가 쓰이기도 했다. ‘-ㄴ더’나 ‘-ㄹ더’는 의존명사 ‘ㄷ’가 결합한 것이지만 하나의 구성으로 굳어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윤희(1998)를 따라 하나의 종결어미로 보겠다.

- (6) 化 〃 〃 / 〃 〃 有 〃 〃 (잇겼여) [化는 것도 있었구나] <구인 상>
(7) 說 〃 不 〃 〃 〃 〃 (안들흐시꽃여) [說하지 않으시는구나] <금광 3>
(8) 佛 〃 無 〃 〃 〃 〃 (업으시운디여) [부처님이 없으시구나] <화엄 14>
(9) 事 有 〃 〃 (잇는여) [일이 있구나] <화엄 35>

또한 어미 구조체인 ‘-ㅅ ㄷ 야(叱等邪/叱等耶)’가 있는데 고려 말 음독구결의 ‘-ㅅ ㅅ ㅅ’과 후기 중세국어의 ‘이 쫓녀’와 비교된다. 어원적으로 관형격조사 ‘ㅅ’과 의존명사 ‘ㄷ’, (감탄)조사 ‘여’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수사의문문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의문문과 감탄문의 의미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감탄문으로 보도록 한다.

85) ‘-애라/에라’는 기원적으로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 ‘-다’의 결합으로 형성된 것인데 ‘ㄷ>ㄹ’의 변화가 고대국어 시기에 활발하지 않았거나 아예 없었다고 보기도 하므로 ‘-아라’가 중세국어의 ‘-애라/에라’의 선대형 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관련하여 최성규(2019:25-26)를 참고할 수 있다.

- (10) 浮去伊叱等邪(띠갯드야) [띠가 버렸더라] <彗星歌>
 (11) 古只內乎叱等邪(누리느웃드야) [매달리누나] <禱千手觀音歌>
 (12) 乞白乎叱等耶(비술붓드야) [빌었느니라] <禮敬諸佛歌>

고대국어의 종결어미 및 조사 체계 정리를 잠정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견이 있겠으나 우선 학교문법 체계를 고려하면서 최성규(2019)를 최대한 따랐으며 기능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위첨자로 ?를 달았고 독법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다른 독법과 ?를 함께 제시하였다. 청유문은 고대 국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기능	형태	향가	이두	구결
평서	-다	如, 多	之, 如	丨
	-져(제?)원망(?)	齊, 制	哉, 齊	
의문	(-)고	古, 故		口 / ㆁ
	(-)가	去, 過(과?)		ㄻ / ㄻ
	-아리	下是/下呂		
	-ㄴ/ㄹ여	丁		
명령	-라 ^{평서/감탄(?)}	良		
	-서	立		立
감탄	(-)야/여 ^{평서(?)}	也, 耶, 兮		:
	-(아)라 ^{평서/명령(?)}	(良)羅		
	-ㅅ ㄷ 야 ^{의문(?)}	叱等邪, 叱等耶		
	-ㄴ여/ㄴ여 ^{의문(?)}			ㄱ: / ㄱ矢: / ㄱ丁 / ㄱㄻ
	-ㄹ여/ㄹ여 ^{의문(?)}			ㅁ: / ㅁㄻ

2.5.5 연결어미와 접속 표현⁸⁶⁾

현대국어에서 [나열]을 담당하는 연결어미는 ‘-고’인데 고대국어에는 ‘-고’가 잘 쓰이지 않고 오히려 ‘-져’가 흔히 쓰였다. 구결에선 ‘ㄻ’로 표기되었는데 아우름 동사 ‘ㅅ(ㅎ)-’가 함께 나타났다. 구결의 ‘-져’는 주로 동사구 접속에 쓰였으며 절 접속에 쓰인 ‘-며’와 구분된다. 이두에선 ‘哉’나 ‘齊’로 쓰였는데 구결과 달리 아우름 동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86) 접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진호(1998:131-141)와 황선엽(2002:7), 김지오(2019)가 참고된다. 아래의 ‘연접’은 한국어 연결어미 분류의 ‘병렬’의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 유형론적으로 대등접속은 연접(conjunction), 이접(disjunction), 역접(adversative)으로 나뉜다. 각각 ‘and, or, but’으로 대표된다.

- (1) 變 百億 高座 現 百億 須彌寶花 化 有 セナ : <구인 상>
 [변하게 하고 百億 高座를 나타내고 百億 須彌寶花를 化하는 것도 있었는데]
- (2) 哀愍 天人 利樂 爲欲 人 [哀愍하고 天人을 利樂하고자] <화엄 14>
- (3) 若臥宿哉 若食喫哉 爲者 [혹 누워 자거나 혹 먹고 마시거나 하면] <華嚴經寫經>

현대국어에서 [조건]을 나타내는 어미는 ‘-거든’이나 ‘-(으)면’인데 고대국어에선 ‘-르든’이 주로 쓰였다. 이는 관형사형 어미 ‘-르’과 의존명사 ‘드’, 보조사 ‘ㄴ’의 결합이다. 앞서 다룬 ‘-ㄴ다건’ 역시 [조건]을 나타낸다.

- (4) 爲 內尸等焉(하늘둔) 國惡 太平恨音叱如 [한다면 나라 태평을 지속하느니라] <安民歌>
- (5) 心 用 ヒ 尸 人(用하늘둔) 則 え [마음을 쓴다면 곧] <화엄 14>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연결어미가 아니라 명사형 전성어미로 절이 접속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석독구결 자료에서 명사형 어미 ‘-ㄴ’에 해당하는 ‘-’으로 끝나는 문장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아래의 (6)과 (7)은 서로 이어지는 문장이다. 또, 명사형 어미 ‘늘/늘’로 읽히는 ‘- ㄴ ㄹ’이라는 연결어미도 쓰였는데 박진호(1998:132)에서 명사형 어미와 목적격조사의 결합으로 분석했다.

- (6) 衆生 ヲ 根 ヒ 得 ニ 人(얻으시호) [중생의 根을 얻으시고] <구인 상>
- (7) ... 金剛山王 {如} | ヒロハニ 人(다하고기신) [... 金剛山王과 같으시니] <구인 상>
- (8) 可 セ 人 不 矢 人(안디늘) 我 人 今 人 [... 할 수 없거늘 나는 지금] <화엄 14>

명사형 어미 ‘-르’도 접속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인용문에서 쓰였다. 중세국어라면 ‘-오디’가 쓰여야 할 환경에 ‘-ㄹ(-르)’이 나타났다. 그리고, 중세국어의 연결어미 ‘-오디’는 구결에선 ‘-온디’, ‘-올디’로 나타나므로 이들은 선어말어미 ‘-오-’와 관형사형 어미 ‘-ㄴ/ㄹ’과 의존명사 ‘디’의 구성이라 볼 수 있다.

- (9) 菩薩 ヲ 問 ヒ 言 ヒル(나르실) 佛子 人 ... [菩薩께 이르시길 “불자여...”] <화엄 14>
- (10) 國土 ニ 有 セ 五 一 ム(잇온디) 一—國土 [국토가 있는데, 국토 하나하나] <구인 상>

또, ‘良’로 표기된 연결어미 ‘-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두에서 생략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황선엽(2010)에선 향가에서도 ‘-아’가 생략된 바 있다고 기존의 해독을 수정하였다.

김지오(2019:76-77)에선 ‘연결어미’라는 명칭의 한계를 지적는데 고대국어의 의존명사를 포함한 어미구조체가 과연 문법화가 되었는지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없고 또 의존명사를 이용해 절 및 구를 연결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기에 고대국어의 접속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선 그 범위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현대국어의 ‘비가 온 까닭에 우산을 썼다’와 같은 문장의 ‘-ㄴ 까닭에’는 당연하게도 연결어미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고대국어에선 [조건]이나 [원인] 등을 의존명사 ‘다’가 쓰인 ‘-ㄴ다건’이나 ‘드’가 쓰인 ‘-ㄴ드로’, ‘-르드로’ 등으로 표현하였다. 문법화의 여부를 차 치하더라도 보다 용어의 범위를 넓히거나 새로운 용어의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여기선 최대한 현대국어의 용어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최성규(2016:292)와 같이 문법화가 됐다고 판단하고 하나의 연결어미로 보겠다.

의미	형태	향가	이두	석독구결
[대조] [양보]	-나	(隱)乃, 奈	乃	(그)乃
	-과두			人斗
	-마리여	而也	而亦	
[나열]	-며	旣	旣/尗	尗
	-나		乃, 那	
	-셔/체		齊, 哉	尗
[가정]	-근든/든	尸等隱/等	(願爲內等者)/等	尸入그/入그
	-ㄴ 은		者	그
	-ㄴ 다관			그니
조 건	[시간 한정]	-ㄴ 다고	隱多衣	在如亦中
	[시간 선후]	-고근		在如中
		-아근	根	3斤 3八그, 3니그
[연접] [계기] [접속]	-아	良	良	3(四/下)
	(+△, 그, 곰)	(+沙, +只, +尗)	(+只, +尗)	(+八, +尗)
	-오/우	刀, 毛, 好, 玉	于/乎	3/그/노
	-이	伊, 以, 翱	亦	니
	-고 (+그)	古(遣?) (+只)	(遣?)	口 (+八)
[원인]	-ㄴ 드로			그 드로
[전제] [이유]	-견/겨	遣	遣→고	그니?
	-丐)?	米		
[발견] [이유]	-곤	昆	昆	口그/口…그
[인용] [상술]	-은			-그
	-을(을더)			-尸(尸丁)
	-온드)/옹드)		乎矣	그니ム, 그니尸
[배경]	-ㄴ여/근여	尸也	在亦	그니, 尸也, (그丁, 今ニ)
	-늘/늘	(隱)乙	乙	그乙
[소망]	-과		欲	人
	-스더			七彳
[전환]	-다가	如可	如可	

김지오(2019:81)

이 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遣’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연구에선 ‘고’로 읽어 왔고 중세나 현대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위 표의 [연접]의 ‘-고’는 종래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독법에 대한 지적이 제시되었고 ‘견’으로 읽는 학자들이 여럿 있다. 위 표의 [전제/이유]의 ‘견/겨’는 이를 따른 것이다. 복잡한 문제이니 여기서는 이를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것이다. 황선엽(2002)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2.5.6 전성어미와 절의 안김

2.5.6.1 명사절

중세국어의 명사형 전성어미는 ‘-음/움’이 쓰였는데, 고대 국어 시기의 이두와 구결 자료에는 명사형 어미 ‘-ㅁ’이 보이지 않는다. ‘-음/움’은 어원적으로 선어말어미 ‘-오/우-’와 ‘-ㅁ’이 결합한 것이다. 향가에는 ‘-ㅁ’으로 볼 수 있는 몇몇 예가 제시된다. 특히 ‘音’이 명사형 어미와 관련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나 해석상 의견이 갈려 확실하지 않다.⁸⁷⁾

고대 국어 시기에 명사절은 주로 ‘-ㄴ’과 ‘-ㄹ’에 의해 실현되었다. ‘-ㄴ’과 ‘-ㄹ’은 본래 명사형 전성어미 즉 명사형 어미로만 쓰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관형사형 어미로서의 쓰임도 가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 (1) 目煙 廻於尸(도랄) [눈의 둘음] <慕竹旨郎歌>
- (2) 愛尸(듯을) 知古如 [사랑함을 알리라] <安民歌>
- (3) 迷火隱乙(입은을) 根中 沙音賜焉逸良 [미혹함을 뿌리 삼으시니라] <恒順衆生歌>

- (4) 異 〃 𠂊(異호) 無 セニ ふ [다름이 없으시며] <구인 상>
- (5) 勝 〃 1 {爲} 〃 ノ(삼을도) [수승함을 삼기도] <화엄 14>
- (6) 說ノ(니를) 已 〃 〃 ㅁ [이르기를 마치고] <화엄 14>

2.5.6.2 관형사절

고대국어의 관형사절은 중세국어와 마찬가지로 주로 ‘-ㄴ’과 ‘-ㄹ’에 의해 형성되었다.⁸⁸⁾

- (1) 去隱(간) 春 [간 봄] <慕竹旨郎歌>
- (2) 慕理尸(그릴) 心未 [그리는 마음의] <慕竹旨郎歌>

- (3) 無 セ 𠂊(없은) 化佛〃 [없는 化佛이] <구인 상>
- (4) 見 ノ ノ(보올) 所 〃 [보는 바와] <구인 상>

그런데 향가에는 ‘-이’가 붙어 후행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난다.

- (5) 明期(붉으) 月良 [밝은 달에] <處容歌>
- (6) 好支(똥으) 栢史 [좋은 잣이] <怨歌>

그런데, ‘이’로 끝나는 것이 명사형으로 보이는데 명사형만으로 관형어로 기능하는지는 설명하기 까다롭다. 고정의(1989)에서는 ‘이’를 사동접사로 보았으나 뒤에 어미가 붙지 않은 형태로 관형형이 가능한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일단 용언의 활용이므로 관형절로 볼 수는 있겠으나 까다로운 예이다.

87) 관련하여 최성규(2017)가 참고되며 이에 의하면 ‘米’와 ‘末’는 명사형 어미로 보기 어렵다. 또, 동일 논문의 166-170쪽에서 명사형 어미 ‘-ㅁ’으로 볼 수 있는 구결의 예를 제시하였으나 이견이 있어 ‘-ㅁ’은 제외함.

88) 학계에선 동명사형 어미를 명사형 전성어미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쓰나 여기서는 현대문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위해 통사적 기능에 따라 둘을 나눠 부르도록 한다.

또, 석독구결 자료에는 후기 중세국어에 보이지 않는 독특한 유형의 관형절도 보인다. 관형사형 어미 ‘-ㄴ(1)’과 의존명사 ‘느(ㅌ)’, 관형격조사 ‘ㅅ(叱)’의 결합인 ‘ㄴ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후기 중세국어라면 관형사형 어미 ‘-ㄴ’만 쓰였을 구성이다. 어미 ‘-ㄴ(1)’은 생략되기도 했다.

(7) 無極 〃 1 느 ㅅ(無極호느) 悲 乙 [無極한 慈悲를] <구인 상>

(8) 含 〃 1 느 ㅅ(含호느){之} 生 1 [含하는 生은] <구인 상>

(9) 斜曲 〃 느 ㅅ(斜曲호느) 路 乙 [굽은 길을] <화엄 14>

또, 단순히 ‘-ㄹ’만 쓰일 환경에서도 ‘-ㄹ’이 아닌 다른 형태로 쓰였다. 동명사 어미 ‘-ㄹ’과 의존명사 ‘이’의 결합인 ‘리(ㄻ)’와 관형격조사 ‘ㅅ(叱)’이 결합한 ‘릿’으로 나타난다.

(10) 能 ㄻ 捨 〃 仝 ㅅ(捨호릿) 人 乙 [능히 버리는 사람을] <화엄 14>

(11) 世 乙 照 〃 𠂌 仝 ㅅ(비취시릿) 燈 乙 [세상을 비추시는 燈을] <화엄 14>

(12) 答 〃 二字 仝 ㅅ(답호시릿) 者 [대답하시는 사람] <구인 상>

그런데 관형사형 어미 ‘-ㄹ’은 후기 중세국어 이전에는 그 의미가 다소 달랐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최준호(2019)는 ‘총칭성(genericit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고대국어의 ‘-ㄹ’이 단순한 미래나 추측을 넘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대상의 본질적 속성이나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기능을 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2)의 ‘慕理尸(그릴)’은 관형사형 어미 ‘-ㄹ’이 쓰였음에도 기존 연구들에서 대개 ‘그리워하는’으로 현대어역 해 온 바 있다. 최준호(2019)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를 ‘慕理尸(그릴)’이 ‘(앞으로) 그리워할 마음’이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대상이 지닌 ‘(늘) 그리워하는’이라는 항구적인 속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를 따르면 고대국어 단계의 ‘-ㄹ’은 현대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는’이 담당하는 [총칭성]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비현실(Irealis)’ 범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후기 중세국어의 명명 구문(Q라 훑 P)이나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한자의 훈 읽기(예: 검을 현, 누를 황) 등은 이러한 ‘총칭성’의 흔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5.7 시간 표현

고대국어에도 시상을 나타내기 위해 선어말어미가 쓰였는데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

2.5.7.1 과거 시제

후기 중세국어에서 과거 시제 내지는 회상을⁸⁹⁾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더-’였는데 이와 관련된 형태로 보이는 요소가 고대국어 자료에도 보인다. ‘-더-’는 향가와 이두에선 ‘如’로, 구결에선 ‘丨’로 표기되었는데, ‘더’로 읽기도 하나 쓰인 문자를 고려하면 ‘다’로 읽을 수도 있다. 다만 ‘如’는 종결어미 ‘-다’를 나타낼 때도 쓰인 문자이므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거형으로 처리한 문장을 종결형으로 볼 수도 있다.⁹⁰⁾ ‘頓’로 표기된 예가 향가에 하나 보이는데 ‘던’이나 ‘돈’, 또는 ‘돈’으로 읽는다. ‘-더(다)-’의 변이형으로 ‘-드-’도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드/ດ-’는 ‘ㅅ’나 ‘ㅎ’의 형태로 여말선초의 음독구결 자료에만 보이나 그 역사를 일찍 소급하기도 한다.⁹¹⁾

89) 회상의 ‘-더-’를 ‘과거 비완망상’으로 이해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학교문법을 따라 과거 시제로 보겠다.

90) 어떻게 달리 해석되는지는 박부자(2018)가 참고된다.

91) ‘-드-’의 재구는 남풍현(1987)이 참고되며 박진호(2016)에선 ‘-드/ດ-’가 본래의 형태라고 주장했다.

석독구결에서 분포상 ‘-’ 뒤에 동사 어간 또는 동사 어간을 포함한 구성으로 보이는 요소가 온다는 점에서 최성규(2025:98-100)에서는 진정으로 선어말어미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향가, 이두, 구결 자료에서 모두 용례가 많지 않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백두현(1997)에선 석독구결에서 ‘-더-’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기도 했다. 여기선 이두의 용례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는 점 그리고 박부자(2018:66-67)의 기술대로 여러 연구에서 자토석독구결에서 선어말어미 ‘-더-’로 볼 수 있는 형태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단 선어말어미 ‘-더-’를 설정한다.

2.5.7.2 현재 시제

고대 국어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누-’였으며 향찰과 이두에서는 ‘臥’로 구결에서는 ‘ト’로 표기되었다. ‘-누-’는 거의 모든 용례에서 동사에만 결합하며 중세국어의 ‘-누-’와 비슷한 분포와 기능을 보인다.

- (1) 落臥乎隱(디노온) 三業 [떨어지는 三業] <懺悔業障歌>
(2) 造將來臥乎隱 지스려노온)(惡寸 [짓게 되는 惡業] <懺悔業障歌>

(3) 成造爲賜臥亦之(旱시노여다) 白臥乎(술노온) [“... 成造하시는 바이다” 사르는] <慈寂碑陰>
(4) 爲將來臥乎等用良 [해 오는 것으로써] <尚書都官貼>

(5) 大光明乙 放 丶 ト 丶 1 丶 1 (放旱시노온돈) [大光明을 발하시는 것은] <구인 상>
(6) 汲井丶ト 1 乙 (汲井旱노을) [우물물 짓는 것을] <화엄 14>

한편, 고대국어 자료에도 중세국어와 형태상 동일한 '-느-'가 보이는데 향찰에서는 '飛'로, 구결에서는 '飞'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이를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형용사와 서술격조사 어간 뒤에도 붙으며 미래 시제와 관련된 '-리-'와도 결합하기 때문이다. 고대국어의 '-느-'의 기능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최근에는 대체로 [항상성]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하는 듯하다. 자세한 것은 서법 단원에서 다룬다.

이때 ‘內’도 쓰였는데 기능과 독법에 대해 이견이 있다. ‘內’는 현재 시제의 ‘-누-’가 쓰일 환경과 항상성의 ‘-느-’가 쓰일 환경에 모두 나타났는데, 이를 단순히 ‘누’로만 읽기도 하고, ‘누’와 ‘느’라는 두 독법으로 읽기도 한다.⁹²⁾ 또, 현재/항상성으로 보지 않고 ‘안(-아- + -ㄴ)’으로 읽고 확인법과 관련된 요소로 파악하기도 하나, 형태소 ‘-누-’는 신라 시대에도 있었을 것으로 여기서는 향가의 ‘內’를 ‘누’로 읽도록 한다.

92) 이에 대해선 김무림(2003)과 허인영(2019)이 참고된다.

(7) 云遣 去內尼叱古(가노낫고) [이르고 가는가?] <祭亡妹歌>

(8) 拜內乎隱(저노온) 身萬隱 [절하는 몸은] <禮敬諸佛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누-’의 기원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많은 언어에서 자세 동사 (stand, sit, lie)가 시제, 상, 양태 요소로 문법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눕다’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2.5.7.3 미래 시제

중세국어의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는 ‘-리-’였는데 고대 국어도 ‘-리-’가 보인다. 향가에서는 ‘理’로, 구결에서는 ‘ristol’로 표기되었다. 다만 선어말어미 ‘-리-’는 명사형 어미 ‘-ㄹ’과 서술격조사 ‘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고대국어 시기에 ‘-리-’가 선어말어미로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⁹³⁾ 여기서는 우선 ‘-ㄹ 이-’로 보는 관점을 취하겠다.

(1) 折叱可 獻乎理音如(바도림다) [꺾어 바치오리다] <獻花歌>

(1') 奪叱良乙 何如爲理古(엇디 ㅎ리고)[앗은 걸 어찌할꼬] <處容歌>

(2) 慧成熟노 ristol (호리다) [慧成熟이라고 할 것이다] <유가 20>

(3) 無니 ristol (ㅎ겨리며) [없이 할 것이며] <화엄 14>

(1)과 (2), (3)은 선어말어미 ‘-리-’의 쓰임으로 볼 수 있다. (1)의 ‘바도림다’는 ‘밭- + -오- + -리- + -음(음)- + -다’로 분석된다. (2)나 (3)은 어말어미 앞에 쓰였기에 선어말어미로 굳어졌다고 볼 만한 예문이다. 고대국어의 ‘-리-’는 현대국어의 ‘-겠-’과 비슷하게 미래시제도 나타내지만 추측과 같은 양태적 의미도 나타낼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은 의문 보조사 ‘고’ 앞에 쓰였다는 점에서 선어말어미로 보기 어렵다. 이 ‘리’는 선어말어미 ‘-리-’가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 ‘-ㄹ’과 의존명사 ‘이’의 결합인 ‘리’ 즉 석독구결의 ‘소’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이병기(2018:83-84)). 앞서 언급했듯이 ‘-ㄹ 이’는 ‘소’로, 기원적으로 ‘-ㄹ 이-’의 구성을 가지는 ‘-리-’는 ‘ristol’로 표기되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향가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理’로 표기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 JpaRepository’, ‘-리다’, ‘-리며’ 등은 선어말어미 ‘-리-’의 예시로 보고, ‘-리가/고’ 등의 ‘리’는 선어말어미가 아니라 어미 ‘-ㄹ’이 의존명사 ‘이’에 연철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⁹⁴⁾

그러나 ‘-이았고’ 따위에서 의문어미 ‘-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 따위를 단순히 ‘-리- + -고’로 볼 수는 없는 것일까? 확실한 것은 아니나, 고은숙(2008)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듯하다. 이에 의하면 본래 의문 종결 표현에는 보조사 ‘가/고’뿐이었고 이를 명사형 어미 ‘-ㄴ’, ‘ㄹ’에 결합하거나 의존명사 ‘이’가 개입되어 ‘-ㄴ가/고’, ‘-ㄹ가/고’, ‘-리가/고’ 등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고’를 어미로 재분석하여 의문형 어미 ‘-고’가 형성된 것이라면 ‘-리고’는 ‘고’가 어미가 아닌 보조사로만 쓰이던 시절에 형성된 형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아예 위들 예를 하나의 굳어진 어미로 본다면 이처럼 복잡한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기원적으로 보조사 ‘가/고’가 붙었으나 문법화

93) 문법화 과정에서 의존명사 ‘이’가 개입했는지는 이견이 있으며 이병기(1998/2018)가 참고된다. ‘-리-’의 기원은 의존명사의 개입 여부에 따라 ‘-ㄹ 이-’로 보는 견해와 ‘-ㄹ + 이 + 이-’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94) ‘리아/오’의 그 약학에 대한 문제는 고은숙(2008:82-86)과 이병기(2019:108)가 참고된다.

한 것으로 파악할 시 ‘가/고’를 보조사와 어미로 나누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중세국어의 ‘-릿가’나 ‘-닛가’를 하나의 어미로 보듯이 ‘-ㄴ가/고’, ‘-ㄹ가/고’, ‘-리가/고’ 등을 아예 하나의 어미로 설정할 시 단순히 기술의 편의만 따진다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 않나 싶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어미로 보는 것이 가장 편리한 서술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願往生歌」의 ‘去賜里遣’를 선어말어미 ‘-리-’로 보기도 하는데 ‘遣’의 정체에 따라 분석이 달라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遣’을 ‘고’로 읽는다면 의문 보조사일 것이므로 ‘里’는 ‘-ㄹ+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견’으로 읽는다면 이는 연결어미이므로 ‘里’를 선어말어미로 해석할 수 있다.

2.5.8 높임 표현

고대국어도 중세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체-객체-상대높임의 체계가 보이는데, 주체/객체높임은 이견이 크게 없으나 상대높임의 경우 이견이 많다.

2.5.8.1 주체높임

중세국어와 같이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기 위한 주체높임 선어말어미는 ‘-시-’였다. ‘-시-’는 향찰과 이두에서는 ‘賜’로, 구결에서는 ‘시’나 ‘𡇣’로 표기되었다. 「願往生歌」에서는 특이하게 ‘史’가 주체높임 선어말어미(-시-)로 쓰였는데 「願往生歌」가 유일례이다. ‘-시-’의 기능은 중세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의 양상이 다소 다르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시-’는 모음 어미 앞에서 ‘-샤-’로 나타났다. 가령 ‘-시- + -오-’은 ‘샤’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대국어 시기에는 ‘샤’가 보이지 않으며 ‘시’와 모음 어미가 그대로 이어져 ‘시오(𡇣오)’와 같이 쓰였다.⁹⁵⁾

- (1) 郎也 持以支如賜烏隱(디니더시온) [郎이여 지니시던] <讚耆婆郎歌>
- (2) 佛影 不冬 應爲賜下呂(應하시아리) [佛影 아니 應하시리]? <請佛住世歌>
- (3) 誓音 深史隱(기프신) 尊衣希 [誓願 깊으신 부처님을] <願往生歌>
- (4) 契乙 用 成造令賜之(하이시다) [계를 써 成造시키시다] <慈寂碑陰>
- (5) 古石佛 在如賜乙(겨다시늘) [옛 석불이 계시더늘] <校里磨崖石佛>
- (6) 佛矢 說_ニ 1(니르시온) [부처님이 이르신] <화엄 14>
- (7) 時_リ ト_リ 1_ハ乙 知_ニ 1(알으시며) [때인 줄을 아시며] <구인 상>

석독구결의 특이한 예로 주어가 화자 자신(‘나’)인 경우에도 ‘-시-’가 쓰인 문장이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성우철(2024)의 주석 (5)가 참고되며 이에 의하면 주체높임의 범위가 화자 자신까지도 포함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고대 일본어의 ‘自敬 표현’⁹⁶⁾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 (8) 我 1 今_リ 1 盛壯_ニ 1(盛壯하시오며) [나는 지금 건장하시며] <화소 14>
- (9) 我 1 ... 懈_リ 1_ハ 1(懈하시올드로) [나는 ... 불쌍히 여기시므로] <주화 34>

95) 박진호(1998)은 ‘-시- + -고-’에서 그 약화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자세한 것은 서법 단원에서 후술.

96) 왕과 같은 절대적 지위를 지닌 인물의 발화에서 화자 자신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을 말한다.

‘-겨(在/거)-’가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로 쓰였다는 주장(이승재(2001))도 있으나 ‘-겨-’는 대체로 주체높임보다는 시상 또는 서법과 관련된 선어말어미로 파악하는 듯하다.

2.5.8.2 객체높임

객체높임은 동사의 목적어 또는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것인데 고대국어에는 선어말어미 ‘-白(백)-’이 쓰였다. 중세국어의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습-’의 선대형인데, 본래 동사였던 ‘습-’이 문법화를 겪은 것이다. 향가의 경우, 白가 삼국유사 향가에서는 대부분 동사로 쓰이지만 균여 향가에서는 선어말어미로의 쓰임이 많아진다. 구결에선 ‘自’이 쓰였는데, 구결의 ‘自’은 거의 모두 선어말어미로 파악이 가능하다. ‘-白-’은 ‘-습-’으로 읽기도 하고 ‘-습-’으로 읽기도 한다. 대략 9~10세기에 동사 ‘白-’이 선어말어미로 문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 (1) 巴寶自乎隱(보보습온) 花良 [뿌린 꽃아] <兜率歌>
 - (2) 祈以支自屋尸(빌습을) 置內乎多 [祈求의 말씀 두노라] <禱千手觀音歌>
 - (3) 刹刹每如 邀里自乎隱(모리습은) [절마다 모셔 놓은] <禮敬諸佛歌>
 - (4) 石塔伍層乙 成是自乎(일이습온) [오층석탑을 이루옵는] <淨兜寺形止記>
 - (5) 王室乙 瘦殆令是自乎(희이습온) [왕실을 瘦殆시키옵신] <尙書都官貼>
 - (6) 佛乙 供養 〃自 〃(供養 〃습 〃며) [부처를 供養하오며] <화엄14>
 - (7) 佛足乙 禮 〃自 〃(禮 〃습고) [부처의 발에 예수하옵고] <금광 3>
 - (8) 佛乙 讀歎 〃自 〃(讀歎 〃습 〃실) [부처를 讀歎하시옵기를] <금광 3>
- 그런데 석독구결 자료에서 선어말어미 ‘-습-’은 특수한 환경에서 주체 높임의 기능을 하기도 했다. 어째서 ‘-습-’이 주체높임과 객체높임을 모두 담당하였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⁹⁷⁾
- (9) 佛 〃 ... 千寶蓮花乙 出 〃自 〃 〃 (出 〃습온다) [부처는...千寶蓮花를 내셨는데] <구인 상>
 - (10) 佛 〃 ... 蓮花座 〃 + 坐 〃自 〃 〃 (坐 〃습온다) [부처는...蓮花座에 坐定하셨는데] <구인 상>

2.5.8.3 상대높임

중세국어에는 상대높임법이 선어말어미 ‘-이-’를 통해 실현되었는데 향가, 이두, 석독구결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다. 음독구결 시기가 되어서야 나타난다. 『남권희본 능엄경(4:28b)』에 “〃所 〃 丨(희소이다)”가 보이며 ‘〃’가 아니라 다른 구결자로도 ‘이’를 표기하였다.

석독구결에서 상대높임법과 관련이 있는 선어말어미로는 ‘-고(고)-’와 ‘-았(았)-’이 제시된다.

- (1) 說 〃 〃 〃 〃 〃 (-아골온이라) [說하였으니] <화엄 14>
- (2) 演暢 〃 〃 〃 〃 〃 (-고기소서) [演暢하소서] <화엄 14>
- (3) 敬禮 〃 〃 〃 〃 〃 (-습고옵다) [敬禮합니다] <금광 3>
- (4) 著 〃 〃 〃 〃 〃 (-시끌여) [執着함이 없으시며] <금광 3>

97) 이에 대해선 선행연구를 정리한 성우철(2024)이 참고된다. 이에 의하면 내포절 주체높임의 예이다.

(5) {爲}へ 乙 ハ ナ チ シ ロ (-겨리았고) [되겠습니까?] <화엄 14>

(1~2)는 화자가 文殊師利菩薩, 청자가 賢首菩薩인 상황이고, (3~4)는 화자가 師子相無礙光焰菩薩, 청자가 佛 즉 부처인 상황이다. (5)는 화자가 智首菩薩, 청자가 文殊師利菩薩인 상황이다. 박진호(1998)는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말할 때에는 (1~5)처럼 종결형에 ‘-ㅁ-’나 ‘-;; ㅋ-’이 항상 결합하지만,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말할 때에는 결합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상대높임의 ‘-고-’를 인정할 경우, ‘-라’보다 ‘-고라’가 그리고 ‘-쇼셔’보다 ‘-고(기)시셔’가 높임의 등급이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고-’를 상대높임 선어말어미가 아닌 청원/원망의 선어말어미로 보기도 한다. ‘-앗-’ 역시 상대높임이 아니라 ‘감탄’ 또는 ‘감동’으로 보기도 하고 ‘확신’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도 한다.⁹⁸⁾ 여기서는 국립국어원(1998)에 실린 박진호(1998)를 따라 상대높임의 ‘-고-’와 원망(願望)의 ‘-고-’를 나누고 ‘-앗-’은 상대높임만을 담당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상대높임 선어말어미의 경우 해석상의 이견이 많은데 이는 청자를 높인 것인지 아닌지 그 미묘한 차이를 단순히 맥락만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고-’와 ‘-앗-’을 모두 양태를 나타낸 것으로 본다면 고대국어 시기에는 상대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물론 『계림유사』에 ‘-쇼셔’가 보이므로 적어도 12세기에는 어미를 통한 상대높임법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어미의 종류를 알기는 어렵다. 또, 앞서 언급했듯 ‘-이-’는 음독구결에 가서야 보이는데 그 기원과 생성 시기는 불명이다.⁹⁹⁾ 따라서 고대국어 문법에서 상대높임 선어말어미를 상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2.5.9 피사동 표현¹⁰⁰⁾

2.5.9.1 피동 표현

한국어의 피동 표현은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피동사에 의한 단형 피동과 ‘-게 되-’의 보조용언 구성에 의한 장형 피동으로 나뉜다. 중세국어까지는 이 분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차자 표기 자료를 볼 때 위의 분류를 사용하기 어렵다.

우선 차자 표기 자료에는 피동 접미사가 보이지 않는다. 향찰과 이두는 물론이고 여러 문법 형태소가 표기된 구결에서도 피동 접미사로 볼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기 어렵다. 사동 접미사가 여럿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그렇기에 김성주(2006:121)에선 피동이 문법 범주로 명확히 자리잡지 못했다고 추정했다. 피동 접미사는 사동 접미사보다 늦게 발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백채원(2021:106)의 설명을 고려하면 사동의 재귀화를 통해 피동이라는 범주가 자리잡았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⁰¹⁾

그러나 피동의 의미를 지닌 문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국어 원문의 ‘爲A所B(A에 의해 B당하다)’ 구문이 피동을 나타내는데 이때 A가 동작명사구, B가 피동사이다. 따라서 이를 석독

98) 관련하여 최성규(2025:64-68, 78-80)가 참고됨. ‘-앗-’의 최근 논의는 김미경(2024)이 참고됨.

99) 석독구결이 알려지기 전에는 향가의 ‘音’이나 ‘音咤’을 상대높임의 ‘-이-’로 읽었으나 석독구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현재는 대체로 ‘-을-’으로 읽으며 또 대개 그 기능을 상대높임 표지로 보지 않는다.

100) 고대국어의 피사동 표현으로 김성주(2005-2006)가 참고된다.

101) 유형론 연구에서 피동은 재귀사동에서 발달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백채원(2021)은 한국어의 피동이 사동으로부터 발달했을 개연성은 있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이를 실증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구결로 번역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 피동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¹⁰²⁾

『유가사지론』에는 ‘爲A所B’에 대응하는 ‘爲ハ-’가 보이는데 독법이 확실하지 않다. ‘ハ’가 ‘기’로 읽힌다는 점에서 장윤희(2006:135)에선 ‘삼기-’¹⁰³⁾로 읽었으나 김양진(2006)에서는 ‘ㄱ’으로 읽힌다는 점에서 ‘식브다’, ‘시기다’ 등을 고려하여 ‘식-’으로 읽었다.

- (1) 惡趣苦ヲ 隨逐ノア 所ニ爲ハス(?)삼기며 [惡趣苦가 뒤따르는 바를 입으며] <유가 20>
(1') 爲惡趣苦所隨逐
(2) 餘親ヲ{之} 守護(ア)ア 所ニ爲ハス(?)삼기여 [남은 친척의 守護를 받고] <유가 8>
(2') 爲餘親之所守護

(1)과 (2)는 구결문, (1')과 (2')는 한문 원문이다. 용례를 보면 ‘爲ハ-’는 타동사이므로 자동사적 의미를 지닌 피동문을 ‘ニ爲ハ-’라는 타동문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일종의 피동 표지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고대국어에 피동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표지가 있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다른 문헌에 보이지 않고 오직 『유가』에만 등장하고 또 그 지위가 확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국어에서 피동이라는 문법 범주는 아직 발달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

2.5.9.2 사동 표현

한국어의 사동 표현은 사동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에 의한 단형 사동과 ‘-게 하-’에 의한 장형 사동으로 나뉜다. 고대 국어에선 앞서 다룬 피동과 달리 사동이 잘 보이긴 하나 장형 사동은 잘 보이지 않고 주로 확인되는 것은 단형 사동이다.

고대국어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사동 접미사는 ‘-이-’, ‘-오/우-’, ‘-호-’, ‘-히-’, ‘-기-’가 있다. 이중 석독구결에서 가장 생산성 있게 쓰인 사동 접미사는 ‘-이-’이다. 여러 동사에 ‘-이-’가 결합하였지만 주로 나타난 사동사는 ‘호-’에 ‘-이-’가 결합한 ‘호이-(ㅅ ॥ / ouch ॥ -)’이다. ‘… ॥ -’도 드물게 보인다. 우선 ‘호이-’가 쓰인 사동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如來ニ覺寤(覺寤호이)술고기신 [여래를 覺寤하게 하셨는데] <구인 3>
(2) 衆獸ニ…怖畏(怖畏호이)누온 [衆獸을…怖畏하게 하는 것을] <금광 3>
(3) 法ニ…世(세)住(스)1(住호이)술안뎌 [법을…세상에 머무르게 하였다고] <금광 3>
(4) 彼ニ…法ニ思(思호이)거며 [저에게 법을 생각하게 하며] <화엄 14>
(5) 衆ニ歡喜(歡喜호이)누리며 [衆生을 欢喜하게 할 것이며] <화엄 14>

여러 어근에 사동접미사가 결합한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세국어에 보이지 않는 사동사가 있음이 주목된다. 다만 차자 표기이기 때문에 어근의 형태가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 향가의 경우 연구자마다 해독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¹⁰⁴⁾

102) 화엄경 계열에는 ‘니 ア ハ シ(일 들 호-)'가 보이는데, 이는 서술격조사 ‘이-’와 관형사형 어미 ‘-ㄹ’, 의 존명사 ‘드’, 목적격 조사 ‘ㄹ’ 그리고 동사 ‘호-’의 결합으로 ‘-이 되다’의 의미이다. 그러나 고전중국어의 ‘爲A所B’ 구문에 해당하는 문장이 ‘이 되다’로 해석되므로 피동 표지로 볼 수 없다. 김성주(2006) 참고.

103) ‘爲’를 ‘삼’으로 읽을 수 있는 이유는 ‘三’이 현토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이은규(2004)와 이전 경(2012)이 참고된다.

104) 장윤희(2006)는 ‘삼기-’를 근거로 ‘-기-’도 제시하였으나 독법이 합의되지 않았으며 또 피동에 쓰였기에 여기서는 ‘-기-’를 예문에서 제외하였다. 또, <普皆廻向歌>의 “悟內去齊”는 기존의 향가 연구자 대부분 사

- (6) 彼 乙 見 丂 丂 (보일) [저를 보이고] <화엄 14>
- (7) 地 丂 + 到 丂 丂 丂 (니를이겨리며) [地에 이르게 할 것이며] <화엄 14>
- (8) 障 乙 爲 一 丂 丂 丂 (삼이겼다) [장애를 일으킨다] <유가 20>
- (9) 掌 音 毛 平 支 內 良 (몬오느라) [손바닥 모아] <禱千手觀音歌>
- (10) 膝 脩 古 召 旂 (늦호며) [무릎을 낮추며] <禱千手觀音歌>
- (11) 力 乙 現 丂 丂 丂 (날호느리며) [힘을 나타나게 할 것이며] <화엄 14>
- (12) 佛 前 灯 乙 直 體 良 焉 多 衣 (곧히란다) [佛前灯을 고치는데] <廣修供養歌>

그런데 고대국어 시기 ‘-이-’는 중세국어나 현대국어와 달리 용언의 어휘뿐 아니라 구 구성에도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¹⁰⁵⁾

- (13) 諸 丂 根 淨 丂 丂 丂 明 利 丂 丂 丂 (明利호이겨리며) <화엄 14>
[모든 根이 깨끗하여서 밝고 이롭게 할 것이며]
- (14) 黑 白 法 丂 + 遠 離 丂 丂 攝 受 丂 丂 丂 丂 丂 丂 (호이올디) <금광 3>
[黑白法에 대해 遠離하고 攝受하고 하게 하되]

(13)은 ‘淨 丂 丂 丂 明 利 丂 丂 丂’ 즉 ‘淨호야곰 明利호-’라는 구에 ‘-이-’가 결합한 것으로 중세국어라면 ‘淨호야곰 明利호게 호-’와 같이 쓰였을 것이다. 중세국어에도 ‘호-’에 ‘-이-’가 결합한 ‘호이/하-’가 널리 쓰였으나 구 구성에는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도 특이한 예인데 두 동사구가 연결어미 ‘-져’로 연결된 후 접속 구성을 오는 아우름 동사 ‘호-’ 뒤에 ‘-이-’가 붙었다. 즉 ‘黑白法에 대해 遠離하고 攝受하고 하-’라는 구에 사동접미사가 왔다는 뜻이다.

‘-게 호-’에 의한 사동은 고대 국어 자료에는 보이지 않으며 음독 구결에 가서야 나타난다. 아마 ‘-이-’가 어휘뿐 아니라 동사구까지 아우르는 넓은 쓰임을 가졌기에 이른 국어 자료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박진호(1998:193)).

2.5.10 부정 표현

부정법은 역시 장형 부정과 단형 부정으로 나뉘는데, 고대국어의 부정법은 중세국어보다 부정 부사의 종류가 많았고 장형 부정문이 중세국어와 통사적으로 다른 점이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학교문법 체계를 고려하여 어휘적 부정은 제시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최성규(2023)가 참고된다.

2.5.10.1 단형 부정

부정부사를 사용한 부정 표현을 ‘단형 부정’이라 하는데 중세국어는 ‘몬(능력 부정)’과 ‘아니(단순/의지 부정)’뿐이었으나 고대국어는 그 종류가 훨씬 많다. 능력 부정의 부사로는 ‘몬(毛/沒)’, ‘모들(毛冬/毛等)’, ‘안득(不丂)’¹⁰⁶⁾ 등이 쓰였고, 단순/의지 부정의 부사로는 ‘안디(不喻)’, ‘안들(不冬/不冬)’,

동사로 파악하였으나 사동사의 형태에 이견이 있다. 만약, ‘깨닫게 하다’로 해독한 것을 따른다면 ‘- 丂 -’를 상정할 수 있다. ‘찌드루-(찌든- + - 丂 -)’로 해독하기 때문인데, 다만 고대에도 아래아였는지는 알 수 없다.

105) 박진호(1998) 등의 논의에선 이를 통사적 접사라 하였고, 김성주(2005)에선 이를 통사적 사동의 범위에서 다루기도 했다. 그러나 접사를 어휘적/통사적 접사로 나누는 것은 어휘부나 통사부 등의 개념을 도입해야 하므로 학교문법을 넘어선 일이고 또 학교문법의 통사적 사동이란 장형 사동 즉 보조용언에 의한 사동만을 의미하므로 여기선 이를 여전히 접미사에 의한 단형(파생적) 사동으로 보겠다.

106) 임지룡 외(2020:478)에선 ‘不丂’를 의지 부정으로 보았으나 이용(2003)과 최성규(2023)을 따라 능력 부정

‘아니(安理)’ 등이 쓰였다. ‘不^ハ’을 ‘안득’으로 읽는 것은 『훈몽자회』와 『광주천자문』에 실린 ‘非’의 훈 ‘안득’을 고려한 결과이다. 주로 쓰인 부정부사는 ‘안둘’이나 ‘안디’는 「獻花歌」에선 부사로 쓰였다. 구결에서 ‘안디’는 부사로 쓰이지 않았으며 ‘不矢/非矢/未矢’로 표기되었다.¹⁰⁷⁾

- (1) 不冬爾(안둘곰) 屋支墮米 [아니 말라 떨어지니] <怨歌>
- (2) 不噲(안디) 懈盼伊賜等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獻花歌>
- (3) 毛冬(모둘) 居叱沙 [못 살아 계시어] <慕竹旨郎歌>
- (4) 毛等(모둘) 盡良 白乎隱 [못 다 사원] <稱讚如來歌>
- (5) 毛(못)¹⁰⁸⁾ 如 云遣 [못 다 이르고] <祭亡妹歌>
- (6) 不冬(안둘) 同 𢂵 𢂵 [아니 같으며] <화엄 14>
- (7) 不冬(안둘) {徧} 𠂔 𢂵 𢂵 [아니 두루 해서] <화엄 14>
- (8) 不^ハ(안득) 𠂔 𢂵 𠂔 𢂵 [못 하게 하는 까닭으로] <유가 20>
- (9) 捺翅 没(못) 朝勳 [낯이 못 좋은] <계림유사>
- (10) 安理(아니) 麻蛇 [아니 마셔] <계림유사>

향가에서 ‘毛冬’은 ‘모르다’나 ‘없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용언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며 부정부사 ‘모둘’과는 구별된다. 또, 이두는 생략이 심해 단형 부정이라 볼 수 있는 문장이 많지 않으며 이 문제는 최성규(2023:43-44)가 참고된다. 따라서 단형 부정 예시에서 이두는 제외하였다. (9)는 『계림유사』의 예인데 ‘못’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이 특이하다.

2.5.10.2 장형 부정

고대국어의 장형부정도 부정 용언을 사용한 것은 같지만, 연결어미 ‘-디’를 통해 부정용언이 이어진 중세국어와 달리 고대국어는 선행 용언이 항상 동명사 어미 ‘-ㄹ(ㄹ)’을 취했다. 장형 부정에 쓰인 부정 동사는 ‘안둘^{하다}(不冬^ハ/非冬^ハ/未冬^ハ)’, ‘아니^{하다}(未^ハ하^다)’, ‘안득^{하다}(不^ハ/未^ハ하^다)’, ‘못^{하다}(不^モ하^다)’가 있다.

- (1) 作^ハ 𠂔 不冬^ハ ト^ハ(作^할 안둘^하며) [짓지 아니하며] <금광 3>
- (2) 無義^ハ ト^ハ 𠂔 非冬^ハ ト^ハ(^할 안둘^하시며) [無義한 것을 하지 아니하시며] <구인 상>
- (3) 得^ハ 未^ハ ト^ハ(얻을 아니^하았다온) [얻지 아니한] <금광 3>
- (4) 具^ハ 不^ハ ト^ハ ト^ハ(^{갖출} 안득^하눈도) [갖추지 못함도] <금광 3>
- (5) 往趣^ハ 𠂔 不^モ ト^ハ ト^ハ(往趣^할 못^하눈이라)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라서] <자비>

이두에도 앞서 다룬 용언이 쓰이나 능력부정에 쓰인 ‘못^실하다(不得爲-)'도 보인다. ‘不得’은 ‘모딜, 모질’로 읽기도 하나 ‘得’의 훈이 ‘실다’이기에 대부분 ‘못^실’로 읽어 왔다. 다만 ‘得’을 음독할 경우, ‘안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여기선 일단 ‘못^실’로 읽겠다.

으로 보겠다. 이를 ‘안득’으로 읽기도 한다.

107) 여기서는 학교문법 수준의 부정문만 고려하여 명사 ‘안디’ 부정을 다루지 않겠다.

108) 毛의 음을 고려하면 ‘못’으로 읽기 어렵다는 점과 향가의 如가 주로 어미를 나타낼 때 쓰였다는 점에서 ‘다(盡)’로 읽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고정의(1991)는 ‘毛’를 ‘털’로 읽으나 종래의 해석과 남풍현(2018)에서는 ‘못 다’로 해석하였다. 남풍현(2018)은 ‘못다’에서 𢂵이 중복돼 ‘모다’로 표기됐다고 보았다.

- (6) 無 不冬爲去乙(안돌호거늘) [없지 아니하거늘] <尚書都官貼>
 (7) 成是 不得爲乎(못실흔) [이루지 못한] <尚書都官貼>

위에서 제시한 이두의 용례는 용언 어간 뒤에 바로 부정용언이 온 것인데 그것이 정말 어간 뒤에 바로 부정어가 온 것인지 또는 어간 뒤에 어미가 쓰였으나 단순히 어미가 생략된 것인지는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6)의 경우, 전자를 따른다면 ‘없 안돌…’로 읽을 것이고 후자를 따른다면 ‘없을 안돌…’로 읽을 것이다. 이두가 생략이 많은 표기법(김지오(2019:77-78), 최성규(2023:55))임을 고려하면 어간과 부정어의 결합보다는 어미의 생략으로 보는 게 좋아 보인다. 구결에서도 비슷한 문장이 보이는데 역시 생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2.5.11 서법 및 양태

2.5.11.1 확인법

15세기 국어에서는 ‘-거/어/나-’가 이형태 관계에 있으며, [확인법] 기능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 고대국어에는 ‘-거-’와 ‘-아-’가 보이는데 이를 역시 확인법 선어말어미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둘의 출현 환경이 중세국어와는 다소 달라 ‘-거-’와 ‘-아-’가 이형태가 맞는지 확신하기 어렵다.¹⁰⁹⁾

가. 선어말어미 ‘-거-’

향가와 이두에선 ‘去’로, 구결에선 ‘峽’로 쓰였다. 향가의 경우 삼국유사 향가에선 ‘去’가 주로 어간으로 쓰였고 균여 향가에서 선어말어미로 쓰였다.

- (1) 法界 毛叱所只 至去良(니르거라) [法界 없어지도록 이르거라] <禮敬諸佛歌>
 (2) 燈油隱 大海 逸留去耶(일우거야) [大海 이루었네] <廣修供養歌>
 (3) 迷反 群 无史 悟內去齊(씨드르거져) [迷惑한 무리 없이 깨닫게 하려노라] <普皆廻向歌>
- (4) 菩薩 ॥ 成佛 〃 1 〃 1 (成佛호건늦) [菩薩이 成佛한] <구인 상>
 (5) 所 3 無 7 〃 3 〃 1 (없거리았다) [바가 없을 것이다] <화소 35>
 (6) 下裙 2 著 〃 1 (著호건) 時 [下裙를 입을 때] <화엄 14>
 (7) 義 2 問 7 〃 1 〃 1 (묻거견뎌) [義를 물으시는구나] <화엄 14>

그런데 ‘-거-’가 대개 자동사나 형용사에 붙는 중세국어와 달리 고대국어 자료에는 ‘-거-’가 자동사뿐 아니라 타동사에도 결합한 경우가 적지 않게 보인다. (2)는 ‘이르-’의 사동사 ‘이루-’로, (3)은 해독상 이견이 갈리지만 대체로 사동사로 해석하므로 (2)와 (3) 모두 타동사로 볼 수 있는데¹¹⁰⁾ ‘-거-’가 결합하였다. 향가는 자료가 많지 않아 분포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구결에는 꽤 많은 경우에 타동사에도 ‘-거-’가 결합됨이 확인된다(이상금(2020)). (4~5)는 비타동사, (6~7)은 타동사에 결합한 예이다. 이승재(1998)에 의하면 이두에서 ‘-거-’는 타동사와 비타동사에 두루 붙는다.

109) 이들이 타동성 여부로 교체되는지는 이상금(2020:128-133)이 참고된다.

110) 이승재(1998)는 향가의 ‘-거-’는 항상 비타동사에만 붙는다 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 선어말어미 ‘-아-’

향가와 이두에선 ‘良’로, 구결에선 ‘良’로 쓰였다. ‘良’를 종래의 견해에선 ‘아’로 읽는 견해와 ‘라’로 읽는 견해가 나뉘었으나 여기서는 확인법 선어말어미로 보고 ‘아’로 읽겠다. 기존 견해에서 ‘良’를 선어말어미로 본 견해가 많지 않으나 최근 구결 연구를 반영한 연구에선 선어말어미로 본 바 있다(김유범(2010), 남풍현(2018), 박진호(2008), 황선엽(2010)). ‘於’도 선어말어미로 볼 수 있다.

- (1) 際叱盼 遂內良齊(좆 누 악 져) [가를 쫓으려다] <讚耆婆郎歌>
- (2) 佛前灯乙 直體良焉(고티안) 多衣 [佛前灯을 고친 때에] <廣修供養歌>
- (3) 目煙 囉於尸(돌알) 七史 [눈의 돌음 없이] <慕竹旨郎歌>
- (4) ノニ 說 三ハニ ト(니르안기시오다) [하는 것을 이르셨다] <구인 상>
- (5) 苦ニ 滅 三ヌ(배안며) [苦를 滅하며] <화엄 14>
- (6) 三摩地ニ 得 三ト(얻안여) [三摩地를 얻었으나] <유가 20>
- (7) 頂 三ト 至 三ト(니르알이) [정수리에 이르는 이] <화엄 14>
- (8) 得ト 出家 三ト(출가하 안며) [능히 출가하였으나] <유가 20>

중세국어 문헌에서 ‘-아/어-’는 대개 타동사에 결합한다. 고대국어도 대체로 타동사와 결합하나 자동사에 결합한 예가 몇몇 보인다. (4~6)은 타동사에, (7~8)은 자동사에 결합한 경우이다. 이 때문에 고대국어에서 ‘-거-’와 ‘-아/어-’는 자타동사라는 범주로 나뉘는 타동성 여부에 의한 형태론적 이형태로 보기에는 예외가 많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¹¹¹⁾ 그러나 중세국어에도 예외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분포와 기능이 유사하므로 여기선 일단 이들을 이형태로 보기로 한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거-’와 ‘-아-’를 ‘완료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 견해에선 중세국어의 ‘-거/어/나-’도 확인법이 아닌 완료상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¹¹²⁾ 여기서는 후기 중세국어의 ‘-거/어-’를 확인법으로 보므로(후기 중세국어 서법 단원 참고), 고대국어의 ‘-거-’와 ‘-아-’도 확인법 표지로 보기로 한다.¹¹³⁾

2.5.11.2 감동법

중세국어에는 감동법 선어말어미 ‘-돗/롯-’이 쓰였는데 고대국어에도 이러한 형태가 쓰였는지는 아직 이렇다 할 통설은 없다. 감동법 선어말어미로 볼 법한 경우는 향가에만 보이고 구결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置(도)’와 ‘留(로)’가 감동법 선어말어미로 제시된다.

- (1) 舊留 然叱爲事置耶(그럿 흐 시도야) [예로 그러하시도다] <普皆廻向歌>
- (2) 體叱 事伊置耶(일이도야) [부처의 일이구나] <總結無盡歌>
- (3) 頓叱 喜賜以留也(깃그시리로여) [바로 기뻐하시리로다] <恒順衆生歌>
- (4) 然叱爲賜隱伊留兮(그럿 흐 시니로여) [그리 하시니로세] <常隨佛學歌>

111) 고영근(1980)에서도 15세기 국어의 ‘-거-’와 ‘-아/어-’가 자타동사라는 구별에 어긋난 예외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고 이를 可可型, 可不型, 不可型, 不不型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대개 자/타동사라는 범주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고대국어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이런 예외가 많은 이유가 기원적으로 ‘-거-’가 타동성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고 자/타동사에 두루 붙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112) 고대국어에선 상 표지였으나 중세국어에선 서법(확인법) 범주로 변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고대국어의 모든 예문을 확인법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113) 박진호(1998/2019)는 15세기의 ‘-거-’는 고대의 완료상 ‘-거-’와 서법의 ‘-겨-’가 합류한 것으로 본다.

향가에 감동법 선어말어미를 설정할 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째서 구결과 이두에선 쓰이지 않았는지 해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후기 중세국어의 많은 불교 문헌에서 '-듯/롯-'이 등장하는데 석독구결에는 등장하지 않고 향가에만 보인다는 것은 다소 이상한 일이다. 또한 '-도-'와 '-로-'가 '야'와 결합하는데 '야'는 기본적으로 감탄조사이기 때문에 선어말어미가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야'를 어미로 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留'가 선어말어미인 것은 맞으나 감동법으로 보기 어려운 예시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기능이 미상이다. (5)는 감동법으로 볼 시 선어말어미 배열 순서에 문제가 생기고 (6)은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한다는 문제가 있다. 문맥상으로도 감동법으로 보기 어렵다.

(5) 萎玉內乎留叱等耶(이 블 누 오 롯 드 야) [이우는 것이더라]¹¹⁴⁾ <恒順衆生歌>

(6) 世呂 修將來賜留隱(닷 ㄱ 려시론) [옛누리 닦으려 하신] <常隨佛學歌>

2.5.11.3 선어말어미 '-고-'

고대국어에는 선어말어미 '-고-'가 보인다. '-고-'는 '으'로 표기되었는데, 아직 합의가 된 것은 아니나 선어말어미 '-고-'의 기능으로 주로 원망이 거론되었다. 원망(願望)이란 소망 또는 바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1) 當 へ 願 으 𠂊 1(부라골둔) [항상 원하기를] <화엄 14>

(2) 一切 乞 度 𠂊 𠂊(건네고져) [一切를 건네고자] <화엄 14>

향가에도 선어말어미로 분석되는 '古'가 보인다. 박진호(1998)에선 '-고-'가 종결형에 쓰이면 상대높임을, 연결형이나 명사형에 쓰이면 서법 범주를 나타낸 것으로 본다. 그러나 향가의 예는 종결형임에도 박진호(2016)에선 주어가 1인칭이면 [의지], 그 밖의 경우는 [추측]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 '-古-'를 상대높임과 연결 짓는 견해도 있으나 원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여기선 향가의 '-고-'를 '추측'으로 보겠지만 그 기능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3) 愛 戸 知 古 如(알고다) [사랑을 알리라] <安民歌>

(4) 道 修 良 待 是 古 如(기드리고다) [길 닦아 기다리겠노라] <祭亡妹歌>

여기선 잠정적으로 '-고-'의 기능을 높임의 경우 상대높임을, 서법의 경우 원망과 추측을 나타낸 것으로 보도록 한다.

2.5.11.4 향상성¹¹⁵⁾

향상성이란 항구적/보편적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대국어는 '-느-'를 통해 '항상 그려함'이라는 의미를 더해 주는 향상성이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중세국어의 '-느-'와 형태는 동일하나 중세국어와는 그 출현 환경이 많이 다르다. 앞서 지적했듯이 동사에만 결합한 것이 아니라 '-리-'나 형용사에 여러 차례 결합하였다. 따라서 그 문법 범주를 현재 시제로 파악하기 어렵다.

114) 김완진(1980)은 과거의 의미로 보았다. 미래로 본 연구자도 있어 해독이 다를 수 있다.

115) 이에 대해선 박진호(2019)와 문현수·허인영(2018)이 참고된다. 이 논의에 의하면 중세국어의 '-느-'는 고대국어의 '-누-'와 '-느-'가 합류한 것이다.

- (1) 衆生 安爲飛等(便安 흐늘) [衆生이 便安하면] <恒順衆生歌>
(2) 君如 臣多支 民隱如 爲內戶等(흐늘) [군답게 신답게 민답게 한다면] <安民歌>

(3) 說ニハニ | (니르노기시다) [말씀하시고 있다] <구인 상>
(4) 者 無ニハニ | (없노기시다) [사람이 없으시다] <구인 상>
(5) 所リニホフ (바이노리며) [바일 것이며] <화엄 14>
(6) 具足ニモホフ (具足 흐노리며) [갖출 것이며] <화엄 14>

(1~2)과 같이 향찰에선 ‘飛’와 ‘內’가 쓰였고, (3~6)과 같이 구결에선 ‘𠂇’로 쓰였다. ‘飛’를 ‘𠂇’로 읽는 것은 큰 이견이 없으나 ‘內’는 다소 이견이 있다. 기본적으로 ‘內’는 ‘누’로 읽는 견해를 따르나¹¹⁶⁾ 항상성의 ‘-누-’가 쓰일 환경에 보이는 ‘內’는 ‘누’로 읽겠다. ‘內’라는 한자가 두 쓰임을 표기상 구분 없이 담당했다고 보겠다는 것이다.

(1)은 전체 문장이 “衆生 安爲飛等 佛體頓叱 喜賜以留也(중생이 편안하면 부처님도 기뻐하시리로다)”이다. 어느 중생이 평안해서 부처님이 한 번 기뻤다는 특정 시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평안하면 부처님이 기뻐한다’는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2)는 국가, 군주, 신하, 백성에 대한 일반론을 얘기하는 맥락이므로 정치·윤리 질서의 항구적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방언의 ‘-느-’도 형용사에 결합한다는 점과 그 의미를 고려할 때 항상성 표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고영진(2007))가 있으며, 항상성의 ‘-느-’를 인정한다면 중세국어에 보이는 형용사와 ‘-느-’의 결합을 품사 통용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항상성 표지의 화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¹⁷⁾

신라	고려	15세기
內	→ 飛/느 [항상성/보편성]	→ 느
	↘ 畏/누 [일시성/특수성]	↗

김지오 외(2024:60)

116) '內'의 독음 문제는 앞서 언급하였다. 훈독과 음독으로 나뉘고 음독에서 견해가 다시 나뉜다.

117) 박진호(2019:87-88)는 항상성으로 보기 어려운 「는」가 있다는 점에서 「-는-」를 다의적인 요소로 봤다.

2.5.11.5 선어말어미 ‘-겨-’

선어말어미 ‘-겨-’는 후기 중세국어 문헌뿐만 아니라 고려 말의 음독구결에도 보이지 않는 요소로 고대국어 자료에만 보인다. 이두에선 ‘在’로 구결에선 ‘거’로 표기되었다. 향찰에서는 ‘-겨-’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기능에 대한 통설이 아직 있는 것은 아니나 서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진호(1998/2016)는 대체로 서법 범주라고 하였으나 다양한 환경에 나타나 그 구체적인 의미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이금영(2000)은 확인법, 이상금(2019)은 진실함(화자의 판단)으로 보았다. 여기선 서법으로 보되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는 판단을 유보하도록 한다.

- (1) 此善 助在哉(돕겨져) [이 善을 도왔다] <阿彌陀如來造像記>
- (2) 經 寫在如(쓰겨다) [경을 베낀다] <華嚴經寫經>
- (3) 衆生 有セナ(잇겨며) [중생이 있으며] <구인 상>
- (4) 佛ニ 供養セナ(供養해) [부처를 供養하며] <화엄 14>
- (5) 施ニ 行セナ(행해) [施을 행한다] <화소 35>

구결에 보이는 ‘거’의 용례는 무척 다양하나 학자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선어말어미이다.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서법/양태로 보겠지만 ‘-겨-’를 완료상 또는 완료의 지속을 나타낸 것으로 본 학자가 여럿 있기에 상 표지로 볼 여지도 있다.

또, 향가의 ‘遣’은 선어말어미로 보이는 용례가 많은데 이를 ‘고’로 읽지 않고 ‘견(겨)’으로 읽는다면 선어말어미 ‘-겨-’가 향가에도 보인다 할 수 있다. 연결어미 단원에서 언급했듯 ‘遣’은 독법의 견해차가 큰 글자이므로 여기서는 ‘遣’을 다루지 않는다.

2.5.11.6 선어말어미 ‘-吒-’

‘-吒-’라는 선어말어미가 보이는데 향가에선 ‘音吒’로 구결에선 ‘음자’로 표기되었다. 일반적으로는 ‘당위/의무’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音’만으로 표기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吒의 생략 표기로 이해할 수 있다. ‘당위/의무’뿐 아니라 가능/능력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한다. (3)과 (6)는 가능/능력으로 이해되는 문장이다.

- (1) 遂好 友伊音吒多¹¹⁸⁾(변했다) [쫓아 벗 지어 있도다] <常隨佛學歌>
- (2) 折吒可 獻乎理音如(바도림(없)다) [꺾어 바치오리다] <獻花歌>
- (3) 國惡 大平恨音吒如¹¹⁹⁾(太平해) [나라 태평을 지속하느니라] <安民歌>
- (4) 聽ニ 𠵼七八{雖}斗(聽을 과두) [귀 기울여 들어도] <유가20>
- (5) 說白 𠵼七八(니르을 옮다) [말하겠다] <구인 상>
- (6) 事ニ 知ニ 𠵼七八(알을 싶다) [일을 아실 수 있다] <구인 상>

118) 友를 어미의 일부로 보느냐 아예 훈독하느냐에 따라 견해가 나뉜다.

119) 憎이 선어말어미 ‘-吒-’를 포함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견해가 나뉜다.

2.5.13 선어말어미 ‘-오-’

선어말어미 ‘-오-’는 국어학계에서 대단히 논란이 되는 형태소로 1950년대 말부터 학문적 공방이 시작되었고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서는 일단 고영근(2020)을 따라 중세국어의 ‘-오-’를 인칭·대상활용법 즉 인칭법과 대상법으로 나누어 보므로 고대국어도 그 연속선상에서 같은 기능을 했다고 파악하겠다.

‘-오-’는 두 가지 쓰임이 있는데 하나는 주어가 화자인 경우에 나타나는 ‘-오-’이고 다른 하나는 피수식 체언이 수식 용언의 목적어 또는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일 경우에 나타나는 ‘-오-’이다. 이 둘은 동음이의 관계의 형태소이므로 전자를 ‘-오-₁’로, 후자를 ‘-오-₂’로 표시하겠다.

고대국어에는 ‘-오-’라는 선어말어미가 매우 흔히 보이고 또 여러 형태로 표기되었다. 향가에선 ‘平, 好, 鳥, 屋’가 ‘-오-’, 구결에선 ‘ㅂ/ㅍ/ㄴ’가 ‘-오-’를 나타내는 데 쓰였다. 이두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중 ‘ㄴ’은 ‘호(호- + -오-)'로도 쓰였는데 ‘오’보다는 주로 ‘호’를 표기하는 데 쓰였다.

- (1) 心未 行巫尸(녀올) 道尸 [마음의 갈 길] <慕竹旨郎歌>
- (2) 巴寶白巫隱(보보술온) 花良 [뿌린 꽃아] <兜率歌>
- (3) 逢巫(맛보올) 吾 [만날 나] <祭亡妹歌>
- (4) 置內乎多(두느오다) [두노라] <禱千手觀音歌>
- (5) 持以支如賜島隱(디니더시온) 心未 [지니시던 마음의] <讚耆婆郎歌>
- (6) 逸島隱(여하온) 第也 [떠난 處地여] <怨歌>
- (7) 見賜島尸(보시올) 聞古 [보려 오심을 듣고] <彗星歌>
- (8) 用屋尸(쁘올) 慈悲也 [쓸 慈悲라고] <禱千手觀音歌>
- (9) 哭屋尸(울올) 以 覆音 [우는 이 시름] <慕竹旨郎歌>
- (10) 命乙 施好尸(施호) 歲史中置 [命을 施할 사이에도] <常隨佛學歌>

- (1') 說自_ 1(니르술온) 所 셔 [이르신 바의] <구인 상>
- (2') 名字乙 作_ 1(작호술온을) [名字를 지으심을] <구인 상>
- (3') 吾 1 ... 說自_ 1 셔 [니르술했다] [나는 ... 말하겠다] <구인 상>
- (4') 說_ 1(니르시온) 所 셔 [이르신 바의] <화소 35>
- (5') 欲_ 1(欲흘) 所 셔 [하고자 하는 바를] <화엄 14>
- (6') 我 1 ... 說_ 1(니르아끌온이라) [나는 ... 說하였으니] <화엄 14>
- (7') 說_ 1(니르술온) 甚深 法 셔 [이르신 매우 깊은 법을] <금광 3>
- (8') 憾恥_ 1(憾恥흘) 無 1 [부끄러워함 없는] <화엄 14>
- (9') 敬禮_ 1(敬禮흘) 無 1 [敬禮하고온다] [敬禮합니다] <금광 3>

향가 및 구결에서 보이는 ‘-오-’는 거의 모두 ‘-오-₂’이다. 후행하는 어미가 ‘-ㄴ’이나 ‘-ㄹ’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3)은 ‘平’ 뒤에 동명사 어미가 보이지 않으나 단순 표기상 생략된 것으로 보고 어미를 보충해 읽는 것이 통설이다. (1'), (4'), (5'), (8')도 ‘-오-₂’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오-₁’로 볼 수 있는 예는 많지 않다. 향가에는 (4)뿐이며¹²⁰⁾ 석독구결에서도 그리 많지 않다. (1'~9') 중 ‘-오-₁’로 볼 수 있는 경우는 (3'), (6'), (9')이다. 자료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원래 ‘-오-₁’과 ‘-오-

120) (4)는 주어가 보이지 않으나 박진호(1998:175)와 고영근(2019:363)에선 화자 표시법의 예시로 제시하였다.

-₂'의 구분 없이 안은문장에만 '-오-'가 쓰였으나 다른 어미 앞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구체적인 의미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7), (2'), (8')과 같은 명사절의 경우이다. 본래 인칭·대상활용법설과 의도법설 등은 후기 중세국어 문헌을 바탕으로 대립된 학설인데 후기 중세국어에선 명사절을 '-옴/옴'으로 형성한다. 그런데 후기 중세국어에선 명사형 전성어미가 '-옴/옴'으로만 나타나지 '-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15세기 공시적으로 명사절에서 '-오/우-'를 분리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대 국어 자료는 '-오/우-'가 항상 통합되는 후기 중세국어의 자료와 달리 명사절을 '-ㄴ'과 '-ㄹ'로 형성한다. 결국 '-온'이나 '-올'을 하나의 명사형 어미로 볼 수 없고 '-오- + -ㄴ'과 '-오- + -ㄹ'로 봐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오-'의 성격은 인칭·대상활용법의 견해 안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¹²¹⁾

이외에도 '-오-'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선어말어미 '-시-' 뒤에서이다. '-시- / ㅂ-'와 '-시- / ㅂ-'의 결합은 '시오'로 읽히는데, 이를 '-시- + -오-'로 보는 견해와 '-시- + -고-'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후자는 박진호(1998:176)에서 제안된 것으로 '-시-'와 화자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오-'가 함께 쓰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하여 '시오'의 '오'를 '-오-'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시-' 뒤에서도 그 약화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후기 중세국어와는 그 양상이 달라진다. 후기 중세국어에서 일어난 형태론적 그 약화는 서술격조사 '이-', 선어말어미 '-리-'와 '-니-', 형용사 '아니-' 뒤에서이다. 이들은 모두 서술격조사 '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기원적으로 '-리-'는 '-ㄹ이-', '-니-'는 '-ㄴ 이-'의 결합이고 '아니-'는 '아니 + 이-'의 결합이므로 결국 기원을 고려하면 '이-'에 의한 그 약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후기 중세국어에선 그 약화가 되지 않았으며 또 석독구결 자료에서 '시고'로 읽힐 수 있는 표기가 여럿 보인다. 어째서 후기 중세국어에선 '-시-'는 그 약화가 되지 않았는지 또 '이-'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다른 형태와 달리 '-시-'라는 형태소에서 그 약화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해명되어야 할 듯하다.¹²²⁾

'奴'와 '×'도 '-오-'와 관련 있는 표기인데 이는 '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항상성의 '-ㄴ-'와 현재시제의 '-누-'를 별개로 처리하는 견해를 따르므로 '노'는 '-ㄴ-'와 '-오-'의 결합일 수도 있고 '-누-'와 '-오-'의 결합일 수도 있다(문현수·허인영(2018:21-22)). 이를 고려하면 (10)은 '-누- + -오-', (11)은 '-ㄴ- + -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0) 去奴隱(가노) 處 [가는 곳] <祭亡妹歌>

(11) 免支尼호 〃스ヰ(하노리며) [免하소서 할 것이며] <화엄 14>

지금까지 논의된 선어말어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고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¹²³⁾ 의견이 꽤 갈리는 경우에는 위첨자로 물음표를 추가하였다.

121) 양정호(2001)가 참고될 듯하다. 이에 의하면 관계관형절의 '-오-'는 피수식체언이 관계절의 목적어나 보어로 복원될 수 있는 경우에, 명사절과 동격관형절(보문)의 '-오-'는 그 서술어가 목적어나 보어를 요구하는 경우에 쓰였다고 파악했다. 결국 서술어의 논항 구조에 따라 '-오-'가 통합되었다는 것으로 대상법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정호(2001)의 '보어'는 그 범위를 논문 초반에서 설명하고 있다. 혹은 河崎啓剛(2019/2020)의 결론에서 특정화 용법이 '-오-'의 인칭·대상을 넘어서 본래의 기능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그렇다면 명사절의 '-오-'도 특정화 용법으로 설명될 수 있진 않을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듯하다.

122) 물론 '-시-' 뒤의 그 약화를 단순히 형태론적 예외로 볼 수도 있겠으나 부담이 따르는 설명인 듯하다.

123) 고대국어의 선어말어미를 정리한 연구로 최성규(2025)가 참고된다. 최성규(2025:107)에는 정체 미상의 선어말어미 '-ㅂ-'도 제시되었다.

문법 기능		선어말어미 형태		
대분류	소분류	향찰	이두	석독구결
높임	주체높임	-賜(시)-	-賜(시)-	- 賦 / 賦(시)-
	객체높임	-白(술)-	-白(술)-	- 白(술)-
	상대높임 ^(?)			- ㅁ(고)- - ㅂ ㅎ(았)-
시제	과거 ^(?)	-如(다/더)-	-如(다/더)-	- ㅣ(다/더)-
	현재	-臥(누)-, -內-	-臥(누)-	- ㅏ(누)-
	미래	-理(리)-		- ㅊ(리)-
서법 및 양태	확인 ^(?)	-去(거)-	-去(거)-	- ㅊ(거)-
		-良/於(아)-	-良(아)-	- ㅂ(아)-
	감동 ^(?)	-置(도)-		
		-留(로)-		
	원망 ^(?)			- ㅁ(고)-
	추측	-古(고)- ^(?)		
		-理(리)-		- ㅊ(리)-
	항상성	-飛(느)-, -內-		- ㅌ(느)-
	미상		-在(겨)-	- ㅊ(겨)-
	당위/의무	-音叱(ㅁ)-		- ㅎ ㅎ(ㅁ)-
	가능/능력	-音叱(ㅁ)-		- ㅎ ㅎ(ㅁ)-
인칭·대상		-乎/好/烏/屋(오)-		- ㅂ / ㅎ / ㅂ / ㅂ(오)-

2.5.14 특이한 논항 구조

시간이 흐르며 격 실현의 변화로 인하여 구문 구조가 달라지기도 한다. 구결 자료에는 서술어와 논항 사이에 실현되는 격이 후기 중세국어와 다른 경우가 몇 개 보인다.

대표적인 경우로 ‘삼다’가 있다. 구결 자료에 보이는 ‘삼-’의 특징은 ‘위하다’ 정도의 의미¹²⁴⁾를 지니는 ‘삼-’이 관형격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처격으로 보기도 하나 관형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1) 一切衆生 ㄻ(으) {爲} ㄻ(삼) 煩惱 因緣 ㄻ [一切衆生을 위하여 煩惱 因緣을] <금광 3>
- (2) 一切衆生 ㄻ(으) 爲 三(삼) 一切佛 ㄻ 神力 [일체중생을 위하여 일체부처의 신력] <화소 20>
- (3) 諸 1 菩薩 ㄻ(스) {爲}(삼) 佛 ㄻ [모든 菩薩을 위해 부처님이] <화엄 14>

124) 석독구결의 ‘삼-’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선 이은규(2004)가 참고된다. 속격 논항을 지니는 예문은 김성주 (2005:32-35)와 최성규(2016:214-216)에 여럿 제시돼 있다.

위와 같이 동사가 관형격을 지배하는 것은 현대국어는 물론이고 중세국어에도 보이지 않는 현상이다. 유형론적으로 동사가 관형격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중세국어에는 보이지 않는 특수한 논항 구조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위의 예문에서 보이듯 주로 어미가 결합하지 않은 채 ‘삼’으로만 쓰였다. 이 때문에 최성규(2016:216)에선 영파생의 경우를 고려하여 어간과 형태가 동일한 명사 ‘*삼’을 가정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관형격 조사가 후행 체언을 수식하는 일반적인 관형격의 쓰임이 될 것이다.

‘위하여’를 뜻하는 ‘삼-’은 ‘삼오/삼호({爲} ㄵ / 三 ㄵ / ㄵ / ノ)’로도 쓰였는데 ‘삼’은 관형격을 지배하는 반면, ‘삼오/삼호’는 관형격조사가 붙은 체언과 함께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김성주(2005)에 의하면 (4)의 ‘爲ノ’가 ‘위하여’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삼오/삼호’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달리 해석할 수도 있어 확실한 것은 아니나 (5) 같은 경우도 관형격을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4) 他ㄵ(他의) 爲ノ ㄵ へ乙 請 ㄵ [남을 위하는 것을 請하여] <유가 20>
(5) 他人ㄵ(他人의) 爲 ㄵ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유가 20>

목적격과 관련하여 특이한 구조도 보인다. 용언 어간이 어미를 취하지 않은 채 직접 목적격을 지배하거나 부사 또는 어근적 성격을 지닌 요소가 목적격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보인다.

- (6) 定ㄵ(定을) 從ㄵ(좇) 起 ㄵ. ㄵ [定으로부터 일어나시어] <구인 상>
(7) 他ㄵ(他을) 從ㄵ(좇) 觀 ㄵ + [다른 사람을 쫓아 관에] <유가 26>
(8) 諸 1 法相ㄵ(法相을) {如} ㄏ(고) 悉 ㄵ 能 ㄵ [모든 法相과 같이 다 능히] <화엄 14>

(6)과 (7)에서는 동사 ‘좇-’이 어미 없이 목적어를 취하고 있으며 (6)는 ‘…로부터’의 의미를, (7)는 ‘쫓다, 따르다’의 의미를 갖는다. 박진호(1998:179)에선 용언 어간으로, 이건식(1996:67)에선 부사로 보았다. (8)에서는 어근 또는 부사라고 할 수 있는 ‘고’이 목적격 명사구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후기 중세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현희(2009)에선 이건식(1996)에 대해 부사 자체가 목적격을 지배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현상이라며 ‘乙 從ㄵ’는 ‘乙 從ㄵ ㄵ’이 생략된 표기라고 하였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8) 역시 생략 표기로 다룰 수 있으며 그렇다면 논항 구조가 특이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표기에서 ‘ㄵ ㄏ(고)’가 생략된 것이 된다.

참고 문헌

<기본자료>

- 민병곤 외 (2025), 고등학교 『화법과 언어』, 미래엔.
- 민현식 외 (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 방민호 외 (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미래엔.
- 서혁 외 (2025), 고등학교 『화법과 언어』, 지학사.
- 이관규 외 (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비상.
- 이관규 외 (2025), 고등학교 『화법과 언어』, 비상.
- 이삼형 외 (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지학사.
- 전은주 외 (2025), 고등학교 『화법과 언어』, 천재교육.
- 최형용 외 (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창비.

<논저>

- 고경재 (2017), 「국어 모음추이의 시기와 원인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어학』 75, 한국어학회.
- 고경재 (2022), 「12~15세기 국어 모음체계 연구—모음추이 이론의 재확립」,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성연 (2014), 「The End of the Korean Vowel Shift Controversy」, 『Korean Linguistics』 15,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고성연 (2020), 「한국어 모음추이설에 대한 비판적·종합적 고찰」, 『한글』 81, 한글학회.
- 고영근 (1980), 「中世語 語尾活用에 나타나는 ‘거/어’의 교체에 대하여」, 『국어학』 9, 국어학회.
- 고영근 (2019), 「‘오’ 계열 어미의 형태론과 통사론」, 『형태론』 21, 형태론.
- 고영진 (2007), 「제주도 방언의 형용사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재 시제에 대하여」, 『한글』 68, 한글학회.
- 고은숙 (2008), 「국어 의문법 어미의 역사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정의 (1989), 「처용가 해독의 재검토」, 『울산어문논집』 5,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고정의 (1991), 「차자 ‘毛冬’과 ‘毛如’」,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 고정의 (2004), 「口訣 研究의 現況과 課題」, 『울산어문논집』 7,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국립국어원 (1998),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원.
- 김무리 (1998), 「고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원.
- 김무림 (2003), 「漢字 ‘內’의 國語 音韻史의 考察」, 『국어학』 41, 국어학회.
- 김무림 (2009), 「古代國語 音韻論」, 『국어사연구』 9, 국어사학회.
- 김미경 (2024), 「석독구결 ‘- [았]-’의 기능 재론」, 『국어사연구』 39, 국어사학회.
- 김성주 (2005), 「석독구결의 사동 표현」,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 김성주 (2005), 「爲에 懸吐되는 口訣字와 機能」, 『구결연구』 15, 구결학회.
- 김성주 (2006), 「釋讀口訣의 被動 表現」,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 김양진 (2006), 「他動詞 ‘*식다’를 찾아서」, 『어문연구』 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영욱 (2011), 「三國時代 吏讀에 대한 基礎的 論議」,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 김유범 (1998), 「募竹旨郎歌 ‘阿冬音’의 해독 재고」, 『한국어학』 7, 한국어학회.
- 김유범 (2001), 「시간성 의존명사 ‘다’를 찾아서」, 『형태론』 3, 형태론.
- 김유범 (2019), 「국어사 교육에서 바라본 고대국어의 교육 내용과 석독구결」,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김주원 (1992),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학』 22, 국어학회.
- 김주원 (2008), 「알타이언어의 새로운 연구 방향에 대하여」, 『한글』 69, 한글학회.
- 김지오 (2012), 「均如傳 鄉歌의 解讀과 文法」,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오 (2019), 「고대국어 연결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구결연구』 43, 구결학회.
- 김지오 (2020), 「석독구결의 부독자 다시 보기」, 『국어사연구』, 국어사학회.
- 김지오 (2024), 「향가 조사(助詞)의 형태론적 고찰 -출현 양상, 격조사의 미실현과 미해결 과제를 중심으로-」, 『국어학』 111, 국어학회.
- 김지오 (2025), 「향찰과 석독구결의 조사(助詞) 비교」, 『구결연구』 54, 구결학회.
- 김지오·이용 (2024), 「향찰의 문자론적 이해」, 『구결연구』 53, 구결학회.
- 김현 (2015), 「中世 國語 ‘ㅓ’의 音韻論」, 『어문연구회』 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남풍현 (1987), 「中世國語의 過去時制語尾 ‘-드-’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 남풍현 (1998), 「고대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원.
- 남풍현 (2018), 「<兜率歌>와 <祭亡妹歌>의 새로운 解讀」, 『진단학보』 130, 진단학회.
- 문현수 (2024), 「구결자의 성립과 변천에 대하여」, 『구결연구』 53, 구결학회.
- 문현수·허인영 (2018), 「문법 형태 ‘-느-’의 통시적 변화」, 『국어사연구』 27, 국어사학회.
- 박부자 (2018), 「시상형태 {-더-}의 쟁점과 전망」, 『국어사연구』 27, 국어사학회.
- 박성종 (1997), 「차자 표기의 어휘론」, 『새국어생활』 7, 국립국어원.
- 박성종 (1998), 「고대 국어 어휘」,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원.
- 박재민 (2018), 「향가 해독 100년의 연구사 및 전망 -향찰 체계의 인식과 古語의 발굴 정도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45, 한국시가학회.
- 박지용 외 (2012), 「향가 해독 자료집(PDF)」,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박진호 (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원.
- 박진호 (2008), 「鄉歌 解讀과 國語 文法史」, 『국어학』 51, 국어학회.
- 박진호 (2016), 「속격에서 주격으로」, 『언어유형론연구』 3, 한국언어유형론학회.
- 박진호 (2016), 「문법」, 『신라의 언어와 문학』,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 박진호 (2019), 「15th century Korean Grammar from a Viewpoint of Linguistic Typology and Historical Grammar」,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박진호·황선엽·이승희 (2001) 「어말 ‘C+··/–’에서의 ‘C+·/–’ 탈락 현상에 대하여」, 『형태론』 3, 형태론.
- 박창원 (1985), 「국어 유성 장애음의 재구와 그 변화」, 『국어국문학』 93, 국어국문학회.
- 박창원 (1997), 「향찰과 향가」, 『새국어생활』 7, 국립국어원.
- 백두현 (1994), 「이중모음 ‘..’의 통시적 변화와 한국어의 방언 분화」, 『어문론총』 28, 한국문학언어학회.

- 백두현 (1997), 「고려 시대 석독구결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구결연구』 2, 구결학회.
- 백두현 (1997), 「차자 표기와 형태론」, 『새국어생활』 7, 국립국어원.
- 서종학 (2011), 「吏讀의 개념과 성격」,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 성우철 (2020), 「국어 차자표기 교육의 현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구결연구』 44, 구결학회.
- 성우철(2024ㄱ),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白-'의 기능 -15세기 한글 자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국어학』 112, 국어학회.
- 성우철(2024ㄴ),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白-'의 기능에 관한 연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 『국어사연구』 38, 국어사학회.
- 신성철 (2022), 「고대 국어 음운 체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 『국어사연구』 35, 국어사학회.
- 안대현 (2020), 「점토석독구결의 점토 체계의 대칭성」, 『구결연구』 44, 구결학회.
- 양정호 (2001), 「중세국어 동명사의 선어말어미 '-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위국봉 (2014), 「고대 한국어 음운 체계 연구- 전승 한자음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문 (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동석 (2000), 「향가의 첨기 현상에 대한 연구」, 『구결연구』 6, 구결학회.
- 이병기 (1998), 「선어말어미 '-리-'의 기원」, 『구결연구』 4, 구결학회.
- 이병기 (2014), 「구결 자료의 어휘」, 『구결연구』 33, 구결학회.
- 이병기 (2018), 「시상 형태 '-(으)리-'의 쟁점과 전망」, 『국어사연구』 27, 국어사학회.
- 이병기 (2019), 「고대국어 동명사 어미의 문법적 특징과 과제 -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43, 구결학회.
- 이병기 (2023), 「문법사를 활용한 현대 국어 문법 교육」, 『국어사연구』 37, 국어사학회.
- 이상금 (2019), 「자토석독구결에 나타난 선어말어미 '-거-'의 통합 양상과 의미 기능」, 『구결연구』 43, 구결학회.
- 이상금 (2020), 「자토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 '-거-'의 통합 양상에 대한 일고찰」, 『구결연구』 45, 구결학회.
- 이상혁 (2015), 「폴리바노프(Polivanov)의 언어관에 대하여 - 구소련 언어관과의 대조 및 그의 알타이 계통론을 중심으로 -」, 『아시아문화연구』,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이승녕 (1949), 「의 음가 변이론」, 『한글』 10, 한글학회.
- 이승재 (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원.
- 이승재 (2000), 「새로 발견된 각필(角筆) 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 국립국어원.
- 이승재 (2001), 「古代 吏讀의 尊敬法 '-在[겨]-'에 대하여」, 『어문연구』 2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승재 (2002), 「옛 文獻의 각종 符號를 찾아서」, 『새국어생활』 12, 국립국어원.
- 이용 (2003), 「釋讀口訣에 나타난 不定詞의 機能에 대하여」,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 이용 (2008), 「'-져'의 역사적 고찰」, 『진단학보』 105, 진단학회.
- 이용 (2013), 「지정사의 개념과 차자표기 지정문자설의 문제에 대하여」, 『구결연구』 30, 구결학회.
- 이용 (2017), 「助詞 表記字로 본 吏讀의 變遷」, 『구결연구』 38, 구결학회.
- 이용 (2023), 「어말어미 표기자로 본 이두의 변천」, 『구결연구』 51, 구결학회.

- 이은규 (2004), 「석독 입결문의 동사 삼-의 의미 기능」, 『언어과학연구』 30, 언어과학학회.
- 이장희 (2014), 「고대국어 어휘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 -텍스트와 자료의 이해-」, 『구결연구』 33, 구결학회.
- 이전경 (2012), 「‘爲’자에 혼토된 석독표기자와 그 해독」, 『구결연구』 28, 구결학회.
- 이현희 (1996), 「향가의 언어학적 해독」, 『새국어생활』 6, 국립국어원.
- 이현희 (2009), 「‘조초’의 文法史」, 『진단학보』 105, 진단학회.
- 임지룡 외 (2020),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 장경준 (2008), 「點吐口訣 研究의 成果와 當面 課題」, 『구결연구』 21, 구결학회.
- 장경준 (2009), 「점토구결 자료의 문법 형태에 대하여」, 『국어학』 56, 국어학회.
- 장요한 (2019), 「문법사의 시대 구분 연구 쟁점과 과제」, 『국어사연구』 29, 국어사학회.
- 장윤희 (1997), 「석독 구결 자료의 명령문 고찰」, 『구결연구』 2, 구결학회.
- 장윤희 (1998), 「석독구결 자료의 감탄법 종결어미」, 『구결연구』 4, 구결학회.
- 장윤희 (200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 장윤희 (2005), 「고대국어 연결어미 ‘-遣’과 그 변화」,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 장윤희 (2006), 「고대국어의 파생 접미사 연구」, 『국어학』 47, 국어학회.
- 장윤희 (2019), 「한국어사의 시대 구분, 무엇이 문제인가?」, 『국어사연구』 29, 국어사학회.
- 정재영 (2006), 「韓國의 口訣」,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 최성규 (2016), 「차자표기 자료의 격조사 연구-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성규 (2017), 「명사형 어미 ‘-ㅁ’의 형성 과정 탐색」, 『국어학』 83, 국어학회.
- 최성규 (2019), 「고대국어 종결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구결연구』 43, 구결학회.
- 최성규 (2023), 「고려시대 및 그 이전 국어의 부정(否定) 표현에 보이는 몇 가지 문제 - 구결, 향찰, 이두 자료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 『구결연구』 51, 구결학회.
- 최성규 (2025), 「향찰과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 비교」, 『구결연구』 54, 구결학회.
- 최준호 (2019), 「한국어 어미 ‘-을’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귀녀 (2005), 「국어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귀녀·황선엽·박진호 (2009), 「중세국어 보조사 ‘-으란’의 기원」, 『형태론』 11, 형태론.
- 허인영 (2019), 「‘內’와 關聯 借字의 通時의 變化」, 『구결연구』 42, 구결학회.
- 황선엽 (1997), 「處容歌 脚鳥伊의 해독에 대하여」, 『국어학』 30, 국어학회.
- 황선엽 (2000), 「석독구결의 ‘尸’의 해독에 대하여」, 『한국문학논총』 26, 한국문학회.
- 황선엽 (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 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선엽 (2002), 「향가에 나타나는 遺과 古에 대하여」, 『국어학』 39, 국어학회.
- 황선엽 (2003), 「구결자 ‘斤’의 해독에 대하여」,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 황선엽 (2006), 「고대국어의 처격 조사」,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 황선엽 (2010), 「향가의 연결어미 -아 표기에 대하여」, 『구결연구』 25, 구결학회.
- 황선엽 (2013), 「고대국어에 관한 국어사 교육」, 『국어사연구』 16, 국어사학회.
- 河崎啓剛 (2019), 「중세한국어 관형사형 ‘-오-’의 ‘특정화 용법’에 대하여」, 『형태론』 21, 형태론.

河崎啓剛 (2020), 「중세한국어 관형사형 ‘-오-’의 ‘특정화 용법’에 대하여(Ⅱ) - 비특정관형절의 다양한 용법 -」, 『형태론』 22, 형태론.

L. Campbell and W. J. Poser (2008), 『Language Classification: History and Meth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e, Ki Moon and S. R. Ramsey (2011), 『A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Ito, Chiyuki (2014), 「Korean accent-Internal reconstruction and historical development-」, 『Korean Linguistics』 15,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Ramsey (1986), 「The Inflecting Stems of Proto-Korean」, 『어학연구』 2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Ramsey (1991), 「Proto-Korean and the Origin of Korean Accent」 In W. Boltz & M. Shapiro (Ed.), 『Studies in the Historical Phonology of Asian Languag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Ramsey (1993), 「Some Remarks on Reconstructing Earlier Korean」, 『어학연구』 29,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Vovin (2000), 「On the Great Vowel Shift in Middle Korean and position of stress in Proto-Korean」, 『Korean Linguistics』 10

Vovin (2003), 「Once Again on Lenition in Middle Korean」, 『Korean Studies』 27,

Vovin (2020), 「Old Korean and Proto-Korean *r and *l Revisited」, 『International Journal of Eurasian Linguistics』

제3 장 후기 중세국어

세종 25년(양력으로는 1444년)은 국어사 연구에 있어 기념비적인 해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우리말을 직접 우리의 문자 체계로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세국어’라는 용어는 국어사의 시대 구분상 10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10세기 초~14세기 말까지의 ‘전기 중세 국어’와 15세기 초~16세기 말까지의 ‘후기 중세 국어’로 나뉜다. 후기 중세 국어는 대략 100여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말 자료가 급격히 많아지기 시작한 시기이며 그만큼 연구된 바가 많아 학자들끼리 합의된 내용이 많다. 그렇기에 교과서에서도 후기 중세 국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수능에서도 국어사 문제 중 후기중세국어를 가장 흔하게 출제하는 것이다.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국어사 과목에선 이 부분만 공부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통상적으로 ‘중세국어’라 함은 전기 중세 국어와 후기 중세 국어를 아우르는 ‘광의의 중세국어’가 아니라 후기 중세 국어만을 일컫는 ‘협의의 중세국어’를 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책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중세국어’라는 명칭은 ‘후기 중세국어’만을 나타낸다.

3.1. 문자와 표기법

이 단원에서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즉 글자가 만들어진 방식과 원리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세국어의 문자 체계가 어떤 논리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그 체계가 현대 국어의 문자 구조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문자가 어떻게 표기되었는지도 알아보자.

3.1.1 제자 원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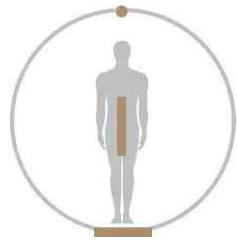
『훈민정음』(예의)¹⁾에서는 초성과 종성, 중성에 쓰이는 자음 17자와 모음 11자로 이루어진 28자의 자형(정음이십팔자; 正音二十八字)을 제시한다.²⁾ 제자 원리에는 어떤 사물의 형상을 본뜨어 만드는 ‘상형’의 원리와 원글자에 획을 더해 만드는 ‘가획’의 원리가 있다.

세종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ㄱ, ㄴ, ㅁ, ㅅ, ㅇ’의 자음을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이를 **기본자**라고 한다. 이들 기본자에 가획의 원리 즉 획을 더 그음으로써 만든 ‘ㅋ, ㄷ, ㅌ, ㅂ, ㅍ, ㅈ, ㅊ, ㅎ(여린히읗), ㅎ’을 **가획자**라고 한다. 이중 ‘ㅋ, ㄷ, ㅂ, ㅈ, ㅎ’은 기본자에 선을 하나만 그었기 때문에 1차 가획자라고 하고, ‘ㅌ, ㅍ, ㅊ’은 선을 둘 그었기 때문에 2차 가획자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형과 가획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자음이 있는데 이를 **이체자**라고 한다. 이체자는 ‘ㅇ(옛이응), ㄹ, ㅿ(반치음)’이 있다. 이체자는 상형으로도 가획으로도 볼 수 없다.



- 여기서는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은 ‘훈민정음’으로 책 제목 훈민정음(1446)은 『훈민정음』으로 표기한다. ‘예의’는 글자의 음가와 운용법을 간략히 설명하는 부분으로 세종이 직접 썼으며, ‘해례’는 초성, 중성, 종성의 글자와 글자 활용의 자세한 원리를 설명한 부분으로 신숙주, 정인지 등의 집현전의 학자들이 썼다.
- 이들의 음가에 대해선 음운론에서 다룬다.

모음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아래아), ㅡ, ㅣ’를 만들었는데 천지인(天地人) 즉 하늘과 땅, 사람을 본떠 만든 기본자이다. 천지인을 본떴다는 것이 다소 난해한데 이는 동양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언어학과 동양철학을 모두 이해해야 하므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한다. 모음자에서 확인되는 제자 원리는 ‘상형’뿐이며, 나머지 8자의 모음은 기본자를 합성하여 만들었다. 이때 기본자 ‘、’에 나머지 기본자를 합성한 ‘ㅏ, ㅓ, ㅗ, ㅜ’를 초출자라고 하며 초출자에 다시 ‘、’를 합성한 ‘ㅑ, ㅕ, ㅛ, ㅕ’를 재출자라고 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24수능에서 제시된 용자례이다.³⁾

〈초성자 용자례〉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기본자	ㄱ	노로	뫼(산)	섬	ㅂ 암(뱀)		
가획자	ㅋ	뒤(띠)	벌	죠희(종이)			
이체자	ㄺ	고티	파	채	부횡		

〈중성자 용자례〉

기본자	ㅌ/ㄷ리	믈/그력(기려기)	ㅈ
초출자	논/벼로	밥	누에
재출자	쇼	남상(거북의) 일종	슈룹(우산)

종성 글자는 따로 별개의 문자를 설정하지 않고 초성 글자를 그대로 썼다. 이처럼 종성을 새로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든 초성을 다시 쓴다는 원리를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고 한다. 국어의 음절은 원칙적으로 초성과 중성과 종성의 소리(CVC)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초성과 종성이 다른 개념이니 표기를 달리 해야 한다고 보았다면 종성자를 따로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그러한 원리를 배제하였기에 그에 따라 종성에서 사용되는 모든 글자는 모두 종성부용초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ㄹ’이나 ‘ㄺ’ 등의 겹받침(합용병서)은 초성에 나타나지 않고 종성에만 쓰이나, ‘ㄹ’과 ‘ㄱ’이라는 초성에 쓰이는 글자를 이어 쓴 것이니 이들 역시 종성부용초성의 원리를 지킨 것이다.⁴⁾

3) 2024학년도 수능 지문형(35-36)에서도 가획자는 9개라고 하며 ㅎ도 포함하였는데 고유어 초성에선 쓰인 예가 없어 용자례 표에선 제외되었다.

4) 관련 기출로는 23수능 37번이 있다.

3.1.2 28자 이외의 글자 (☆☆☆)

그러나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들 28자 외에도 여러 문자가 쓰였다. 세종을 비롯한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28자를 단일 문자 즉 하나의 글자로 본 반면, 나머지 글자는 둘 이상의 글자가 합쳐졌다고 보았다. 즉 단일 글자를 합치면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새로운 문자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훈민정음』(해례)에서는 이를 글자의 운용으로 설명하는데, 문자(자·모음자)의 창제 차원에서 운용은 병서, 연서, (이자)합용, 丨상합의 네 가지로 나뉜다.

병서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으로, ‘ㄱ, ㅋ, ㄲ, ㅆ, ㅉ, ㅎ’ 따위의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쓴 각자 병서와 ‘ㄳ, ㄵ, ㄻ, ㄺ, ㄻ’ 따위의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쓴 합용병서로 구분된다. 자음을 위아래로 쓰지 말라는 뜻이다. 합용병서는 위치에 따라 초성 합용병서와 종성 합용병서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말 그대로 초성에 나타나느냐 종성에 나타나느냐의 차이이다. 연서란 순음 아래에 ‘o’을 이어 쓰는 것으로 ‘ᠩ, 甁, 甁, 甁’의 순경음을 나타냈다. 이중 ‘ᠩ’를 제외한 나머지 세 연서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만 쓰였으며 고유어 표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합용⁵⁾ 또는 이자합용이란 같은 성격의 모음끼리 합쳐 쓰는 것으로 ‘ㅑ, ㅕ, ㅕ, ㅕ’가 있다. 양성 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합쳐 쓴 것이다. 丨상합이란 ‘丨’를 다른 모음 뒤에 합쳐 쓰는 것으로, 한 글자로 된 모음에 ‘丨’가 합해진 ‘ㅕ, ㅕ, ㅕ, ㅕ, ㅕ, ㅕ, ㅕ, ㅕ’와 두 글자로 된 모음에 ‘丨’가 합해진 ‘ㅕ, ㅕ, ㅕ, ㅕ’가 있다. 이중 ‘ㅕ, ㅕ, ㅕ, ㅕ’는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이지만 중세국어에는 이중모음이었으며 ‘丨’가 상합된다는 것은 끝에 오는 반모음 ‘j’를 나타낸 것이다. 이중 ‘ㅑ, ㅕ, ㅕ, ㅕ’는 고유어 표기에 쓰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중국어 표기를 위해 고안된 문자도 존재하였다. 우리말에는 없지만 중국 한자음에는 존재하는 두 가지 계열의 치음인 치두음과 정치음을 표기하기 위해 국어의 치음을 나타내는 문자인 ‘ㅈ, ㅊ, ㅋ, ㅅ, ㅆ’를 변형한 문자가 그것이다. 왼쪽 끝을 늘인 ‘ㅈ, ㅊ, ㅋ, ㅅ, ㅆ’은 치두음을, 오른쪽을 늘인 ‘ㅈ, ㅊ, ㅋ, ㅅ, ㅆ’은 정치음을 나타낸다. 이들 문자는 『훈민정음』(해례) 대신 『훈민정음』(예의)의 언해본⁶⁾에만 나오는데, 훈민정음은 한국어 표기뿐 아니라 중국어 표기도 고려하여 만들 어졌음을 보여준다.

다소 특이한 모음자인 ‘丨’와 ‘ㅡ’도 소개된 바 있다. 『훈민정음』(해례본)에만 등장하는 문자로 ‘나랏말에는 없으나 시골말(방언)과 어린아이의 말’에는 있다며 언급되었다. 언급되지만 하였지 실제로 쓰이지는 않았으며 이를 통해 훈민정음에서 다루는 ‘나랏말’은 ‘서울말’이었고 세종은 중앙어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음운론에서 다시 하겠다.

문자 창제 차원이 아닌 음절을 표기하는 사항을 알린 음절 차원의 운용으로는 부서법과 성음법이 있다. 부서법은 초성과 중성을 합할 때 그 위치를 정한 것으로 ‘ㄱ, ㄱ, ㅋ’처럼 옆으로 납작하게 생긴 중성자는 ‘ㄱ, ㄱ, ㅋ’와 같이 초성 아래에 붙여 쓰고, ‘ㅣ, ㅣ, ㅣ’처럼 위아래로 길쭉하게 생긴 중성자는 ‘기, ㄱ, ㅋ’와 같이 초성 오른쪽에 붙여 쓰라는 규정이다. 성음법은 초성, 중성, 종성이 합쳐져야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규정으로 초성이나 중성만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5) 중성의 합용도 합용병서로 볼 수 있으나, 방민호 외 (2019: 197)에선 합용병서를 자음에만 한정하였으므로 이를 따랐다.

6) ‘언해’란 한문으로 된 글을 한글로 풀어 쓴 것을 말한다.

3.1.3 기본적인 표기 원리 (☆☆☆☆)

중세 국어의 문헌에서 표기법은 현대 국어와 다른 점이 많다. 그중 두드러지는 것은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을 쓰는 방법과 종성을 쓰는 방법이다.

중세국어의 표기는 표음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발음대로 이어 썼다. 현대국어라면 명사 ‘집’과 목적격조사 ‘을’의 결합을 ‘집을’이라고 쓰지만, 중세 국어 시기에는 ‘지블’로 썼다는 것이다. 이를 연철(連綴) 또는 이어쓰기라고 한다. 발음의 원리상 앞 형태소의 받침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이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쓴 것이다. 현대국어와 달리 세로쓰기를 썼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철은 매우 합리적인 표기법임을 알 수 있다. 글자의 종성을 바로 다음 글자의 초성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세 한국어의 표기법은 연철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즉, 중세 국어의 표기법은 단어의 뜻을 살리는 표의주의적 성격보다는 소리나는 대로 쓰는 표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성격은 형태소와 형태소 경계뿐 아니라 음운 현상이 적용될 때도 보이는 데, ‘앓- + -고’를 ‘알코’로 쓰는 것이 그 예이다. 다만 경음화는 있었으리라 추정되지만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비음화는 표기에 반영된 경우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공존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음운론의 음운변동 단원에서 다루도록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표기법은 종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받침에는 실제로 종성에서 소리 날 수 있던 8개의 자음만이 쓰였다. 이를 팔종성가족용법(八終聲可足用法) 또는 8종성법이라 한다. 현대국어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절말 평파열음화)을 생각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체언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한정돼 있는데 중세 국어 시기에는 현대국어의 7종성에 더불어 ‘ㅅ’도 음절 말에서 소리 날 수 있었다. 즉 음절 끝에서 허용된 자음은 원칙적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 8개 뿐이었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 음절 말의 ‘ㄷ’과 ‘ㅅ’을 구별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당시의 ‘ㅅ’은 음절 말에서의 발음이 현대와 달랐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8종성법을 따라 ‘밭’은 ‘밭’으로, ‘꽃(꽃)’이나 ‘갖(가죽)’은 ‘꽃’과 ‘갓’으로, ‘닢(잎)’은 ‘닙’으로 표기된 것이다. 현대국어였다면 ‘받온’이나 ‘눕고’, ‘늦거니’, ‘갓과’ 등은 모두 ‘밭 온’, ‘눕고’, ‘늦거니’, ‘갓과’로 적혀야 한다. 이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법을 ‘표음주의적 표기법’ 또는 ‘음소적 표기법’이라 한다. 음운변동이 적용된 상태로 적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8종성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 쓰이는 것이 그러한 경우이다. 물론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었지, 많은 15세기 문헌에서는 일관된 표기 원리로 통일되어 쓰였다.

3.1.4 사잇소리의 표기 (☆☆)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 또는 구를 이룰 때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사잇소리 현상이 있는데 이를 표기하는 방식도 특징적이었다.⁷⁾ 사잇소리 현상이란 현대국어에서 ‘물+고기’가 [물꼬기]로, ‘그믐+달’이 [그믐달]로, ‘코+날(콧날)’이 [콧날]로 발음되는 따위의 현상이다. 중세국어에도 사잇소리 현상은 존재하였는데 그 자세한 음운변동은 다루기 어렵다. 사잇소리 현상은 선행하는 소리가 울림소리일 경우 나타나는데, 중세국어에선 일반적으로 선행 체언의 받침과 상관없이 ‘ㅅ’으로 사잇소리를 나타냈다. ‘즘겟가재(즘게+갓)’처럼 선행 체언의 받침으로 쓰이기도 하였고, ‘아바닢 뒤(아바님+뒤)’나 ‘맏 습 ㅋ장(맏 습+ㅋ장)’처럼 선행 체언의 종성 옆에 쓰이기도 하였고, ‘狄人ㅅ 서리’처럼 선행 체언이 한자로 쓰일 경우 그 뒤에 쓰기도 하였다. 이때 선행 체언에 받침이 있을 경우 ‘ㅅ’은

7) 현대 국어에선 합성명사에서만 보이나 중세국어에선 명사구 구성이어도 사잇소리 현상이 보인다.

‘無しが’처럼 종성에 쓰이기도 하였지만 ‘無しが’처럼 ㅅ이 후행 체언의 초성에 올라가기도 하였다. ‘엄쏘리’ 역시 ‘엄+소리’이므로 ㅅ이 후행 체언의 초성에 올라간 것으로 본다.

한편, 『석보상절』(이하 석상)과 『훈민정음』(언해본), 『용비어천가』(이하 용가)에서는 예외적인 사이시옷 표기법이 드러난다. 『훈민정음』(언해본)은 『용가』와 함께 선행 음절의 끝소리에 따라 사잇소리를 다르게 표기하는 특이한 예가 등장한다. ‘乃終ㄱ 소리’가 그러하다. 이때의 ‘ㄱ’은 사잇소리를 나타내는 표지로 ‘ㅅ’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인 중세국어 문헌이었다면 ‘乃終ㅅ 소리’로 쓰였어야 한다. 사잇소리가 실현되려면 선행음이 울림소리⁸⁾여야 했는데 울림소리의 종류가 다양하니, 그 울림소리의 조음위치에 맞추어 각기 다른 문자로 사잇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 두 초기 훈민정음 문헌에서 쓰이던 사잇소리 표지로는 ‘ㄱ, ㄷ, ㅂ, ㅌ, ㅎ’이 있다. ‘ㄱ’은 ‘ㅇ’ 뒤에, ‘ㄷ’은 ‘ㄴ’ 뒤에, ‘ㅂ’은 ‘ㅁ’ 뒤에, ‘ㅌ’은 ‘ㅌ’ 뒤에, ‘ㅎ’은 모음이나 ‘ㄹ’ 뒤에 쓰였다. 『용가』에서는 이에 더해 ‘ㅅ’ 까지 사잇소리 표지로 사용하였는데 사잇소리 표지로서의 ‘ㅅ’은 다른 문헌에선 보이지 않는다. 『석상』은 주로 ‘ㅅ’을 사잇소리 표지 즉 사이시옷로 썼지만 ‘ㅅ’ 대신 ‘ㄱ, ㄷ, ㅂ’을 쓰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사잇소리 표지는 곧 폐지되고 ‘ㅅ’으로 통일된다.

이때,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을 구별하여야 한다.⁹⁾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국어도 기본적으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면 사이시옷 ‘ㅅ’을 적어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음을 표기에 반영하였다. 이 때 ‘사잇소리’는 단순히 음운론적인 현상을 말하며 ‘사이시옷’은 표기법적 장치를 말한다. 즉 ‘사이시옷’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음을 문자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ㅅ’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사이시옷 ‘ㅅ’의 문법적 지위도 따져 볼 수 있는데 대개 ‘ㅅ’은 관형격조사로 볼 수 있다. ‘아바님 뒤’는 의미상 ‘아버님의 뒤’로 해석된다. 따라서 ‘無しが’과 같은 표현을 분석할 때 표기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ㅅ’은 사잇소리를 나타내기 위한 표기 장치인 사이시옷이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을 형태론적으로 보게 되면 ‘ㅅ’은 소유나 관형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격 조사가 되는 것이다. 이때 사이시옷의 발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다. ㅅ 뒤 평음이 쓰이는 경우는 경음화로 해석할 수 있으나 ‘ㅅ’의 음가가 예외적이라는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또, ‘부렷 말’이나 ‘나랗 일훔’과 같이 대응하는 경음이 없는 경우는 어떤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해석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중세국어의 사잇소리 현상은 현대국어와 달리 발음의 변동 양상을 논하기 어렵다.

3.1.5 예외적인 표기법 (☆☆)

앞서 얘기하였듯 중세국어의 기본적 표기 원리는 표음주의적 표기법이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예들이 종종 관찰된다. 이때 표음주의를 지키지 않은 예들이 모두 같은 문헌에서 발견된다. 즉 특정 문헌을 작성할 때 편찬자가 의도적으로 표음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예외적 표기가 두드러지는 것이 『용가』와 『월인천강지곡』(이하 월곡)이다.¹⁰⁾

『월곡』은 연철의 원리를 지키지 않는 표기를 보인다. 선행 체언의 말음과 용언 어간의 말음이 울림소리인 ‘ㅇ, ㄴ, ㅁ, ㄹ, ㄷ’일 때 끊어적기를, 그외에는 이어적기를 한 것이다. 가령, ‘누네’ 대신 ‘눈에’, ‘므리’ 대신 ‘물이’, ‘다마’ 대신 ‘담아’, ‘즈슬’ 대신 ‘중을’로 적는 따위이다. 이를 ‘분철(分綴)’

8) 비음, 유음을 포함하여 울림소리 또는 공명음이라고 한다. 한국어의 자음 중 비음과 유음만 공명음이고 모든 모음은 공명음이다.

9) 중세국어의 사잇소리의 음운론은 꽤나 복잡한 문제이며, 25수능에서도 사잇소리 표기법만 간략히 언급되었을 뿐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은 남미정(2012)과 河崎啓剛(2015), 김정인(2023)이 참고된다.

10) 관련 기출로 2025학년도 수능 지문형 문제(35-36)가 있다.

또는 ‘끊어적기’라고 한다. 다만 이어적기를 한 경우가 보이기도 한다. 이때 음절 끝이 ‘으’으로 된 체언은 『월곡』뿐 아니라 『월인석보』(이하 월석)이나 『석상』에서도 끊어 적기를 하였는데 『월곡』처럼 분철이 규칙적이진 않아 이들 두 문헌에선 ‘쥬의’(중+의) 등의 연철과 ‘중으란(중+으란)’ 등의 분철이 함께 보인다.

또, 『용가』와 『월곡』 모두 8종성법을 지키지 않는 표기법을 보인다. 즉 ‘곳’ 대신 ‘곶’으로, ‘겁고’ 대신 ‘깊고’로, ‘빛나시니이다’ 대신 ‘빛나시니이다’로 쓴 것이다. 이는 현대 맞춤법의 원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당시 학자들이 형태소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표기법을 ‘표의주의적 표기법’ 또는 ‘형태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인 적용에 그쳤고 다수의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표음주의적 표기법이 주되게 쓰였다.

중세국어 문헌에서 이러한 표기법의 불일치가 훈민정음 창제 초기 문헌에만 보인다는 점에서 이는 훈민정음 표기의 실험적인 모델 때문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어떤 표기가 실용적일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표기 양상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훈민정음』(해례본)에서 8종성법으로 정착하는 결론에 도달하였지만 그러한 결정에는 세종이 창안한 문자 체계를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때 앞서 언급한 표의주의적 표기를 통해 당시 학자들이 표의주의적 표기 역시 하나의 표기 모델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용가』와 『월곡』은 편찬 과정에서 세종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아마 세종은 이론적 성격이 강한 표의주의를 주장하였는데 집현전 학자들은 표음주의를 지향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그 두 가지 표기법 중 결국 세종이 학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였지만 세종이 참여한 문헌에서는 표의주의적 표기법이 보인다는 것이다. 『용가』는 『훈민정음』(해례본)보다 일찍 간행되었기에 실험적인 표기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었겠으나, 『월곡』은 8종성법이 규정된 『훈민정음』(해례본) 이후에 간행되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세종이 직접 편찬에 참여한 문헌이기에 8종성법이 규정됐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모든 자음을 받침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¹¹⁾

3.1.6 한자음의 표기 (☆☆)

중세국어 문헌은 대부분 국한문 혼용체로 쓰였는데 이때 한자만 쓴 경우가 있고 한자음과 함께 적은 경우가 있었다. 『용가』는 따로 한자의 음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월곡』은 한자의 음을 적고 이어서 그 한자를 제시하였으며, 『월석』은 한자를 적고 이어서 그 한자의 음을 제시하였다.¹²⁾

1. “海東 六龍이 누르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同符하시니”
2. “마魔왕王이 노怒흔들 뚫道리理 거출씨”
3. “世生宗종이 날드려 니르샤다 追탕薦전이 轉된經경 곤하니 업스니”

(1)은 『용가』의 한 부분으로 한자만 쓰였으며 이러한 표기는 『용가』와 『두시언해』에서만 보인다. (2)는 한자음이 큰 글자로 적혀 있고 한자가 작은 글자로 달려 있다. 이러한 주음 방식은 『월곡』에만 보인다. (3)은 『월석』의 예문인데, 『월석』이나 『석상』, 『능엄경언해』 등 중세국어 문헌에서 국한 문훈용을 했다면 대체로 (3)처럼 썼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1) 『월곡』은 세종의 형 수양대군이 어머니인 소현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작성한 『석상』을 바탕으로 세종이 쓴 찬불가 형식의 글이다. 『세조실록』에 세조가 세종이 쓴 『월곡』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존재하므로 세종이 직접 썼음을 알 수 있다.

12) 관련 기출로 25 수능 지문형 문제가 있다.

3.1.7 그 외의 표기 원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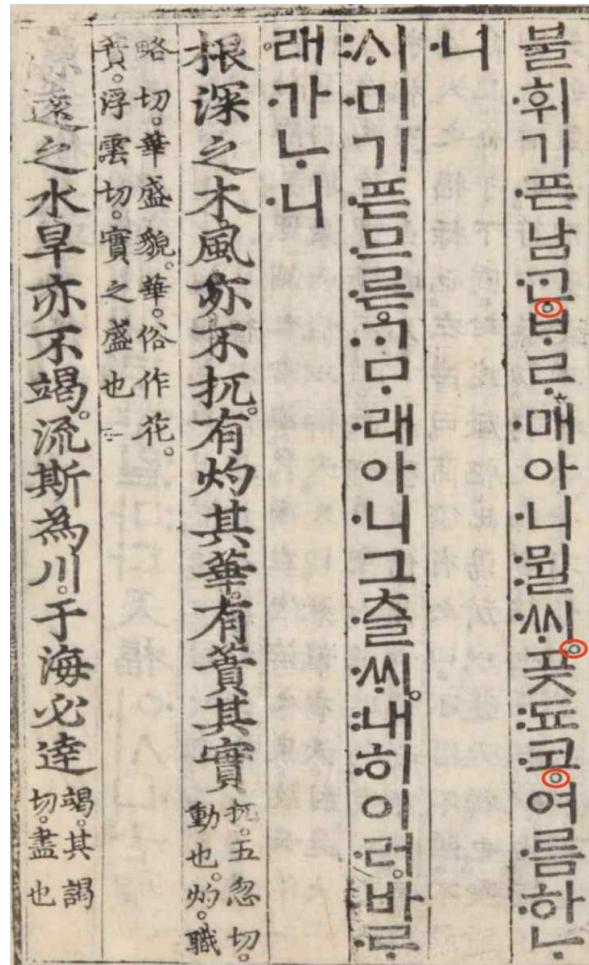
현대 맞춤법에서는 어절 단위로 띄어 쓰도록 하고 있지만 중세국어 문헌은 일반적으로 붙여 썼다. 띄어쓰기는 가로쓰기와 더불어 도입된 근대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옛阿僧祇劫時節에 흔菩薩이 王 드 외야 거 샤 나 라 훌 아 ◆ 맛디시고道理비호라나아가샤”

위의 예는 『월석』 권1의 『석상』부터의 첫머리 부분인데 어느 곳에서도 띄어쓰기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¹³⁾ 그러나 『용가』에는 현대 맞춤법의 띄어쓰기의 공간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 일정한 부호가 사용되었다.

“불휘기풀남고 ○ 부 른 매아니월씨. 곶도코 ○ 여름하느니”

위의 문장은 어미 ‘-ㄹ씨’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후행절인 주절과 선행절인 종속절 사이에는 우권점(。)을 사용하였고, 앞뒤의 마디는 중권점(○)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권점을 율격 표지로 해석하기도 한다.



13) 물론 원문은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중세국어 문헌에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문장은 없으나 편의상 앞으로는 중세국어 문장을 현대 맞춤법의 원리를 따라 단어별로 띄어 쓰도록 한다.

3.2. 음운론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표기법을 살펴보면, 중세국어의 문자 체계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세국어 시기에는 녹음 기술이 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 500년 전의 화자가 현재 살아 있을 리도 없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문자가 어떤 발음을 나타냈는지 알 아내는 것은 불가능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로 분명히 할 수 있다.

혹자는 과거의 언어는 그 당시를 살아보지 않은 이상 그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다며 과거의 언어를 재구하는 것을 부정할지도 모르겠으나, 문헌 자료의 표기법에 대한 정밀한 연구와 『훈민정음』 등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당시 훈민정음 창제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발음 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 즉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하여 그 당시 선인들의 발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중세국어는 그 자료가 매우 풍부하다는 점에서 고대국어보다 훨씬 실증된다는 의의가 있다. 중세국어의 자·모음 체계는 오늘날의 자·모음 체계와 기본적인 구조가 비슷하지만, 일부 음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반대로 현재에는 사라진 음소가 포함되기도 하였으며 문자는 같지만 그 소리가 다르기도 하였다. 음소와 운소 체계를 알아보고 그러한 음운이 중세국어 시기에는 어떻게 쓰였고 변하였는지 알아보자.¹⁴⁾

3.2.1 자음 체계

3.2.1.1 단일 자음 체계(☆☆)

『훈민정음』(해례)에선 17자의 단일 구성 초성을 언급하고 각 자음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그 당시의 중국의 음운을 연구하는 학문인 성운학을 참고하였기에 분류 체계가 현대와는 달랐다. 『훈민정음』에서 제시한 17자의 단일 자음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전청음	ㄱ	ㄷ	ㅂ	ㅅ, ㅈ	ㅎ		
차청음	ㅋ	ㅌ	ㅍ	ㅊ	ㅎ		
불청불탁음	ㆁ	ㄴ	ㅁ		ㅇ	ㄹ	ㅿ

또한, 『훈민정음』에서 언급된 각자병서는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전탁음	ㄲ	ㄸ	ㅃ	ㅆ, ㅉ	ㅎㅎ

최상단은 조음위치, 최좌단은 조음방법의 분류이다. 이는 성운학의 용어를 따른 것인데, 조음위치는 한자를 안다면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아·설·순·치·후음(牙·舌·脣·齒·喉音)’은 각각 ‘어금닛소리, 혀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청소리’를 뜻한다. 반설음과 반치음은 ‘반혀소리, 반잇소리’이다. 조음방법은 그 명칭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전청, 차청, 불청불탁, 전탁’은 각각 ‘예사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된소리’를 뜻한다고 보면 된다.

14) 중세국어 음운 체계의 쟁점은 김성규(2009)와 김지은(2022)이 참고된다.

기본적인 자음에 대한 이해도가 생겼을 테니, 현대국어처럼 자음체계표를 만들어보자. ‘아설순치후음’에서 ‘설음’과 ‘치음’은 그 조음 위치가 사실상 같아 하나로 합쳤다. 『훈민정음』에서 제시한 설음과 치음 모두 음성학적으로 ‘치조음(치경음)’이다.¹⁵⁾ 자세한 분류는 학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 표는 참고용으로만 보자. 일반적으로는 앞서 제시한 『훈민정음』의 분류를 따른 표만 제시하나, 현대문법에 익숙한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이해가 편할 것으로 생각되어 따로 만든 것이다. 5종 교과서 모두 중세국어의 음운(자음)의 특징으로 ‘ᠩ’과 ‘়’의 존재를 언급하고 몇몇 교과서에서 경음 표지로 ㅅ계 합용병서까지 언급하므로 이들까지 포함하였다. ‘়’은 임의로 추가하였다. 이탈릭체(়, ়, ়)는 유성음이다.¹⁶⁾

			연구개음	치조음	양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ㄱ	ㄷ	ㅂ	
		격음	ㅋ	ㅌ	ㅍ	
		경음	ㄱ(=ㅅ)	ㄷ(=ㅅ)	ㅂ(=ㅅ)	
	파찰음	평음		ㅈ		
		격음		ㅊ		
		경음		ㅉ		
	마찰음	평음		ㅅ, ়	়	ㅎ 17)
		격음				
		경음		ㅆ		ㅎㅎ
공명음	비음		ㄴ	ㅁ	ㅇ	
	유음		ㄹ			

이제 자음의 자세한 음가를 알아보자. 우선 연구개 파열음, 치조 파열음, 양순 파열음은 현대국어와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치조 파찰음 계열은 현대국어와 그 발음이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국어라면 ‘ㅈ, ㅊ, ㅉ’은 경구개음이겠지만 중세국어 시기 이들은 모두 치조음에 속했다(『훈민정음』의 분류상으로는 치음). 즉 이 당시에는 센입천장(경구개)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고 치조 파찰음 [ts], [tsʰ]였을 것이다¹⁸⁾. 이러한 자음체계의 차이로 인해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선 ‘ㅈ, ㅊ, ㅉ’ 뒤에 반모음 ‘j’가 올 수 있었으며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즉 ‘져’와 ‘저’가 유의미하게 변별되었고 ‘굳이’와 같은 단어는 ‘구디’로 쓰였다는 것이다.

또한 ‘ㅅ’은 종성에서의 발음이 현대국어와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8종성법에서 ‘ㅅ’과 ‘়’을 구별하여 적었는데, 만약 현대국어에서 이러한 표음주의를 적용한다면 7종성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웃[온]’처럼 종성에서의 ‘ㅅ’이 대표음 ‘়’으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선 이러한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사람들은 ‘ㅅ’과 ‘়’을 종성에서 구별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그 발음은 완전히 달하지 않은 채 짧게 내뱉는 외파된 [s]로 추정된다. 즉

15) 『훈민정음』의 ‘치음’은 성운학 용어의 ‘치음’이라 현대 언어학 용어 ‘치음(Dental consonant)’과 다르다.

16) 유성음 계열은 엄밀히 말하자면 평음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평음·경음·격음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편의상 평음행에 포함하였다.

17) ‘ㅎ’은 일반적으로 격음으로 분류되나 현행 5종 교과서 모두 ‘ㅎ’을 위의 표처럼 다루고 있다.

18) [ts]는 t와 s를 이어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치조 파찰음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스’처럼 완전한 음절이 아니라 /s/라는 소리를 약하게 남기며 짧게 끊는 소리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맛(味)’을 영어 ‘mas’라고 생각해 보자. /마스/보다는 짧고 /맙/보다는 긴, 그 사이의 어딘가가 느껴지는가?¹⁹⁾ 앞에서 사이시옷의 음가가 애매하다고 한 것이 이 때문이다. 만약 사잇소리를 경음화로 처리한다면 종성의 ‘ㅅ’ 중 사이시옷의 경우 [s]로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 ‘ㅎ’처럼 단순히 경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기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도 고려되어 학교문법 수준에서 중세국어의 사잇소리의 음가를 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ㅎ’은 현대 국어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음과 유음 역시 현대국어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⁰⁾ ‘ㅇ’은 현대국어의 종성 ㅇ 발음인데 특이하게 ‘바울(방울)’과 ‘러울(너구리)’, ‘서에(성애)’처럼 ‘ㅇ’이 초성에 쓰인 경우가 존재한다. 이를 어두에서 ‘ㅇ’이 발음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단순히 종성의 ‘ㅇ’이 연음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전자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베트남어의 ‘응우옌’을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전청 계열 중 ‘ㅎ’은 중세국어 시기 그 쓰임이 매우 제한적이었기에 자음체계표에서 제외하였다.²¹⁾ ㅎ은 훈민정음 초성 체계에 들어 있지만 실제로 고유어 초성에서 쓰이지 않았고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쓰였다.

- 1) 지브로 도라오싫 제, 니르고져 훔 배²²⁾
- 2) 先考 ㅎ 뜯, 快 ㅎ 字, 하 ㅎ 뜯
- 3) 音 흔, 安한 / 不 ㅎ, 八 ㅎ

(1)은 ‘ㅎ’이 관형사형 어미 ‘-(으/으)ㄹ’ 아래 쓰인 것인데 된소리 부호로 기능하였다. 뒤에 오는 예사소리를 경음화하여 발음하라는 표지이다. (2)는 앞서 언급한 예외적인 사잇소리 표기이다. (3)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인데 한자음 표기에서 보이는 ‘ㅎ’을 이영보래라 한다. 이러한 제한적인 쓰임으로 인해 ‘ㅎ’은 『원각경언해』(1465) 이후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더 알아보기: 청탁

사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가 다르다 보니 사용하는 용어도 다른데, ‘전탁음’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장애음(학교문법상 안울림소리)과 공명음(학교문법상 울림소리)의 차이와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²³⁾ 우선 자음을 발음할 때 기류의 흐름이 방해를 많이 받으면 ‘장애음(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라 하고, 기류의 흐름이 방해를 덜 받으면서 구강이나 비강의 진동을 일으키면 ‘공명음(비음, 유음)’이라고 한다. 또한, 사람이 소리를 낼 때 폐에서 나온 공기가 성대를 지나면서 진동을 일으키는데, 이때 성대가 진동하면 ‘유성음’, 성대가 진동하지 않으면 ‘무성음’이라 한다. 예를 들어, 영어의 /b/와 /p/의 경우, 유성음인 /b/를 발음할 때는 성대가 울리지만 무성음인 /p/를 발음할 때는 울리지 않는다. 이처럼 두 소리가 조음 위치와 방법은 같지만 성대의 진동 여부가 다를 때, 두 소리는 유성음-무성음의 대립을 이룬다고 한다.

19) 중세국어에서 종성의 ‘ㅅ’이 이미 ‘ㄷ’과 같았다고 보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긴 하나 정설은 아니다.

20) 다만 종성의 ‘ㄹ’을 현대국어와 달리 보는 견해도 있는데 소신애(2008)가 참고된다.

21) 24수능에서도 ‘ㅎ’이 용자례 표에서 제외된 것이 참고된다.

22) 관형사형 어미를 ‘-ㄹ’이 아닌 ‘-ㅎ’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ㄹ’로 표기하도록 한다.

23) 이삼형 외 (2019: 55)에선 [b]와 같은 소리를 ‘유성음’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같은 책 52쪽에서는 ‘울림소리’를 ‘공명음’으로, ‘안울림소리’를 ‘장애음’으로 부르는데 이러한 용어의 혼용은 적절치 못하다. 자세한 이유가 궁금하다면 구본관 외(2015: 48)를 참고하자.

중국 성운학에서 탁음은 유성음을, 청음은 무성음을 나타낸다. 이때, 무성음이면서 예사소리이면 전청, 무성음이면서 거센소리이면 차청, 유성음이면서 장애음이면 전탁, 유성음이면서 공명음이면 차탁이라고 한다. 『훈민정음』에서는 성운학의 용어를 따랐으나 ‘차탁’은 ‘불청불탁’이라는 별개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엄밀히는 『훈민정음』에서 의도한 전탁음은 ‘된소리’가 아니라 [g], [d], [b] 따위의 유성파열음이다. 중국어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음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어는 그렇지 않다. 가령, ‘바보’의 어두 ㅂ과 어중 ㅂ은 각각 무성음과 유성음이지만 한국어 화자에게 다른 음운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반면에, 유·무성음 대립의 언어 화자라면 이를 ‘pabo’로 들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무성음 대립을 이루는 중국어를 연구하는 성운학의 용어는 당연히 한국어와는 맞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어는 적어도 중세국어 시기부터 유·무성음 대립을 이루지 않았기에 당시 중세국어 화자들도 전탁음을 의도하였으나, 음소 체계상 없는 유성파열음을 실제로 발음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말에선 전탁음과 경음이 그나마 가장 유사하게 느껴졌을 테니, 지향한 바와 달리 실제 발화에선 경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탁음은 된소리로 보아도 무방하다.²⁴⁾

고유어의 경우, 각자병서는 분명히 된소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때 ‘ㅆ’과 ‘ㅎ’만이 어두에 쓰였고 나머지 각자병서는 형태소가 결합될 때에 쓰였는데 이러한 각자병서를 경음 표지로 본다. 특히 관형사형 어미 ‘-(으/으)ㄹ’ 뒤에 오는 평음은 각자병서로 쓰였는데 이 역시 경음으로 해석된다.

3.2.1.2 유성음 체계(☆☆)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선 유성음이 음소 체계에 포함되었다. 물론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유·무성음 대립이 존재하지 않아 파열음 체계에서는 유성음이 보이지 않지만, 마찰음 체계에서는 유성음이 확인된다. ‘崩[β], ㅋ[z], ㅎ[h]’이 그것이다.

- 1) 모음 사이: 사崩, 드븨
- 2) j와 모음 사이: 대僻, 쇠僻 ㄹ, 메罕고
- 3) ㄹ과 모음 사이: 글발, 말僻
- 4) ㅋ과 모음 사이: 웃嬖니

‘崩’은 ㅂ에 ㅇ이 연서된 글자로 ‘순경음 ㅂ’이라 불린다. 예외적인 사잇소리 표지를 제외하면 출현 환경은 위의 네 가지였다. 『훈민정음』(해례)에서 제시한 발음 방법을 고려하면 ‘崩’은 입술을 달을락 말락 하게 하여 ‘ㅂ’을 발음한 유성 양순 마찰음 [β]로 발음됐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崩’은 훈민정음 창제 후 얼마 안 가 소멸되었다.

‘ㅇ’과 ‘ㅋ’은 꽤 복잡한 사정을 갖는데, 우선 ‘ㅇ’의 경우엔 현대국어처럼 음가가 없는 단순한 글자의 역할도 하지만 특정한 환경 아래서는 자음의 역할도 맡은 것으로 보인다.

- 가. 1) 아ᡥ[아], 보아
- 2) 욕(欲), 총(此)
- 나. 1) 몰애, 살이고, 놀이, 달아, 알어늘, 알오
- 2) 굽애, 웃이리라, 얹이, 굽어
- 3) 여희오, 이어늘, 비애

24)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에서 전탁음을 된소리로 보았으니 학교문법에선 단순히 된소리로 보고 굳이 유/무성음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가)는 현대국어처럼 소리가 없지만 글자의 형상을 갖추기 위해 적힌 ‘o’이다. (가1)은 고유어의 초성, (가2)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쓰인 예다. 그러나 (나)의 경우, 소리가 없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음가를 지닌 자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음가가 없었다면 연철이 되어 ‘모래, 다라, 아려늘, ㅋ내’로 쓰이거나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 ‘여희요’와 ‘이여늘’의 표기가 보여야 할 것이다. ‘o’이 후음의 불청불탁(공명음)에 속한다고 설명됐으므로, 후두 유성 마찰음 [h]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²⁵⁾ 또 이렇게 음가가 ‘불청불탁’이라며 적극적으로 기술된 것으로 보아 ‘o’이 단순히 어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문자는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된다. 형태소 내부의 ‘o[h]’과 형태소 결합 시 실현된 ‘o[h]’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음운변동에서 다룬다.

가) 아쇽, 새삼, 한숨, 몸소, ㄹ애, 웅辨别

‘△’은 현대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글자로 대부분 울림소리 사이에 쓰였다. ‘△’은 일반적으로 ‘ㄴ’, ‘ㅁ’, ‘ㅌ’, 반모음 /j/, 모음 사이에 나타났다. 드물지만 ‘설설’처럼 음성상징어의 첫머리나, ‘竽’처럼 중국어 차용어의 첫머리에 나타나기도 했다. 음성상징어를 제외한 고유어 어두로는 ‘슛(읊)’이 유일 데다. ‘△’는 불청불탁의 반치음으로 기술됐으므로 ‘ㅅ’에 대립되는 치경 유성 마찰음 [z]를 나타냈다고 추정된다.

종성 ‘△’은 꽤 특이하다. 『훈민정음』에서 8종성법을 설명하며 ‘옛의 갖’을 ‘옛의 갓’으로 적도록 했는데 그렇다면 『용가』와 『월곡』을 제외한, 표음주의적 표기를 지향한 문헌에서는 음절 말에 ‘△’이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용례를 보면 앞서 언급한 ‘굿애, 웃俚니’ 말고도 ‘것위, 앙이, 붕아, 긁어’ 등 형태소 내부 또는 형태소의 경계에서 종성에 쓰인 기록이 관찰된다. 이러한 어휘들은 ‘ㅅ’을 종성에 표기한 예보다 일반적인 표기인데, 중세국어 당시 모음과 ‘o’ 사이나 모음과 ‘봉’ 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z]’이 음절 말음으로 발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에서 ‘△’을 ‘ㅅ’으로 표기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위들 예는 ‘것위, 앙이, 옛이’처럼 ‘ㅅ’으로 쓰인 용례들도 존재한다. 이는 음절 말의 ‘ㅅ’이 음자가 있는 ‘o’과 ‘봉’ 앞에서는 [z]라는 발음으로 실현되었지만(유성음화) 당시 국어 화자들에게는 ‘ㅅ’의 음절 말 발음 /s/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²⁶⁾ 즉, 15세기의 종성은 음성적으로 팔종성에 ‘△’까지 더해 아홉 가지의 소리가 있었지만 음운론적으로는 팔종성만 존재하였다. 종성에서는 [z]라는 소리가 별개의 음소로 인식되지 않은 것이다. ‘△’ 역시 ‘봉’과 비슷하게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얼마 되지 않아 금방 표기에서 쓰이지 않게 된다.

3.2.1.3 각자 병서(☆☆)

각자병서로는 ‘ヶ, 𠮩, 𠮩, 𠮩, 𠮩, 𠮩, 𠮩’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고유어 표기에 쓰인 ‘ヶ, 𠮩, 𠮩, 𠮩, 𠮩, 𠮩, 𠮩’은 경음으로 해석되는데 ‘홀 껏, 올 뜰, 여힐 찌끄, 쉴 쓰듸’처럼 관형사형 어미 ‘-(으/으)르’ 뒤(정확히는 ‘-(으/으)르’ 뒤 된소리 부호 ‘ᄃ’이 나타나지 않을 때), ‘듐쌉고(←ڍ쌉고), 조짭고(←좇짭고)’와 같은 음소적 표기, ‘엄쏘리, 니쏘리’와 같은 등의 사이시옷의 후행절로의 이동이라는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쓰였다.

25) 전 행 지 학 사 교 과 서 와 최 형 용 외 (2025:107) 에서 유 음 가 ‘o’ 을 인 정 하 였 다. 이 ‘o’ 이 음 가 가 없 다고 보 는 견 해 도 꾸 준 하 지만 제 시 되 지만 통 설 은 아 니 다. 무 음 가 ‘o’ 설 의 최 근 논 의 로 신 승 용 (2021) 과 고 경 재 (2023), 소 신 애 (2024) 가 참 고 되 든다. ‘o’ 의 연 구 사 는 배 영 환 (2011) 이 참 고 되 든다. 이 ‘o’ 을 정 확 하 히 분 류 하 기 는 까다 롭 기에 여 기 선 이 책 에서 따 르 는 통 설 인 유 음 가 ‘o’ 설 과 무 음 가 ‘o’ 설 로 단 순 하 니 누 어 부 르 도 록 한 든다.

26) 이러한 것을 '변이음'이라고 한다. 하나의 음소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음되는 것인데 음성적인 수준에서 다른 것이지, 음운적 수준에서는 그 언어의 화자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중 ‘ㅎ, oo, ㅕ’은 매우 드물게 사용되었다. ‘ㅎ’은 고유어 표기의 경우 ‘혀디, 치혀시니’처럼 반모음 ‘j’ 앞에서만 실현되었는데 이때의 음가는 ㅎ을 세게 발음하는 발음하는 [ç]나 [x]로 추정된다. 다만 ‘ㅎ’이 된소리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oo’도 ‘쥐여, 미온’처럼 반모음 ‘j’ 앞에서 쓰이는데 ㅇ의 된소리라기보다는 긴장된 ‘j’음을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ㅕ’은 ‘슬ῡ니, 달ῡ니라’ 등에서 보이는데 이는 ‘술ῡ니, 달ῡ니라’의 ‘ㅎ’이 동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는 ‘ㄴ’이 오래 지속됨을 표시하는 것이라 발음은 [n:]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음성학적으로 ㄴ의 경음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oo’과 ‘ㅕ’을 따로 음소로 보지 않고 변이음으로 처리한다. 중세국어 문헌의 표기를 고려할 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o’이나 ‘oo’이나 별반 큰 발음 차이가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ㅕ’ 역시 별개의 음소의 지위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음 체계표에선 이 두 각자병서를 제외한 것이다. 각자병서의 표기는 『원각경언해』(1465)에서부터 쓰이지 않았는데 이는 각자병서를 표기에서만 없앤 것이지, 여전히 경음은 체계상 존재하였다.

3.2.1.4 합용 병서(☆☆☆)

초성 합용병서의 발음은 선행하는 자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뉘는데 ‘ㅂ, ㅂ, ㅂ, ㅂ’는 ‘ㅂ계 합용병서’, ‘ㅅ, ㅅ, ㅅ’는 ‘ㅅ계 합용병서’, ‘ㅈ, ㅈ’는 ‘ㅈ계 합용병서’로 구분된다. 이중 ㅅ계 합용병서만이 된소리 표기이고 나머지 두 합용병서는 어두자음군 표기일 것으로 여겨진다²⁷⁾. 현대국어의 ‘ㅋ’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ㅋ’은 쓰이지 않았다. ㅅ계 합용병서는 각자병서보다 출현 환경이 자유로웠는데 고유어 표기에 단독으로 쓰였다.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는 된소리설과 어두자음군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국내 학계에서는 된소리설이 좀 더 지지를 많이 받는다²⁸⁾. 『훈민정음』에서 제시한 ㅅ계 합용병서는 ‘ㅅ, ㅅ, ㅅ’뿐이나 실제 문헌에는 ‘ㅈ’도 쓰였다. ‘ㅈ’을 포함한다면 ㄴ의 경음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ㅈ’은 어두자음군을, ‘ㅅ, ㅅ, ㅅ’은 경음을 나타냈다고 본다. 어두자음군이란 어두에 오는 자음의 연속체를 이르는 말로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와 달리 두 자음이 연달아 발음되는 것이 가능했다. ‘ㅂ계 합용병서’는 ㅂ과 옆에 있는 자음을 이어서 발음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ㅅ계 합용병서가 된소리일 것이라는 의견에 의하면 ‘ㅂ계 합용병서’는 ㅂ과 옆에 있는 된소리를 이어서 발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ㅂ, ㅂ, ㅂ, ㅂ’는 [pt, ps, pts, ptʰ], ‘ㅈ, ㅈ’는 [pk, pt']였다는 것이다. 위첨자 ‘h’는 거센소리를, 어깻점은 된소리를 나타낸다. 이때 ㅅ계 합용병서를 경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ㅈ계 합용병서는 삼중자음을 나타낸 것이 된다.

ㅂ계 혹은 ㅈ계 합용병서는 그 음가가 비교적 명확한 이유는 단어의 역사적인 변화를 살펴 보았을 때 어두자음군이 아니었다면 설명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의 ‘볍씨’, ‘좁쌀’, ‘입때’ 등은 어원적으로 ‘벼+씨’, ‘조+쌀’, ‘이+때’로 분석된다. ‘씨’와 ‘쌀’, ‘때’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띠’와 ‘쌀’, ‘때’로 쓰였는데 만약 ㅂ계 합용병서가 된소리를 나타냈다면 ‘벼띠’와 ‘조쌀’은 ‘벼씨’와 ‘조쌀’, ‘이때’로 전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ㅂ이 종성에 나타날 수 없기에 ‘ㅂ’이 덧나려면 ‘벼ㅂ시’, ‘조ㅂ술’, ‘이ㅂ째’처럼 ㅂ이 발음되었어야 가능하다. 어두자음군이 사라지면서 ㅂ계 합용병서의 ㅂ의 소리가 선행 음절의 종성으로 인식된 것이다. 우리말에선 갑자기 ㅂ이 첨가되지 않으므로 원래 ㅂ이 발음되었다고 본다. ‘솜씨’와 ‘함께’와 같은 단어 역시 마찬가지다. 이 둘은 각각 ‘손띠(손+띠-+-이)’, ‘훈뼉(훈+뼉)’였는데, 만약 ㅂ이 발음되지 않았다면 현대국어에선 각각 ‘손씨’, ‘한께’로 쓰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ㄴ’이 ‘ㅁ’으로 쓰인다는 사실은 ㄴ이 ‘ㅂ’에 의해 ‘ㅁ’으로 동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법[뭄쩝]’ 따위의 양순음화는 현대국어에서 표준 발음은 아니지만 비표준 발음으

27) ㅅ계 합용병서를 경음이 아니라 어두자음군으로 보기도 하는데 최근의 논의로는 고광모(2023)와 김정인 (2024)이 있다. 물론 교과서상 음가는 경음이다. 수특 역시 경음으로 처리한다.

28) 각 견해에 대한 근거는 국립국어원(1996:18-20)에 잘 정리되어 있다.

로 빈번히 관찰되고 과거에도 존재하였기에, 합용병서에서 ‘ㅂ’이 발음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음운동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ㅂ’의 존재 역시 ㅂ계 합용병서가 어두자음군이었다는 근거가 된다. 음성적으로 거센소리의 된소리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종성 합용병서의 발음은 어말자음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세국어에서도 자음군단순화가 존재하였는데, 만약 모든 겹받침이 자음군단순화를 겪었다면 표음주의에 의해 종성에 겹받침이 쓰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겹받침이 쓰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표기상 종성에서 합용병서가 쓰였다면 모두 발음되었다고 본다.²⁹⁾ 자세한 내용은 음운변동에서 다룬다.

3.2.2 모음 체계

중세국어의 중성(모음)은 초성(자음)에 비해 음가를 추정하기가 다소 어렵다. 당시의 문헌이 모음의 실제 발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음의 음가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훈민정음의 용어를 현대 음성학의 용어로 바꾸어 이해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중성자들의 사용 예를 통해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음성학 용어와 현대 음성학의 개념이 완벽히 일대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없고 다소 학자의 주관이 강하게 들어가기도 한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신뢰할 만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자료만으로는 음가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를 외국 문자로 옮겨 적은 기록(외국어 전사 자료)이나 외국어를 한글로 옮겨 적은 기록(한글 전사 자료)도 함께 참고한다.

3.2.2.1 단모음 체계(☆☆)

『훈민정음』에서 단일 구성 11자의 모음을 제시하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 ㆍ, ㅡ, ㅣ
- 2) ㅗ, ㅏ, ㅜ, ㅓ
- 3) ㅛ, ㅑ, ㅕ, ㅓ

이중 단모음인 (1)과 (2)의 음가부터 알아보자. 국어학자들은 『사성통해』를 통해 파스파자와 중세국어 모음자의 대응 관계를 비교하고, 중국어 자료인 『번역박통사』, 류큐어 자료인 『해동제국기』 등과의 대응을 함께 고려하여 음가를 추정하였다. 이 밖에도 여러 한자음과 국외 전사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데 연구 결과, ‘ㅡ, ㅣ, ㅗ, ㅏ, ㅜ, ㅓ’의 음가는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³⁰⁾ ‘ㆍ(아래아)’의 음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현대국어의 ‘ㅓ’와 유사한 후설평순 중저모음 [ʌ]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음가 추정을 바탕으로 『훈민정음』(해례)의 용어를 해석할 수 있다. 제시된 용어에 따라 단모음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³¹⁾

29) 어두자음군 관련 기출로는 14수능 B형 16번과 21학년도 3월 학평 37번이, 어말 합용병서의 발음으로는 25학년도 10월 학평 지문형이 있다.

30) 원칙상 표준어의 ‘긴 ㅓ’는 [ə:], ‘짧은 ㅓ’는 [ʌ]에 가까우나 이러한 구별이 없어지며 현실적으로 ‘ㅓ’는 [ʌ]로 통일되고 있기에 현실음을 고려할 시 중세국어의 ‘ㅓ[ə]’는 현대국어의 ‘ㅓ[ʌ]’보다 혀가 좀 더 앞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31) 이 내용 역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도 된다.

	설불축	설소축	설축
구축		ᄀ	ᄂ
32)	ㅣ	—	、
구장		ㅏ	ㅏ

『훈민정음』의 모음에 대한 서술이 난해하여 이러한 용어들의 이해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우선 순전히 『훈민정음』의 용어대로만 해석해 보자. 최상단의 ‘설’과 ‘축’은 ‘舌(혀 설)’과 ‘縮(줄일 축)’이고 최좌단의 ‘구’와 ‘축’은 ‘口(입 구)’와 ‘蹙(움츠릴 축)’이기 때문에 한자 뜻 그대로 볼 때 가로줄은 혀의 움츠림을, 세로줄은 입의 오므림을 나타낸다고 본다. 혀의 경우, ‘설축’이 기준이라 할 수 있는데, ‘설축(舌縮)’은 발음할 때에 혀가 움츠러든다는 뜻이다. ‘설불축(舌不縮)’은 발음할 때에 혀가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뜻이고 ‘설소축(舌小縮)’은 ‘설축’과 ‘설불축’의 중간적인 성격으로 혀가 덜 움츠러든다는 뜻이다. 이때, 이러한 ‘혀의 움츠림’을 ‘혀의 전후 위치’로 해석하면 ‘설/설소/설불축’은 각각 ‘후설/중설/전설’의 모음 대립을 설명하는 기준이, ‘혀뿌리의 전진/수축(ATR/RTR)’이라는 소위 ‘혀뿌리 자질’로 해석하게 되면 ‘설/설소/설불축’은 모음조화의 대립을 설명하는 기준이 된다.³³⁾

‘구장’과 ‘구축’ 역시 매우 복잡하고 그 해석에 있어 이견이 많다. 우선 『훈민정음』의 용어만 따져서 이해해 보자. 『훈민정음』(해례)에서는 초출자인 ‘ᄂ’, ‘ㅏ’, ‘ᄀ’, ‘ㅓ’의 소리를 상형자인 ‘、’와 ‘—’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즉 ‘ᄂ’와 ‘ᄀ’는 ‘、’와 ‘—’에 대한 구축(口蹙) 즉 ‘、’와 ‘—’보다 입이 오므라지며 나는 소리이고, ‘ㅏ’와 ‘ㅓ’는 ‘、’와 ‘—’에 대한 구장(口張) 즉 ‘、’와 ‘—’보다 입이 펴지는 소리이다. 초출자의 소리를 바탕으로 ‘구축’과 ‘구장’의 대립 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이때, 입의 모양을 원순성으로 파악하면 ‘구장’과 ‘구축’은 각각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을 나타낸다. 개구도(≈혀의 높낮이)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개론서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순성’을 나타낸다고 본다.

따라서 위 표를 보고, ‘—’와 ‘、’의 위쪽으로는 입이 오므라들고 아래쪽으로는 입이 덜 오므라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ㅣ’와 ‘—’는 구장과 구축 어디에도 해당하진 않으나 평순 모음으로 본다.

3.2.2.2 중모음 체계(☆☆☆)

중세국어 시기에도 단일 모음이 아닌 복합모음 즉 중모음이 존재하였는데 현대국어는 이중모음뿐이지만 중세국어는 삼중모음도 존재하였다. 이 역시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상향중모음과 반모음으로 끝나는 하향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재출자 ‘ㅑ’, ‘ㅕ’, ‘ㅕ’, ‘ㅕ’는 현대국어와 같이 ‘j’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었다. 중세국어에서 반모음 ‘w’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은 ‘놔’와 ‘눠’가 있다. ‘눠’는 현대국어에서 허용 발음 /wi/가 있긴 하지만 중세국어에선 단모음 ‘ㅓ’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었다.

앞서 문자 체계에서 설명하였듯이 ‘ㅣ’와 어울리는 ‘ㅣ’ 상합자는 그 모음이 반모음 ‘j’로 끝남을 나타낸다. ‘ㅚ’, ‘ㅕ’, ‘ㅚ’, ‘ㅕ’가 있다. ‘ㅣ’ 상합자는 모두 반모음 ‘ㅣ’로 끝나는 이중모음이었던

32) 이 칸을 [-구장], [-구축] 자질로 놓기도 하고 ‘구장’과 ‘구축’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한다. 다만 2013학년도 임용 1차에서는 [-구장], [-구축] 자질로 보았다. 여기서는 빈칸으로만 두고 더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다.

33) 다른 견해도 존재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전자가 우세하였고 최근의 논의에서는 후자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현대국어와 달리 이중모음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약 ‘ㅐ’나 ‘ㅔ’ 등이 중세 국어 당시에 단모음이었다면, 어째서 『훈민정음』에서는 그 음가를 밝히지 않고 ‘ㅣ’상합자’의 범주에서 처리하였는지, 어째서 자형상 두 모음을 합자하였는지 등을 해명해야 한다.³⁴⁾ 또 ‘孔子’와 같은 표기도 문제다. 중세 국어의 주격조사는 ‘ㅣ’였는데 ‘공자가’를 중세 국어 표기법으로 쓰면 ‘공지’가 된다. 즉 ‘孔子’와 ‘공지’의 발음이 같을 것이므로 ‘지’의 ‘ㅣ’을 단 모음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주격조사나 서술격조사가 쓰일 때 모음 ‘ㅣ’ 뒤에서는 ‘다리’, ‘다리라’처럼 표면상 실현되지 않는데 ‘ㅣ’상합자’들과의 결합에도 ‘불휘라(불휘 + ㅣ라)’와 같이 동일한 양상이 보인다. 이는 ‘ㅣ’상합자’가 ‘j’로 끝나는 모음이어야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보야흐로’와 ‘뵈아흐로’가 혼용되는 것은 ‘보야’와 ‘뵈아’가 모두 ‘보 j ㅏ’여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즉 반모음 ‘j’가 ‘아’와 함께 표기될 때는 ‘보야’로, ‘보’와 함께 표기될 때는 ‘뵈아’로 표기된 것이. 따라서 ‘ㅓ, ㅗ, ㅚ, ㅟ, ㅕ’는 글자 자형 그대로 단모음 ‘ㅓ, ㅗ, ㅚ, ㅟ, ㅕ’와 ‘반모음 ㅣ(j)’가 결합한 이중모음으로 발음은 각각 /ʌj, uj, oj, aj, ej/이다.³⁵⁾

한편 ‘ㅐ, ㅔ, ㅚ, ㅟ’와 ‘ㅕ, ㅕ’는 삼중모음이며 반모음 ‘j’로 시작하는 상향과 반모음 j로 끝나는 하향이 모두 나타나거나 반모음 ‘w’로 시작하는 상향과 반모음 ‘j’로 끝나는 하향이 모두 나타난다. 고유어 표기에 쓰인 중모음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j계 상향 이중: ㅑ, ㅕ, ㅓ, ㅕ
2. w계 상향 이중: ㅕ, ㅕ
3. j계 하향 이중: ㅓ, ㅗ, ㅚ, ㅟ, ㅕ, ㅕ
4. j 상향 & j 하향 삼중: ㅚ, ㅕ, ㅟ, ㅕ, ㅕ
5. w 상향 & j 하향 삼중: ㅕ, ㅕ

3.2.2.3 중앙어에 없던 이중모음(☆)

『훈민정음』에 중앙어엔 쓰이지 않고 방언에서 쓰이는 ‘ㅣ’와 ‘ㅡ’도 언급된 바 있다 하였는데, 이들은 역사적으로 꽤 중요한 모음이다. ‘중앙어’란 조선 전기의 표준어에 해당하는 한양(서울) 중심의 언어를 말한다. 『훈민정음』에서 말하는 ‘나랏말’이 바로 이 중앙어이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음운 체계는 이러한 중앙어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중앙어에 없던 음소’란 곧 비중앙 지역 방언에만 존재하던 음운을 뜻한다. 공식적인 모음자는 아니었으나 중세국어의 중모음 체계 즉 중세 국어 중앙어의 음운 체계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ㅣ’는 ‘ㅓ’ 앞에 ‘j’가 붙은 모음으로 ‘ㅓ’가 현대국어의 ‘ㅓ’와 비슷하다고 여겨지므로 ‘ㅓ’를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자형의 관점에서 볼 때 ‘ㅓ’는 다른 재출차처럼 ‘ㅓ’가 결합하여 j계 상향 이중모음임을 나타내는 것이 일관적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점이 의문이기에 ‘ㅓ’로 쓰기도 한다. 후기 중세 국어 이전에는 ‘ㅣ’가 존재하였으나 후기 중세 국어로 오면서 ‘ㅓ’로 합류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제주 방언에는 아직 남아 있으며 ‘ㅣ’의 자세한 역사는 고대 국어 단원을 참고하자.

34) 이와 같은 비판점은 ㅅ계 합용병서의 경음설에 적용되기도 한다.

35) ㅣ 상합자를 단모음+단모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학교문법에선 단모음+반모음으로 본다. 관련 기출로 21수능 15번이 있다.

‘_’ 역시 ‘-’에 반모음 ‘j’가 결합한 j계 상향이중모음인데 ‘_|-’를 빨리 한 듯한 발음으로 추정된다. 이 역시 j계 상향 이중모음임에도 재출자로 쓰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중앙어에 없었기 때문에 재출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음도 과거의 형태를 재구할 때 사용되기도 하며, 관련 내용은 고대국어의 음운론 단원을 참고하자.

3.2.3 운소 체계(☆☆☆)

운소란 소리의 장단, 강약, 고저와 같이 소리마디의 경계가 분명히 그어지지 않는 비분절 음운이다. 현대국어의 운소는 표준발음법상 장단음밖에 없으나 중세국어 시기에는 성조가 운소로 쓰였다. 성조란 소리의 높낮이를 의미하는데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하였다. 성조를 나타내기 위해 방점이 쓰였는데 ‘손(客)’과 ‘손(手)’, ‘서·리(霜)’와 ‘서리(間)’ 등에서 보이듯 성조가 다르면 단어가 다르다. 『훈민정음』에서 제시하는 성조는 ‘평성, 거성, 상성, 입성’의 네 종류이지만 ‘입성’은 고저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때, 성조를 나타내는 점은 글자 왼쪽에 찍어야 한다는 규정을 방점법이라 한다. 이 역시 글자의 운용법이다. 왼쪽에 점 하나를 더하면 거성(去聲), 둘을 더하면 상성(上聲), 점이 없으면 평성(平聲)이다. 입성은 방점과 상관이 없고 오로지 종성의 자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평성은 낮은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이다. 입성은 음의 높낮이라 기보다는 음절 말 자음의 특징을 기술한 것으로, 촉급한 소리를 나타낸다. 현대 국어에서 ‘ㄱ, ㄷ, ㅂ’이 종성에서 발음되는 것과 같이 소리를 촉급하고 빨리 끝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막’을 발음해 보라. 마치 ‘!’가 끝에 온 것처럼 길게 끌지 못하고 빨리 끝내는 것[mak]이 느껴지는가? 『훈민정음』에서 제시한 불청불탁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은 모두 종성에서 입성을 나타냈다. 즉 불청불탁의 공명음으로 끝나거나 모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비입성이 된다.³⁶⁾ 따라서 『훈민정음』에서 제시한 성조는 4성 체계이지만 실제로 높낮이로 볼 때는 세 분류뿐이다. 이때 방점 표기가 쉽지 않아 다른 기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평성은 ‘L’ 또는 ‘-’, 거성은 H 또는 ‘·’, 상성은 R 또는 ‘~’을 쓴다. 따라서 ‘서·리(霜)’와 ‘·서리(間)’은 ‘serí(霜)’와 ‘séri(間)’³⁷⁾ 또는 ‘서리(LH)’와 ‘서리(HL)’처럼 쓸 수도 있다.

상성의 경우 평성과 거성이 합쳐질 때 상성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주로 주격조사의 결합 시 보인다. 영형태 주격조사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부텨(LL) + _| (H) → 부:텨(LR)

드리(LL) + Ø(H) → 드:리(LR)

또, 상성이던 단음절어와 의미가 동일한 평성과 거성의 2음절어도 쓰이기도 했다. ‘두·울(twùwúl) (二)’과 ‘:둘(twúl)’, ‘누·리(nwùrí) (世)’와 ‘:뉘(nwúy)’ 등이 그러하다. 본래 2음절로 쓰였으나 평성과 거성이 합쳐져 1음절 상성으로 줄어든 것으로 본다.³⁸⁾ 이러한 성조는 중앙어에선 근대국어를 지나며 소멸되었지만 동북 방언(함경도)과 동남 방언(경상도)에는 남아 있다.³⁹⁾

36) 종성의 ‘ㅅ’은 파열음이 아니지만 불청불탁의 자음이 아니므로 역시 입성으로 처리된다.

37) 이는 예일식 표기이다. 중세국어는 로마자로 쓸 경우 관행상 예일식 표기법을 따른다.

38) 상성을 평성과 거성이 병치된 소리로 본다면 중세한국어의 운소 체계는 L과 H로만 이루어진 것이 된다. 자세한 것은 Lee&Ramsey(2011:163-168)를 보길 바란다. 학교문법에서 이를 다루기는 무리이고 소리의 높낮이에는 단순히 ‘평성, 거성, 상성’의 세 부류가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9) 방점이 높낮이를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중세국어가 중국어와 같은 ‘진정한 성조(ture tone) 언어’인지 일본어와 같은 ‘고저 악센트(pitch accent) 언어’인지 학계에서는 아직 확실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3.2.4 동국정운식 한자음(☆☆)

『동국정운(東國正韻)』은 1444년에 정인지·신숙주 등이 편찬한 운서(韻書)로, 중국의 한자음을 표준화하여 우리 한자음을 바로잡고자 한 책이다. 세종은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우리 한자음이 본래의 중국음에서 멀어졌다고 보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새로 창제한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한자의 발음을 정밀하게 표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동국정운식 표기는 당시 한국어의 현실 한자음과는 다른, 중국 원음에 더 가깝게 재구성된 체계였다. 당시의 실제 중세국어 화자들의 한자음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 『동국정운』에서 정한 한자음을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고 하고, 이러한 표기 방법을 ‘동국정운식 표기법’이라고 한다. 동국정운식 표기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전탁음을 인정하였고 전청음을, 차청음을 자세히 구분함.
2. 모든 한자음을 초성·중성·종성을 모두 갖춘 음절 구조로 표기함.
3. 종성이 ‘ㄹ’로 끝나는 한자음의 경우, 종성 뒤에 반드시 ‘ㅎ’을 덧붙여 적음.

(1)은 유성음인 전탁음을 인정한 것이다. 원래 한국 한자음에서는 전탁음을 따로 나타내지 않았는데 『동국정운』에서는 당대 중국음인 중고음에 기반하여 따로 분리했다. 이때 전탁음 표기에는 ‘ㅋ’과 같은 각자병서를 활용했다. 또 중국어의 전청음(예사소리)과 차청음(거센소리)을 바탕으로 표기를 구별하였다. 가령, 원래 ‘ㅋ’을 초성으로 가지는 한자는 ‘쾌(快)’뿐이었으나 『동국정운』에서는 당시 중고음을 고려하여 ‘큭(克), 킹(企), 큭(器)’ 등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2)는 종성이 없는 한자라도 형식상 종성을 채워 넣어, 한 음절이 반드시 초·중·종성을 모두 갖추게 한 것이다. 이는 훈민정음의 음절 구조 원리를 철저히 따른 결과로 한자음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 ‘ㅇ(꼭지 없는 이응)’과 ‘ㄷ’을 표기하였다. 즉 ‘당’과 ‘당’은 현대국어로 치면 ‘다’와 ‘당’이다.

(3)은 ‘이영보래(以影補來)’라 하는데, ‘ㄹ’로 끝나는 한자 뒤에 뒤에 ‘ㅎ’을 더해 /-t/(ㄷ 받침)과 같은 종성 구조를 표기함으로써 중국음의 종성 파열음을 보완한 것이다. 한국 한자음 중 음이 ‘ㄹ’로 끝나는 한자는 중국에서는 ‘ㄷ’ 받침으로 읽혔다. 가령 ‘不’은 한국 한자음으로는 ‘불’이지만 중국 어에선 ‘분’과 비슷한 발음이었다. 중세국어에서는 ‘ㄹ’로 끝나고 중국어 발음으로는 ‘ㄷ’으로 끝나는 한자음을 중국어처럼 ‘ㄷ’ 말음으로 읽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따로 ‘ㅎ’을 추가한다는 표기법을 제정한 것이다.

중세국어의 한자어 발음 표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한자음을 따로 병기하지 않은 『용가』와 『두시언해』를 제외하면 한자가 쓰일 경우 동국정운식 교정음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한자가 쓰이지 않았을 때는 당시의 현실음으로 표기되었다.

1. 爲영, 迷 맹惑魄, 爲영頭督, 公公事
2. 위, 미혹, 위두, 공수

(1)은 『월석』 권9에 나오는 한자어이고 (2)는 이에 대응하는 『석상』 권9의 예이다. 전자는 한자가 쓰여 그에 해당하는 동국정운식 표기를 아래에 달았지만 후자는 한자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당대 현실음으로 썼다.

세종은 한자음을 중국의 음과 맞추어 읽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러한 한자음은 현실음이 아니었기에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실제 조선 사람들이 발음하던 소리와는 괴리가 커 큰 성과를 거두지

는 못하였다. 이상적인 한자음을 표준화하기 위한 이론적 표기라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동국정운식 표기는 『동국정운』이 도입된 1444년부터 『영험약초』(1485)까지 대략 40여년 존속하였고 그 후에는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3.2.5 음운 변동

현대국어에는 음운 변동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이는 중세국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세국어든 현대국어든 한 언어의 화자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음운을 곧이곧대로 발음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중세국어의 음운 변동 즉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등에 대해 알아보자. 성조의 변동도 함께 알아볼 것인데 이는 비분절음운의 변동이기 때문에 학교문법에서 제시하는 음운 현상(변동)으로 보기 어렵다. 학교문법 수준에서 성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말자.

3.2.5.6 교체(대치)⁴⁰⁾

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앞서 언급한 8종성법이 곧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현대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다른 하나의 자음이 오면 평파열음인 ‘ㅋ,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부역 → [부역]’, ‘꽃 → [꽃]’, ‘잎 → [입]’이 그 예이다. 반면에 중세국어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ㅅ’까지 포함하여 음절의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가지로 제한되었다. ‘꽃 → 꽃’, ‘빛 → 빛’이 그 예이다. ‘ㅎ’은 ‘ㄷ’으로 교체되었다. 당시에는 ‘ㅋ’이나 ‘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ㄷ, ㅂ, ㅅ’으로 바뀌는 현상만 확인된다.

예외적인 경우가 종종 보이기도 한다. ‘ㅅ’이 그대로 실현된 ‘앙이’, ‘옇이’ 등이 그러하다. 또, 변화 방향이 이상한 예시가 보이는데 ‘좆- + -좁- + -고 → 졸좁고’ 등의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좁-’ 앞에서 ‘ㅈ,ㅊ’ 계열이 ‘ㅅ’이 아니라 ‘ㄷ’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다. 중세국어의 표기 원칙상 ‘좆좁고’로 실현되었어야 하는데 ‘ㄷ’으로 실현된 것이다.⁴¹⁾ 물론 어디까지나 일반적이진 않다.

또, 중세국어 시기 자음군단순화는 필수적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정 겹받침이 쓰인 경우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는데, ‘않-+-고’가 ‘않고’로 쓰이는 등의 현상이 그러하다. 자세한 양상은 자음군단순화에서 알아보자.

나. 비음화(☆☆)

비음화는 평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현대국어의 ‘국물 → [궁물]’, ‘받는 → [반는]’, ‘입는 → [임는]’ 등이 그러하다. 중세국어의 자료로 확인되는 비음화는 ‘ㄷ→ㄴ’의 비음화가 대다수이며 비음화가 일어날 시 주로 표기에 반영되었다.

‘돈- + 니- + -다가 → 돈니다가’와 ‘돈- + 니- + -어 → 돈녀’와 같은 합성어나 ‘묻노라 → 문노라’와 같은 용언의 활용형에서 보인다. 그러나 ‘돈니며’, ‘돈녀’처럼 비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표기도

40) 관련 기출로 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와 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지문형 문제가 있다.

41) 이는 매우 논란이 되는 주제이며 ‘ㅅ’의 종성에서의 음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와 관련된 해명은 고광모(2012/2023)가 참고된다.

존재했다. 또,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대표음으로 교체된 후 비음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중세국어에도 있었다. ‘놓- + -는 → 논는’, ‘닿- + -는 → 디는’, ‘불는 → 븐는’과 같이 어간의 ‘ㅎ’이나 ‘ㅌ’이 ‘ㄷ’으로 바뀌고 ‘ㄴ’에 동화되는 표기가 있다. 비음화의 표기를 볼 때, 대부분 ‘ㄷ’의 비음화가 보이나 ‘굽- + -느니라 → 굽느니라’와 같은 ㅂ의 비음화가 드물지만 가끔 보이고, ‘ㄱ’의 비음화는 표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 경음화(☆☆)

경음화는 평음이 일정한 조건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현대 국어의 경음화에는 평파열음(ㄱ, ㄷ, ㅂ) 뒤의 경음화, 어간 끝 ‘ㄴ, ㅁ’ 뒤의 경음화, ‘ㄹ’로 끝나는 한자와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ㄹ’ 뒤의 경음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 등이 있다. ‘국밥 → [국뺨]’, ‘(신발을) 신고 → [신꼬]’, ‘발달 → [발딸]’, ‘할 것을 → [할꺼슬]’이 그 예이다.

현대국어에선 음절 말 ‘ㄱ, ㄷ, ㅂ’ 뒤의 평음은 필수적으로 경음화되지만 중세국어에선 그러한 표기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경음화가 안 일어났던 것인지, 아니면 표기법에서만 경음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표기만 안 됐을 뿐이지, 경음화가 일어났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한다.⁴²⁾ ‘받조 ㅂ시니’와 ‘바쭈 ㅂ니’ 등의 경우가 평파열음 뒤 경음화와 관련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한자어에서 유음 뒤의 경음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중세국어 자료에서 확인되는 경음화는 관형사형 어미 ‘-(으/으)ㄹ’ 뒤의 경음화와 ‘넣- + -습고 → 녀씁고’와 같은 ‘ㅎ’과 ‘ㅅ’의 결합에 의한 경음화가 대표적이다.⁴³⁾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는 두 가지 표기가 있었지만 모두 동일하게 발음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활발히 보이던 경음화이다.

- (1) 디넓 사르미, 몰뚫 거시라, 이싫 저그, 닐뚫 딘댄, 훔 배
- (2) 디닐 싸르미, 몯흘 꺼시라, 받조 불 쪐그, 닐올 띤댄, 몯흘 빼니

(1)은 ‘-(으/으)ㄹ’ 뒤 ‘ㅎ’을 표기한 것으로 ‘ㅎ’은 후행하는 평음을 경음화하라는 표지이며, (2)는 ‘ㅎ’이 표기되지 않은 대신 각자병서로 표기된 경우이다.

액체높임 선어말어미 ‘-좁-, -습-’이 결합할 때도 경음화가 보이기도 한다. ‘ㅈ, ㅅ’이 ‘ㅉ, ㅆ’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표면상 경음화는 맞지만 학교문법 수준에서는 ㅎ과 ㅅ의 결합처럼 그 자세한 음운변동의 원리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조씁고’ 같은 경우는 ‘ㅈ/ㅊ ㄷ →’이라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예외도 설정하여야 하고 또 ‘졸씁고’, ‘받쭈 ㅂ니’가 아니라 ‘조씁고’, ‘바쭈 ㅂ니’로 실현되므로 ‘ㄷ’ 탈락이라는 규칙도 추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잇소리로서의 경음화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교문법상 중세국어 사잇소리의 음운론적 성격을 다루기는 어려워 논하지 않겠다.

라. 반모음화 (☆)⁴⁴⁾

반모음화란 단모음 ‘ㅣ’나 ‘ㅗ/ㅜ’가 각각 반모음 ‘j’와 ‘w’로 교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현대국어에서는 ‘기+어라→[겨라], 보+아라→[봐라]’ 등이 있다. 중세국어도 현대국어와 같이 ‘j’ 반모음화와 ‘w’ 반모음화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현대국어와 달리 ‘j’가 다른 모음 뒤에 올 때도 일어났다.

42) 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43) 학교문법에서 ‘놓소→노쏘’와 같은 경음화의 변동 과정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자세히 논하지 않는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경음화는 맞지만 그 과정을 축약으로 보기도 교체와 탈락이 모두 일어난 것으로 보기도 한다.

44) 이중모음을 하나의 음소로 보면 ‘반모음화’가 아니라 모음 축약이 되지만, 최근 수능의 경향은 반모음화 즉 교체로 보는 것이므로 여기선 반모음도 음소로 보고 이중모음을 두 음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1) 모음 앞에서의 ‘j’ 반모음화

- (1) 그리- + -어 → 그려, 즐기- + -어 → 즐겨
(2) 꾸미- + -운 → 꾸문, 스치 - + -옴 → 스촘

이는 용언의 활용형에 주로 보인다. 이때 '-아/어'뿐 아니라 '-오/우'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일어났다. 그런데 반모음화는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었고, '디- + -어 → 디여', '서리- + -어 → 서리여'처럼 반모음 첨가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라(2) 모음 뒤에서의 'j' 반모음화

주격 조사: 부텨 +] → 부텨, 바 +] → 배

서술격 조사: 전_ㅊ + 丨 라 → 전치라

피사동 접사: 셔- + -이 → 셰-

부사 파생 접미사: 오라- + -이 → 오래

잇다/이시다 구 구성: 자폐 잇고 → 자펫고, 뮤화 잇도다→뮤햇도다

현대국어와 달리 모음 뒤에서도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중세 국어는 모음 체계에 하향 이중 모음이 많았기 때문이다. ‘ㅏ’와 ‘ㅓ’를 이어 빠르게 발음해 보자. 자연스레 한 음절로 발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쓰- + -이’ → 쓰이-처럼 반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보인다. 반모음화가 일어났다면 ‘쓰-’가 되어야 한다.

라(3) ‘w’ 반모음화

오- + -아 → 와, 일우- + -어 → 일워, 뮤호- + -아 → 뮤화

이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끝 ‘느/느’가 어미 ‘-아/어’가 결합할 때만 일어났다. 다만 일어나는 빈도가 적었는데, 반모음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보- + -아 → 보와’처럼 ‘w’가 첨가되는 경우가 더 많이 보인다. 출현 환경 역시 제한적인데 1음절 어간의 경우 ‘오-’만이 필수적으로 반모음화가 발생했다. ‘느/느’로 끝나는 1음절 용언은 ‘소-(쏘다)’를 제외해선 보이지 않았으며 2음절 이상일 경우 ‘느/느’가 속한 음절이 모음으로만 되어 있거나 후음인 ‘ㅎ’으로 시작할 경우에만 이러한 반모음화가 일어났다. 즉 현대국어에서 ‘다투다’나 ‘가꾸다’는 ‘다퉈’, ‘가꿔’와 같이 반모음화가 일어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그러지 않았단 얘기다. 또, ‘뫼호-’, ‘눈호-’, ‘싸호-’ 등 ‘ㅎ’을 해당 음절에 가지고 있더라도 반모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대신 ‘뫼호아’, ‘눈호아’, ‘싸호아’처럼 쓰인 예도 보인다.

마. 모음 조화(☆☆☆☆)

양성 모음(밝음): ㄱ, ㅋ, ㆁ / ㅂ, ㅍ, ㆁ / ㄴ, ㅌ, ㆁ, ㆁ

음성 모음(어두움): ㅡ, ㅜ, ㅓ / ㅠ, ㅡ / ㅋ, ㅌ, ㅍ, ㅎ

중성 모음(중간): ㅣ

모음조화란 같은 성질을 지닌 모음들끼리 어울려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린다. 기본적으로 ‘ㅏ, ㅓ, ㅗ’는 양성 모음, ‘ㅡ, ㅜ, ㅓ’는 음성 모음이며 ‘ㅣ’는 중성 모음이다. 이중모음의 경우 반모음과 ‘j’와 결합한 모음이 무엇인지에 따라 양성과 음성모음을 구별한다. 즉 ‘ㅑ, ㅕ’와 ‘ㅓ, ㅕ, ㅕ, ㅕ’가 양성 모음, ‘ㅕ, ㅠ’와 ‘ㅓ, ㅕ, ㅕ, ㅕ’는 음성모음이다.

모음조화는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일어났는데 ‘나 + 는, 잡- + -오디, 보- + -아’처럼 양성 모음(ㄱ, ㄴ, ㅏ)끼리의 결합과, ‘너 + 는, 먹- + -우디, 꾸- + -어’처럼 음성 모음(ㅡ, ㅜ, ㅓ)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이 보였다. 이중모음도 단모음이 어땠느냐에 따라 모음조화가 지켜졌다. 용언 어간과 어미, 체언과 조사 결합 시에 두드러지게 보인다. 중성모음인 ‘ㅣ’는 양성과 음성 모음 모두와 어울렸다.

중세국어의 모음조화는 매우 체계적이었으며 규칙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모음 조화의 예외도 있었다. ㅣ 상합자 중 ‘ㄱ’과 ‘ㅋ’, ‘ㅋ’은 음성모음임에도 체언 끝 음절 모음에 쓰일 경우 양성모음의 목적격 조사인 ‘을’이나 ‘를’과 결합이 가능했다. ‘ㅣ’와 같이 모음조화와 무관하게 받침의 유무에 따라서만 목적격 조사가 구별된 것이다.⁴⁵⁾ 또한, 선어말 어미 ‘-ㄴ-, -더-, -거-, -습-’이나 어말 어미 ‘-고, -다, -고라, -고져, -드록, -도다’ 등은 어간의 모음과 상관없이 붙었는데 이는 이를 어미가 양성/음성쌍의 이형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어미들은 모음조화와 관련이 없었다. 한편, 한 형태소 내에서도 대체로 모음조화가 지켜졌다.

바. ‘ㄱ’의 유성후음화(ㄱ 약화) (☆☆)

‘ㄱ’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특정 형태·음운론적 환경에서 음가를 지닌 후두 유성 마찰음 ‘ㅇ’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변동은 형태소 내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서는 ‘ㅇ’의 음가가 있다고 보므로 ‘약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각주 (27)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ㅇ’의 음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현상의 명칭은 ‘ㄱ 탈락’이 되며 음운변동의 종류를 논한다면 교체가 아니라 탈락이 될 것이다.⁴⁶⁾ 또한, 순수한 음운변동이 아니라 형태론적 환경도 고려되어야 하기에 형태·음운론적 현상이라고 함이 옳다.⁴⁷⁾

- (1) 알- + -고 → 알오, 울- + -거늘 → 울어늘
- (2) 득외- + -거늘 → 득외어늘, 여희- + -고 → 여희오
- (3) 물 + 과 → 물와, 입시울 + 과 → 입시울와, 말 + 웃 → 말웃
- (4) 눈 + 이- + -고 → 누니오, 하늉 + 이- + -거늘 → 하늘히어늘
- (5) ㅎ- + -리- + -거늘 → ㅎ리어늘, 가- + -ㄴ- + -니- + -고 → 가느니오

위와 같이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앞의 형태소가 ‘ㄹ’, 모음 ‘ㅣ’, 반모음 ‘j’로 끝나는 경우 뒤에 오는 형태소의 ‘ㄱ’은 ‘ㅇ’으로 바뀌었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상을 서술하자면, (1)과 (2)는 용언 어간 끝이 ‘ㄹ’이거나 반모음 ‘j’일 때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3)은 체언 끝이 ‘ㄹ’일 때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 (4)는 서술격조사의 어간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⁴⁸⁾, (5)는 선어말어미 ‘-리-’, ‘-니-’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말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가지다’의 경우 ‘가지- + -고’는 ‘가지오’로 실현되지 않고 ‘가지고’로 쓰였고 ‘하시고’도 선어말어미 ‘-시-’ 뒤에서는 ㄱ 약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즉 모음 ‘ㅣ’는 음운론적 환경이 아니다. 따라서 ㄱ 약화의 음운론적 환경은 자음 ‘ㄹ’ 뒤와 반모음 ‘j’ 뒤이고, 형태론적 환경은 서술격조사 어간 뒤와 선어말어미 ‘-리-’, ‘-니-’ 뒤이다. 이때 서술격조사가 ‘ㅇ-’로 실현될 때도 ‘소리오(소리 ㅇ- + -고)’와 같이 ㄱ 약화가 일어났다.

여기서 ‘ㅇ’은 후두 유성 마찰음에 해당하는 자음으로 보기 때문에 ‘아로’처럼 연철되지 않는 것이다. 표음주의를 고려할 때, 음가가 없었다면 ‘알오’로 표기됐을 이유가 없다. 또, ‘알-’의 경우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상성(R)으로 실현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평성(L)으로 실현되는데 ‘알-+고’ 구성에서 ‘알오(RH)’ 즉 상성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만약 탈락으로 본다면 이들 모두 표기의 예외로 처리된다. 탈락으로 보는 견해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통시적으로 ㄱ이 약화

45) 관련 기출로 26 6평 39번과 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37번이 있다.

46) 2017학년도 임용 B형에서는 두 견해가 함께 언급된 바 있다. 김유범(2024)에서 ㄱ 약화(탈락)를 교육과정에 넣을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차기 화언 교과서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필자의 주관이지만 국어사 심화 내용 중 가장 다루기 좋은 요소라고 생각한다.

47) 자세한 것은 형태론 단원의 “더 알아보기: 형태음운론”을 참고 바람.

48) 이때의 서술격조사 ‘이-’의 음가를 단모음 ‘ㅣ(i)’로 보지 않고 /i/로 보기도 하나 굳이 논의하지 않겠다.

했음은 인정하나 중세국어만 따졌을 때 이미 음가가 없어졌으며 일종의 표기상 흔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중세국어 화자들이 그 이전 시기에 있던 ‘ㄱ’의 통시적인 변화를 인식하였을 뿐, ‘ㅇ’의 음가는 없었고 이를 단순히 표기에만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ㅇ’의 음가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교수한다면 유음가설로 가르치거나 또는 두 견해를 아울러 제시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ㄱ의 후두유성음화의 범위는 이러하다.

더 알아보기: 체언에서의 ㄱ 약화

이때, 접속조사 ‘과’나 보조사 ‘곳, 가, 곰’ 등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할 때 ‘과, 곳, 가, 곰’이 아니라 ‘와, 웃, 아, 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 역시 ㄱ 약화에 포함하기도 한다. ‘부텨웃(부텨 + 곳), 나웃(나+곳), ㅎㄹ음(ㅎㄹ+곰)’ 등이 그러한데 이를 포함한다면 ‘체언과 조사’ 결합 시에는 ㄹ과 모든 모음 뒤에서 ㄱ 약화가 일어나고, ‘어간(용언 & 서술격조사)과 어미’ 또는 ‘어미끼리(선어말어미 + 어말어미)’의 결합 시에는 ‘ㄹ, j’ 뒤와 일부 형태론적 환경에서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학교문법 수준에서 여기까지 다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이를 포함한다면 중세국어 시기 ‘ㄱ-ㅇ’ 대응을 보이는 모든 조사의 기본형은 ‘ㄱ’형뿐이고 ‘ㅇ’형은 단순히 음운변동이 적용된 형태에 불과하게 된다. 즉 조사 ‘와, 웃, 아, 워’ 등을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처럼 조사의 기본형 설정과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ㄹ, j’ 뒤에서의 ㄱ 약화만 다루고 조사는 ‘과/와, 곳/웃, 가/아, 곰/워’으로 놓고 출현환경에 따른 달리 선택된다고 보는 것이 교육상 더 나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체언이든 용언이든 음운론적 환경은 ‘ㄹ, j’ 뒤에서의 ㄱ 약화만을 인정하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형태론 단원의 ‘3.3.2.4의 더 알아보기’에서 다루도록 한다.

3.2.5.7 탈락

가. 자음군 단순화(☆☆)⁴⁹⁾

자음군 단순화란 음절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그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대국어의 ‘흙 → 흑’, ‘삶만 → 삼만’, ‘몫 → 목’이 그 예이다. 중세국어에도 자음군단순화는 확인되나 그 양상이 사뭇 달랐다. 중세국어는 어두에서뿐 아니라 어말에서도 최대 두 자음이 발음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음주의적 표기를 원칙으로 삼은 중세국어 문헌에 종성 표기에서 겹받침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당시 자음군 단순화는 필수적 현상이 아니었다.

우선 『용가』와 『월곡』을 제외한 문헌에서 확인되는 종성의 합용병서 중 사이시옷과 관련된 표기를 제외하면 ‘ㄹㄱ, ㄹㅁ, ㄹㅂ, ㄹㄷ, ㄴㄱ, ㅁㄱ, ㅂㄱ’의 여덟 가지가 있다. 이중 ‘ㄹㄷ’은 ‘ㅌ’이 음가를 가졌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 (1) 용언의 활용: 붉게, 옮디, 붉고, 숨더니, 앉디, 옮디, 낮는
- (2) 체언의 단독/자음 조사 결합: 흙과, 여덟 字, 넓 일허, 값과

용언의 ‘앉-’ 표기의 경우, 모음 앞에서는 ‘앉-(안자, 안즈니, 등)’으로 실현되며, ‘읊-’ 기표의 경우는 모음 앞에서는 ‘읊-(움츠며, 움처, 등)’으로 실현되었다. 즉 ‘ㄴ’이나 ‘ㅁ’ 뒤의 ‘ㅈ’과 ‘ㅊ’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자음 앞에서 ‘ㅅ’으로 바뀐 예이다. ‘붉게, 옮디, 붉고’ 등도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들은 겹받침이 그대로 쓰였다. 비음이나 ‘ㄹ’로 시작하는 겹받침의 경우에는 ‘ㄹㅎ’을 제외하면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넓’, ‘값’ 등의 ‘ㄱㅅ, ㅂㅅ’도 표기上 모두 나타났으니 이들 모두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표기상 겹받침이 있다면 표기上 쓰인 자음 모두 발음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49) 관련 기출로 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지문형 문제가 있다.

- (1) 갓- + -고 → 갓고, 봇- + -디 → 봇디, 맛- + -느니 → 맛느니
- (2) 없- + -고 → 업고, 없- + -거늘 → 업거늘
- (3) 긁- + -는 → 글는, 솔- + -낫다 → 솔낫다

그러나 어말에서 최대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었음에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1)은 ‘ㅅ, ㅈ’처럼 ‘ㅅ’으로 시작하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들의 경우인데 이들은 예외 없이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ㅅ/으로만 실현되었다. (2)와 같이 ‘ㅂ’으로 끝나는 용언에도 적용되었으나 ‘값’과 같이 ‘ㅂ’으로 끝나는 체언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ㅂ’으로 끝나는 용언이 ‘없-’뿐이라 ‘없다’에만 적용된 제약인지 ‘ㅂ’에 대한 제약인지는 알 길이 없다. ‘ㄹㅎ’ 역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ㅎ’이 음절 말에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ㄹ 탈락(☆☆)

ㄹ 탈락은 용언의 활용과 복합어의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대국어에도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ㄴ, ㄷ, ㅁ, ㅅ, ㅈ’ 앞에서도 나타나는 등 그 출현 환경이 넓었다.

- (1) 살- + -눈 → 사눈, 알- + -디 → 아디, 알- + -습- + -고 → 아습고
- (2) 놀- + 니- + -샤 → 노니샤, 솔 + 나모 → 소나모, 둘 + -님 → 두님, 활 + 살 → 화살
- (3) 긁- + -는 → 글는, 얇- + -는 → 얇는

(1)은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ㄴ, ㄷ, ㅁ, ㅅ,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2)는 ‘ㄹ’로 끝나는 어근이 복합어 형성에 참여했을 때이다. (1)은 필수적이었고, (2)는 복합어의 경우 용언이 결합할 때는 일반적으로 ㄹ이 탈락하였다. 그러나 체언의 경우에는 ㄹ이 탈락이 필수적이진 않았다. ‘아들님’, ‘둘째’ 등의 예도 보인다. 현대국어와 같이 용언의 활용 (1)은 필수적이고, 합성/파생 (2)는 수의적이었으며 (1)과 (2)는 구별되는 현상이다.

(3)은 ‘ㄹㅎ’ 겹받침의 경우인데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ㅎ’이 탈락할 뿐, 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ㄴ’ 앞에서 ‘ㄹ’이 그대로 쓰였다. 즉 ㄹ 탈락이 생산적었음에도 ‘ㄹㄴ’ 연쇄가 가능은 했다는 것이다. 눈치 빠른 독자들은 교체 항목에서 유음화를 다루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인데, 15세기에는 유음화가 존재하지 않았다.⁵⁰⁾ ㄹ 탈락은 15세기에는 강력한 규칙으로 작용한 반면, 순행적 유음화는 16세기에 들어서야 등장하였다. 따라서 ㄹ과 ㄴ이 만나더라도 이미 ㄹ 탈락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16세기가 되어서도 순행적 유음화를 겪지 않았고, ‘ㄹㅎ’과 같이 자음군 단순화로 ‘ㄹㄴ’ 연쇄를 가졌던 어는 16세기가 되어서 유음화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음운 현상의 역사로 인해 현대 국어에서 ‘아는, 우느냐’ 등과 같은 용언 활용형 및 ‘소나무, 따님’ 등과 같은 복합어에서 순행적 유음화가 적용되지 않고 ‘ㄹ’ 탈락이 적용되는 반면 ‘끓는’이나 ‘얇는’은 자음군 단순화 후 유음화를 겪게 된다.

또한 중세국어는 ‘ㅎ’ 탈락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대국어라면 ‘넝---어’는 [너어]로, ‘끓어’는 [끄러]로 발음되는 등 연음이 될 환경에 ㅎ이 탈락하는데⁵¹⁾, 중세국어에는 ‘넝- + -어 → 너허’, ‘긁- + -을 → 글흘’ 등 ㅎ이 그대로 연음되었다. 즉 ㅎ이 제대로 발음되었다.

50) 이와 관련해선 19수능 12-13번과 26학년도 수특 92쪽의 지문형 문제가 참고된다. 16세기 역시 중세국어에 포함되나 이 당시엔 크게 생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지 않았다.

51) 교과과정상 이 ㅎ의 탈락은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다. 평가원 기출엔 없으나 학력평가에서 이 둘을 구별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였다.

다. 모음 탈락 (☆☆)

모음 탈락은 모음끼리 결합할 때 모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현대 국어의 ‘가- + -아 → 가’의 동일 모음 탈락과 ‘쓰- + -어 → 써’의 — 탈락 등이 있다. 중세국어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가-’, ‘나-’, ‘놀라-’ 등과 같이 ‘ㅏ, ㅓ’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어’가 연결되면 ‘나’, ‘가’, ‘놀라’처럼 두 모음 중 하나만 남는다. 다만 ‘가아’처럼 두 모음이 모두 실현된 예도 존재한다.

중세국어는 어간 끝 ‘—’뿐만 아니라 어간 끝 ‘、’도 탈락하였다. 특수어간 교체를 보이는 용언들을 제외하면, 용언 어간 말 모음 ‘、/—’는 ‘ㅏ, ㅓ, ㅗ, ㅜ’ 등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부사파생 접미사 ‘-이’ 앞에서 탈락하였다.

‘ㅊ- + -아 → 차, ㅌ- + -오- + -ㄴ → 톤, ㅎ- + -옴 → 흄, ㅍ- + -어 → 뼈’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와 ‘—’를 약모음이라 부르기도 한다. 소리가 약해 탈락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ㅎ다’는 예외적으로 ‘ㅎ- + -아 → ㅎ야’, ‘ㅎ- + -옴 → ㅎ옴’처럼 어간의 ‘ㅎ’가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였기 때문에 ‘ㅎ-’를 제외해선 약모음 탈락은 필수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⁵²⁾

더 알아보기: ㄹ 탈락과 매개모음

매개모음이란 본디 자음과 자음이 충돌할 때 발음의 용이를 위해 두 자음을 매개하여 삽입되는 모음을 뜻한다. 즉 모음의 삽입/첨가를 내포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니까’, ‘-면서’, ‘-시-’ 등의 어미는 자음 어간 뒤에 올 때 ‘으’가 삽입되어 ‘먹으니까’, ‘잡으면서’, ‘닫으시다’처럼 쓰인다고 보았고 이 ‘으’를 매개모음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으’가 삽입된다고 보기에는 의문문 ‘먹니?’와 연결형 ‘먹으니’와 같이 삽입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데 동일한 환경임에도 ‘으’가 삽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삽입이 아니고 ‘으니’가 있는데 ‘으’가 탈락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졌다. 다만, 워낙 ‘매개모음’이란 용어가 학계 전반에 퍼져 ‘으니, 으면서’ 등도 하나의 어미로 보더라도 이 ‘으’가 있는 어미를 매개모음이 존재하는 형태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매개모음이란 용어는 현재는 다소 확장된 쓰임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니까’, ‘-면서’, ‘-시-’ 등을 기본형으로 인정하면 ‘으’의 삽입을, ‘-으니까’, ‘-으면서’, ‘-으시-’ 등을 기본형으로 인정하면 ‘으’의 탈락을 전제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문법(교과서)은 매개모음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며 ‘으’의 삽입으로도 ‘으’의 탈락으로도 보지 않는다. 음운의 첨가 중 ‘— 첨가’를 인정하는 경우는 없으며 음운의 탈락 중 ‘— 탈락’은 있으나 이는 어미가 아니라 어간의 ‘—’에 관한 경우이다. 현행 교과서의 기술 방식은 국립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은데, ‘으’형과 ‘으’부재형을 음운론적 이형태로 놓고 그 둘을 모두 기본형으로 잡는 것이다. 방민호 외(2019), 이관규 외(2019), 최형용 외(2019)에서 각각 ‘둥근, 거친, 산’을 ‘둥글- + -ㄴ’, ‘거칠- + -ㄴ’, ‘살- + -ㄴ’으로 분석하였다. 즉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이 ‘으’가 없는 모음은 자음 ‘ㄹ’과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붙고, ‘으’가 있는 모음은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결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52) ‘ㅎ다’의 이러한 특이한 활용은 형태론에서 다루도록 한다.

이러한 학교문법의 설명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양상을 서술할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중세국어는 다소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은, -을, -으니, -으며' 등은 중세국어의 경우 현대국어와 동일하게 '-ㄴ, -ㄹ, -니, -며'가 결합했다. 즉 '산, 살, 사니, 살며'로 쓰인 것이다. 그러나 '-시-'와 '-쇼셔'는 특이하게 매개모음형 어미가 결합하였다. '아시니, 아쇼셔' 등의 용례는 보이지 않고 '사르시니(살- + -으시- + -니)'와 '아르쇼셔(알- + -으쇼셔)' 등의 용례만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중세국어의 르 탈락을 볼 때 결합하는 어미는 현대국어와 대체로 동일하나, 주체높임 선어말어미나 ㅎ쇼셔체의 일부 종결어미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매개모음형 어미가 결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3.2.5.8 첨가(☆☆)

중세국어에서 주로 다뤄지는 첨가는 반모음 첨가이다. 이는 모음이 연달아 나타날 때 모음의 총돌을 회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인데 현대국어에서 규범상 첨가되는 반모음은 'j'뿐이다.⁵³⁾ 가령, '피어'의 원칙 발음은 [피어]인데 [피여]도 허용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중세국어에도 보이는데, 'j'와 'w' 모두 수의적으로 첨가됐다.

- (1) ㄷ외- + -아 → ㄷ외야, 내- + -옴 → 내옴, 그르메 + 예 → 그르메예
- (2) 흐리- + -어 → 흐리여, 지- + -어 → 지여, ㄷ리 + 예 → ㄷ리예
- (3) 모도- + -아 → 모도와, 두- + -어 → 두워, ㄱ초- + -아 → ㄱ초와

(1)과 (2)는 반모음 'j'가 첨가되는 경우로 (1)은 반모음 'j'로 끝나는 형태소 뒤, (2)는 단모음 'ㅣ'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결합할 때 나타났다. (3)은 반모음 'w'가 첨가된 경우이다. 다만 수의적인 현상이라 필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3.2.5.9 축약(☆☆)

중세국어의 축약은 격음화만 다뤄진다. 'ㅎ'과 평음이 결합할 때 평음이 격음이 되는 것을 격음화라고 한다. 현대국어와 같이 중세국어에서도 선행하는 'ㅎ'과 후행하는 'ㄱ, ㄷ, ㅂ, ㅈ'이 결합하면 '돌- + -고 → 도코', '나랗 + 과 → 나라콰', '꼴- + -ㅂ- → 골프-', '낳 + 들- → 나틀-', '않 + 밟 → 안팎'처럼 'ㅋ, ㅌ, ㅍ, ㅊ'의 격음으로 바뀌었다. 평음이 선행하고 'ㅎ'이 후행할 때의 격음화 역시 일어났는데 표기상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파- (잡- + -하-)'나 '무티- (물- + -하-)', '안치- (앉- + -하-)' 등 피사동사는 격음화가 반영된 반면, 'ㄱ득 ㅎ니, 고죽 ㅎ니, 하딕 ㅎ시고'는 발견되고 'ㄱ득 쿠니, 고죽 쿠니, 하디 쿠시고'는 발견되지 않는다.

3.2.5.10 성조의 변동(☆)⁵⁴⁾

중세국어의 성조는 환경에 따라 변동을 보이기도 한다.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일어나는 성조 변동과 형태소들이 결합된 후 해당 형태소가 들어 있는 음절 수에 따라 나타나는 성조의 변동이 있다. 역시 성조는 잘 다뤄지지 않으므로 이해가 어렵다면 그냥 넘어가도 좋다.

53) 물론 이는 표준 한국어에 한해서이다. 표준발음법에서 인정하는 반모음 첨가는 'j'뿐이나 현실음은 'w'도 첨가되기도 한다. 다만 '보아라'를 [보와라]로 발음하는 것은 비표준 발음이므로 제외하였다.

54) 극히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다. 수험생은 넘어가도 된다. 다만 국어사 연구에서 중세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선 성조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세국어의 형태 분석과 이전 어형 재구에 중요하게 쓰인다.

가. 대명사의 성조 변화 (☆☆)

대명사 중 인칭대명사는 어떤 조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성조가 바뀔 수 있었다. ‘나’, ‘너’, ‘누’, ‘저’는 주격조사 ‘ㅣ’와 결합할 때와 관형격조사 ‘ㅣ’와 결합할 때 그 성조가 달리 실현되었다. 1인칭 대명사 ‘나’는 주격 조사와 결합 시에는 거성으로, 관형격 조사와 결합 시 평성으로 실현되었다. 2인칭 대명사 ‘너’와 재귀칭 대명사 ‘저’는 주격 조사와 결합 시에는 상성으로, 관형격 조사와 결합 시에는 평성으로 실현되었다. 미/부정칭 대명사 ‘누’는 주격 조사와 결합할 시 거성으로, 관형격 조사와 결합할 시 상성으로 나타났으며 의문 보조사 ‘고’가 결합할 때는 거성으로 실현되었다. 따라서 문자상 동일한 형태이더라도 방점의 존재로 ‘내(H), 네(R), 제(R), 뉘(H)’는 주격이고, ‘내(L), 네(L), 제(L), 뉘(R)’는 관형격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⁵⁵⁾

나. 유동적 성조 어간 (☆)

일부 용언의 경우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자신의 성조가 바뀐다. ‘알-(知), 뷔-(空), 담-(滿)’ 등의 용언은 ‘담고(RH)/다마(LH)’와 같이 자음 어미 앞에서는 상성으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평성으로 실현되었다. 이는 현대국어의 1음절 장음 어간이 단음이 되는 단음화와 관련 있는 현상인데 이러한 용언의 성조를 ‘유동적 상성’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 모음으로 끝나는 1음절 용언 어간은 ‘두고(LH)/두느니(HLH)’처럼 뒤에 오는 어미에 따라 성조의 교체를 보인다. ‘흐-, 보-, 가-’ 등이 여기에 속하며, ‘-고, -다, -게’ 등의 어말어미 앞에서는 평성으로 실현된 반면, ‘-느-, -술-, -(으/으)시-’ 등의 선어말어미와 어말 어미 ‘-어/아’ 앞에서는 거성으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용언의 성조를 ‘후의적 성조’라 부르기도 한다. 이와 달리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성조를 지니면 ‘고정적 성조’라고 한다.

다. 성조의 율동 규칙 (☆)

개별 단어의 성조는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와 결합한 이후 하나의 기식군⁵⁶⁾을 이룰 때, 그대로 실현되지 않고 발음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단어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성조의 조합이 실제 발음 과정에서 겪는 변화를 ‘율동규칙’이라고 한다. 율동규칙은 발화의 편의를 위해 실현되는 후처리 작용으로 이해하면 된다.

중세 국어의 대표적인 율동규칙으로는 ‘거성불연삼(去聲不連三) 규칙’과 ‘어말평성화(語末平聲化) 규칙’이 있다. ‘거성불연삼 규칙’은 글자 그대로 ‘거성이 셋 이상 연속되지 못한다’는 규칙이다. 하나의 어절 내에서 높은 소리인 거성이 셋 이상 연달아 나타날 경우, 그중 하나를 낮은 소리인 평성으로 바꾸어 발음의 단조로움을 피했다. 예를 들어, 거성이 단어 ‘불(火)(H)에 거성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며’(HH)가 결합하면 이론적으로는 ‘브리며’(HHH)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칙이 적용되어 뒤에서 두 번째 거성이 평성으로 바뀌어 최종적으로는 ‘브리며’(HLH)로 실현되었다. 이 규칙은 특정 환경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을 보였다.

‘어말평성화 규칙’은 어절 끝에 오는 거성을 평성으로 바꾸는 규칙이다. 어절의 끝이 두 개 이상의 거성으로 끝날 경우, 마지막 음절의 거성을 평성으로 바꾸어 발음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없다’

55) 2012학년도 임용 1차에 나온 적 있는 주제인데 주격/관형격 성조 교체만 다뤘다. 다른 격에서도 성조 변화가 관찰되는데 김성규(2007)가 참고된다.

56) 발화에서 휴지(休止) 없이 한 호흡으로 이어서 발음되는 소리의 덩어리이다. ‘망할 놈’을 [망할롬]으로 발음하는 것 따위로, 띄어쓰기 단위인 어절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의 관형사형 ‘업순’(RH) 뒤에 명사 ‘중을(명사 중+목적격 조사 을)’(RH)이 와서 ‘업순 중을’이라는 기식군을 이룰 때, ‘업순’의 끝의 거성 ‘순’이 평성으로 바뀌어 ‘업순 중을’(RL RH)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다. 다만 이 규칙은 ‘거성불연삼 규칙’과 달리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규칙이 아니었다.

3.2.6 음운 변화

후기중세국어 내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근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음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후기중세국어는 15세기~16세기라는 대략 100여년밖에 안 되는 기간에 꽤 많은 음운이 변하였다.

3.2.6.1 자음의 변화

가. 유성음 체계의 변화(☆☆☆)⁵⁷⁾

‘崩[β]’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드물게 나타나고 1450년대까지 존속하다가 쓰이지 않게 되었는데 대체로 반모음 ‘w’로 변하였다. ‘고방>고와’처럼 ‘w’로 바뀌기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고병>고이’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소멸한 예도 있다.⁵⁸⁾ 따라서 15세기 초중반에 쓰이던 ‘덥고/더벽’라는 활용은 15세기 말~16세기 초부터 현대국어와 동일하게 ‘덥고/더워’라는 활용을 보이게 된다. 15세기 중엽에 소멸이 시작되고 16세기 초에는 완전히 소멸되면서 ㅂ 불규칙 활용이 형성되었다.

‘△[z]’는 15세기 말부터 소멸되기 시작하는데, 일부 흔적을 남기고 소멸된 ‘崩’과 달리 ‘△’은 ‘아 죵>아우’에서처럼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은 16세기 중엽 문현에 가끔 등장하나 16세기 말에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의 소멸로 ‘긋고/그더’라는 활용은 ‘긋고/그어’로 변하게 되며 이로 인해 ㅅ 불규칙 활용이 형성되었다.

‘o[h]’은 15세기 말에 소멸이 시작되며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소멸하였다. ‘몰애’, ‘놀애’, ‘굿애’ 등은 o[h]의 소리가 사라지며 ‘모래’, ‘노래’, ‘굿새’로 쓰이게 된다. 그러나 ‘근o’의 경우 많은 경우 ‘근근’로 변하기도 하였는데, ‘별에>별레’, ‘달애다>달래다’, ‘들이다>들리다’ 등이 그러하다. ‘놀애’나 ‘몰애’ 역시 ‘놀래’, ‘몰래’로 쓰인 예가 관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성음 체계는 16세기를 거치며 비음운화 과정을 겪었고 17세기로 넘어서며 즉 근대국어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다.

중앙어는 이러한 방언에 따라선 변화 양상이 달랐다. ‘△’은 ‘ㅅ’, ‘o’은 ‘ㄱ’, ‘崩’은 ‘ㅂ’으로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때 유성마찰음이 기원적인 음소 즉 원래부터 존재하였다고 보는 견해에선 중앙어에서는 ‘崩[β]’, △[z], o[h]’가 비음운화를 겪은 반면 방언에서는 ‘崩[β]’, △[z], o[h]’가 ‘ㅂ’, ‘ㅅ’, ‘ㄱ’으로 변화하였다고 파악한다.(이러한 견해에서도 o[h]은 기원적인 음소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崩[β]’과 ‘△[z]’만이 기원적 유성음 음소가 된다) 그러나 유성마찰음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중앙어는 원래 ‘ㅂ’, ‘ㅅ’, ‘ㄱ’이던 형태가 ‘崩[β]’, △[z], o[h]’으로 변화한 결과이고 방언에서는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ㅂ’, ‘ㅅ’, ‘ㄱ’으로 남아 있다고 파악한다.⁵⁹⁾

57) 관련 기출로 17 6평 11~12가 있다.

58) 이때 ‘고이’의 ‘o’을 음가가 있다고 보기도 하나, 이삼형 외(2019: 212)에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소멸한 예로 제시하므로 이를 따랐다.

59) 이 부분은 심화 과정이니 넘어가도 괜찮다. 한편, 전통적으로는 전자의 견해가 우세하였으나 최근에는 후자

나. 합용병서의 변화 (☆☆)

‘ㅂ계 합용병서’와 ‘ㅂ계 합용병서’가 ‘ㅂ’이 선행하는 어두자음군임은 이미 밝혔다. 그런데 어두자음군은 15세기 말부터 변화가 관찰되는데 ‘쁨’과 ‘뿔’이 16세기 초에는 주로 ‘씀’과 ‘쏠’로 쓰였다. 문헌 자료를 근거할 때 ‘版权所有’ 등은 16세기에 된소리로 변화하였고, ‘ㅂ, ㅂ, ㅂ’는 그 후 17세기에 된소리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두에 올 수 있는 음절의 개수가 1개로 한정되었다.

3.2.6.2 모음의 변화 (☆☆☆)

중세국어의 특징적인 모음으로는 ‘、’가 있는데 ‘、’는 총 두 차례에 걸쳐 비음운화를 겪는다. 우선 제1차 변화는 15세기 중엽에 시작하여 16세기 말에 완성되었다. 비어두에 놓인 ‘、’가 ‘一’로 변한 것인데, ‘흐물며 → 흐물며’, ‘모르- → 모르-’, ‘가풀 → 가풀’ 등에서 관찰된다. 또한 ‘말미 → 말미’와 같이 ‘、’가 이중모음의 일부여도 비어두에 위치하였다면 ‘一’로 변하였다. 이로 인해 모음조화가 점차 문란해지기 시작한다. 18세기에 1음절의 ‘、’가 ‘ㅏ’로 변한 2차 변화도 있으나 이는 근대국어의 음운 변화에서 다루도록 한다.

3.2.6.2 운소의 변화 (☆☆)

15세기의 성조 체계는 16세기를 거치며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방점 표기의 혼란이 일어났는데, 15세기와 16세기에 동일한 어형이더라도 방점이 달리 표기된 예가 많아졌다. 또한 율동규칙도 문란해졌는데 16세기 초에 이르러선 ‘HHH’와 같은 거성의 3연속형이 자주 쓰였다. 그런데, 성조를 표기 하던 방점은 16세기 말까지만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사라진다. 이렇게 방점이 사라진 것이 성조의 소멸을 반영한 것인지는 이견이 있다. 다만, 민현식 외(2019:213)에서 ‘방점 표기의 소멸 = 성조의 소멸’로 보았으니 학교문법에서는 16세기에 성조 체계가 불안정해지고 근대국어로 들어서며 즉 17세기가 되면서 성조가 사라졌고 그에 따라 방점도 사라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그렇지만 학교문법 수준을 벗어나 보자. 갑자기 방점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성조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방점의 표기가 문란해지긴 하였으나 16세기 말까지 15세기의 성조를 유지한 형태소도 있었기 때문에 16세기 말까지는 성조가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때, 16세기까지 성조가 존재하였다면 성조가 17세기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사라졌을까? 이에 따르면 성조는 단순히 표기에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근대국어를 거치며 점차 소멸의 길을 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6세기의 방점의 혼란이 극심하여 이것이 곧 성조 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면 방점 표기의 폐지는 실질적으로 성조가 소멸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⁶⁰⁾

의 견해도 보인다. 전자는 이승재(1983)가, 후자는 김한별(2012)과 소신애(2012)가 참고된다.

60) 이와 관련하여 유필재(2001:147-148)와 이문규(2017)가 참고된다.

3.3. 형태론

형태론은 단어와 단어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분야로, 품사의 분류, 어근과 접사, 합성과 파생, 그리고 형태소 간의 결합 양상을 분석한다. 중세국어의 형태론적 체계는 현대국어의 그것과 기본적인 원리를 공유하지만, 어미 체계나 파생 접사의 형태, 조사 체계 등에서 오늘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중세국어 문법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현대국어 문법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단원에서는 중세국어의 형태소와 단어 구조를 살펴보고 이러한 형태론적 특징이 어떻게 현대국어의 문법 체계로 이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자.

3.3.1 품사의 체계⁶¹⁾

품사란 단어를 그 문법적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중세국어의 단어도 현대국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 중세국어는 현대국어 체계에는 없는 품사의 설정 논의라든가 하는 등의 여러 쟁점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학교문법 수준의 체계만 고려하자.⁶²⁾ 학교문법의 9품사 체계를 중세국어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형태	기능	품사	용례
불변어	체언	명사	여름(實), 나모(木), 생종(世宗), 아난(阿難)
		대명사	나, 너, 그의, 조가, 아모, 이어고, 그어고
		수사	후나ㅎ(一), 둘ㅎ, 온, 즈믄, 후나차이, 둘차이
	수식언	관형사	새, 므슬, 어누, 여라믄(十餘)
		부사	못, 더욱, 아니, 몯, 아마도, 그러나
	독립언	감탄사	이, 아으, 아소, 에에[哭聲]
가변어	관계언	조사	이, 를/를, 으로/으로, 는/는, 도, 와/과
		(서술격 조사)	이라/ 라/Ø라
	용언	동사	가다, 후다(爲), 맛나다, 놀다(遊), 듣다, 살다
		형용사	하다(多), 크다, 끄르다, 둘다(好), 좋다(淨)

임지룡 외 (2020: 387)

3.3.1.1 체언

가. 명사 (☆☆)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표시하는 말이다. 명사는 의미적인 특성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나뉘는데 중세국어나 현대국어나 기준은 똑같으니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명사는 통사 과정의 의존성에 따라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로 나뉜다.

61) 품사론은 형태론, 어휘론, 통사론과 관련을 맺고 있어 형태론의 하위 영역으로만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부분의 개론서를 따라 품사론은 형태론에서 다루도록 한다. 어휘 체계는 어휘론에서 다룬다.

62) 첨사, 지정사, 계사 등의 학술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 ㄱ. 諸法이 비론 일후민 둘 아는 衆生 爲乎야
- ㄴ. 虛空이 네 心識을 내옳 디 아니니라

(ㄱ)은 ‘ㄷ + 을’, (ㄴ)은 ‘ㄷ + 丨’로 분석되는데, 의존명사는 단독으로 쓰이거나 문장의 첫머리에 나타나지 못한다. 필수적으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한다. 중세국어의 의존명사에는 ‘ㄷ(것)’ 외에도 ‘것’, ‘바’, ‘ㅅ(것/줄)’, ‘이’, ‘줄’, ‘쭈롬(따름)’ 등이 있다. 이때, ‘ㄷ’와 ‘ㅅ’는 뒤에 주격조사나 서술격조사가 오더라도 ‘디/디라’나 ‘시/시라’와 같이 쓰이지 않고 ‘디/디라’나 ‘시/시라’와 같이 ‘.’가 탈락하였다. 의존명사는 뒤에 결합할 수 있는 조사가 제한되어 특정한 문장 성분으로만 쓰이는데 이를 기준으로 주어성 의존 명사, 서술성 의존 명사, 부사성 의존명사, 그리고 이러한 제약이 없는 보편성 의존명사로 나뉜다.

중세국어 시기에선 주어로만 쓰이는 주어성 의존명사와 서술격 조사와 결합하여 서술어로만 쓰이는 서술성 의존명사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부사어로만 쓰이는 부사성 의존명사는 비교적 자주 보인다. 현대국어에선 ‘채(선 채로 죽었다)’나 ‘대로(허락되는 대로 하겠다)’ 등이 부사성 의존명사로 처리되는데, 중세국어에선 ‘대로’를 의미하는 ‘다비’, ‘채’를 의미하는 ‘자히’, ‘듯이’를 의미하는 ‘듯/듯시’ 등이 쓰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없이 한 의존명사가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등 다양한 형태로 쓰이면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바(사물)’, ‘이(사람)’, ‘적(시간)’, ‘녁(장소)’, ‘ㄷ(것)’ 등이 있다. 이러한 중세국어의 보편성 의존명사는 그 성격이 유지되어 대체로 현대국어에서도 ‘통탄하는 바’이다’, ‘느낀 바가 크다’, ‘원하는 바를 말하라’와 같이 보편성 의존명사로 쓰인다. 다만 현대국어의 ‘뿐’과 ‘따름’은 서술격조사 ‘이다’와만 어울리는 서술성 의존명사인데 이들의 직접적인 소급형⁶³⁾ ‘쭈롬’과 ‘뿐’은 중세국어 시기 여러 문장 성분으로 두루 쓰일 수 있어 중세국어 시기에선 보편성 의존명사였다고 볼 수 있다.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도 있는데 ‘번(番)’을 의미하는 ‘디위’와 ‘불’, ‘낱’을 의미하는 ‘낱/낫’, ‘시의 수(首)’를 나타내는 ‘마리’ 등이 쓰였다. 이들을 ‘단위성 의존명사’라 한다.

나. 대명사 (☆☆☆)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이는 체언으로, 중세국어에서도 현대국어와 같이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눌 수 있다. 중세국어의 인칭 대명사는 1인칭의 ‘나’와 복수형 ‘우리’, 2인칭의 ‘너’와 ‘그디/그듸’, 복수형 ‘너희’가 있다. 이때, ‘나’의 낮춤말인 ‘저’는 쓰이지 않았고 ‘그디/그듸’는 ‘너’보다 높임의 의미를 지녔다. ‘우리’와 ‘너희’는 복수형이지만 다시 복수 접미사 ‘-들’이 결합한 ‘우리들’, ‘너희들’이 쓰이기도 했다. 현대국어의 3인칭 대명사 ‘그’는 중세국어에서 보이지 않는다. 미지칭이나 부정칭은 그 쓰임이 현대와 일치했는데 미지칭은 ‘누’, 부정칭은 ‘아모’로 쓰였다. 재귀칭은 ‘저’와 복수형인 ‘저희’가 나타나며 ‘저’보다 높임의 재귀칭인 ‘주갸’도 쓰였다.

지시대명사는 사물을 지시하느냐 처소를 지시하느냐에 따라 사물 대명사와 처소 대명사로 나뉜다. 지시대명사는 화자를 기준으로 하여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근칭, 중칭, 원칭으로 나뉜다. 중세국어에선 각각 ‘이, 그, 데’로 나타난다. 사물 대명사도 부정칭이나 미지칭을 가지는데

63) 소급형은 현대국어의 어형에 대응하는 옛 형태를 말한다.

부정칭은 ‘아모, 아모것’으로, 미지칭은 ‘어느’, ‘므슥/므슴’, ‘현마’, ‘엇데’ 등 다양하게 쓰였다. 처소 대명사는 근칭, 중칭, 원칭이 각각 사물 지시대명사에 ‘-어그’, ‘-에’가 연결되어 나타난다. 즉 ‘이어 그, 그어그, 데어그’, ‘이에, 그에, 데에’로 쓰인다. 또 여기서 ○이 탈락한 ‘여그, 거그, 데그’와 ‘예, 게, 데’가 나타나기도 한다. 처소 대명사의 부정칭으로는 ‘아모드, 아모디’가 있고, 미지칭으로 ‘어드, 어드메’가 쓰인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칭 대명사	1인칭	단수		복수	
		예사말	나	예사말	우리/우리 ⁶⁴⁾
		겸사말		겸사말	
	2인칭	단수		복수	
		예사말	너	예사말	너희/너희 ⁶⁵⁾
		공대말	그다/그듸	공대말	그다내/그듸내
	3인칭	근칭	중칭	원칭	
				데 ⁶⁵⁾	
	미지칭	단수		복수	
		누			
	부정칭	단수		복수	
		아모			
	재귀칭	단수		복수	
		예사말	저	예사말	저희/저희 ⁶⁵⁾
		공대말	조가	공대말	

		근칭	중칭	원칭	부정칭	미지칭
지시 대명사	사물	이	그	데	아모, 아모것	어느, 어누, 므스, 므슥, 므슴, 므스것, 현마, 언마, 언머, 엇데
	처소	이어그, 여그, 이에, 예	그어그, 그에, 게	뎅어그, 데어그, 여그, 데에, 데	아모디/ 아모드	어드, 어드메, 어드메

64) 현대국어에선 1인칭 단수 겸사말로 ‘저’가, 1인칭 복수 겸사말로 ‘저희’가 쓰인다. 물론 3인칭 ‘저희’ 역시 아직 현대국어에 남아있다.

65) 임지룡 외(2020)에선 3인칭 대명사가 없다고 보았으나 나찬연(2020)과 고영근(2020), 구본관 외(2016)에서 3인칭 대명사 ‘데’를 설정하므로 이를 따랐다. 『석상』과 『법화경언해』의 용례를 보면 ‘데’의 설정이 합리적.

다. 수사 (☆)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인데 양수사(기수사)와 서수사로 나눌 수 있다.

양수사: 흐낳, 둑, 쟁, 넬, 다숏, 여슷, 닐굽, 여돐, 아흡, 옽, 스돐, 셜흔, 마순, 쉰, 여순, 닐흔, 여든, 아흔, 온(百), 즈믄(千) ; 몇, 여령

서수사: 흐나차히/흐낳재, 둑차히/둘재, 세차히, 네차히, 다숏차히, …

서수사는 양수사에 ‘-째’의 옛말인 ‘-자히/차히’⁶⁶⁾가 결합하여 나타났는데, ‘자히’, ‘차히’에서 ‘흐’이 탈락하여 반모음화를 겪은 ‘재’와 ‘채’가 붙기도 한다. 수사는 한자어계도 있는데 양수사는 ‘一, 二, 三, 四, 五, …’로 나타나고 서수사는 ‘第一, 第二, 第三, 第四, 第五, …’로 나타난다.

라. 체언의 복수 표시법⁶⁷⁾ (☆)

현대국어에서는 체언이 복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접미사 ‘-들’이 쓰이는데, 중세국어도 마찬가지로 접미사 ‘-들’의 소급형인 ‘-돐’이 쓰였다. 접미사 ‘-내’도 쓰였는데 ‘-돐’은 평칭의 체언, ‘-내’는 높여야 할 대상의 체언에 쓰였다. 예를 들어, 현대국어라면 ‘사람들’과 ‘누님들’로 동일하게 복수가 실현되지만 중세국어에선 ‘사름닮(사람들)’과 ‘누의님내(누님들)’와 같이 높임의 대상이 되면 그 접미사가 달리 붙었다. 대명사도 같은 이유로 예사말은 ‘너희닮(너희 + -닮)’로, 공대말은 ‘그디내/그듸내(그디/그듸 + -내)’로 실현된다.

3.3.1.2 체언의 형태 바뀜⁶⁸⁾

중세국어 시기에는 체언이 조사와 결합할 때 그 형태가 변하기도 하였다. 마치 일부 용언 어간이 특정 어미와 붙으면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듯이 일부 체언은 특정 조사와 결합하면 그 형태가 불규칙하게 바뀌기도 하였다.

가. 흐 종성 체언 (☆☆☆)⁶⁹⁾

‘흐 종성 체언’이란 중세 국어에서 종성으로 ‘흐’을 가지고 있는 체언을 말한다. ‘?⁷⁰⁾落ち(秋), 둑(石), 하닮(天), 흐낳(一), 얹(牝)’ 등 대략 80개의 흐 종성 체언의 존재가 확인되며, 체언 말음이 ‘흐’으로 끝났지만 뒤에 어떤 조사가 오냐에 따라 형태가 변했다.

- (1) 하늘히(하닮+이), 고해(꼴+애), 돌흐로(돐+으로)
- (2) 하늘토(하닮+도), 돌콰(돐+과), 흐나토(흐낳+도)
- (3) 암탉(얹+닭), 수탉(솜+닭), 안탉(얹+닭)
- (4) 갈 뿌기(얹 뿌--기), 하닮 광명(하닮 + ㅅ), 냇믈(냇+믈)

66) 이들을 의존명사로 보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접미사로 처리된다.

67) 복수 접미사 ‘-희’를 설정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공시적으로 ‘-희’를 분석하지 않는 입장 을 취하겠다.

68) 학교문법에서 ‘곡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체언의 형태 바뀜”으로 서술한다. 학교문법에서 인정하는 굴절은 용언의 활용뿐이지, 체언의 곡용은 인정하지 않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69) 관련 기출로 16년 6평 B형 16번과 19학년도 3월 학력평가 12번이 있다.

ㅎ 종성 체언의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나타나지만,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할 때는 탈락하였다. (1)은 연음, (2)는 격음화(축약)으로 ‘ㅎ’이 나타난 것이다. (3)처럼 ‘ㄱ, ㄷ’으로 시작하는 명사와 합성어를 이룰 때도 ‘ㅎ’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현대국어의 몇몇 어형에서 어째서 ‘ㅎ’이 덧나는지 설명할 수 있다.⁷⁰⁾ (4)는 ‘ㅎ’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한편, ‘ㅎ 종성 체언’은 단독형에서 종성 ‘ㅎ’이 나타나지 않기에 ‘ㅎ 말음 체언’으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ㅎ 종성 체언’이다.⁷¹⁾ ‘ㅎ’이 종성에 쓰인 표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지적되어 ‘ㅎ’의 위치가 학자마다 달리 쓰이기도 한다. ‘술’이나 ‘돛’처럼 ‘ㅎ’을 받침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수ㅎ’이나 ‘돛ㅎ’처럼 ‘ㅎ’을 옆에 쓰기도 한다. 최형용 외(2019:105)에서는 전자를, 민현식 외(2019:217)와 이관규 외(2019: 202)에서 후자를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교과서 편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일 뿐이니 학교문법 수준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나. 특수 어간 교체 (☆☆~☆☆☆☆)⁷²⁾

중세국어 시기 특이한 형태 바뀜을 보여 주는 일련의 체언들이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들을 묶어 “특수 어간 교체 체언”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와 그외의 경우에 그 형태가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며 고대 국어 편에서 언급했듯이 동일한 체계의 음변화를 겪어 중세국어에 불규칙한 바뀜 현상을 보인다고 해석된다.

순서	어미	조사	주격	목적격	부사격			서술격	보조사	
					처소	도구	공동		대조	동일
ㄱ	나모(木)	남기	남글	남기	남?로	나모와	남기라	남근	나모도	
ㄴ	구무(穴)	굼기	굼글	굼기	굼그로	구무와	굼기라			구무도
ㄷ	ㅎㄹ(一曰)	흘리	흘ㄹ	흘리		ㅎㄹ와	흘이라	흘른	ㅎㄹ도	
ㄹ	무ㄹ(宗)	물리	물ㄹ			무ㄹ와		물른	무ㄹ도	
ㅁ	노ㄹ(獐)	놀이	놀을	놀이		노ㄹ와	놀이라			노ㄹ도
ㅂ	느ㄹ(津)	놀이	느을	느이				느온	느ㄹ도	
ㅅ	아수(弟)	았이	았을	았이		아수와	았이라	아순	아수도	
ㅇ	여스(狐)	엇이	엇을	엇이(의)		여스와	엇이라	엇온	여스도	

표 9-9 불규칙한 곡용의 양상

임지룡 외(2020: 389)

70) ‘머리카락’도 이와 같은 단어로 함께 언급되나 ‘머리’는 ㅎ 종성 체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ㅎ 종성 체언이어서 ‘가락’이 ‘카락’이 된 것이 아니고 유추 등의 다른 기제로 ‘ㅎ’이 덧났다고 설명하는 것이 옳다. 참고

71) 관련 논의는 이준환(2010:164)의 각주 (1)이 참고된다.

72) ‘특수어간교체’라는 용어는 학교문법에는 없으나 이기문(1962)에서 제시된 이래 학계에서 널리 쓰이기에 사용하겠다. 여기서 ‘어간’이란 용어는 체언에게도 쓰이기에 학교문법상 적절치 않으므로 이 내용을 교수할 경우,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따로따로 설명하기를 바란다. 관련 기출로는 24학년도 10월 학평이 있다.

나(1). ㄱ 덧생김 체언(☆☆☆)

단독형이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원래 형태로 쓰이나 ‘와’⁷³⁾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음절 말 모음 ‘느/느’와 ‘—’가 탈락하고 ‘ㄱ’이 덧나는 체언을 말한다. ‘나모’, ‘구무’, ‘녀느’, ‘불무’ 등이 있는데 현재 확인되는 ㄱ 덧생김 체언은 모두 ‘모/무’ 혹은 ‘느’로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 (1) 남기, 남근, 남기 ; 나못 일훔, 나모와, 나모 바근
- (2) 굼기, 굼글, 굼기라 ; 구무마다, 구무둘해
- (3) 년기, 년글 ; 녀느 곤거시눌, 녀느 이룰
- (4) 뿔기, 뿔괴 ; 불무로, 불무질,

위와 같이 모음 앞에서 ‘낡, 굵, 념, 뿔’으로 교체되었다. 즉 ‘남근’은 ‘나모 + 은’이 ‘낡 + 은’이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학교문법에 입각하여 설명해야 한다면 어간 불규칙 활용의 기술을 따라야 할 것이다. 다수의 현행 교과서에서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어간이 특정 환경에서 다른 형태로 바뀐다고 설명한다. 즉 ‘듣다’나 ‘돕다’를 각각 모음 어미 앞에서 ㄷ이 ㄹ이 되는 현상, ㅂ이 ‘오/우’가 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이를 따르면 모음 앞에서 ‘모/무’와 ‘느’가 각각 ‘ㄹ, ㄴ’이 되는 현상 혹은 ‘나모, 구무, 녀느’가 ‘낡, 굵, 념’이 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체언의 불규칙적인 교체는 곧 용언의 불규칙적인 활용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나(2). △ ○류 체언(☆☆)

‘으/으’로 끝나는 일부 체언은 단독형이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원래 형태로 쓰이나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음절 말 모음 ‘.’와 ‘—’가 탈락하였다. 이때 ‘.’와 ‘—’가 탈락하면서 △이 연철되지 않고 ‘았이(아으 + ㅣ)’와 같이 분철되었는데 이 ‘○’을 음가 있는 ○[h]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아으’가 ‘았○’으로 교체된다고 설명한다.

나(3). ㄹ ○류 체언(☆☆)

‘ㄹ/르’로 끝나는 일부 체언의 경우 역시 단독형이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원래 형태로 쓰이나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음절 말 모음 ‘.’와 ‘—’가 탈락하였다. 이때도 ‘.’와 ‘—’가 탈락하면서 ㄹ이 연철되지 않고 ‘늘이(노ㄹ + ㅣ)’와 같이 분철되었는데 이 ‘○’을 음가 있는 ○[h]으로 본다. 이 역시 ‘노ㄹ’이 ‘늘○’으로 교체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교체를 보이는 예로 ‘노ㄹ(獐), 느ㄹ(津), 시ㄹ(鼈), 조ㄹ(柄), 자ㄹ(袋) ㄱㄹ(粉)’ 등이 있다.

나(4). ㄹㄹ류 체언(☆☆)

‘ㄹ/르’로 끝나는 일부 체언의 경우 단독형이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원래 형태로 쓰이나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음절 말 모음 ‘.’와 ‘—’가 탈락하고 ㄹ이 덧났다. 즉 ‘흐ㄹ’과 같은 단어는 ‘흐ㄹ + ㅣ’가 ‘흘이’가 아니라 ‘흘리’로 쓰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흐ㄹ’이 ‘흘’과 같이 교체된다고 설명한다. ‘ㅁㄹ(棟)’과 ‘ㄱㄹ(粉)’도 같은 교체를 보인다.

73) 2024학년도 10월 학평에서 ‘나모와’를 ‘나모+와’로 보았고 출현 환경을 이와 같이 설명하였음.

이때, 위의 네 부류를 하나로 묶지 않고 (나1)를 그 덧생김으로 놓고, (나2~4)는 ‘으/으’의 탈락이라는 유형으로 묶어서 설명하기도 한다. 고영근(2020)과 임지룡 외(2020)에서 이러한 처리 방식을 따른다. 이 책은 고대국어까지 함께 다루므로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개론서와 달리 네 부류를 함께 묶었다. 또, 이 네 부류는 모두 성조가 ‘평성+평성’의 구조를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다.

더 알아보기: ‘와’의 처리

분명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들과 결합하면 ‘남기(남+이)’, ‘굼기라(굼+이라)’, ‘년기(년+이)’처럼 ‘남’, ‘굼’, ‘년’으로 교체되며 그이 덧나는데 어째서 ‘와’와 결합할 때만 ‘나모와’, ‘구무와’처럼 ‘ㄱ’이 덧나지 않는 걸까? ‘나모’가 ‘남’으로 교체되어서 ‘남과’처럼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닐까?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학력평가의 기술처럼 ‘와’를 예외로 설명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학계에서 이렇게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원리가 궁금한 독자들이 있을 테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실제로 많은 개론서에선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라고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라고 설명하고 ‘나모와’를 ‘ㄱ’이 덧나지 않은 예시로 제시한다. 어째서일까?

우선, ‘과’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나모+과’이기 때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은 것이고 곧 ‘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약화설을 적용하게 된다면 ‘나모와’의 ‘와’의 ‘o’은 [h]라고 보는 견해가 된다. 다른 처리 방식도 있다. ‘와’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 을/을, 으로/으로’ 등과 달리 반모음 ‘w’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와’는 엄밀히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아니라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로 볼 수 있으므로 ‘남’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반모음은 모음과 자음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소리이므로 반자음이라고도 한다. 즉 자음의 성격을 가지는 ‘와’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처럼 ‘나모’와 어울린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조사 ‘과’는 ‘곳, 가, 곰’ 등과 함께 체언의 그 약화로 흔히 거론되는 조사이므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의 그 약화설을 긍정한다면 ‘나모와’가 되는 이유는 반모음 때문이라기보다는 음가 있는 ‘o[h]’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⁷⁴⁾

또한, △o류, ㄹo류 체언에서도 ‘과’가 아니라 ‘와’가 나타나는데 이때의 ‘와’도 보통 ‘o[h]’으로 본다. 이 역시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o[h]’을 긍정한다면 ‘과’가 결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ս + 과’, ‘노르 + 과’에서 체언의 그의 약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 약화’의 음운론적 환경을 용언 어간이든 체언이든 ‘ㄹ’과 ‘j’가 끝소리일 때로 한정하기로 하였으므로, ‘나모와’의 ‘와’는 예외로 보기로 한다.

다. 대명사의 ㄹ 덧생김 (☆☆)

‘나, 너, 데, 누’ 등의 대명사가 ‘와, 로, 라와, 드려’ 등의 일부 조사와 결합할 때 ‘ㄹ’이 덧생겼다. 위들 대명사가 ‘날, 널, 떨, 눌’ 등으로 나타나는 ‘ㄹ 덧생김’ 현상은 필수적인 현상은 아니라 수의적으로 나타났다. 현대국어의 ‘절로’나 ‘일로’가 이러한 ㄹ 덧생김의 연장선이다.

74) ‘보기’형 문제에서 이러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 24학년도 학평에서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과/와’ 관련해선 관계언 단원에서 다시 다루도록 한다.

- ㄱ. 四衆이 울워려 仁과 날와 보누나
- ㄴ. 엇데 옷 바불 뼈 날로 이에 니를어뇨 커늘

라. 기타 체언의 바뀜 (☆☆)

체언 말의 ‘이’가 관형격조사 ‘이/의’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체언 말의 ‘이’의 탈락은 ‘아가(호격)’에서처럼 관형격 조사가 아닌 조사와의 결합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탈락 현상은 ‘아비, 아기, 가히, 늘그니’ 등과 같은 유정명사에 주로 나타났는데 필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아비옷 이시면 우리를 어엿비 너겨, 아드리 아비 천량 물려
비윤 아기 비디, 그 어미 널오디 아가, 아기 뿐 겨지비어든

또, ‘·’나 ‘-'로 끝나는 명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之字를 뼈로 서로 보니
谮谮흔 뼈 널오문 어드운 中에 불고미니

중세국어 시기 時를 나타내는 명사는 ‘뼈’ 또는 ‘뼈’로 나타나는데, 위와 같이 주격조사 ‘-’와 결합할 때 ‘뼈’가 아니라 ‘뼈’ 즉 ‘-'가 탈락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의존명사 ‘ㄷ, ㅅ’도 말음 ‘·’가 탈락했다.

3.3.1.3 용언

가. 동사 (☆☆)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를 ‘동사’라 하는데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된다. 아래 (1)의 ‘넙다’는 ‘머구무물’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므로 타동사이고, (2)의 ‘니다’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자동사이다. 그런데 중세국어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목적어의 유무 말고도 선어말어미로도 구별할 수 있었는데 ‘-어-’가 결합하면 타동사, ‘-거-’가 결합하면 자동사이다. 중세국어는 동일한 형태의 동사가 자동사로도 타동사로도 쓰이기도 하였는데 이를 능격동사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통사론 단원을 참고하자.

- (1) 데의 머구무물 니버니(넙- + -어- + -니)
- (2) 어서 도라 니거라(니- + -거- + -라)

나. 형용사 (☆☆)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를 ‘형용사’라 하는데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의미에 따라 감각, 대상에 대한 평가, 심리 상태 등을 나타내는 성상형용사와 지시되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지시형용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형용사로 ‘길다, 높다, 둘다, 슬프다’ 등이 있고 후자는 ‘이려흐다, 그러흐다, 데려흐다, 아므로흐다, 엇더흐다’ 등이 있다. 지시형용사는 대명사와 같이 근칭/중칭/원칭과 부정칭/미지칭으로 세부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여렷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별법은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느-’의 결합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느-’가 결합이 가능하면 동사이고 그렇지 않다면 형용사이다. ‘가다’는 동사이므로 ‘가느니’와 같이 활용이 가능했지만, ‘색르다(빠르다)’는 형용사이므로 ‘*색르느니’로 쓰이지 않고 ‘색르니’로만 쓰였다. 그런데, 형용사임에도 ‘-느-’가 불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형용사가 동사로도 쓰였다고 파악한다. 이와 관련해선 품사의 통용에서 알아보자.

라. 보조 용언 (☆)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인데 중세국어 역시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로 구별할 수 있다. 진행(-어 가다, -고 있다), 시행(-어 보다), 봉사(-어 주다) 등의 보조동사와 희망(-고 싶다), 부정(-디 아니하다/못하다) 등의 보조 형용사가 쓰였다.

3.3.1.4 용언의 활용

가. 규칙활용 (☆☆)

규칙활용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일정하거나 혹은 변하더라도 그 변화가 규칙적이라서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형태가 바뀌더라도 음운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규칙활용으로 볼 수 있다. 가령 ‘넓다(입니다)’와 ‘자다’는 각각 ‘넓고’, ‘니버서’와 ‘자고, 자다’ 등으로 활용하면서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어간의 형태가 전혀 바뀌지 않기도 하지만, 음운 변동의 결과로 어간이나 어미가 규칙적으로 바뀔 수 있다.

- ㄱ. 브터(불어)~븐고, 노포라(높오라)~놉디, 안자(앉아)~앉거늘, 깃거(깃어)~깃노라, 업서~업고
- ㄴ. 푸디~파, 츄거늘~차셔, 쓰고~써, 크고~쿠디,
- ㄷ. ㄱ라(골아)~ㄱ느니, 사루시니(살으시니)~사더니, 아루쇼셔(알으쇼셔)~아습고
- ㄹ. 다루거늘~달아, 그르는~글옴, 오루시니~올아셔, 니르고져~닐어도
- ㅁ. 모루실씨~몰라, 부루고~불롬, 색르니라~谮라, 므루며~물롬
- ㅂ. 부스디~붓은, 비슨~빙어, 그스며~궁어

(ㄱ)은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는 연음이 되고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는 음절구조제약에 의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8종성으로 교체되거나 또는 자음군단순화를 겪어 자음이 하나 탈락한 경우이다.

(ㄴ)은 현대국어의 ‘— 탈락’의 전신인데, 중세국어는 ‘· / — 탈락’이라고 할 수 있다. 어간 끝이 ‘·’나 ‘—’인 용언은 모음 어미 앞에서 ‘· / —’가 탈락하여 ‘푸- + -아 → 파’나 ‘크- + -우디 → 쿠디’처럼 쓰였다.

(ㄷ)은 현대국어에도 보이는 ㄹ 탈락인데 현대국어보다 그 범위가 넓었다. 중세국어에선 ‘ㄴ,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끝 ㄹ이 탈락하였다. 따라서 ‘살다’의 어간 ‘살-’에 어미 ‘-니, -ㄴ, -디, -습-, -져’ 등의 어미가 결합하면 ‘사니, 산, 사디, 사습고, 사져’ 등으로 나타났다.

(ㄹ)과 (ㅁ)은 ‘ㄹ/르’로 끝나는 용언의 경우인데 모음 어미 앞에서 ‘o’와 ‘-’가 탈락하고 ㄹ이 앞 음절의 종성으로 내려간 후 (라)와 같이 ‘o[h]’이 첨가되거나⁷⁵⁾ (ㅁ)과 같이 ‘ㄹ’이 첨가된다. 즉 ‘다 ㄹ- + -아 → 달아’, ‘그르- + -옴 → 글옴’, ‘색 ㄹ- + -아 → 썰라’와 같이 활용되는 것이다. 현대 국어 문법을 배운 독자들이라면 이것이 일반적인 음운변동으로 설명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세국어 시기 ‘ㄹ/르’로 끝나는 용언 중 모음만 탈락하여 ‘*다라’나 ‘*기 러’와 같이 활용되는 용언이 존재하지 않았다. 현대 국어라면 ‘따라(따르- + -아)’, ‘치러(치르-+ -어)’와 같이 — 탈락을 하는 용언이 있으므로 불규칙 활용으로 보아야겠으나 중세국어에는 이러한 용언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하게 규칙 활용으로 보는 것이다.⁷⁶⁾ ㄹ 탈락이 불규칙 활용이 아닌 이유가 ㄹ 탈락 현상이 음절의 끝에 ‘ㄹ’이 있는 동사에 예외 없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ㄹ)과 (ㅁ)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이 주로 고려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ㅂ)도 같은 이유로 규칙 활용 용언으로 처리된다. 어간이 ‘ㅅ/스’로 끝나는 용언은 모두 모음 어미 앞에서 ‘-’와 ‘-’가 탈락하고 ‘ㅅ’이 종성으로 내려가고 o[h]이 첨가되었다.⁷⁷⁾

나. 어간 불규칙 활용⁷⁸⁾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바뀌는데 그 변화를 음운 변동으로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활용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이때 어간이 바뀌느냐 어미가 바뀌느냐에 따라 ‘어간 불규칙’과 ‘어미 불규칙’으로 나뉘는데, 우선 어간 불규칙 활용부터 알아보자.

나(1). ㅅ 불규칙 활용 (☆☆☆)

어간이 ‘ㅅ’으로 끝나는 일부 용언은 모음 어미 앞에서 ‘ㅅ’이 ‘-’으로 교체되었는데 이는 현대국어의 ㅅ 불규칙 용언의 전신이다. ‘짓다’의 어간 ‘짓-’은 자음 어미 ‘-고, -는, -습-’ 등과 결합할 때는 ‘짓-’으로 나타나지만, 모음 어미 ‘-어, -으니, -옴’ 등과 결합할 때는 ‘짓-’으로 나타난다. 즉 ‘짓 고/짓는/짓습고 ~ 지셔/지스니/지숨’ 따위로 활용한 것이다. ‘긋다, 낫다, 웃다, 젓다, 쯔다’ 등이 ㅅ 불규칙 용언이다. 이때, ‘벗다, 빛다, 솟다’ 등과 같은 어휘는 모음 어미가 오더라도 ‘-’ 대신 ‘ㅅ’만이 나타나므로 ㅅ 불규칙 활용을 설정할 수 있다.

나(2). ㅂ 불규칙 활용 (☆☆☆)

어간이 ‘ㅂ’으로 끝나는 일부 용언은 모음 어미 앞에서 ‘ㅂ’이 ‘-’으로 교체되었는데 이는 현대국어의 ㅂ 불규칙 용언의 전신이다. ‘돕다’의 어간 ‘돕-’은 자음 어미 ‘-고, -는, -습-’ 등과 결합할 때는 ‘돕-’으로 나타나지만, 모음 어미 ‘-아, -으니, -옴’ 등과 결합할 때는 ‘돕-’으로 나타난다. 즉 ‘돕 고/돕는/돕습고 ~ 도봐/도봉니/도봄’ 따위로 활용한 것이다. ‘덥다’, 곱다, 눕다, 갓갑다, 춥다, 눕 다, 쫓다, 엷다’ 등이 ㅂ 불규칙 용언이다. 이때, ‘곱다, 넓다, 잡다’ 등은 모음 어미가 오더라도 ‘-’ 대신 ‘ㅂ’만이 나타나므로 ㅂ 불규칙 활용을 설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ㅂ 불규칙 용언은 현대국어에서도 불규칙 활용을 보이나 ‘춥다’와 ‘엷다’ 등 일부 ㅂ 불규칙 용언은 현대국어로 넘어오며 규칙 용언으로 변하였다.

75) 음가 있는 o[h]을 인정하지 않으면 단순히 모음만 탈락하고 ㄹ이 종성으로 넘어간 것으로 본다.

76) 이를 불규칙 활용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여기선 고영근(2020)을 따라 규칙 활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77) 학계에선 이들을 특수어간교체 용언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78) 관련 기출로 19 7월 학평 13번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체’란 ‘음운 변동의 교체(대치)’가 아니라 이형태 를 기술할 때 쓰이는 ‘형태소의 교체’를 말한다. 자세한 것은 구본관 외(2015: 64)의 각주 36 참고.

나(3). ㄷ 불규칙 활용 (☆☆)

어간이 ‘ㄷ’으로 끝나는 일부 용언은 모음 어미 앞에서 ‘ㄷ’이 ‘ㄹ’으로 교체되었는데 이는 현대국어의 ㄷ 불규칙 활용과 동일하다. ‘묻다’의 어간 ‘묻-’은 자음 어미 ‘-고, -는, -습-’ 등과 결합할 때는 ‘묻-’으로 나타나지만, 모음 어미 ‘-어, -으니, -음’ 등과 결합할 때는 ‘물-’로 나타난다. 즉 ‘묻고/묻는/묻습고 ~ 무려/지르니/무룸’ 따위로 활용한 것이다. ‘묻다(問), 걷다(步), 듣다, 흔다, 듣다, 씨 달다, 아천다’ 등이 ㄷ 불규칙 용언이다. 이때, ‘안다, 믿다, 굳다’ 등과 같은 어휘는 모음 어미가 오더라도 ‘ㄹ’ 대신 ‘ㄷ’만이 나타나므로 ㄷ 불규칙 활용을 설정할 수 있다.

나(4). ㄱ 덧생김 활용 (☆)

어간이 ‘ㅁ/므’로 끝나는 용언의 경우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형태가 바뀌지 않지만 모음 어미 앞에서 ‘-’와 ‘-’가 탈락하고 ㅁ이 앞 종성으로 이동하고 ㄱ이 덧났다. ‘시므다’의 경우, ‘시므-’에 ‘-고’가 결합하면 ‘시므고’로 쓰였지만 ‘-어’가 결합하면 ‘심거’로 쓰였다. 즉 ‘시므-’가 모음 어미 앞에서 ‘심-’으로 교체된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용언으로 ‘시므다’ 외에도 ‘너므다’, ‘나므다’, ‘조므다’, ‘둣므다’ 등이 있다.⁷⁹⁾

나(5). 기타 개별 어간의 활용 (☆)

중세국어 시기에는 개별 어휘에만 국한된 불규칙 활용이 보이기도 하였다. ‘이시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는 ‘이시-’로 쓰이지만, 자음 어미 앞에서는 ‘잇-’으로 나타난다. 즉 ‘이셔/이쇼니~잇고/잇더니’ 등의 활용을 보였다. ‘녀다’는 일반적인 상황에선 ‘녀-’로 나타나나, ‘거’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니-’로 교체된다. 즉 ‘녀/녀실~니거늘/니거시니’ 등의 활용을 보인다.

더 알아보기: ㅅ, ㅂ 불규칙 활용과 규칙 활용⁸⁰⁾

앞서 언급한 ㅅ 불규칙 활용과 ㅂ 불규칙 활용을 불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것으로 보고 아예 ㅅ/ㅂ 불규칙 활용을 설정하지 않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 경우 어간이 ‘ㅅ’과 ‘ㅂ’으로 끝난다고 보지 않고 ‘ㅈ’과 ‘ㅌ’으로 끝난다고 본다. 즉 어간의 기본형을 ‘짓-’, ‘돕-’으로 보지 않고 ‘짚-’, ‘돌-’으로 보고 이들 어간이 ‘짓-’과 ‘돕-’으로 교체된다고 보는 것이다.

어째서일까? 우선 현대국어 ‘짚다’를 생각해 보자. 현대국어에서 기본형은 모음 앞의 발음 형태이다. /지퍼(짚어)/, /지픈(짚은)/ 등을 고려하여 어간을 ‘짚-’으로 처리하고 ‘집고’를 ‘짚>집’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절말 평폐쇄음화)으로 설명한다. 이와 똑같이 보는 것이다. 중세국어의 ‘돕고’와 ‘도박’를 볼 때 모음 앞 발음 형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본형을 ‘돌-’으로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돕고’를 ‘돌→돕’ 즉 ‘ㅌ→ㅂ’이라는 소위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ㅌ→ㅂ’은 일반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처리 방식을 긍정한다면 ‘덥-’으로 보지 않고 ‘덥-’으로 보고 규칙 활용의 영역에서 다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ㅅ 불규칙도 마찬가지이다. ‘ㅈ’

79) ‘ㅁ/므’로 끝나는 용언 중 ㄱ 덧생김이 보이지 않는 용언은 없으므로 만약 ㄹㅇ, ㄹㄹ, ㅈㅇ류 용언을 규칙 활용으로 볼 것이라면 그 덧생김도 규칙 활용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배주채(2000:169)). 이들 모두 불규칙 활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고영근(2020)과 임지룡 외(2020), 그리고 과거 국정 교과서에서 ‘시므다’를 불규칙 활용으로 보았으므로 일단 이를 따랐다.

80) 관련 기출로 17 6평 11-12번이 있다. 26학년도 수완 실전모의고사 5회에는 규칙 활용으로 보는 지문형 문제를 출제하였다. 전은주 외(2025:218)에선 전통적인 처리와 달리 ‘눕-’ 대신 ‘눌-’을 기본형으로 보았다.

이 ‘ㅅ’으로 바뀌는 것 역시 보편적인 음운 규칙이 될 수 있다. ‘짚→짓’, ‘돌→돕’ 등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반면 그 반대 변화인 ‘짓→짚’, ‘돕→돌’은 필수적인 변화가 아니다. 물론 고영근(2020)을 비롯한 전통적인 논의에서는 불규칙 활용으로 보지만, 규칙 활용으로 볼 여지 역시 존재한다.⁸¹⁾

다. 어미 불규칙 활용 (☆☆)

다(1). 약 불규칙 활용

‘-아/어’계 연결어미가 ‘ㅎ다’의 어간 ‘ㅎ-’ 뒤에서 ‘-야’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ㅎ다’뿐 아니라 ‘스랑ㅎ다’나 ‘간난ㅎ다’ 등의 ‘ㅎ다’ 통합형 용언에도 보인다. 즉 ‘ㅎ- + -아/어’가 ‘하’가 아니라 ‘ㅎ야’로 쓰이는 것이다. 현대국어의 여 불규칙 활용의 전신이다.

다(2). ‘ㄷ’류 어미의 교체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서술격조사와 선어말어미 ‘-리-’, ‘-니-’ 뒤에서 ‘ㄹ’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ㄷ’으로 시작하는 ‘-다, -더-, -도-, -다가’ 등의 어미가 ‘-라, -려-, -로-, -라가’ 등으로 교체되었다. ‘ㅎ리다, ㅎ리도다, ㅎ리더니’ 등은 쓰이지 않고 ‘ㅎ리라, ㅎ리로다, ㅎ리려니’ 등으로 쓰였다. 서술격조사도 ‘이다, 이더니, 이다가’ 등은 쓰이지 않았고 ‘이라, 이러니, 이라가’ 등으로 쓰였다.

다(3). ‘오’류 어미의 교체

‘오/우’로 시작하는 어미나 선어말어미 ‘-오/우-’가 서술격조사 뒤에서 ‘로’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이- + -옴 → 이그옴’과 같이 ‘오/우’가 그대로 나타났으나 서술격조사의 경우 ‘이- + -옴 → 이롬’, ‘이- + -오디 → 이로디’, ‘이- + -오- + -ㄴ → 이론’과 같이 쓰였다.

다(4). ‘아/어’류 어미의 교체(거 불규칙, 나 불규칙)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나 선어말어미 ‘-아/어-’가 자동사 뒤에서 ‘거/가’로 교체되고 동사 ‘오다’ 뒤에서 ‘나’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받다’나 ‘먹다’와 같은 타동사의 경우, ‘-아늘/어늘, -아-/어-’가 결합한 경우 ‘바다늘, 바다다, 머거늘, 머거다’와 같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았다’와 같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의 경우 ‘았거늘’, ‘았거든’, ‘았거다’와 같이 활용되었고, 특별하게 ‘오다’의 경우엔 ‘오나늘, 오나둔, 오나다’와 같이 활용되었다. 이들은 과거에 인정되었던 거라 불규칙 활용과 너라 불규칙 활용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⁸²⁾

더 알아보기: 이형태와 불규칙 활용

이형태란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교체는 음운론적 조건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특정 형태소와 결합할 때만 나타나는 형태론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불규칙 활용은 용언의 활용 체계에서 일반적인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활용형을 묶어 둔 범주이다. 불규칙 활용은 기술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ㅎ다’ 뒤

81) 불규칙활용을 피력하는 연구로 고영근(2005)이, 규칙활용을 피력하는 최근 논의로 고경재(2023)가 참고된다

82) 2017년 어문 규범 개정과 함께 ‘-거나/너라’ 불규칙 활용이 삭제되었다.

에서 연결어미가 ‘-야’로 실현되는 것은 특정 어간 뒤에서만 나타나는 형태론적 조건에 따른 이형태인데, ‘-호야’를 “야 불규칙 활용에 의해 ‘-야’가 쓰여 ‘-호- + -야’인 것”으로 바로 분석할 수도 있고 “‘-호- + -야’에서 야 불규칙에 의해 ‘야’로 교체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어미의 불규칙 활용도 마찬가지이다. ‘-아/어 vs 야’나 ‘-어- vs -거-’, ‘-다 vs -라’ 등은 각각 형태론적 이형태의 관계인데 기본형 설정에 따라 설명 방식이 두 가지가 된다.

이형태들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기본형을 설정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형에서 다른 이형태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현재는 그런 이형태 모두를 기본형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널리 퍼져 있다. 가령 현대의 국어사전은 음운론적 이형태 관계를 이루는 주격조사 ‘이’와 ‘가’ 모두 기본형으로 삼고 ‘나무+이’가 ‘나무+가’로 교체된다고 기술하지 않고, 애초부터 ‘나무+가’인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어미 불규칙 활용의 경우, 단일 기본형을 잡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⁸³⁾ 여기서는 평가원 기출에서 서술격조사의 기본형을 ‘이다’ 대신 ‘이라’로 잡은 것을 고려하여 종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이형태에 한해서 하나의 기본형을 설정하지 않고 동등하게 모두 기본형인 것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를 ‘이/가’로 표현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형태를 도출하기 어려운 어미를 ‘-오/우/로-’, ‘-어/거-’, ‘-도/로-’와 같이 표현하겠다. 용언 어간은 기본형이 사전에 하나만 등재되므로 이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학교문법의 처리와 동일하게 하나의 기본형만을 잡겠다. 즉 이 책에서는 ‘덥다’, ‘짓다’, ‘시므다’ ‘이시다’, ‘녀다’가 기본형이다.

더 알아보기: ‘ㄱ’류 어미의 교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ㄹ이나 반모음 j로 끝나는 어간과 서술격조사, 선어말어미 ‘-리-’와 ‘-니-’ 뒤에서 ‘o[h]’로 교체되는 현상을 어미 불규칙 활용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드외- + -고 → 드외오’, ‘이- + -거늘 → 이어늘’, ‘-리- + -거늘 → 리어늘’과 같이 ‘ㄱ’으로 시작하는 ‘-고, -거늘’ 등의 어미가 ‘-오, -어늘’ 등으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같은 ‘ㅣ’ 모음으로 끝나는 말이라도 위의 조건이 아니면 ‘o’으로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 즉 ‘가지다’의 어간 ‘가지-’는 ‘-고’가 결합하더라도 ‘가지고’로 나타났다. 그런데 활용 시 ‘ㄹ’과 ‘j’ 뒤에서의 ㄱ 약화는 공시적인 음운 변동이었는데 이를 불규칙 활용의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가? 불규칙 활용은 말 그대로 일관되게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불규칙인 것이다. 그런데 ‘ㄱ 약화’를 음운 변동으로 설정하면 이를 용언에 적용할 시 불규칙활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ㄹ’과 ‘j’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의 ㄱ 약화를 불규칙활용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ㄱ 약화는 형태·음운론적 현상이므로 학교문법 체계에 입각하여 서술하려면 음운론적 ㄱ 약화와 형태론적 ㄱ 약화를 분리하여 서술하는 것이 합당하다.⁸⁴⁾ 이러한 관점에서는 서술격조사와 일부 선어말어미 뒤에서의 ㄱ 약화는 형태론적 환경이므로 불규칙 활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것은 ‘3.3.2.4의 더 알아보기’에서 후술.

라. 어미의 체계 (☆☆)

중세국어의 어미도 현대국어와 같이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눌 수 있는데, 선어말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쓰여 문장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 어말어미는 용언 활용의 끝에 오는 어미를 말한다. 어말어미는 문장을 끝맺는 종결어미,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미,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전성어미로 나뉜다.⁸⁵⁾

83) 물론 기본형을 잡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84) 서술격조사와 일부 선어말어미의 음가를 이중모음 /ij/로 잡아 음운론적 현상으로 일관되게 설정할 방법도 있겠으나 학교문법에서 /ij/를 설정하기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갈래		한 라체	한 야써체	한 쇼셔체	반말
평서형		–다, –니라 –(오)마(약속)	– Ningda	–이다	–니, –리
의 문 형	직 접 의 문	1.3인칭 〈판정〉 –녀(–니여, –니야, –니아) –려(–리여, –리야, –리아) 〈설명〉 –뇨(/–니오), –료(/–리오)	–닛가 –릿가	〈판정〉 –니잇가, –리잇가 〈설명〉 –니잇고, –리잇고	–니 –리
		2인칭 –ㄴ다 –ㄹ다			
	간접의문		〈판정〉 –ㄴ가, –ㄹ가 〈설명〉 –ㄴ고, –ㄹ고		
명령형		–라	–어써	–쇼셔	–고라
청유형		–져/–자, –져라		–사이다	
감탄형		–도다 –ㄴ데, –ㄹ써 –게라/–에라/–애라	–ㄴ데		

종결어미. 임지룡 외(2020:408)

갈래	세부 갈래	어미 용례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	–고, –며, –며서; –거나 ~–거나 ; –나, –ㄴ마른 등
	종속적 연결어미	–니, –매 ; –면, –거든; –거늘, –ㄴ더; –라, –려, –고져 등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 –게/–에, –그/–의, –기/–이 ; –디; –고

임지룡 외(2020:409)

갈래	세부 갈래	어미 용례
전성어미	명사형 어미	–옴/–움; –기; –디
	관형사형 어미	–ㄴ; –ㄹ

임지룡 외(2020:409)

85) 몇몇 종결어미는 학자마다 설정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란다. 자세한 것은 통사론에서 후술.

선어말어미는 시제, 높임 등의 문법적 의미 또는 감동, 확인 등의 서법적 의미를 드러낸다.

갈래	기본형태	이형태 및 사용조건	용례
주체 높임	-(으)시-	-시-: 자음 앞	가시고, 가시면, 가시뇨, 가시니이다, 가시던
		-샤-: 모음 앞	가샤, 가샤되, 업스샀다, 지스챤, 올무샴
객체 높임	-습-	-습-: ㄱ, ㅂ, ㅅ, ㅎ 뒤	막습고, 업습써늘, 둡습고, 쪽스방뇨, 저쓰방(절-+-습-+-아)
		-좁-: ㄷ, ㅈ, ㅊ, ㅌ 뒤	듣좁고, 안쪽방시니(앉-+좁-+-아시니), 조짜방(좇-+-좁-+-아), 골좁느니라(골-+-좁-+-느니라)
		-습-: 유성음 뒤	보습건댄, 말이습거늘, 안수방, 아수방(알-+-습-+-아)
상대 높임	-(으)이-	-이-: 평서형	아니이다, 잇느이다, 오소이다
		-잇-: 의문형	그러흐리잇가, 흔니잇가, 흔시느니잇고

임지룡 외(2020:404)

갈래	형태	용례
현재	-느-	가느니, 묻느다, 브르시느다, 둡노니(돕-+-느-+-오-+-느)
과거	-더-	드외더라, 잇더니, 나아오던덴, 後 러라(後 -+-더-+-라); 흔다니
미래	-리-	술펴보리라, 어드리오, 사ㄹ미리오, 가시시리여, 여희리이다

임지룡 외(2020:405)

또,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선어말어미가 많았는데 인칭법과 대상법에 쓰인 ‘-오/우-’, [확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 [원칙]을 나타내는 ‘-나-’, [감동]을 나타내는 ‘-웃-, -돛-, -ㅅ-’ 등이 쓰였다. 어미의 자세한 기능은 통사론 단원에서 제대로 다룰 예정이니 여기서는 간단히 목록만 제시하도록 한다.

선어말어미는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고 동시에 실현될 수 있었는데 그 결합 순서가 대체로 정해져 있었다. [객체 높임 - 과거 시제 - 주체 높임 - 현재 시제 - 화자 표시 - 미래 시제 - 감동 - 원칙 - 상대 높임]의 순서였는데 이는 상대적인 위치를 제시한 것이다. 자세한 것이 궁금하다면 스스로 통사론 단원에서 그 순서가 어떻게 쓰였는지 분석해 보자.

3.3.1.5 수식언

가. 관형사 (☆☆)

관형사는 체언의 내용을 수식해 주는 품사로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체언을 어떤 의미로 꾸며주느냐에 따라 지시 관형사, 성상 관형사, 수 관형사로 나눌 수 있는데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고유어 계통의 관형사는 그 수가 매우 적다.

- ㄱ. 이 곧 데 고대 後△날 다른리잇가
- ㄴ. 眞金은 진딧 金이라
- ㄷ. 連環은 두 골회 서르 니슬씨라

(ㄱ)의 ‘이’와 ‘데’는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지시관형사로 ‘그, 어누, 므슈’ 등이 있다. (ㄴ)의 ‘진딧’은 ‘순수한’을 의미하는 관형사로 체언의 모양, 상태, 성질을 자세히 나타내는 성상관형사에 속한다. ‘새, 헌, 옛, 외’ 등이 있다. (ㄷ)의 ‘두’는 ‘二’를 뜻하는 관형사로 수를 나타내는 수관형사이다. ‘흔, 세/서/석, 네/너/넉, 다/다/단, … 스물/스물, … 온, 즈믄’ 등이 있다.

나. 부사 (☆☆)

부사는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해 주는 품사로 일반적으로는 조사가 결합하지 않지만 일부 보조사가 결합하기도 한다. 문장에서의 기능에 따라 한 성분만 수식하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로 나눌 수 있다. 성분 부사로는 ‘그르, 뭇, 더욱, 노피, ㅋ장, 아모리, 아니’ 등이 있고, 문장 부사로는 ‘모로매, 모디, 그러나, 그리고, 및’ 등이 있다.

3.3.1.6 관계언: 조사

조사는 체언에 붙어 여러 가지 문법적 관계나 특수한 의미를 표현하는 말인데, 중세국어의 조사도 현대국어와 같이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로 나눌 수 있다. 체언의 말음에 따라 교체되는 것은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모음이 양성모음인지 음성모음인지 고려되어 조사가 달리 쓰였다. 현대국어와 같이 조사가 생략된 경우도 빈번히 관찰된다.

가. 격조사 (☆☆☆)

가(1). 주격 조사

환경에 따라 ‘이/ | / Ø’가 쓰였고, 중세국어 시기에는 ‘가’가 쓰이지 않았다. ‘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는 ‘|’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Ø’는 모음 ‘|’ 또는 반모음 ‘j’로 끝나는 체언 뒤에 나타났다. 한자어 뒤에는 ‘|’를 그대로 썼다.

- (1) 냉+이 이려 → 내히 이려
- (2) 부텨+ | 니른샤디 → 부텨 니른샤디
- (3) 불휘+Ø 기픈 → 불휘 기픈
- (4) 孔子+ | 니른샤디 → 孔子 | 니른샤디

가(2). 보격 조사

형태가 주격조사와 동일하다. 선행 체언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이/ | / Ø’가 쓰였고 ‘ㄷ븨다(>ㄷ외다)’와 ‘아니다’ 앞에서만 나타난다.

가(3). 서술격 조사

선행 체언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이라/ | 라/∅라’가 쓰였다.⁸⁶⁾ 주격조사와 동일한 환경에 따라 조사가 달리 나타났는데 앞서 언급했듯 서술격조사 뒤에서는 여러 어미가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서술격조사는 다른 조사와 달리 활용이 가능하다. ‘이라/ | 라/∅라’의 어간은 ‘이-/ | -/∅-’인 것이다.

- (1) 뿐 + 이- + -니 → 뿐더니
- (2) 부텨 + | - + -라 → 부텨라
- (3) 한 가지 + ∅- + -라 → 한 가지라

가(4). 목적격 조사

목적격조사로는 ‘를/를, 읊/을, 르’이 쓰였는데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이냐 모음이냐 그리고 또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 달리 선택되었다. ‘모수물(모숨을), 법을’과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은 모음조화에 따라 ‘을/을’이, ‘나를, 부터를’과 같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은 모음조화에 따라 ‘를/를’이 쓰였다. ‘르’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라면 모음과 상관없이 결합할 수 있었고, ‘|’는 중성모음이기 때문에 ‘를/를’이 모두 쓰였다. 그러나 이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았기에 예외적인 표기가 종종 보이기도 한다.

가(5). 관형격 조사

관형격조사는 ‘이/의, ㅅ, |’가 쓰였는데 주로 보이는 것은 ‘이/의’와 ‘ㅅ’이다. ‘이/의’는 평칭의 유정물 즉 높일 필요가 없는 유정물에게 모음조화에 따라 달리 선택되었고, 유정물이더라도 ‘부텨’, ‘세존’과 같이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ㅅ’이 쓰였다. ‘ㅅ’은 존칭의 유정물 말고도 무정물인 경우에도 선택되었다. ‘|’는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유정물 뒤에 쓰였다. 이때 ‘ㅅ’은 선행 체언이 공명음(모음 + 공명자음)인 경우에만 쓰였고 ‘이/의’는 선행 체언의 끝소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쓰였다. ‘ㅅ’은 앞서 표기법 단원에서 언급했듯이 표기상의 문제로 따지면 ‘ㅅ’은 명사구/합성명사의 사잇소리를 나타내는 ‘사이시옷’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형태론적으로 고려하면 관형어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관형격조사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둘을 구별하려는 시도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둘을 구별하기 무척 어려우니 여기서는 별개의 층위에서 분석하여 나온 결과로 해석한다. 관형격조사의 특별한 쓰임이 있기도 한데 이는 통사론의 문장성분 단원에서 다루도록 한다.

가(6). 부사격 조사

부사격조사는 현대국어와 같이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므로 특정 조사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간단히 표로만 제시한다. ‘애/에/예’는 현대국어의 ‘애’에 대응하는 조사로 양성모음에는 ‘애’가, 음성모음에는 ‘에’가, 모음 ‘|’나 반모음 ‘j’에는 ‘예’가 쓰였다. ‘이/의’는 관형격조사와 형태가 동일하지만 부사격조사로 쓰이는 조사로 이러한 부사격조사만을 취하는 체언을 특이처격어라고 한다. 현대국어와 달리 인용의 부사격조사는 보이지 않는다.

86) ‘이다/ | 다/∅다’라고 기술할 수도 있겠지만 18 6평 15번과 21수능 15번에서 ‘다’가 아니라 ‘라’로 기술하였다. ‘-다’와 ‘-라’가 형태론적 이형태이기 때문에 기본형을 ‘다’ 대신 ‘라’로 쓰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	의미	용례
애/에/예	처소	내히 이려 바른래(바를+애) 가느니
	시간	勸進之日에 平生 그 뿐
	비교(기준)	나랏말쓰미 中國에 달아
	원인, 이유	도적에 도라갈 길히 업스니
의/의	처소	무트(물+의) ... 靑蓮花 나며
	시간	나진(낮+의) 하늘해 오르며
애셔/에셔/예셔 이셔/의셔	출발점	이베셔(입+에셔) 靑蓮花へ 香내 나며
으로/으로/로	지향점, 재료, 도구, 방법, 자격	漢字로 몬져 그를 맹골오 天尊으로 겨ษา 侍病旱샤
과/와	비교, 동반	사름과 그티 너기시니
이/丨/∅, 두고, 도곤/두곤, 라와	비교	그 른매 비취요미(비취음+의) 곤 흐니라
		光明이 히들두고 더으니
		이비 블라와 더으니
의/의게, 이/의그에, 썩	수여, 수취	부텨그와 중의게 布施旱리도
		夫人썩 솔부샤다

가(7). 호격 조사

호격조사는 ‘아, 야/여, 하’가 쓰였다. 이중 ‘아’와 ‘야/여’는 높일 필요가 없는 평정의 대상을 부를 때 쓰였고, ‘하’는 ‘님금’과 같이 높여야 하는 존칭의 대상을 부를 때 쓰였다. ‘아’는 선행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이든 모음이든 쓰일 수 있었지만, ‘야/여’는 선행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야만 쓸 수 있었다. ‘이여’도 쓰였다.

지금까지 다룬 격조사 중 주요 조사들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⁷⁾

87) 조사는 역대 평가원·교육청 기출에서 가장 자주 출제된 분야이며 장지문뿐 아니라 단순 지식형 문제에서도 출제되곤 한다. 240939, 240639, 2211 장지문, 220939, 210613 등 평가원 기출에서만 해도 무척 빈번하며, 교육청 학평 기출에서도 중세국어 조사는 한해에 거의 두 번은 필수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조사	형태	환경	용례
주격 조사	이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사룸 + 이 → 사루미
		' '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부텨 + → 부테
	∅	모음 ' ' 또는 반모음 'j'로 끝나는 체언 뒤	불휘 + ∅ → 불휘
보격 조사	이/ /∅	'드 ^ㅓ 다(>드외다)'와 '아니다' 앞에서	
목적격 조사	을/을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곶 + 을 → 고줄
	를/를, ㄹ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부텨 + 를 → 부텨를
관형격 조사	이/의	비존칭의 유정물 체언 뒤	범 + 의 → 범의
	ㅅ	존칭의 유정물 또는 무정물 체언 뒤	부텨 + ㅅ → 부텨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유정물 체언	臣下 + → 臣下 , 나 + → 내
부사격 조사	애/에	모든 체언 뒤	그릇 + 에 → 그르세
	이/의	일부 체언 뒤	집 + 의 → 지비
서술격 조사	이라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일훔 + 이라 → 일후미라
	라	' '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바 + 라 → 배라
	∅라	모음 ' ' 또는 반모음 'j'로 끝나는 체언 뒤	머리 + ∅라 → 머리라
호격 조사	아	비존칭 체언 뒤	彌勒 + 아 → 彌勒아
	야/여, 이여	모음으로 끝나는 비존칭 체언 뒤	阿逸多 + 야 → 阿逸多야
	하	존칭 체언 뒤	님금 + 하 → 님금하

나. 접속 조사 (☆☆)⁸⁸⁾

중세국어의 접속조사는 현대국어처럼 '과/와'가 대표적으로 쓰였다.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과'가 선택되었고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와'가 선택되었다. 이때, 체언의 끝소리 자음이 ㄹ이라면 'ㄱ 약화'에 의해 'o[h]'으로 교체되어 '와'로 표기되었다⁸⁹⁾.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은 접속조사가 쓰일 때 앞 체언과 뒤 체언에 모두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현대 국어라면 '철수가 A와 B를 먹다'겠지만 중세 국어는 '철수가 A와 B와를 먹다'와 같이 쓰였다는 것이다. 현대국어처럼 앞 체언에만 접속조사가 결합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뒤 체언에도 결합하였다. 이외에도 'ㅎ고, (이)며, (이)여' 등도 접속조사로 쓰였다.

- ㄱ. 혀와(혀+와) 엄과(엄+과) 니와(니+와+ |) 다 도^ㅎ며 [혀와 어금니와 이가 다 좋으며]
- ㄴ. 짜콰(쌓+과) 물와(물+과) 브^ㅎ름콰라(브^ㅎ름+과+ | 라) [쌓과 물과 바람이다]

88) 관련 기출로 22 7월 학평 장지문이 참고된다.

89) 여기서는 접속조사의 출현 환경이 현대국어와 동일하다고 보겠다. 즉 자음이라면 항상 '과'가, 모음이라면 '와'가 선택되었는데 ㄹ 뒤에서는 음운변동에 의해 음소적 표기를 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2.3.2.4의 더 알아보기' 참고.

다. 보조사 (☆)

보조사는 특정 격을 나타내기보다는 여러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데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화제]나 [대조] 등을 나타내는 ‘는/는, 은/은, ㄴ’, [역시] 등을 나타내는 ‘도’, [강조]를 나타내는 ‘사’와 ‘곳/옷’, ‘곰/옴’, ‘으란’, [각자]를 나타내는 ‘마다’, 등이 쓰였다. 또, 의문을 나타내는 보조사 ‘고/오, 가/아’도 쓰였다. 보조사는 체언, 활용형, 부사 뒤 등 다양하게 결합했다.

3.3.1.7 독립언: 감탄사 (☆)

독립언에는 감탄사뿐인데, 감탄사는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다만 용례가 많지 않아 포괄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이, 아으, 엹, 아소’ 등의 감탄사가 확인된다. ‘이’는 슬픔이나 놀람을 나타내고 ‘아으’는 ‘아이구, 아아’를 뜻한다. ‘엡’은 확인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예’와 같은 기능을 하고, ‘아소’는 ‘맙소사’라는 뜻이다.

3.3.1.8 품사의 통용 (☆☆)

중세국어 역시 현대 국어와 같이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여러 품사로 아울러 쓰이는 것을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중세국어는 두 가지 품사로 쓰이는 품사 통용과 세 가지 품사로 쓰이는 품사 통용이 주로 다뤄진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아보자.

가. 두 가지 품사 통용

단어	품사	용례
아니	명사	숟가락 <u>아니</u> 와애 (숟가락 <u>아닌</u> 것에서)
	부사	부르매 <u>아니</u> 월씨 (바람에 <u>아니</u> 움직이므로)
이/그/여	대명사	덜마다 본디 (전마다 본디)
	관형사	그 괴별 드르시고 (그 기별 들으시고)
엇데	부사	엇데 업스신가 (어찌 없으신가)
	대명사	엇데어뇨 흐란디 (어찌 일인가 하면)
닐굽 ⁹⁰⁾	수사	솜바울 닐굽과 (솔방울 일굽과)
	(수)관형사	닐굽 고줄 (일굽 꽃을)
즐겁다	형용사	즐거 ^뿐 뽐니 (즐거운 뜻이)
	동사	便安을 즐겁거든 (평안을 즐거워하거든)
진딧	관형사	眞金은 진딧 金이라 (眞金은 진실된 금이다)
	부사	진딧 업수미 아니니 (진짜 없음이 아니니)

90) ‘닐굽’뿐 아니라 ‘다솟, 여돐’ 등 여러 수사들은 수사와 수관형사로 품사통용을 한다.

형용사-동사 품사 통용은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하다, 붙다, 둉다, 고깝다’ 등 많은 형용사들은 중세국어에선 동사로도 쓰였다. 선어말어미 ‘-느-’를 취하기 때문인데, 보통 상태변화의 의미를 지닌다고 파악한다. 즉 ‘하다’와 ‘붉다’는 각각 형용사라면 ‘많다’와 ‘밝다’를, 동사라면 ‘많아지다’와 ‘밝아지다’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다.⁹¹⁾

나. 세 가지 품사 통용

단어	품사	용례
새	명사	새를 맛보고 (새것을 맛보고)
	관형사	져비는 새 기슬 (제비는 새 깃을)
	부사	새 出家한 사루미니 (새로 출가한 사람이니)
어느	대명사	어느 從후시려뇨 (어느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관형사	어느 뉘 請하니 (어느 누가 청한 것입니까?)
	부사	迷惑 어느 풀리 (미혹을 어느 풀리?)

3.3.2 단어의 구조와 형성

중세국어의 단어와 형태소의 결합은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소 다른 점이 존재한다. 중세국어의 단어도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뫼’, ‘하늘’과 같은 더 이상 형태소를 분석할 수 없는 단일어, ‘티디르다’, ‘날이다’와 같은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 ‘밤낮’, ‘죽살다’와 같은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분류될 수 있다.

3.3.2.1 합성법 (☆☆)

둘 또는 그 이상의 어근을 결합하여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합성법이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이때 결합된 단어의 순서가 우리말의 통사구조와 일치하면 통사적 합성어라고, 그렇지 않다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중세국어의 합성어의 경우, 명사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잘 보이지 않으나 용언은 비통사적 합성어가 활발히 쓰였다. 합성부사와 합성관형사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다. 합성명사와 합성용언만 간단히 표로만 보고 가자.

가. 합성 명사

명사+명사	똥오줌, 옷밥, 므쇼(믈+쇼), 바느실(바늘+실), 쇠불, 밤낮
명사+조사+명사	빗믈, 끓새, 쇠고기(쇼+ㅣ+고기), 둘기앓(늙+이+앓), 귀옛골회
관형사형+명사	뜯머리, 늘그니(늙은+이), 주물쇠, 한아비
관형사+명사	요소시, 떠즈음, 외첨
어간+명사 ⁹²⁾	찢돐(찢-+돐), 두디쥐(두디-+쥐), 붉쥐(붉-+쥐)

91) 다만 이를 품사통용으로 보지 않고 ‘-느-’의 특성으로 보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박진호(2019)가 참고되며 제주 방언에 비슷한 용법이 있다고 본 고영진(2007)도 참고된다.

나. 합성 용언

명사+용언	합성동사	물들다, 빛나다(빛+나다), 길잡다, 녀름짓다, 물좀다
	합성형용사	힘세다, 말굳다, 값없다, 맛나다
연결형+용언	합성동사	니려셔다, 아라듣다, 나사가다,
	합성형용사	
어간+용언	합성동사	빌먹다, 솟나다, 듣보다, 거두들다, 값돌다
	합성형용사	도콧다(돛-+콧-), 어위크다, 검붉다

3.3.2.2 파생법⁹³⁾

어근에 접사를 붙여서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파생법이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이때 어근 뒤에 붙는 접미사가 결합하면 ‘접미 파생어’라 하고, 어근 앞에 붙는 접두사가 결합하면 ‘접두 파생어’라고 한다. 여기서는 접미 파생법 위주로 살펴 보도록 하자.

가. 파생 명사 (☆☆☆)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명사 파생 접미사는 용언 어근에 결합하는 ‘-옴/음’과 ‘-이/의’가 있다.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모음에는 ‘-옴’과 ‘-이’가, 음성모음에는 ‘-음’과 ‘-의’가 결합한다.

명사 파생 접미사	출현 환경	용례
-옴/음	동사 어근 뒤	여름(열-+-음), 거름(걷-+-음), 뜨침(돛-+-옴)
-이/의	형용사 어근 뒤	노찌(높-+-이), 키(크-+-의), 기리(길-+-의)

‘-옴/음’은 명사형 전성 어미인데, 따라서 ‘춤’과 ‘우름’ 등은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동사의 명사형이 굳어져 하나의 명사로 쓰이게 된 것이다.⁹⁴⁾

이외에도 ‘놀애(놀- + -애), 받개(받- + -개), 둑게(돛- + -게)’ 등에서 보이는 ‘-개/게’, ‘둘애(두르- + -애), 부체(붓- + -에)’ 등에서 보이는 ‘-애/에’, ‘무덤(묻- + -엄), 주검(죽- + -엄)’ 등에서 보이는 ‘-엄/암’, ‘이바디(이받- + -이), 하리(할- + -이)’ 등에서 보이는 ‘-이’, ‘불무질(불무+ -질)’ 등에서 보이는 ‘-질’ 등이 보인다.

나. 파생 부사 (☆☆)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부사 파생 접미사는 용언 어근에 결합하는 ‘-이/] ’과 ‘-오/우’가 있다. ‘올 히](옳-+-이), 불기(붉-+-이), 조비(좁-+-이), 해(하-+-]), 오래(오라-+-]), 슬피(슬프-+-])’ 등이

92) 성조가 불일치한다는 문제가 있으나 단어 형성 시의 변화로 보인다.

93) 파생법에 대한 쟁점은 국어사학회의 2021년 21호 학술지가 참고된다. 관련 기출로 22수능이 있다.

94) 임지룡 외(2020)에서는 학교문법에서 다루는 명사화 접미사는 ‘-옴/음’이라고 설명하나 19 6평 11-12에선 접미사 ‘-옴/음’을, 어미 ‘-옴/음’을 제시하였다. 고영근(2020)에서는 ‘춤’과 ‘우름’을 파생어로 설명하기 위해 어미 ‘-옴/음’과 형태가 동일한 접미사 ‘-옴/음’을 인정한다.

그러한데, 끝소리가 자음이면 ‘-이’가, 모음이면 ‘-ㅣ’가 결합하였으며 끝 모음이 ‘· / —’이면 ‘ㅣ’ 앞에서 탈락했다. ‘-오/우’는 ‘비르수(비릇-+-우), 갓고로(갓글-+-오), 마조(맞-+-오),’ 등에서 보인다.

다. 파생 동사 (☆)

중세국어 시기에는 동사 접미사로 피사동접사가 주로 쓰였으나 이는 통사론의 피사동 단원에서 다루도록 한다. 강세접미사 ‘-밭/왈-’, ‘-티-’, ‘-혀(혀)-’가 결합하여 동사가 파생되기도 했다. ‘니르 받다, 내빈다, 세월다’, ‘열티다’, ‘기우리혀다, 드위혀다, 니르혀다’ 등이 있다.

라. 파생 형용사 (☆☆)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형용사 파생 접미사는 동사 어근에 결합하는 ‘-/-부/브/ㅂ-’가 있다. 동사 어근의 말음이 모음이면 ‘밉다(미-+-ㅂ-), 노흡다(노흐-+-ㅂ-)’과 같이 ‘-ㅂ-’이⁹⁵⁾ 쓰였고, 자음으로 끝나면 ‘밀브다(밀-+-브-), 깃브다(깃-+-브-), 알푸다(앓-+-부-)'와 같이 ‘-부/브-’가 쓰였다. 다만 ㅅ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은 ‘웃쁘다’와 같이 ‘-브-’가 예외적으로 ‘쁘’로 쓰였다.⁹⁶⁾

이외에도 ‘-압/업-’도 흔히 쓰였는데 끝 모음이 ‘ㅣ’인 동사 어근과 결합할 시 ‘ㅣ’가 탈락하였다. ‘앗갑다(앗기-+-압-), 즐겁다(즐기-+-업-), 므겁다(므기-+-업-)' 등이 있다. 동사 어근에 붙는 ‘-갑/겁-’과 체언에 붙는 ‘-돕/롭-’⁹⁷⁾도 쓰였는데, ‘맞갑다(맞-+-갑-), 시름돕다(시름- -돕-)' 등이 있다.

마. 접두 파생 (☆)

접두사는 크게 다뤄지지 않는 주제이므로 대표적인 접두사 몇 가지만 알아보고 가자.

접두사	의미	용례
글-	배가 흰	글가마괴/글아마괴, 글거미
댓-	크고 억센	댓무수, 댓글리, 댓글자지, 댓글러기
출-	찰기가 있는	출콩, 출기장, 출발, 출째
아초-	작은	아초아돌, 아초설
가쁜-	걸쳐	가쁜드드다, 가쁜늘다
티-	위로 올라가게	티ㅊ다, 티소다, 티디르다

3.3.2.3 특이한 단어 형성법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독특한 단어 형성법이 존재하였다. 모음교체와 영파생이 그러한데 이를 파생법으로 볼 것인지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개론서에서는 파생법으로 다룬다. 겉으로 볼 때 형태상 어근이 그대로 바뀌지 않은 채 접미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적 변화라고 하기도 한다.

95) 여기서는 ㅂ 규칙 활용이 아닌 ㅂ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므로 접미사를 ‘-ธนา-’이 아닌 ‘-ㅂ-’으로 본다.

96) 접미사 ‘-쁘-’를 설정하기도 한다.

97) 접미사 ‘-돕-’은 대단히 복잡한 이형태를 가진다. 김현(1998)이 참고된다.

가. 모음교체 (☆)

모음교체(ablaut)란 한 단어에 사용된 모음이 다른 모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어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한국어에서는 양성모음-음성모음 짹에 의한 모음교체가 주로 관찰되는데 ‘마리-머리, 늙다-늙다, 맑다-맑다, 짖다-짖다’ 등은 모음이 교체되면서 의미가 변하였다. 이 때 양성모음이 먼저인지, 음성모음이 먼저인지는 명확히 밝히기 어려우며 또 이들을 학교문법에서 다루기는 무리인 듯하다.

나. 영파생 (☆☆)

영파생이란 무형 즉 형태가 없는 접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영파생이 적용되는 경우는 명사와 동사 어간이 동일한 경우와 부사와 용언 어간이 동일한 경우이다. 이때 명사가 먼저인지, 동사가 먼저인지 또 부사가 먼저인지, 용언이 먼저인지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보통 명사와 용언이 먼저인 것으로 보고 명사에서 동사가, 용언에서 부사가 파생된 것으로 다룬다. ‘명-동’류 단어로는 ‘신-신다, ㄱ물-ㄱ물다, 너출-너출다, 씩-씩다’ 등이 있고, ‘용-부’류 단어로는 ‘바른다-바른, 비른다-비른, 그르다-그르, 모도다-모도’ 등이 있다. 이들을 설명할 때, 영파생의 견해에서는 ‘깃 + -∅ - → 깃-’, ‘바른- + -∅ → 바른’과 같은 과정을 겪었다고 본다.

다만 학교문법에서 영접사에 의한 영파생을 파생법으로 인정하게 되다면 파생법의 정의가 난해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품사 통용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영파생은 학교문법에서 다루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만약 다뤄야 한다면 전은주 외(2025:218)와 같이 ‘어간형 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해 봄직하다. 즉 영파생 또는 영변화⁹⁸⁾로 다루지 말고 ‘어간형 부사’, ‘어간형 명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어간과 형태가 동일한 명사나 부사가 쓰였다고만 기술하는 것이다.

3.3.2.4 형태 음운론 (☆)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거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음운이 바뀌듯이 파생 또는 합성을 통해 단어가 새로 형성될 때도 음운의 교체가 보인다.

합성어가 형성될 때는 ‘므쇼(믈+쇼)’와 같은 ㄹ 탈락이나 ‘ㄱㄹ崩(ㄱㄹ+비)’나 ‘한삼(한+삼)’과 같은 공명음 뒤에서의 예외적인 ‘ㅂ→崩’과 ‘ㅅ→△’이 보이기도 했다. 또, 접두사 ‘글-’이 결합할 때 ㄱ 약화에 의해 ‘글- + 가마괴’가 ‘글아마괴’로 쓰였으며 접두사 ‘대-’가 결합할 때 ‘대- + 범’이 ‘대범’으로 쓰이기도 했다.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할 때, 어근이 용언의 어근일 경우 불규칙 활용과 동일한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즉 ‘듣- + -이-’가 ㄷ 불규칙에 의해 ‘들이다’로, ‘오른- + -이-’가 ㄹㅇ 활용에 의해 ‘올이다’로 쓰이는 등의 경우가 보인다. ‘칠판’도 ㅂ 불규칙 용언으로 본다면 ‘치희’는 ‘칠판- + -의’에서 ㅂ이 ㅂ으로 불규칙하게 교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놀애(놀- + -개)’와 같이 접미사의 음운이 교체되기도 했다. 다만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보이는 음운의 교체는 매우 불규칙하고 또 개별적이기도 하므로 일정한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다. 합성/파생이라는 형태론적인 요소와 음운의 변동이라는 음운론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형태음운론’이라 하는 것이다.

98) 영변화와 영파생의 차이는 허원영(2019:19-20)에 재인용된 송철의(1992) 참고

더 알아보기: ㄱ 약화의 형태음운론적 문제와 기본형 문제

누차 언급했듯이 ‘ㄱ 약화’는 음운론적 현상임과 동시에 형태론적 현상이다. 용언의 활용과 체언과 조사의 결합 시 모두 ‘ㄹ’과 ‘j’ 뒤에서는 필수적으로 ‘ㄱ’이 ‘o’으로 교체되었다. 이는 음운론적 현상이다. 그러나 모음 ‘ㅣ’를 지닌 말은 그 형태소가 서술격조사의 어간, 선어말어미 ‘-리-’와 ‘-니-’일 때만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o’으로 교체되었다. ‘ㅣ’도 음운론적 환경에 포함된다면 ‘가지고’나 ‘혹시거늘’도 ‘*가지오’와 ‘*혹시어늘’로 표기되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특정 형태소와 결합할 때만 나타나므로 형태론적 현상이다. 더욱이, ‘소리오(소리 Ø- + -고)’와 같이 영형태로 실현될 환경에서도 ㄱ 약화가 일어난다는 점도 그러하다. 여기서는 ‘ㄱ 약화’를 만약 교과 과정에 도입할 경우 발생할 쟁점을 음운론적 예외와 기본형 설정이라는 두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는 음운론적 ㄱ 약화의 예외이다. 바로 어근과 접사가 결합할 때인데 어근 ‘늘-’과 접미사 ‘-개’, 그리고 접두사 ‘글-’과 어근 ‘가마괴’가 결합할 때 ‘늘애’와 ‘글아마괴’로 쓰이기도 했으나 ‘늘개’와 ‘글가마괴’로도 많이 쓰였다. 만약 ㄱ 약화가 공시적으로 필수적인 현상이었다면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더라도 필수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에 대한 해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학교문법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들을 다루지 않거나 혹은 다루더라도 활용이 아닌 파생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예외로 볼 수 있다.⁹⁹⁾

둘째는 기본형 설정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다른 논의와 같이 음운론적 ㄱ 약화를 공시적이고 또 필수적인 음운 변동으로 설정하였다. 그저 중세국어의 표기법의 원리가 표음주의기 때문에 ‘o’으로 표기됐을 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ㄱ 약화에 의한 음소적 표기는 음운변동이 일어나기 전을 고려하여 형태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만약 ‘머물오’를 ‘머물- + -오’로 분석한다면 이는 마치 현대국어 ‘살는지’를 음소적 표기 ‘살른지’로 쓴 후 ‘살- + -르른지’로 분석하는 꼴이다. 이는 당연히 잘못이다. ‘머물오’는 표의주의를 따르면 ‘머물고’로 써야 하므로 곧 ‘머물- + -고’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는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의문 보조사 ‘고’, 강조의 보조사 ‘곰’, 접속조사 ‘과’ 역시 ㄱ 약화를 공시적인 필수 음운 변동으로 본다면 ‘罪오’, ‘필옴’, ‘물와’는 ‘罪고’, ‘필곰’, ‘물과’를 음소적 표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罪(죄)+고’, ‘필+곰’, ‘물+과’로 분석함이 타당하다.

여기서의 문제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이다. 체언의 끝소리가 ‘j’로 끝나지 않는 모음인 경우에는 ‘ㄱ’류 조사는 ‘o’류 조사로 쓰였다. 곧 ‘漸次오’, ‘比丘음’, ‘나와’ 등으로 쓰인 것이다. 여기서 체언에서의 ㄱ 약화를 용언의 활용과 다르게 본다면 위들 예 모두 음운변동의 결과가 된다. 즉 ‘漸次(첨차)+고’, ‘比丘(비구)+곰’, ‘나+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ㄱ 약화의 결과로 설명하면, 체언의 ㄱ 약화와 용언의 ㄱ 약화가 서로 다른 조건을 지닌 것으로 기술해야 하는데, 이는 서술의 일관성을 해친다. 따라서 굳이 이렇게 보지 않고, 중세국어도 현대국어와 그 기제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 즉 자음으로 끝나면 ‘과’가, 모음으로 끝나면 ‘와’가 선택되었는데 단지 그 자음이 ‘ㄹ’일 경우에는 음운변동의 결과로 ‘과’가 ‘와’로 쓰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와’는 ㄹ 뒤의 ‘와[hwa]’ 그리고 모음 뒤의 ‘와[wa]’라는 두 개의 경우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처리 방식이 동일한 형태에 대한 다른 서술을 추가하여 과하게 복잡하게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현대국어와 그 기제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이라 생각한다.

99) ‘j’ 뒤에서의 ㄱ 약화의 예외로 ‘꼽기곰’이 있으나 이 ‘곰’은 강조의 보조사 ‘곰/옴’과는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형태소는 모음 뒤에서도 ‘곰’으로 실현되었으므로 굳이 다뤄야 한다면 ‘곰’의 특수성에 의한 것으로 보겠다. 개론서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독자들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길 바란다.

학교문법에서 ㄱ 약화를 도입한다면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형을 서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주격조사가 ‘이/가’로 표기되는 반면 보조사 ‘도’는 ‘도/또’로 표기되지 않는 이유는 ‘이/가’는 어느 하나를 기본형으로 잡으면 나머지 형태를 유도하기 어려운 반면에 기본형 ‘도’에서 경음화라는 필수적인 음운변동으로 ‘또(ex. 집+도[집또])’가 쉽게 유도되기 때문이다. 만약 ‘j’로 끝나지 않는 모음도 음운론적 ㄱ 약화의 환경으로 본다면 그러한 체언 뒤에 보이는 ‘o’ 류 조사 ‘오, 옴, 와’ 등을 [hol], [hom], [hwa]로 보게 된다. 이러한 견해에선 기본형을 ‘고, 곰, 과’로만 잡아야 할 것인데, ㄱ 약화라는 음운변동으로 쉽게 유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현대국어와 크게 달라 학생들에게 혼란이 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예 그러한 환경의 o류 조사를 ㄱ 약화의 결과로 보지 말고 현대국어와 동일하게 [o], [om], [wa]와 같이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국어와 동일하게 음운론적 이형태로 기본형 ‘과/와’로 잡을 수 있다. 다른 조사도 ‘고/오’나 ‘곰/옴’으로 기본형을 잡으면 된다.

이와 같이 설정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체언과 용언의 ㄱ 약화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어 기술 체계가 일관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현대 국어의 조사 선택 규칙과 동일한 분석을 적용할 수 있어 학습자의 직관적 이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관례적으로 기본형을 ‘과’로만 실현됨에도 ‘과/와’같이 설명하곤 했는데, 이는 학계 연구자라면 상관이 없지만 학교문법의 기술 방식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국어에서 ‘과/와’로 쓰는 이유는 ‘과’와 ‘와’ 모두 기본형이기 때문이다. 선행 체언의 받침 유무로 ‘과/와’가 선택되는 것을 음운 변동으로 유도할 수 없다.

한편, 나찬연(2020)이나 고영근(2005) 등에서는 체언은 일반 모음 뒤에서도 ㄱ 약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각 저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처리는 곧 기본형을 ㄱ으로 잡겠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처럼 전통적으로는 모음 뒤 ㄱ 약화도 인정했기에 체언과 용언을 달리 보는 식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여러 이견이 있는 주제이므로, 차라리 아예 일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ㄱ 약화를 다루지 않는 것이 학교문법 서술에 가장 좋다고 생각된다. ㄱ 약화는 7차 교육과정 시절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평가원 및 교육청 시험에서 관련 기출이 나온 적이 없으므로 어떻게 보아야 할지 애매하다. 음운론적 ㄱ 약화의 환경은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이해하길 바란다. 앞서 체언 뒤에서의 ㄱ 약화를 ‘더 알아보기’로 분리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술격조사의 어간이나 일부 선어말어미 뒤에서 나타나는 ㄱ 약화는 순수한 음운 변동이 아니라 형태론적 현상이므로 음운 변동으로 포함되어선 안 된다. 이는 명백히 형태론적 교체이므로 어미의 불규칙 활용 또는 형태론적 이형태로 봄이 학교문법 체계에 있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형태론적 현상을 음운변동에서 다루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니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4. 통사론

통사론은 단어와들이 결합하여 구, 절, 문장을 이루는 방식을 연구하는 분야로, 문장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문법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다. 중세국어의 통사 체계는 현대국어와 기본적인 어순과 문장 성분 등을 공유하지만, 선어말어미의 종류와 기능, 연결어미의 쓰임, 높임법과 시상 표현 등 여러 측면에서 오늘날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통사적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국어의 구조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단서가 된다. 이 단원에서는 중세국어의 기본 문장 성분의 종류와 실현 방식, 조사와 어미의 통사적 기능을 살펴보고, 부정·사동·피동 등의 다양한 구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⁰⁰⁾

3.4.1 문장 성분

중세국어도 현대국어와 같이 문장 성분을 주성분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와 부속성분인 ‘관형어, 부사어’ 그리고 독립성분인 ‘독립어’로 나눌 수 있다.

3.4.1.1 주어 (☆☆)

주어란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로 일반적으로 체언 또는 체언 구실을 하는 말(명사구, 명사절)에 주격조사 ‘이/] / Ø’가 결합하여 실현되지만 주어 자리에 주격조사 대신 보조사가 쓰일 수도 있다. 이때 보조사가 쓰이는 것을 보통 격조사가 생략되고 보조사가 쓰인다고 설명한다. ‘가’는 쓰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애 이서’ 등을 붙여 만들 수 있었는데 이는 현대국어의 단체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쓰이는 주격조사 ‘에서’의 소급형이다. 중세국어에선 ‘나랑’에만 보이며 ‘애 이서’는 ‘애 + 이시- + -어’의 구조이므로 주격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주어를 실현시키는 표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조사가 생략되어 체언만으로 주어 역할을 하기도 했다.

- ㄱ. 내희(녕+이) 이려 바르래 가느니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
- ㄴ. 네(너+]) 가사 ھ리라 [네가 가야 하리라]
- ㄷ. 꽃 빼고 여름 하느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 ㄹ. 어미도(어미+도) 아드를 모른며 [어미도 아들을 모르며]
- ㅁ. 나라해 이서(나랑+애 이서) 도주기 자취 받아 [나라에서 도적의 자취를 따라]

중세국어도 현대국어와 같이 주체가 높여야 할 대상이라면 주어에 호응하는 서술어에 ‘-시-’가 붙기도 하였는데, 주어가 1인칭인 경우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쓰이기도 했다.¹⁰¹⁾ 한편, 한 문장에 주어가 둘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겠지만 학교문법에서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처리한다.

100) 중세국어 구문에 대한 쟁점은 국어사학회의 2021년 33호 학술지가 참고되며 중세국어 통사론 연구에서 다뤄지는 주요 선어말어미에 대한 쟁점은 국어사학회의 2014년 19호 학술지가 참고된다.

101) 선어말어미 ‘-오/우-’는 인정법 및 대상법 단원에서 다룬다.

3.4.1.2 서술어 (☆☆)

서술어란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서술하는 말로 ‘동사, 형용사, 체언+서술격 조사’로 실현된다. 서술격조사는 앞서 언급했듯 선행 체언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이라/ | 라/Ø라’로 달리 실현되었다.

- ㄱ. 므스글 얻는다(얻-) [무엇을 얻는가?]
- ㄴ. 民瘼을 모르시면(모르-) [민瘼을 모르시면]
- ㄷ. 幻은 곡되라(곡도 + | - + -라) [幻은 곡두(환영)이다]

3.4.1.2 목적어 (☆☆)

목적어란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로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체언 또는 체언 구실을 하는 말에 목적격조사 ‘을/을, 를/를, 르’ 등이 결합하여 실현되었다. 목적어도 주어와 마찬가지로 격조사 대신 보조사가 쓰일 수도 있었고 아예 조사가 생략되어 체언만 쓰이기도 했다.

- ㄱ. 내 太子를(太子+를) 섬기 수 봐다 [내가 태자를 섬기되]
- ㄴ. 빼 고조란(꽃+란) 푸다 말오 [좋은 꽃은 팔지 말고]
- ㄷ. 어버지 子息 사랑호문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함은]

3.4.1.3 보어 (☆)

보어란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그 불완전한 곳을 보충하여 뜻을 완전하게 하는 말이다. 보어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학자마다 달리 보는데, 여기서는 학교문법을 고려하여 ‘득/득하다(>득외다)’와 ‘아니다’ 앞에 나오는 문장 성분만을 보어로 보겠다. 보격조사는 ‘이/ | /Ø’가 쓰였다. 역시 다른 성분과 마찬가지로 보조사로 실현되기도, 조사가 생략되기도 했다.

- ㄱ. 草木이 軍馬](軍馬+ |) 득/니이다 [초목이 군마가 되는 것입니다]
- ㄴ. (이는) 世尊스 다시(世尊+ 닷 + 이) 아니시다스이다 [(이는) 세존의 탓이 아니시었습니다]

3.4.1.4 관형어 (☆☆)

관형어란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으로 ‘관형사, 체언+관형격 조사, 용언 어간 + 관형사형 어미’ 등으로 실현되었다. 그런데 관형격 조사 ‘ㅅ’은 조사나 종결어미와 통합되어 쓰이기도 했다. 부사격 조사 ‘애/애’에 ‘ㅅ’이 결합할 땐 그에 선행하는 성분을 관형어가 되게 하였는데 ‘앳/앳’은 현대국어의 ‘애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애의’와 달리 ‘앳/앳’은 ‘에 대한’뿐 아니라 ‘에 있는’, ‘에 의한’ 등의 의미도 지녔다. 또한 평서형 어미 ‘-다’나 의문형 어미 ‘-르가’에도 ‘ㅅ’이 붙어 이를 통해 관형절을 만들기도 하였다.

- ㄱ. 색 구스리 나며 [새 구슬이 나며]
- ㄴ. 사루민(사루+이) 모미 [사람의 몸이]

3.4.1.5 부사어 (☆☆)

부사어란 용언 또는 다른 부사어를 끌며 주는 말로 ‘부사, 체언+부사격 조사, 용언 어간+부사형 어미’ 등으로 실현되었다. 부사격조사는 그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처소, 시간, 도구, 비교, 수여, 변화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 ㄱ. 神力이 이리 세실씨 [신력이 이리(이렇게) 세시므로]
- ㄴ. 世尊이 象頭山애(象頭山+애) 가샤 [세존이 상두산에 가시어]
- ㄷ. 그 금으로(金+으로) 밍 ㅋ ouch 니라 [그 금으로 만드니라]
- ㄹ. 부텨 文殊師利드려(文殊師利+드려) 니르샤디 [부처가 문수사리에게 이르시되]

3.4.1.6 독립어 (☆)

독립어란 문장의 다른 성분과 밀접한 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쓰는 말로 ‘감탄사, 체언+호격 조사’로 실현되었다.

- ㄱ. 오 슬프다 [아 슬프다!]
- ㄴ. 堅牢야(堅牢+야) 네 큰 神力を [견우야, 너의 큰 신력을]

3.4.1.7 관형격조사의 예외적 쓰임

가. 주어적 관형격¹⁰²⁾ (☆☆)

관형격조사 ‘이/의, ㅅ’이 체언과 결합할 시 일반적으로 그 성분은 관형어로 쓰여야 한다. 그러나 ‘체언+관형격 조사’가 의미상 주어로 쓰인 경우가 흔히 관찰된다. 특히 관형절이나 명사절의 주어는 주격조사 결합하는 것보다 관형격조사와 결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다. ()가 의미적 해석이다.

- ㄱ. 어의(어미+의) 간 짜 [어미의 간 땅](→ 어미가 간 땅)
- ㄴ. 聖人의(聖人+의) ㅋ ㄹ치산 法 [성인의 가르치신 법](→ 성인이 가르치신 법)
- ㄷ. 이 사로민(사람+이) 잇는 方面을 [이 사람의 있는 방면을](→ 이 사람이 있는...)
- ㄹ. 부텨(부텨+ㅅ) 니르샤물 듣잖고 [부처의 이르심을 듣고](→ 부처가 이르심을...)

ㄱ~ㄹ의 밑줄 친 부분 모두 ‘의’로 해석하기보다 ‘이/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응하는 서술어가 있기 때문이기에 이때 ㄱ~ㄹ을 의미상 주어라 부르는 것이다.

나. 목적어적 관형격 (☆)

의미상 주어뿐 아니라 구본관 외(2016)¹⁰³⁾와 같이 의미상 목적어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관형격조사 ‘ㅅ’이 체언과 결합할 경우 명사절이나 관형절에서 의미상 목적어로 기능한다

102) 관련 기출로 24 6평 지문형 문제가 있다.

103) 몇 달 전 『한국어문법총론 2』의 개정판이 출판되었으나 아직 읽어 보질 못해 목적어적 관형격이 빠졌는지 아직 그대로 실린 채로 출판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는 것인데 이 분석은 원문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기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개론서에 실린 전통적인 해석을 제시할 테지만 이렇게 보지 않고 의미상으로도 관형어로 해석함이 온당하다. 자세한 논의는 박용찬(2010:131)과 황선엽(2016:83)이 참고된다.

- ㄱ. 楚水 보물 두번 보과라 [楚水의 보는 것을 두 번 보았다] (→ 초수를 보는 것을 두 번...)
- ㄴ. 眞實 닷고문 欲 여희요므로 [眞實의 닦는 것은 欲 여희는 것으로] (→ 진실을 닦는 것을...)

3.4.2 겹문장의 구조

3.4.2.1 안은문장 (☆☆)

가. 명사절을 안은 문장

명사절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명사형 전성 어미 ‘-옴/움, -기, -디’가 붙어 만들어진다.

- ㄱ. 부례 授記호사미(授記호- + -샤- + -옴 + 이) 글 쓰미(쓰- + -움 + 이) 곤고
[부처가 수기하심이 글을 쓰과 같고]
- ㄴ. 나랏 有情이 正覺 일우오물(일우- + -옴 + 을) [... 정각 이름을]
- ㄷ. 太子 | 글 비호기(비호- + -기) 始作호사 [태자가 글을 배우기 시작하셔]
- ㄹ. 나리 쳐를씨 나가디(나가- + -디) 슬호야 [... 나가기 싫어하여]

이들 모두 안긴문장의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전체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드물지만 ‘-둘’로 명사절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나. 서술절을 안은 문장

- ㄱ. 太子 | 性 고봉샤 [태자가 성품이 고우셔]

주어가 둘 있는 문장을 학교문법에서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처리한다. ‘太子 | (性 고봉샤)’의 구조이고 ()가 서술절로서 전체 문장의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 ’가 전체 문장인 것이다.

다. 관형절을 안은 문장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 ‘-은/은, -는/는, -ㄴ, -을/을, -ㄹ’에 의해 실현되며 현대국어와 달리 관형격조사 ‘ㅅ’에 의해 관형절이 실현되기도 했다. 종결어미 ‘-다’, ‘-노라’ 등에 ‘ㅅ’이 결합하면 ‘-(고 하)는’과 같은 뜻을 지니게 된다.

- ㄱ. 소미 기픈(깊- + -은) 므른 [샘이 깊은 물은]
- ㄴ. 우노(울- + -는) 聖女 |여 슬허 말라 [우는 성녀여, 슬퍼 말라]
- ㄷ. 지빅셔 차반 링글(ingga- + -ㄹ) 쏘리 [집에서 차반 만드는 소리]
- ㄹ. 너비 光明이 비취닷(비취- + -다 +ㅅ) 뽀디오 [널리 광명이 비친다는 뜻이고]

라. 부사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은 부사 파생접미사 ‘-이’와 부사형 어미 ‘-게, -듯/듯시, -도록/도록’ 등으로 형성된다.¹⁰⁴⁾

- ㄱ. 돈 업시(없- + -이) 帝里예 살오 [돈 없이 장안에 살고]
- ㄴ. 나리 져므로록(져를- + -도록) 밥 몯 머거슈물 [날이 저물도록 밥을 못 먹고 있음을]

마. 인용절을 안은 문장

현대 국어에서 인용절은 인용의 부사격 조사 ‘(이)라고’, ‘고’를 통해 실현되나 중세국어에는 이러한 조사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문장의 서술어를 보고 파악하여야 한다. ‘너른다’의 연결형 ‘닐오디’와 같은 발화동사가 쓰이고 인용절 끝에 인용 동사 ‘흐다’가 쓰여 실현되었다. 인용 동사가 쓰이지 않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쓰였다. 현대국어로 치면 ‘라고’ 없이 ‘철수가 말하되 “내가 거기를 갔다” 하였다’와 같이 쓰는 격이다. 즉 “ ” 부분이 인용절이 된다.

- ㄱ. 比丘 | ... 닐오디 “내 ... 너희들이 다 당다이 부테 드외리라” 흐더니
- ㄱ'. [比丘가 ... 이르되, “내가 ... 너희들이 다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하더니]
- ㄴ. 世尊이 ... 니른샤디 “너희 一切 天人衆이 내 紫磨黃金色액 모물 보라” 흐시니
- ㄴ'. [世尊이 ... 이르시되, “너희 일체의 천인대중이 내 자마황금색 몸을 보라”라고 하시니]
- ㄷ. 如來 상네 ‘우리를 아드리라’ 니른시니이다
- ㄷ'. [여래가 늘 우리를 아들이라고 이르십니다]
- ㄹ. 제 닐오디 ‘臣은 이 酒中옛 仙人이로라’ 흐니라
- ㄹ'. [스스로 이르되, 臣은 취중의 仙人이로라고 하였다]

“ ”는 직접인용, ‘ ’는 간접 인용이다. 명확한 표지가 없어 둘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명사나 상대높임법의 쓰임 등을 통해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다. (ㄷ)에서는 직접인용 표현인 ‘너희 내 아드리라’를 ‘우리를 아드리라’로 화자의 관점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인용임을 알 수 있다. (ㄹ)은 원래 이백(李白)이 천자 앞에서 한 말인 ‘臣은 ... 仙人이로이다’를 화자의 관점으로 바꾸어 흐라체로 종결어미를 바꾸어 ‘仙人이로라’로 쓴 것이다.

바. 관형사형 어미의 예외적 쓰임¹⁰⁵⁾

관형사형 어미 ‘-ㄴ’과 ‘-ㄹ’이 명사형 어미와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그 용례가 많은 편은 아니며 이는 고대국어 편에서 언급했듯 본래 ‘-ㄴ’과 ‘-ㄹ’은 명사형 어미였기 때문이다. 중세국어에는 ‘-ㄴ’이나 ‘-ㄹ’이 명사형 어미로 활발히 쓰이지 않았으므로 공시적으로 이 둘을 명사형 어미로 설정하기는 무리이고, 관형사형 어미의 예외적인 쓰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ㄴ’과 ‘-ㄹ’이 이끄는 것은 명사절로 해석한다. ‘-ㄹ’은 어원적으로 전성어미 ‘-ㄹ’과 관형격조사 ‘ㅅ’의 결합 형이나 보통 15세기 공시적으로 하나의 어미로 본다. 이를 ‘관형사형 어미의 명사적 용법’이라 한다.

104) 학교문법에서는 ‘-게, -도록, -듯이’를 부사절을 이끄는 어미라고 설명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설명함. ‘-이’를 부사형 전성 어미로 설정하기도 한다.

105) 관형사형 어미 ‘-ㄴ’과 ‘-ㄹ’의 명사형 어미적 쓰임에 대한 논의는 최준호(2019)를 참고할 수 있다.

- ㄱ. 그~~뒷~~ 혼(ㅎ- + -오- + -ㄴ) 조초 ㅎ야 [그대가 한 것을 따라 해서]
- ㄴ. 福이라 호늘(ㅎ- + -오- + -ㄴ + 을) 나~~수~~라 [복이라 한 것을 바치러]
- ㄷ. ~~劫~~스 因이 아~~넓~~(아니- + -ㄹ) 아니며 [겁(劫)의 인연이 아님이 아닌 것이다]
- ㄹ. ~~다~~없(다^으- + -ㄹ) 업슨 긴 ㄱ~~ㄹ~~문 [다함이 없는 긴 강은]

3.4.2.2 이어진문장 (☆☆)

현대국어와 같이 중세국어의 이어진 문장은 연결어미로 형성되는데 이어진 문장 간의 관계에 따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연결어미 중 보조적 연결어미는 보조 용언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연결어미로 본용언+보조용언은 학교문법에서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되므로 이어진문장으로 볼 수 없다. 이는 훌문장이다.

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나열, 대립, 선택의 세 가지 관계가 있다. [나열]의 의미를 지니는 연결어미인 ‘-고, (으/으)며’, [선택]을 나타내는 ‘-거나, -(으/으)나’, [대립]을 나타내는 ‘-(으/으)나, -건데, -건마흔, -디~~비~~’ 등에 의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실현되었다. 이때 ‘-고’ 뒤에는 강조의 보조사 ‘-ㄱ’이 덧붙어 ‘곡’으로 쓰이기도 했다.

- ㄱ. 子는 아~~들~~리오(아들 + 이- + -고) 孫은 孫子 |니 [子는 아들이고 孫은 손자이니]
- ㄴ. 무례 니르리 죽~~골~~(죽- + -고 + ㄱ) 주그며 ... [무리에 이르기까지 죽고 죽으며 ...]
- ㄷ. 소~~늘~~ 드~~습~~거나(들- + -~~습~~- + -거나) 잠간 머리를 ... [손을 들거나 잠깐 머리를...]
- ㄹ. 光明도 하시나(하- + -시- + -나) ㄹ 업스실씨 [광명도 많으시나 끝이 없으므로]

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조건, 이유, 양보 등 여러 의미 관계가 있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실현하는 종속적 연결 어미 역시 그 종류가 다양하다. 아래에 제시된 의미가 다가 아니며 어미의 종류 역시 아래보다 많다. 일부만 제시하였다.

- ㄱ. 조건/가정: -거든/든, -(으/으)면, -ㄴ댄/덴, -란다, 등
- ㄴ. 원인/이유: -(으/으)ㄹ씨, -거늘, -관다, 등매, -라, -
- ㄷ. 양보: -고도, -아도/어도, -건마흔, -건데¹⁰⁶⁾, -ㄹ선명, 등
- ㄹ. 목적/의도: -(으/으)려, -고져, -과며, 등
- ㅁ. 전환: -다가, -거사, 등
- ㅂ. 동시: -(으/으)며셔, -다가며, 등

3.4.3 문장의 종결 표현

중세국어의 문장 종결법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각 문체에 맞는 종결어미로 실현되었다.

106) ‘-건마흔’과 ‘-건데’은 종속적 연결어미로도, 대등적 연결어미로도 쓰였다.

갈래		흐 라체	흐 야써체	흐 쇼셔체	반말
평서형		-다, -니라 -(으)마(약속)	- Ningda	-이다	-니, -리
의 문 형	직 접 의 문	1,3인칭 〈판정〉 -녀(-니여, -니야, -니아) -려(-리여, -리야, -리아) 〈설명〉 -뇨(/-니오), -료(/-리오)	-Nitga -Ritga	〈판정〉 -니잇가, -리잇가 〈설명〉 -니잇고, -리잇고	
	2인칭	-ㄴ다 -ㅎ다			-니 -리
	간접의문	〈판정〉 -ㄴ가, -ㅎ가 〈설명〉 -ㄴ고, -ㅎ고			
명령형		-라	-어써	-쇼셔	-고라
청유형		-져/-자, -져라		-사이다	
감탄형		-도다 -ㄴ뎌, -ㄹ써 -게라/-에라/-애라	-ㄴ뎌		

임지룡 외(2020:408)

3.4.3.1 평서문 (☆☆)

현대국어와 같이 기본적인 평서형 어미는 '-다'이지만 '-다'는 선어말어미 '-오/우-, -(으/으)리-, -(으/으)니-, -더-'나 서술격조사의 어간과 결합하면 '-라'의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서형 종결어미는 '-다/라'로 볼 수 있다. (ㄷ)과 같이 평서형 종결어미의 특수한 형태로 '-(으/으)니라'도 쓰였다. 보수적인 즉 예스러운 어미라고 설명된다.

- ㄱ. 須達이 조차 가라 호시다(흐- + -시- + -다) [수달이 쫓아 가라 하시다]
- ㄴ. 내 ... 어미 짜흘 뵈요리라(뵈- + -오- + -리- + -라) [내가 ... 어미의 간 땅을 보일 것이다]
- ㄷ. 사루물 다 眷屬이라 호느니라(흐- + -느- + -니라) [사람을 다 권속이라 한다]
- ㄹ. 부테 아른시리이다(알- + -으시- + -리- + -이- + -다) [부처가 아실 것입니다]

이외에도 반말체 평서형 종결어미 '-리, -니'. [약속]을 나타내는 평서형 종결어미 '-오/우마' 등으로도 평서문이 실현되었다.

3.4.3.2 의문문 (☆☆☆☆)

중세국어의 의문문은 의문형 종결 어미나 의문 보조사에 의해 실현되었다. 이때, 의문형 어미는 설명 의문문인지 판정 의문문인지에 따라, 또 인칭과 상대높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다. 의문 보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형성하였다. 현대국어와 달리 보조사로도 의문문이 실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판정의문문	1/3인칭	-(으/으)녀, -(으/으)려 -ㄴ가, -ㄹ가	-(으/으)나…가, -(으/으)리…가	-(으/으)나…가, -(으/으)리…가	-(으/으)나, -(으/으)리
	2인칭	-ㄴ다, -ㄹ다			
설명의문문	1/3인칭	-(으/으)뇨, -(으/으)료 -ㄴ고, -ㄹ고	-(으/으)나…고, -(으/으)리…고	-(으/으)나…고, -(으/으)리…고	-(으/으)나…고, -(으/으)리…고
	2인칭	-ㄴ다, -ㄹ다			

의문 보조사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가/아	고/오

판정의문문이란 상대방에게 ‘예’,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卜’ 계열 의문 어미와 보조사가 쓰였다.

- ㄱ. 功德이 하녀(하- + -녀) 져그녀(적- + -으녀) [공덕이 많으냐, 적으냐?]
- ㄴ. 西京은 편안효가(한- + -ㄴ가) 못효가(한- + -ㄴ가) [서경은 편안한가, (편안하지) 못한가?]
- ㄷ. 이 쫓리 너희 종가(종+가) [이 딸이 너희 종인가?]
- ㄹ. 이는 賞가(상+가) 罰아(별+가) [이것은 상인가, 별인가?]

설명의문문이란 상대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누, 므슴, 엇데, 엇던, 몇’ 등의 의문사가 함께 쓰인다. 설명의문문은 ‘노’ 계열 의문 어미와 보조사가 쓰였다.

- ㄱ. 太子 | 이제 어드 있느뇨(잇- + -느- + -뇨) [태자가 이제 어디 있느냐?]
- ㄴ. 모는 이제 어느 싸해 있느고(잇- + -느- + -ㄴ고) [말은 이제 어느 땅에 있는가?]
- ㄷ. 子息 업더니 무 罪오(죄 + 고) [자식 없더니 무슨 죄인가?]

‘-(으/으)녀’는 ‘-(으/으)니여, -(으/으)니아, -(으/으)니야’의 형태로도 쓰였고, ‘-(으/으)뇨’는 ‘-(으/으)니오’의 형태로도 쓰였다. ‘려’와 ‘료’도 마찬가지로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그런데 특이하게 한국어에서 주어가 ‘녀’나 ‘그의’와 같이 2인칭일 경우에는 설명의문문이든 판정의문문이든 동일하게 ‘-ㄴ다’와 ‘-ㄹ다’로 의문문이 실현되었다.

- ㄱ. 네 엇데 안다(알- + -ㄴ다) [네가 어찌 아느냐?]
- ㄴ. 네 信호노다(한- + -ㄴ- + -ㄴ다) 아니 信호노다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 ㄷ. 네 내 마를 다 드를따(듣- + -을다) [네가 내 말을 다 들겠느냐?]
- ㄹ. 그의는 어느 저기 도라올다(오- + -ㄹ다) [그대는 어느 적에 돌아오겠느냐?]

107)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을 따른 것이다. 자세한 것은 나찬연 교수의 글을 참고.

ㅎ 라체에서는 인정에 따른 의문문의 분화가 확인되나 ㅎ 야쩌체와 ㅎ 쇼셔체에서는 인정에 따른 의문문의 분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ㅎ 야쩌체에서는 인정뿐 아니라 판정/설명의문문과 상관없이 항상 '-닛가'와 '-릿가'로 실현되었다.

- ㄱ. 엇데 부테라 호느닛가(ㅎ- + -느- + -닛가) [어찌 부처라 하십니까?]
- ㄴ. 그듯 아바니미 잇느닛가(잇- + -느- + -닛가) [그대의 아버님이 있습니까?]

ㅎ 쇼셔체에서는 '-니...가/고'와 '-리...가/고'가 의문형 어미인데 상대 높임의 선어말어미 '-잇-'이 끼어들어 항상 '-니잇가/고', '-리잇가/고' 꼴로 쓰였다.¹⁰⁸⁾ 이를 한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에 끼어든다고 하여 불연속 형태라고 한다. 즉 어미의 형태가 잘려 있다는 것이다.

- ㄱ. 사루미 지비 잇느니잇가(잇- + -느- + -잇- + -니...가) [사람의 집이 있습니까?]
- ㄴ. 므스므라 오시니잇고(오- + -시- + -잇- + -니...고)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 ㄷ. 아들을 여희리잇가(여희- + -잇- + -리...가) [아들을 여의겠습니까?]
- ㄹ. 뇌 王과 겼구리잇고(겼구- + -잇- + -리...고) [누가 왕과 겨루겠습니까?]

반말에서는 '-(으/으)니'와 '-(으/으)리'로 의문문이 실현되는데, ㅎ 야쩌체와 같이 판정/설명의문문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실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 ㄱ. 님금 말쓰미 그 아니 올흐시니(올흐- + -시- + -니) [임금의 말이 그 아니 옳으시니?]
- ㄴ. 이제 엇데 怨讐를 니즈시느니(느- + -으시- + -느- + -니) [이제 어찌 원수를 잊으시니?]
- ㄷ. 모단들 아니 깃소불리(깃- + -술- + -으리) [모진들 기뻐하지 않으리?]
- ㄹ. 聖人 神力を 어느 다 술불리(술- + -으리) [성인 신력을 어찌 다 말하리?]

더 알아보기: 불연속 형태

불연속 형태(discontinuous morpheme)란 형태소 중간이 끊기는 형태 즉 연속적이지 못한 형태소를 말한다. 형태론적, 의미론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중세국어의 모든 어미를 쪼개서 분석하기는 어렵다. 즉 후기 중세국어 공시적으로 불연속 형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보인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형태소 분석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형태소는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를 바탕으로 분석된다.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 서로 교체되는 것을 '대치'라 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계열 관계'라 한다. 어떤 말의 앞과 뒤에 다른 말이 오는 것을 '통합'이라 하는데 이들간의 관계를 '통합 관계'라 한다. 예컨대, '입었다'라는 말을 보면 '-었-'은 '-겠-', '-는-' 등으로 교체될 수 있으니 계열 관계를 만족하며, 또 '입-'과 '-다'와 결합하였으므로 통합 관계를 만족한다.

이제 '니잇가', '리잇가' 등을 보자. 만약 이것이 모두 연속적인 형태소로 이루어졌다면 '-니-(선어말) + -잇-(선어말) + -가(어말)'로 분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의문형 어미 '-가'를 인정할 수 있을까? 어말어미는 선어말어미 없이도 어간에 결합하며, 또 다양한 결합 관계를 보인다. 어미로 볼

108) '-니잇가', '-리잇가'를 하나의 종결어미로 인정하고 선어말어미를 형태소 분석 시 쪼개어 상대높임은 선어말어미에 의해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는 하나의 종결어미로 보지 않고 의문형 종결어미를 '-니...가'인 것으로 설정하겠다. 불연속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도 있으며 견해차가 존재하는 부분이다.

만큼 독자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는 인정하기 어렵다. 중세국어에 보이는 단독형 ‘가’는 체언에 결합하는 의문 보조사뿐이다. 중세국어 문헌에 ‘-니가’ 따위가 보이지 않으며 계열 관계를 고려하여 ‘-니-’의 자리에 다른 선어말어미를 넣어도 그러한 형태는 문헌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는 점 역시 ‘-니잇가’에서 ‘-니-’와 ‘-가’를 분석하기 어렵게 한다. 반면에 상대높임을 담당하는 ‘-이-’의 존재는 명확하며 ‘-잇-’ 역시 평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높임 선어말어미를 인정하면서 의문형 어미 ‘-가’는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연속적이지 않은 ‘니...가’ 따위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불연속 형태를 도입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바로 통째로 하나의 어미로 보고 그것을 공시적으로 단일 어미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를 설정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지지만 그 대신, 선어말 어미 ‘-잇-’을 분석해선 안 된다. 또 다른 방도는 김유법(2008)과 같이 ‘-잇고/가’ 등의 어미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종결어미 자체가 ㅎ소셔체의 의문문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어사 내용이 대거 축소되기 이전의 학교문법에서 ‘-이-’와 함께 ‘-잇-’도 인정한 바 있고 비교적 최근의 학력평가에서도 ‘-잇-’을 언급한 바 있다. 심지어 최형용 외(2025)에선 의문문에 선어말어미 ‘-잇-’이 쓰인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잇-’을 설정하는 것이 학교문법 체계상 적절한 처리이므로, ‘-가’나 ‘-잇가’를 설정하기보다는 고영근 교수를 따라 불연속 형태를 설정하였다. 이는 결국 통시적인 변화에 의한 것을 공시적으로 분석하려다 보니 그것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워 도입하는 일종의 방편이다. 공형태소의 도입에 대한 논쟁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해된다. 불연속 형태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또 다른 예시로 ‘-거시-’류 형태가 있다.

‘거’로 시작하는 어미가 선어말어미 ‘-시-’와 통합될 경우, ‘-시-’가 ‘거’로 시작하는 어미 사이에 끼어든다. 가령 ‘-시-’와 ‘-거늘’이 결합하면, ‘시거늘’이 아니라 ‘거시늘’이 되는 경우가 있다. ‘거시늘’을 ‘-거- + -시- + -늘’로 분석할 수 있다면 ‘-거늘’ 자체도 ‘-거- + -늘’로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계열관계를 고려했을 때 ‘-거-’ 자리에 다른 선어말어미가 쓰인 ‘-느늘, 더늘’ 등의 형태가 없으며, ‘-거늘’이 통합 관계에 의해 결합된 형태라면 ‘-거-’가 붙지 않은 ‘-늘’이 쓰여야 할 것인데 역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거늘’은 하나의 어미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의 어미인데 그 사이에 무언가가 개입하기에 ‘거시늘’은 ‘-거...늘’이라는 불연속 형태 어미에 ‘-시-’라는 선어말어미가 끼어든 형태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선어말어미가 개입하지 않을 때는 단순히 연속 형태로 처리하여 ‘ㅎ시거늘’, ‘ㅎ거늘’ 따위는 ‘-거늘’로 보고, ‘ㅎ거시늘’ 따위는 ‘-거...늘’로 보는 것이 다소 복잡하지만 체계를 고려하면 적절한 처리라 생각된다. 혹은 아예 이러한 예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애초에 이를 제외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고영근 교수의 논저를 살펴보면 여러 형태에 불연속 형태를 적용하는 것이 보인다. 여기서 그것을 모두 다루기는 무리이고,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니잇가’류와 ‘-거시-’류 형태에서만 적용하였다. ‘-닛가’는 고영근(1991/2012)과 달리 불연속 형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어미로 보겠다. 고영근 교수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ㅅ-’도 인정하여 ‘-닛가’류 어미를 ‘-ㅅ- + -니...가’의 결합으로 본다. 그러나, 불연속 형태를 과도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은 학교문법 체계를 고려하면 학생들의 직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 개인적으로는 아예 굳어진 어미로 보고 의문문에서 상대높임 선어말 어미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고 적절한 서술이라고 보지만, 일단 선어말어미 ‘-잇-’은 설정해야 하고 그렇지만 종결어미 ‘-가’를 인정할 수는 없으니 불연속 형태는 어쩔 수 없이 언급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 ‘-거시-’류 형태는 매우 흔히 보이기 때문에 함께 언급하였다. 여기선 의문문에 쓰이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를 ‘-잇-’만으로 한정한다.

3.4.3.3 명령문 (☆☆)

중세국어의 명령형 어미도 높임의 등급에 따라 ‘-라, -아/어쩌(써), -쇼셔’ 등의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었다.

- ㄱ. 어울워 뽑디면 골방쓰라(쓰- + -라) [어울려 쓰려면 나란히 아울려 쓰라]
- ㄴ. 彌勒아 아라라(알- + -알라) [미륵아 알아라]
- ㄷ. 그 뜻들 닐어쩌(니 ㄹ- + -어쩌) [그 뜻을 말하오]
- ㄹ. 이 뜻들 낫디 마루쇼셔(말- + -ㅇ 쇼셔) [그 뜻을 잊지 마십시오]
- ㅁ. 내 願을 일티 아니케 흐고라(흐- + -고라) [내 소원을 잃지 아니하게 하구려]

(ㄱ)은 ㅎ라체의 명령형 종결어미 ‘-(으/으)라’가, (ㄴ)은 ㅎ라체의 ‘-아/어라’가 쓰인 것이다. (ㄷ)은 ㅎ야쩌체의 ‘-어쩌’가 쓰인 것이고, (ㄹ)은 아주높임에 해당하는 ㅎ쇼셔체의 ‘-(으/으)쇼셔’가 쓰였다. (ㅁ)은 반말체의 명령형 어미 ‘-고라’인데 ‘-고려’로도 쓰였다. ‘-고라/고려’는 화자가 청자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뿐 아니라 화자의 바람이나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3.4.3.4 청유문 (☆☆)

중세국어의 청유형 어미는 현대국어 ‘-자’에 해당하는 ㅎ라체의 ‘-자/져, -져라’와 ‘-십시오’에 해당하는 ㅎ쇼셔체의 ‘-사이다’가 쓰였다. 다른 상대높임법 등급에서는 청유형 어미가 보이지 않는다.

- ㄱ. 이 劫 일후므란 賢劫이라 흐져(흐- + -져) [이 겁 이름은 현겁이라 하자]
- ㄴ. 스승니를 보습고져 ㅎ노니 훈삐 가져라(가- + -져라) [스승님을 보고자 하니 함께 가자]
- ㄷ. 太子씩 솔보디 “가사이다(가- + -사이다)” [태자께 말씀하되 “가십시오”]
- ㄹ. “흔 디 가 나사이다(나- + -사이다)” ㅎ야시늘 [“함께 가 (태어)나십시오”라고 하시니]

3.4.3.5 감탄문 (☆☆)

중세국어의 감탄형 종결 어미는 ㅎ라체의 ‘-ㄴ뎌, -애/애라, -게라, -ㄹ써’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감동법 선어말어미에 평서형 종결어미가 붙어서 실현되기도 한다.¹⁰⁹⁾ 감동법 선어말어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감동법 단원에서 다루도록 한다.

- ㄱ. 큰 오은 뜻들 보다 몬흐노뎌(몬 ㅎ- + -느- + -ㄴ뎌) [크고 온전한 뜻을 보지 못하는구나!]
- ㄴ. 摩耶] 如來를 나쓰불실쩌(낳- + -습- + -ㅇ시- + -ㄹ써) [마야가 여래를 낳으셨구나!]
- ㄷ. 거짓말로 “등 알패라(알 푸- + -애라)” ㅎ샤디 [거짓말로 “등이 아프구나!” 하시되]
- ㄹ. 보비를 아니 았기높다(았기- + -느- + -옷- + -다) [보배를 아니 아끼는구나!]
- ㅁ. 스랑컨댄 아디 몬게라(몬 ㅎ- + -게라) [생각컨대 알지 못하겠구나!]

109) 평서~감탄문 등은 종결표현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선어말어미가 종결어미에 붙어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 다소 어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제7 차 고등학교 『문법』에서 이렇게 보았다.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애/계-’ 등도 감동법 선어말어미로 보았으나 고영근(2020)에서는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따른다.

3.4.4 높임법

중세국어의 높임법도 현대국어와 같이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 높임법을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4.4.1 주체 높임법 (☆☆☆☆)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높임방식으로 선어말어미 ‘-(으/으)시/샤-’가 결합하여 실현된다. 용언의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면 ‘-으시/샤- / -으시/샤-’가 쓰이며 모음으로 끝나면 ‘-시/샤-’가 쓰이는데, 현대국어에서는 ‘ㄹ’로 끝나는 어간에는 ‘-시-’가 쓰이지만 중세국어는 음운변동 단원에서 언급했듯이 ‘ㄹ’로 끝나는 어간에도 ‘-으/으시-’가 쓰였다. 이때 자음 어미 앞에서는 ㄱ~ㄷ과 같이 ‘-(으/으)시-’가, 모음 어미 앞에서는 ㄹ~ㅁ과 같이 ‘-(으/으)샤-’가 쓰였다.

- ㄱ. 聖孫이 一怒 하 시 니(一怒 ㄏ- + -시- + -니) [성손이 한번 노하시니]
- ㄴ. 世尊이 須達이 올 뜰 아 르 시 고(알- + -으시- + -고) [세존이 수달이 올 것을 아시고]
- ㄷ. 世尊이 큰 法雨를 비 하 시 며(빙- + -으시- + -며) [세존이 ... 큰 볍우를 뿌리시며]
- ㄹ. 王이 니 르 샤 니(니 ㄹ- + -샤- + -오니) [왕이 말씀하시되]
- ㅁ. 부텨 냉바깃 째 노 푸 샤(높- + -으 샤- + -아) [부처님의 정수리뼈가 높으시어]

이때, 주체 높임의 ‘-(으/으)시/샤-’는 높임의 대상이 되는 주체뿐 아니라 그 주체와 관련된 물건이나 일을 높이는 데도 쓰였다. (ㅁ)의 ‘노푸샤’가 높이는 대상은 ‘부텨’가 아니라 ‘부텨 냉바깃 째’이다. 이처럼 높임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물건이나 신체의 일부를 높이는 것을 주체 높임법의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이러한 높임이 아니면 모두 직접 높임이다.

이외에도 특수어휘로도 주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특수어휘로는 ‘좌시다(먹다의 높임말)’와 ‘겨시다(잇다의 높임말)’ 등이 쓰였으며¹¹⁰⁾, 높임의 주격조사 ‘께서’에 해당하는 조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 ㅂ. 王이 좌 시 고(좌시- + -고) [왕이 드시고]
- ㅅ. 如來 ... 뭇고래 수며 겨 샤(겨시- + -아) [여래가 ... 산골에 숨어 계셔]

3.4.4.2 객체 높임법 (☆☆☆☆)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높임방식으로 선어말어미 ‘-습/습/즙/술/술/줄-’을 결합하거나 부사격조사 ‘썩(스괴)/스그에’가 붙어 실현되었다. ‘-습-’은 ‘ㄱ, ㅂ, ㅅ, ㅎ’ 뒤에 사용되었는데 ㅎ 뒤에 쓰일 경우 ‘ㅎ’과 ‘ㅅ’이 결합하여 대체로 ‘썹’으로 표기되었다. ‘-습-’은 모음이나 공명자음 ‘ㄴ, ㄹ, ㅁ’ 뒤에 쓰였으며, ‘-즙-’은 ‘ㄷ, ㅌ, ㅈ, ㅊ’ 뒤에 쓰였다. 이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말어미 앞에서는 ‘-술/술/줄-’으로 쓰였다.

- ㄱ. 부텨 머리 좇 습 고(좇- + -습- + -고) [부처께 머리를 조아리고]
- ㄴ. 부텨 像 을 ... 座애 便安히 노 썹 고(놓- + -습- + -고) [부처의 상을 ... 자리에 편안히 놓고]

110) 이 두 단어의 ‘시’는 어원적으로 ‘-시-’가 맞지만, 15세기 공시적으로 선어말어미로 볼 수 없다. ‘*좌다’와 ‘*겨다’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의 ‘주무시다’와 ‘계시다’의 ‘시’가 ‘-시-’가 아닌 것과 같다.

- ㄷ.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보습고져(보- + -습- + -고져)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뵙고자]
- ㄹ. 勝鬱이 부텨 功德을 듣습고(듣- + -습- + -고) [승鬱이 부처의 공덕을 듣고]
- ㅁ. 臣下 | 님그를 둑소방](돕- + -소- + -방) [신하가 임금을 도와]
- ㅂ. 如來へ 일후를 듣즈 블면(듣- + -즈- + -면) [여래의 이름을 들으면]

객체 높임 역시 현대국어와 같이 특수어휘로도 실현되었는데 ‘습다(이르다의 높임말), 드리다(주다의 높임말), 모시다/뫼시다(드리다의 높임말), 뵈다(보다의 높임말), 열습다(말하다의 높임말), 저습다(절하다의 높임말)’ 등이 쓰였다.¹¹¹⁾

- ㄱ. 王의 가아 말미 열습고(열습- + -고) [왕께 가 말미를 여쭙고]
- ㄴ. 如來를 저수방(저습- + -아) [여래에게 저뵙고]
- ㄷ. 부텨 솔리리를 뫄셔다가(뫼시- + -어다가) [부처의 사리를 모셔다가]
- ㄹ. 無上尊을 뵈라(뵈- + -라) [무상존을 뵐어라]
- ㅁ. 臣下 | 님금의 습논(습- + -느- + -오- + -ㄴ) [신하가 임금께 사뢰는]

3.4.4.3 상대 높임법 (☆☆☆)

상대 높임법은 일정한 종결 어미를 선택함으로써 상대편을 높여 표현하는 방식인데 중세국어는 선어말어미로도 실현되었다.¹¹²⁾ 중세국어는 아주 높임의 ㅎ 쇼셔체, 예사 높임의 ㅎ 야써체 아주 낮춤의 ㅎ 라체가 있었으며 이에 더해 청자를 높이기도 어렵고 낮추기도 어려운 반말체도 확인된다. 현대국어의 예사낮춤에 해당되는 ‘하게체’는 근대국어에야 등장한다. 반말체는 ㅎ 야써체와 ㅎ 라체 사이의 높임 정도로 추정된다. 중세국어의 상대높임법 체계와 현대국어의 그것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식체	하십시오체	가십니다	가십니까?	가십시오	(가시지요)	-
	하오체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구려	갑시다	가는구려
	하게체	가네, 감세	가는가?, 가나?	가게	가세	가는구먼
	해라체	간다	가냐? 가니?	가(거)라, 가 렴, 가려무나	가자	가는구나
비격식체	해요체	가요	가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해체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민현식 외(2019: 162)

111) ‘열습다’와 ‘저습다’는 어원적으로 객체높임 선어말어미가 결합한 것이 맞으나 공시적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아 어간을 ‘열습-’과 ‘저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열-’이 문증되긴 하나 이미 어휘화됐다고 본다. ‘습다, 열습다, 저습다’는 ㅂ 불규칙 용언이다.

112) 상대높임 선어말어미를 다룬 기출로 15학년도 7월 학평(B형)과 16번 17학년도 4월 학평 14-15번이 있다.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ㅎ 쇼셔체	- (으/으)이 -	-잇 -	- (으/으)쇼셔	-사이다	- (으/으)이 -
ㅎ 야씨체	- ㅎ - ¹¹³⁾	- (으/으)낫가, - (으/으)릿가	-어씨		
반말	- (으/으)니, - (으/으)리	- (으/으)니, - (으/으)리	-고라		
ㅎ 라체	-다/라, - (으/으)니라	- (으/으)녀 - (으/으)뇨	- (으/으)라 - (아/어)라	-져, -져라	-르씨, -애라, -ㄴ뎌

가. ㅎ 쇼셔체

아주높임에 해당하는 상대높임 등급으로 평서법과 감탄법은 선어말어미 ‘- (으/으)이 -’를 통해, 의문법은 ‘-잇 -’을 통해, 명령법과 청유법은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되었다. 따라서 평서문은 ‘-이다’, 의문문은 ‘-니잇가(판정)’와 ‘-니잇고(설명)’, 감탄문은 ‘-도소이다’로 끝났다.¹¹⁴⁾ 앞서 언급하였듯이 ‘-니잇가’는 불연속 형태인 의문형 어미 ‘-니…가’에 선어말어미 ‘-잇 -’이 개입한 것이다. 감탄문의 ‘-도소이다’는 감동법 선어말어미 ‘-돗 -’이 분석된다. 명령문과 청유문은 각각 종결어미 ‘- (으/으)쇼셔’와 ‘-사이다’로 실현되었다.

- ㄱ. 이런 고디 업스이다(없- + -으이- + -다) [이런 곳이 없습니다]
- ㄴ. 그 아니 어리니잇가(어리- + -잇- + -니…가) [그것이 아니 어리석습니까?]
- ㄷ. 님금하 아ㄹ쇼셔(알- + -으 쇼셔) [임금이시어 아십시오]
- ㄹ. 혼딕 가 나사이다(나- + -사이다) [함께 가 나십시오]
- ㅂ. 반드시 알리로소이다(알- + -리- + -롯- + -으이- + -다) [반드시 아시겠구나]

나. ㅎ 야씨체

예사높임에 해당하는 상대높임 등급으로 평서법은 선어말어미 ‘- ㅎ -’을 통해, 의문법, 명령법, 감탄법은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되었다.¹¹⁵⁾ 따라서 평서문은 ‘- ㅎ다’로 끝났다. 의문문은 ‘-낫가(판정)’와 ‘-낫고(설명)’, 명령문은 ‘-아/어씨’로 실현되었다.

- ㄱ. “부텨시다” ㅎ느녕다(ㅎ- + -느- + -나- + -ㅎ- + -다) [“부쳐시다”라고 하오]
- ㄴ. 내 그런 뜻들 몰라 ㅎ댕다(ㅎ- + -더- + -오- + -ㅎ- + -다) [내가 그런 뜻을 몰라 하였소]
- ㄷ. 그뒷 아버니미 잇느낫가(잇- + -느- + -낫가) [그대 아버님이 있소?]
- ㄹ. 그 뜻들 널어씨(니르- + -어씨) [그 뜻을 이르시오]

113) 구본관 외(2016)에선 ‘- ㅎ -’으로, 나찬연(2020)에선 ‘- ㅇ -’으로 표기한다.

114) 이들을 하나의 종결어미로 볼 것인지는 학자마다 다를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더라’를 하나의 어미로 등재하고 ‘-더-’와 ‘-라’로 분석된다고 설명한 점을 고려하면 ‘-이다’, ‘-니잇가/고’, ‘-도소이다’를 하나의 종결어미로 설정하고 형태소를 분석하여 선어말어미 ‘-이 -’로 상대높임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복합어미와 사전 처리에 대해선 임동훈(1998)이 참고된다.

115) 학교문법에서 ‘- ㅎ -’을 다루지 않으나 학평에서 ‘-이 -’를 인정했으므로 평행하게 ‘- ㅎ -’을 설정하겠다.

다. 반말¹¹⁶⁾

호야체와 호라체 사이에 있는 상대높임 등급으로 현대국어의 ‘해체’와 유사하다. 평서형 종결어미 ‘-니, -리’와 명령형 종결어미 ‘-고라’가 쓰였다. 의문형 종결어미는 평서형 종결어미와 그 형태가 동일하다. 화자가 청자를 낮추기도 높이기도 어려울 때 쓴다.

- ㄱ. 알~~마~~ 내내 붓그리리(붓그리- + -리) [앞에 내내 부끄워하리라]
- ㄴ. 하~~늘~~ 風流 | 엇더호시니(엇더~~호~~- + -시- + -니) [하늘의 풍류가 어떠하시니?]
- ㄷ. 매 모르시리(모르- + -시- + -리) [왜 모르시리?]
- ㄹ. 모든 疑心을 決~~호~~고라(결~~호~~- + -고라) [모든 疑心을 풀어 주구려]

라. 호라체

아주낮춤에 해당하는 상대높임 등급으로 현대국어의 상대높임과 같이 종결어미로만 실현되었다. 평서법은 ‘-다/라’와 ‘-(으/으)니라’로 실현되었다. 의문법은 ‘-(으/으)녀(판정)’와 ‘-(으/으)뇨(설명)’가 대표적이지만 ‘-(으/으)니여’, ‘-(으/으)려’, ‘-(으/으)니오’, ‘-(으/으)료’ 등으로도 쓰였다. 2인칭 주어인 경우 앞서 언급했듯 의문문이 설명/판정과 무관하게 ‘-ㄴ다’와 ‘-ㄹ다’로 실현되었다.

- ㄱ. 야이 다 뵈느다(뵈- + -느- + -다) [모습이 다 보인다]
- ㄴ. 너를 외에 아니호노니라(아니~~호~~- + -느- + -오- + -니라) [너를 그릇되게 아니한다]
- ㄷ. 앗가쁜 빤디 잇느니여(잇- + -느- + -니여) [아까운 뜻이 있느냐?]
- ㄹ. 어드리 내티료(내티- + -료) [어찌 내보내겠느냐?]
- ㅁ. 네 이제 子細히 드르라(듣- + -으라) [너 이제 자세히 들어라]
- ㅂ. 後에사 出家~~호~~져(出家~~호~~- + -져) [후에야 출가하자]
- ㅅ. 義는 그 큰데(크- + -ㄴ데) [義는 그것이 크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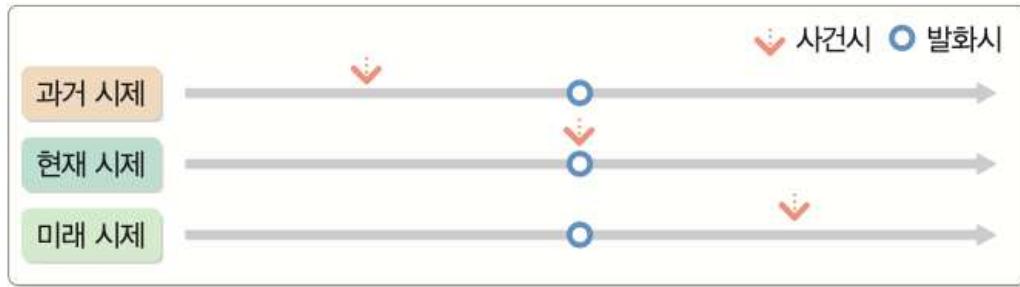
2.4.5 시간 표현¹¹⁷⁾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문법 범주를 시제(時制)라고 한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와 선후 관계를 따져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제와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동작상(動作相)이 있는데, 동작상이란 발화 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진행상, 완료상 등으로 나뉜다.

116) 반말이란 등급은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 정도에서만 보이는 ‘-니/리’ 종결형에 대한 해석인데, 반말 등급 자체를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어미가 생략된 형태로 보기도 한다. 이런 운문 문장에서 보이는 ‘-니/리’는 하나의 높임 체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니이다, 니잇가’ 등에서 ‘니’를 제외한 부분이 생략되었다는 분석이다. 나벼리(2020)에서 반말설과 어미 생략설에 대한 선행 연구 등을 제시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반말을 설정하는 견해에서는 『용비어천가』에서 반말이 보이는 이유를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높낮이를 분명히 하기 어려워 반말의 어미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선 일단 고영근 교수가 저술한 고등학교 『문법』을 따라 반말을 설정하였다.

117) 시제 선어말어미의 일반적인 쓰임만 다루도록 한다.



이삼형 외(2019:113)

3.4.5.1 과거 시제 (☆☆☆)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이다. 중세국어에는 동사일 때는 아무런 표지 없이 쓰거나 또는 선어말어미 ‘-더-’를 써 나타냈으며, 형용사나 서술격조사의 경우 ‘-더-’를 사용하여 나타냈다. 이때 보통 무형의 표지를 ‘-∅-’로 설정하여 설명한다. 중세국어에는 (ㄱ)과 같이 ‘-∅-’을 통해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ㄱ. 네 아비 乎마 주그니라(죽- + -∅- + -으니라) [네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
- ㄴ. 네 命終훈다(命終 乎- + -∅- + -ㄴ다) [네가 목숨 마쳤느냐?]
- ㄷ. 놀 爲乎야 가져간다(가져가- + -∅- + -ㄴ다) [누구를 위하여 가져갔느냐?]

‘-더-’는 선어말어미 ‘-오-’와 결합하면 ‘다’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 ‘-더-’는 ‘-시-’와 함께 쓰일 경우 현대국어와 달리 순서가 ‘시더’가 아니라 ‘더시’로 나타났으며 1인칭 주어와도 잘 어울렸다. 다만 ‘-더-’가 서술격조사의 어간 그리고 선어말어미 ‘-리-’ 뒤에 쓰일 때는 ‘-러-’로 쓰였다.

- ㄹ. 그뒷 쪽 를 맛고져 흐더이다(흐- + -더- + -이- + -다) [그대의 땀을 맛이하고자 하더이다]
- ㅁ. 受苦 | 만타라(많- + -더- + -오- + -다) [수고가 많더라]
- ㅂ. 내 롱담흐다라(흐- + -더- + -오- + -다) [내가 농담하였다]
- ㅅ. 轉法을 조차 흐더시니이다 [법왕이시니 전법을 따라 하셨습니다]
- ㅇ. 무리 三億萬이러라(이- + -러-(<더) + -다) [무리가 억만이더라]

관형사형의 경우 현대국어와 동일하게 관형사형 어미 ‘-(으/으)ㄴ’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때 ‘-더-’가 관형사형 어미에 결합하여 ‘-던’으로 과거 시제가 실현되기도 하였다. 현대국어에서 ‘-던’을 ‘-더- + -ㄴ’으로 볼 것인지 이견이 있지만 중세국어에선 공식적으로 ‘-더- + -ㄴ’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3.4.5.2 현재 시제 (☆☆)

현재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식이 일치하는 시제이다. 중세국어의 현재 시제의 경우 동사에는 선어말어미 ‘-느-’가 결합하여 쓰였는데 이는 현대국어의 ‘-ㄴ/느-’이라고 보면 된다. ‘-느-’는 선어말어미 ‘-오-’와 결합하면 ‘노’의 형태로 나타났다.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가 쓰였을 때는 선어말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나타냈다.

- ㄱ. 네 이제 쪼 묻느다(묻- + -느- + -다) [네가 이제 또 묻는다]
- ㄴ. 내 오늘 받노라(받- + -느- + -오- + -다) [내가 오늘 받노라]
- ㄷ. 이제 엇데 羅睺羅를 앗기눈다(앗기- + -느- + -ㄴ다) [이제 어찌 羅睺羅를 아끼느냐?]
- ㄹ. 내 오늘 實로 無情호라(無情호- + -오- + -다) [내가 오늘 실로 무정하다]
- ㅁ. 모딘 일 니기눈(니기- + -느- + -ㄴ) 衆生이 [모진 일을 익히는 중생이]

중세국어의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는 ‘-는’인데 이는 ‘-느-’와 ‘-ㄴ-’의 결합이므로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를 분석할 수 있다. 현대국어의 ‘-는’은 공시적으로 선어말어미 ‘-느-’를 분석할 수 없기에 하나의 어미이지만, 중세국어에는 ‘-느-’가 공시적으로 쓰였기에 (ㅁ)처럼 ‘-느-’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는’은 ‘-느- + -ㄴ-’으로 분석함이 합당하다. ‘-느-’와 ‘-ㄴ-’ 사이에 ‘-오/우-’가 결합하여 ‘논’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는 마치 현대국어 문법에서 평서형 종결어미 ‘-는다’를 ‘-는- + -다’의 결합으로 보고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는-’을 분리하는 것과 같다.

3.4.5.3 미래 시제 (☆☆)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로, 중세국어는 선어말어미 ‘-(으/으)리-’를 통해 실현되었다. ‘-(으/으)리-’는 현대국어의 ‘-겠-’과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뿐 아니라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의문문의 경우, 어원적으로 ‘-(으/으)리-’가 결합한 ‘-(으/으)려/료’와 ‘-을/을다, 을을고, 을/을가’에 의해 미래 시제가 실현되었다.

- ㄱ. 고줄 몯 어드리라(얼- + -으리- + -라) [꽃을 못 얻을 것이다]
- ㄴ. 도훈 이리 하리이다(하- + -리- + -이- + -다)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 ㄷ. 므스거스로 道를 사무료(삼- + -으료) [무엇으로 도를 삼겠는가?]

관형사형의 경우 현대국어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으/으)ㄹ-’에 의해 미래 시제가 실현되었다. 이 때 관형사형 뒤에는 일반적으로 의존명사 ‘것’이나 ‘ㄷ’가 쓰였다.

시제 표현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형태		
과거	무형의 선어말어미 (동사)	-∅-
	회상 선어말어미 (용언, 서술격조사)	-더-
현재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동사)	-느-
	표지 없음 (형용사, 서술격조사) ¹¹⁸⁾	
미래	미래 시제 선어말미어	-(으/으)리-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으)ㄹ-

118) 시제가 무형의 선어말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것을 부정법(aorist)이라 하는데, 과거 시제의 ‘-∅-’를 설정할 것이라면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도 설정해야 한다. 과거시제의 ‘-∅-’는 전통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현재는 이삼형 외(2019:214)에만 있다. 만약, 중세국어의 현재시제도 ‘-∅-’로 본다면 현대국어에서도 ‘-∅-’를 분석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를 중세국어 과거 시

3.4.5.4 동작상 (☆☆)

동작상은 움직임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진행상과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상으로 나뉜다. 진행상은 보조적 연결어미 ‘-고’와 보조용언 ‘이시다’를 써 나타냈다. 현대국어의 ‘-고 있다’와 동일한 구조인데 중세국어는 진행상을 ‘-고 있다’로 나타내는 것이 드물었다. 그 대신,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를 매개로 보조용언 ‘이시다’와 ‘가다’를 이용한 ‘-아/어 있다’와 ‘-아/어 가다’로 주로 진행상을 나타냈다. 현대국어에선 ‘-아/어 있다’가 주로 완료상만을 나타내지만 중세국어는 반대였다.

- ㄱ. 묘호 차반 먹고 이쇼디 [좋은 차반 먹고 있으되]
- ㄴ. 묘호 香 뛰우고 잇거니 [좋은 향을 피우고 있거니]
- ㄷ. 나모 미틔 가 누늘 長常 빨아 잇더라 [나무 밑에 가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 ㄹ. 法이 펴디여 가미 [법이 펴지어 감이]

완료상은 ‘-아/어 이시다/거시다’를 통해 주로 나타냈다. ‘이시-’는 불규칙 활용을 하므로 ‘-아/어 이시-’는 ‘잇’으로 교체될 환경에서 본용언과 결합하면서 ‘ㅣ’가 연결어미 뒤에 그대로 쓰인 경우가 많았는데, 음운 변동에서 언급하였듯 반모음화이다. 또, 본용언이 ‘두다’일 경우 어미 ‘-어’가 탈락하여 ‘丨’만 남았다. 이외에도 ‘-아/어 부리다’, ‘-아/어 두다’로도 완료상이 실현되었다. 현대국어와 달리 ‘-고 이시다’로 완료상이 쓰이진 않았다.

- ㄱ. 훈 말도 몯호야 잇더시니 [한 말도 못 하고 있으시더니]
- ㄴ. 世尊이 니버 겨신 皐衣 [세존이 입고 계신 조의]
- ㄷ. 迦葉 比丘 丨 웃누니여(<와 잇누니여) [迦葉 비구가 와 있는 것인가?]
- ㄹ. 싸해 무텟던(<무텨 잇던) 보비 [땅에 묻혀 있던 보배]
- ㅁ. 우리도 兵馬 뒷노소니(<두어 잇노소니) [우리도 병마를 두고 있으니]
- ㅂ. 地獄을 봇아 부려 [지옥을 부수어 버려]

3.4.6 피동법 (☆☆)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能動)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을 피동(被動)이라 한다. 현대국어와 같이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인 짧은(파생적) 피동문과 보조용언에 의한 피동문인 긴(통사적) 피동문으로 나뉜다.

3.4.6.1 짧은 피동문

피동사는 타동사 어근에 피동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지는데, 중세국어의 피동접미사는 ‘-이-’, ‘-흐-’, ‘-기-’가 있었다. 대체로 피동사는 자동사이고, 능동사는 타동사이다. 피동사와 대응하는 능동사의 예문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ㄱ. 사루미 ... 조치여(좇- + -이-) 두라 머리 가셔 [사람이 ... 쫓기어 달아나 멀리 가서]
行陣을 조추샤(좇-) [행진을 쫓으시어]

제에서만 쓰는 표지로 보도록 한다. 교과서 서술의 일관성이 중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과서에서는 ‘-Ø-’를 쓰지 않는 것이 교육상 더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 ㄴ. 짜 우희 차 두피고(둘- + -이-) [땅 위에 (가득) 차 (땅이) 덮이고]
네 天下를 두펴(둘-) 잇고 [네 천하를 덮고 있고]
- ㄷ. 東門이 도로 다티고(달- + -히-) [동문이 도로 닫히고]
다돈(달-) 이피 열어늘 [닫은 문이 열리거늘]
- ㄹ. 므리 솟글허 숲기더니(숲- + -기-) [물이 솟끌어 삫기더니]
罪人이 모물 술무며(숲-) [죄인의 몸을 삫으며]

3.4.6.2 긴 피동문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와 보조용언 ‘디다’를 통해 실현되었다. 현대국어의 ‘-어지다’와 같다.¹¹⁹⁾

- ㄱ. 즈믄 무디 다 글희여 디거늘(글희- + -어 디-) [천 마디가 다 풀려지거늘]
- ㄴ. 부르매 竹筍 | 것거 냅고(겁- + -어 디-) [바람에 죽순이 꺾어져 있고]
- ㄷ. 그쳐 딜(굵- + -어 디-) 빠 업슨 뻔 [끊어진 적이 없는 때에는]

3.4.7 사동법 (☆☆)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主動)이라 하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使動)이라 한다. 사동 역시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인 짧은(파생적) 사동문과 보조용언에 의한 사동문인 긴(통사적) 사동문으로 나뉜다.

3.4.7.1 짧은 사동문

사동사는 자/타동사 및 형용사 어근에 사동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지는데, 중세국어의 사동접미사는 ‘-이-’, ‘-흐-’, ‘-기-’, ‘-오/우-’, ‘-호/후-’, ‘-으/으-’가 있었다. 사동사와 대응하는 주동사/형용사의 예문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ㄱ. 한비를 아니 그치샤(굵- + -이-) [큰비를 안 그치게 하시어]
시미 기픈 무드래 아니 그출씨(굵-)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 ㄴ. 술위를 그우릴(그울- + -이-) 씨니 [수레를 굴리는 것이니]
그 술위 절로 그우려(그울-) [그 수레가 절로 굴려]
- ㄷ. 變化로 法音을 너피실씨 너피실씨(넙- + -히-) [변화로 법음을 넓히시므로]
如來へ 藏心이 넓고(넙-) [여래의 장심이 넓고]
- ㄹ. 투구 아니 벗기시면(벗- + -기-) [투구를 아니 벗기시면]
니버 잇더신 鹿皮 오솔 바사(벗-) [입고 계시던 녹비옷을 벗어]
- ㅁ. 그른매 비 업거늘 열우시고(열- + -우-) [강에 배 없거늘 (강물을) 열리시고]
어미 얻녀 모미 다 어려(열-) [어미를 찾아 다니느라 몸이 다 열어]
- ㅂ. 衆生들히 무 수 물 오울와(오울- + -오-)[중생들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善心이 오울면(오울-) [선심이 온전하면]

119) 현대국어의 ‘-어지다’도 ‘-어 지다’이다. 즉 보조용언이다. 다만 한글맞춤법 제47 항에서 편의를 위해 붙여 쓰기로 했기에 관습적으로 ‘-어지다’라는 하나의 단위처럼 쓸 뿐, 엄연히 보조용언 구성을이다.

- ㅅ. 功德을 너비 나토샤(날- + -호-)[공덕을 널리 나타나게 하시어]
應^호야 나들(날-) 쪽 르미라 [응하여 나타날 때로이라]
- ㅇ. 나랏 小民을 사르시리잇가(살- + -ㅇ-)[나라의 백성을 살리시겠습니까?]
始祖 | 慶興에 사르샤(살-) [시조가 경흥에 사시어]

그런데 같은 용언인데 사동접미사가 달리 붙을 경우 두 사동사가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살다-살이다(거주하게 하다)-사르다(살리다)’, ‘돌다-돌이다(돌리다)-도르다(돌이키다)’, ‘일다-일우다(이루다)-이르다/이르다(쌓다/세우다)’, ‘길다-길우다(길게 하다)-기르다(기르다)’가 그러하다.

또, 사동접미사가 중첩돼 사동사가 형성되기도 했다. 현대국어의 ‘-이우-’와 같은 것인데 이를 하나의 사동접미사로 설정하기도 두 개의 사동접미사로 보기도 한다. 여기서는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힘^이우다(힘^이- + -이- + -우-)’와 ‘조히오다(조^흐- + -이- + -오-)’가 그 예이다.

3.4.7.2 긴 사동문

보조적 연결어미 ‘-게/기’와 보조용언 ‘하다’를 통해 실현되었다. 현대국어의 ‘-게 하다’와 같다. ‘ㄹ’과 ‘j’ 뒤에서는 그 약화에 의해 ‘에/의’로 표기되었다.

- ㄱ. 목수를 일케 흐야뇨 [목숨을 잃게 하였는가?]
- ㄴ. 疏를 가져다가 사기게 흐야 [疏를 가져다가 새기게 하여]
- ㄷ. 모든 무수를 즐기기 흐느니 [모든 마음을 즐기게 하니]
- ㄹ. 사르물을 알의 흐노 거시라 [사람을 알게 하는 것이다]

3.4.8 부정법 (☆☆)

중세국어의 부정법은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용언을 사용한 긴 부정문과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를 사용한 짧은 부정문으로 나뉜다. 어휘적 부정이나 아니다 부정문을 다루면 학교문법 체계에서 다소 복잡해지므로 이 정도만 다루도록 한다.

의미	긴 부정	짧은 부정
단순/의지 부정	-디 아니 ^흐 다	아니 + 용언
능력 부정	-디 몯 ^흐 다	몰 + 용언

이외에도 ‘말다’를 이용한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긴 부정문이 있으며 주로 명령문에서 쓰이나 청유문에서 드물게 쓰였다. 현대국어와 달리 ‘-디 말다’뿐 아니라 ‘-게 말다’의 구조로도 쓰였다. 또, ‘아니^흐다/몰^흐다’는 ‘-들/들 아니^흐다/몰^흐다’로 쓰이기도 했다.

- ㄱ. 정^흐 보물 허디 아니^흐며 [올바른 봄(보는 것)을 헐지 아니하며]
- ㄴ. 몯 일우면 아니 도라오리라 [못 이루면 아니 돌아오리라]
- ㄷ. “머므디 몯^흐늦다” ^흐시고 [“머물지 못하는구나!” 하시고]

- ㄹ. 년기 가면 물 이끄리니 [남이 가면 못 이길 것이니]
- ㅁ. 브즈러니 지써 게으르디 말라 [부지런히 (일을) 지어 게으르지 말아라]

3.4.9 서법 표현

서법이란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일컫는 것으로 이러한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서법 표현**이라고 한다. 화자의 태도에는 ‘확인, 원칙, 감동’ 등이 있다. 중세국어의 서법 표현 역시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고영근 교수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문법』의 기술을 따르는 것이 학교문법에 기반한 중세국어를 서술함에 있어 가장 중립적이라고 생각된다. 이 중 학생들이 혼란을 느낄 법한 기술은 배제하도록 하였다.

3.4.9.1 확인법¹²⁰⁾ (☆☆)

확인법이란 화자가 사태를 확정(결정)적으로 파악하여 그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서법으로 선어말어미 ‘-아/어-, -거-, -나-’를 통해 실현되었다. 이를 ‘주관적 믿음’이라고 하기도 한다. ‘-아/어-’는 모음 ‘ㅣ’나 반모음 ‘j’ 뒤에서 반모음 첨가에 의해 ‘야/여’로 쓰였다. ‘-거-’는 ‘ㄹ’과 ‘j’ 뒤에서 음운론적 ㄱ 약화에 의해 ‘어’로 표기될 수 있었으며 서술격조사 뒤에서도 형태론적 ㄱ 약화에 의해 ‘어’로 표기되었다. ‘-아/어-’는 (ㄱ~ㄹ)과 같이 타동사에, ‘-거-’는 (ㅁ~ㅈ)와 같이 비타동사(자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에 결합하였고, 그중 용언의 어간이 ‘오-(오다)’일 경우 (ㅊ)과 같이 확인법의 선어말어미는 ‘-나-’로 실현되었다. 서로 형태론적 이형태 관계라서 보통 확인법 선어말어미 ‘-어/거-’라고 표현한다.

- ㄱ. 山 中에 가 道理 닷가라(닻- + -아- + -라) [산 중에 가 도리를 닦으렸다]
- ㄴ. 나라히 威神을 일허다(잃- + -어- + -다) [나라가 위신을 잃었었다]
- ㄷ. 엇던 사루물 보려니오(보- + -리- + -어- + -나오) [어떤 사람을 보렸다?]
- ㄹ. 舍利弗이 이끄여다(이끄- + -어- + -다) [사리불이 (노도차를) 이겼었다]
- ㅁ. 衆生이 福이 다퉁거다(다으- + -거- + -다) [중생이 복이 다했었다]
- ㅂ. 시르미 더욱 깊거다(깊- + -거- + -다) [시름이 더욱 깊겠다]
- ㅅ. 이 寶藏이 自然히 니를어다(니를- + -거- + -다) [이 보배 창고가 저절로 이르렀겠다]
- ㅇ. 셜불써 世界 뾰어다(뷔- + -거- + -다) [서럽구나! 세계가 비었겠다]
- ㅈ. 바미 ھ마 쟈이어다(이- + -거- + -다) [밤이 이미 반이었다]
- ㅊ. 오늘 寶藏이 自然히 오나다(오- + -나- + -다) [오늘 보장이 자연히 왔겠다]

그런데, ‘-아/어-/거-’는 1인칭 주어일 때 선어말어미 ‘-오/우-’와 결합하면 어간의 종류와 상관이 없이 ‘-과/가-’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때 ㄱ 약화의 환경에서는 ‘와/아’로 표기되었다.

- ㄱ'. 내 이제 훤히 즐겁과라(즐겁- + -과-(-거- + -오-) + -라) [내가 이제 훤히 즐겁겠다]
- ㄴ'. (내) 第五橋를 알와라(알- + -과-(-아- + -오-) + -라) [(내가) 第五橋를 알았겠다]
- ㄷ'. (내) 너를 맛보과라(맛보- + -과-(-아- + -오-) + -라) [(내가) 너를 만나 보았겠다]

120) ‘-거-’의 쟁점은 이병기(2014)가 참고된다. 현대어역은 원의를 최대한 살리고자 ‘-겼다’류 어미를 썼다.

ㄹ'. (내) 胡床에 앉가니오(앉- + -가-(-거- + -오-) -나오) [(내가) 호상에 앉겼다?]

ㅁ'. (내) 시르를 솔아니오(솔- + -가-(-아- + -오-) + -나오) [(내가) 시름을 사르겠다?]

이처럼 화자는 용언 어간에 확인법 선어말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주관적 믿음에 바탕으로 두고 발화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때, '-거늘/-어늘/-나늘'과 '-거든/-어든/-나든'과 같은 연결어미는 선어말어미 '-거/어/나-'를 분석하지 않는다. 항상 '거/어/나'가 있는 채로 쓰이지, 이들이 없는 '-늘/든' 따위가 보이지 않으므로 위의 연결어미에서는 확인법 선어말어미를 분석하지 않는다. 이는 '-건덴'이나 '-건마룬'과 같은 어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4.9.2 원칙법¹²¹⁾ (☆)

원칙법이란 화자가 사태를 원칙적(불변적)인 사실로 파악하여 알림으로써 청자의 주의가 그것에 집중되기를 바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서법이다. 원칙법은 선어말어미 '-(으/으)니-'로 실현되며 주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의 문장에 실현된다. 이때 '-(으/으)니-'는 시제 선어말어미 뒤에 쓰인다.

- ㄱ. 사루미 살면 주그미 이실씨 모로매 늙느니라(늙- + -느- + -니- + -라)
[사람이 살면 죽음이 있으므로 모름지기 늙느니라]
- ㄴ. 蜀애셔 邳이 갓가봉니라(갓갑- + -으니- + -라) [촉에서 공이 가까우니라]
- ㄷ. 네는 죄히 업서 대를 엿거 그를 쓰더니라(쓰- + -더- + -니- + -라)
[옛날은 종이가 없어서 대나무를 엮어 (거기에) 글을 쓰더니라]

원칙적 즉 불변적으로 파악된 사실이라는 것은 그 사태가 객관적으로 내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임을 말한다. (ㄱ)은 '사람이 늙어 죽는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 파악한 것이고 (ㄴ)은 '촉에서 공이 가깝다는' 사실을, (ㄷ)은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엮은 대나무에 글을 썼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알려진 객관적인 사실로 파악한 것이다. 즉 '-니-'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보편적인 사실을 청자에게 일깨워주는 것이다.

더 알아보기: -니라

원칙법 선어말어미를 설정할 때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평서형 종결어미 '-니라'와 원칙법 선어말어미 '-니-'와 종결어미 '-다'의 결합형 '-니라'가 형태상으로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칙법 선어말어미 '-니-'는 '니라'의 형태로만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니라'를 평서형 종결어미와 원칙법 선어말어미의 쓰임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친 견해일지도 모른다. 아래의 (ㄱ)과 (ㄴ)은 고영근(2010/2020)에 의하면 원칙법 표현으로 볼 수 없고 보수성을 띠는 평서문으로 보아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니-'의 예문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보이는가?

- ㄱ. 주거미 닐오디 내 호마 주그니라(죽- + -으니라) [주검이 말하되 “내가 이미 죽었다”]
- ㄴ. 너를 외에 아니호노니라(아니호- + -느- + -오- + -니라) [너를 그릇되게 아니한다]

121) 선어말어미 '-니-'의 기능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7차 고등학교 『문법』에서 '원칙법'으로 다뤘으므로 이를 따르겠다. '-니-'에 대해선 각주 (107)과 이유기(2013), 문병열(2019)이, '-니라'에 대해선 고영근(1982)와 김영욱(1989)이 참고된다. 여기서는 원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니라'류 어미로 번역하였다.

물론 2.4.9.2의 예문들과 위의 (ㄱ~ㄴ)을 비교하면 전자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인 반면 후자는 개인적인 이야기임이 드러나긴 한다. 그러나 그것을 현대어역만 보고 학생들이 알아챌 수 있을까? 곧 이론의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교육상 ‘-니라’와 ‘-니라(-니- + -다)’를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형태상 동일한 어미를 달리 처리하며 복잡성을 오히려 올린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는 7차 교육과정의 이야기고 해가 갈수록 교과서의 서술이 간략해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 ‘-니-’에 대한 언급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볼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으나, 만약 서법을 가르쳐야 한다면 원칙법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즉 평서형 종결어미 ‘-니라’만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는 원칙법을 인정하는 대신 평서형 종결어미 ‘-니라’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니라’를 원칙법 선어말어미의 쓰임으로 보는 것이다. 어찌됐든 일관되게 동일한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 문법 교육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¹²²⁾

3.4.9.3 감동법¹²³⁾ (☆☆)

감동법이란 문장으로 표현하는 일에 대한 화자의 느낌이나 믿음과 같은 정감을 나타내는 서법으로 선어말어미 ‘-도/로-’, ‘-돛/돛-’, ‘-웃-’, ‘-ㅅ-’에 의해 실현되었다.

감동법 선어말어미 ‘-도/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도-’로 실현되고, 서술격조사와 ‘아니다’의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으/으)리-’ 뒤에서는 ‘-로-’의 형태로 실현된다.

- ㄱ. ھ오사 平床이 뷔였도다(뷔- + -어 + 잇- + -도- + -다) [흔자 평상이 비어 있도록]
- ㄴ. 들 찌비 불써 이도다(일- + -도- + -다) [들 집이 벌써 이루어지도록]
- ㄷ. 네 업던 이리로다(일 이- + -로- + -다) [옛날에 없던 일이로다]
- ㄹ. 가자 ھ리로다(ھ- + -리- + -로- + -다) [가야 하리로다]

이때 ‘-로다’와 ‘-로라’를 모두 감동 표현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개론서 수준에서 이는 잘못이다. ‘-로라’는 곧 다루겠지만 선어말어미 ‘-오-’에 의해 ‘-다’가 ‘-라’로 쓰인 것이다. ‘-로다’는 감동법 선어말어미 ‘-도-’의 이형태가 쓰인 것이지만 ‘-로라’는 ‘-오-’의 이형태가 쓰인 것이다.

‘-돛/돛-’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돛-’으로 실현되고, 서술격조사와 ‘아니다’의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으)리-’ 뒤에서는 ‘-돛-’의 형태로 실현된다. ‘-돛-’이 ‘ھ돛더라’와 같이 자음 어미 앞에서 나타나기도 하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 ㄱ. 내 몬져 들판소이다(들- + -돛- + -오- + -이- + -다) [내가 먼저 들었습니다]
- ㄴ. 이 이리 쪼 어렵도소이다(어렵- + -돛- + -으 이¹²⁴⁾- + -다) [이 일이 또 어렵습니다]
- ㄷ.兇人을 주기리로소녀(죽이- + -리- + -돛- + -으 녀) [흉악한 사람을 죽이겠느냐?]

122) 고영근(2004:207)에서 “교화서류(敎化書類)에 나타나는 직설법을 둘째설명법[보수적 평서문]으로 볼 것인지 원칙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확연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라고, 고영근(2004:210)에서 “둘째설명법 어미[보수적 평서형 종결어미]와 원칙법의 변별과정에서는 아직도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한 점을 미루어 보아 역시 ‘-니라’를 이원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교육상 그닥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123) 감동법에 대한 종체적인 논의는 河崎啓剛(2016/2020)이 참고되며 감동법 선어말어미의 쟁점을 다룬 연구로 이승희(2014)와 河崎啓剛(2014)이 참고된다.

124) 고영근(2020)은 ‘-으이-’에 의해 ‘*도소이다’가 형성되고 ‘도’의 ‘으’에 동화되어 ‘도소이다’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도소녀, 도소니’도 동일하다. 공시적인 음운변동으로 볼 수는 없으니 예외적인 교체로 보는 게 적절해 보인다. 혹은 ‘-오이-’로 분석하고 ‘-으이-’의 변이형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다.

ㄹ. 아기로소이다(아기 Ø- + -로- + -롯- + -으으]- + -다) [아기입니다]

‘-옷-’은 다른 선어말어미 뒤에 실현되었다. ‘-(으/으)샤-, -느-, -더-, -어/거-’ 등의 선어말어미에 붙어 서로 결합하여 각각 ‘-(으/으)샷-, -놋-, -닻-, -꽝-’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닻-’은 선어말어미 ‘-더-’가 ‘-러-’로 쓰일 환경에서는 ‘-랏-’으로 쓰였다.

ㄱ. 골^봉리 업스샷다(업- + -으샤- + -옷- + -다) [대적할 이가 없으시도다]

ㄴ. 보비^를 아니 았기놋다(았기- + -느- + -놋- + -다) [보배를 아니 아끼는구나]

ㄷ. 忉利天에 겨시닻다(겨시- + -더- + -옷- + -다) [도리천에 계셨구나]

‘-ㅅ-’은 그 뒤에 선어말어미 ‘-오-’나 소위 매개모음 ‘으’를 지닌 어미와 함께 쓰여 ‘-소라, -소니, -순다, -스라’로 실현되었다.

ㄱ. 우리들토 ... 머리셔 오소이다(오- + -ㅅ- + -오- + -이- + -다) [우리들도 멀리서 왔습니다]

ㄴ. 너희들히 므스글 보느순다(보- + -느- + -ㅅ- + -온다) [너희들이 무엇을 본 것이나?]

ㄷ. 모다 아라스라(알- + -아- + -ㅅ- + -으라) [모두 알아라]

위들 표현 모두 정감성 즉 감정의 개입을 나타냈는지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는 우리가 현대인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다.¹²⁵⁾

3.4.10 인칭법 및 대상법

선어말어미 ‘-오/우-’는 국어학계에서 대단히 논란이 컸던 형태소이며 학자마다 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현행 5종 교과서에선 ‘-오/우-’가 인칭법을 담당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고려하여 인칭법(화자 표시법)과 대상법을 위주로 설명하겠다. 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의도법 등의 ‘-오/우-’와 관련된 쟁점은 석주연(2014)이 참고된다.

3.4.10.1 인칭법 (☆☆☆)

현행 5종 교과서에서 선어말어미 ‘-오/우-’는 문장의 주어가 ‘나, 우리’와 같이 1인칭일 때 쓰였다고 기술된다. 주어가 1인칭임을 알려주기 때문에 인칭법이라고도 한다. ‘-오/우-’는 다른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면 그 선어말어미의 형태가 바뀌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느-’는 ‘노’의 형태로, ‘-더-’는 ‘다’의 형태로, ‘-거/어-’는 ‘가/과’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 서술격조사와 결합할 시 ‘로’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 ‘-오/우-’는 서술격조사와 결합하면 ‘-로-’로 나타났고, 종결어미 ‘-다’는 선어말어미 ‘-오/우-’ 뒤에서 ‘-라’로 교체되어 쓰였다.

ㄱ. 내 이를 위하야 ... 밍^고노니(밍^고- + -느- + -오- + -니) [내가 이를 위해서 ... 만드니]

ㄴ. 우리들히 毒藥을 그르 머구니(먹- + -우- + -니) [우리들이 독약을 잘못 먹었으니]

ㄷ. 내 뚉담^흐다라(룽담^흐- + -더- + -오- + -라) [내가 농담하였다]

125) 고영근(1980:76)에서도 “필자가 中世語(중세어)의 樣態(양태)·情感(정감)의 紗法(서법) 곧 強調法(강조법)을 體系化(체계화)하면서 부딪힌 가장 어려웠던 점은 意味把握(의미파악)의 方法(방법)이었다.”라고 밝히며 의미파악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 ㄹ. 내 ... 이려호니(이려 ㅎ- + -오- + -니) [내가 ... 이려하니]
- ㅁ. 내 ... 너드려 닐오리라(니 ㄹ- + -오- + -리- + -라) [내가 ... 너더러 말하겠다]
- ㅂ. 나는 弟子 대목건련이로라(이- + -오- + -라) [나는 제자 대목건련이로다]
- ㅅ. 내 이거슬 怪異히 너기가니(너기- + -어- + -오- + -니) [내가 이것을 괴히 여기거니]

더 알아보기: 화자 표시법 (☆☆)

그러나, 형태상 주어가 1인칭이 아닌 경우에도 ‘-오/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인칭법설에서는 이를 해명하기 위해 ‘화자’의 개념을 도입했으며, 따라서 ‘-오/우-’의 출현환경을 정확히 얘기하면 “화자인 체언이 문장의 주어로 쓰일 때”이다. 이 때문에 ‘인칭법’보다는 ‘화자 표시법’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 곧, 화자가 1인칭 대명사로 나타날 수도, 3인칭 명사로 나타날 수도 있던 것이다.

- ㄱ. 누른 새는 ... 任意로 호노라(호- + -느- + -오- + -라) [누른 새는 ... 임의로 하노라]
- ㄴ. 如來 ... 度 ㅎ 양직 ㅎ 니 를 아노니(알- + -느- + -오- + -니) [여래가 ... 건념직한 것을 아노니]
- ㄷ. 弟子는 ... 아디 몽호니(몽 ㅎ- + -오- + -니) [제자는 ... 알지 못하니]
- ㄹ. 네 한아빈 계을오미 오라오니(오라- + -오- + -니) [네 할아버지는 게으름이 오래니]

(ㄱ)과 (ㄹ)은 중국 당나라의 시인 두보의 시를 한글로 풀이한 책인 『두시언해』의 예문인데 각주를 보면 ‘自謂’ 즉 ‘누른 새’와 ‘네 한아비’는 두보가 자기 자신임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되었다. 시인인 ‘두보’가 화자인데 그 화자를 시적으로 표현하였으니 ‘-오-’가 실현된 것이다. (ㄴ)은 도사가 된 부처가 비구들에게 하는 말인데 주어인 ‘如來’가 화자 자신이므로 ‘-오-’가 실현되었다. (ㄷ)은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화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맥락 또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그 주어가 화자라면 ‘-오/우-’가 실현되었다.

이때, 주어가 화자가 아닌 경우에는 ‘-오/우-’가 쓰이지 않았으므로 어미의 형태로 주어가 화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즉 화자가 아닌 2/3인칭 주어는 ‘머그니’, ‘밍 ㅋ느니’, ‘흐더라’, ‘흐느다’와 같이 쓰였다는 것이다.

3.4.10.2 대상법 (☆☆)

대상법 선어말어미 ‘-오/우-’는 관형절에 쓰이기도 했는데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관형절의 목적어 또는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일 경우에 쓰였다. 따라서 ‘대상 표시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 ㄱ. 須達이 지순(짓- + -우- + -ㄴ) 精舍마다 [수달의 지은 정사마다]
- ㄴ. 부테 ... 得 ㅎ 산(ㅎ- + -샤- + -오- + -ㄴ) 妙法을 [부처가 얻으신 묘법을]
- ㄷ. 부텨 가시논(가- + -시- + -느- + -오- + -ㄴ) 짜히 [부처가 가시는 땅이]
- ㄹ. 너희 住흔(住 ㅎ- + -오- + -ㄴ) 짜히 [너희가 사는 땅이]
- ㅁ. 須達이 버릇업순(버릇없- + -우- + -ㄴ) 주를 보고 [수달의 버릇없는 줄을 보고]
- ㅂ. 부텨를 소랑호습논(소랑 ㅎ- + -습- + -느- + -오- + -ㄴ) 전초로 [부처를 사랑하는 까닭으로]

(ㄱ~ㄴ)은 피수식 체언이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이고, (ㄷ~ㄹ)은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이다. 관형절로 안기기 전 문장으로 바꿔 보면 (ㄱ)과 (ㄴ)은 각각 ‘須達이 精舍를 짓다’와 ‘부텨 妙法을 得

‘하시다’가 된다. 즉 목적어-서술어 관계를 이룬다. (ㄷ)과 (ㄹ)은 각각 ‘부ته 짜해 가시다’와 ‘너희 짜해 住하다’가 된다. (ㅁ~ㅂ)은 동격관형절의 경우로 ‘須達이 버릇없다’이 ‘줄’의 내용과, ‘부녀를 소랑하다’와 ‘전초’의 내용이 동일하다. 이는 의미적으로 동격인 경우인데 이때도 ‘-오/우-’가 쓰였다. 다만 대상법 선어말어미 ‘-오/우-’는 피수식 체언이 목적어이든 부사어이든 또는 동격이든 실현될 상황임에도 실현되기도 실현되지 않기도 했으며 예외가 무척 많다. 다만 피수식 체언이 목적어 관계를 이룰 경우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오/우-’가 쓰였다.

한편, 관형절의 서술어와 수식 체언이 ‘서술어-목적어’ 또는 ‘서술어-부사어’ 관계를 이루지 않고 ‘주어-서술어’ 관계를 이룬다면 ‘-오/우-’가 전혀 쓰이지 않았다.

- ㄱ'. 아기 나흔(낳- + -은) 겨집들 훑 보고 [아기(를) 낳은 여자들을 보고]
- ㄴ'. 찻물 기뚫(긷- + -을) 嫁女를 [찻물(을) 길는 체녀를]

(ㄱ')과 (ㄴ')을 관형절로 안기기 전 문장으로 바꿔 보면 각각 ‘겨집들히 아기(를) 낳다’와 ‘嫁女 | 찻물(을) 길다’와 같이 주술 관계를 보인다. ‘나흔’이나 ‘기률/기뚫’로 쓰이지 않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즉 관형절의 서술어와 수식 체언이 통사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에 따라 관형절에서 ‘-오/우-’가 선택이 달리 된 것이다.

이때 화자 표시법 ‘-오/우-’를 ‘-오/우-₁’라고 하고, 대상법 ‘-오/우-’를 ‘-오/우-₂’라고 하여 둘을 구별한다. 마치 현대국어에서 형태가 동일하지만 기능이 다른 두 어미를 나누는 것과 같다. 또, ‘-옴/움, -오디/우디, -오던/우던, -올덴/울덴, -올덴/울덴’ 등의 어미에서도 ‘오/우’의 형태가 보이는데 이때의 ‘오/우’는 형태소를 분석하지 않으며 어미의 일부로 본다. ‘-ㅁ’이나 ‘-티’, ‘-덴’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3.4.11 능격성¹²⁶⁾ (☆☆)

중세국어에는 뚜렷한 형태 변화 없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두루 쓰인 동사가 많이 보였다. 이를 ‘능격 동사’ 또는 ‘자·타 양용 동사’라고 부른다. 이때 자동사의 의미는 보통 피동사와 같아 피동접미사가 결합하지 않더라도 의미상 피동의 범주에서 처리할 수 있다.¹²⁷⁾

- ㄱ. 名言 ㅅ 길히 그츠니(굵-) [이름(名)이나 말하기(言)의 길이 끊어지니]
- ㄴ. 닐웨에 닐굽 쇠줄 그처(굵-) [이례에 일곱 쇠사슬(을) 끊어]
- ㄷ. 뵈해 살이 박거늘(박-) [산에 화살이 박히거늘]
- ㄹ. 兄님 눈에 모듈 바그니(박-) [형님 눈에 못을 박으니]
- ㅁ. 두 갈히 겄그니(겄-) [두 칼이 껌이니]
- ㅂ. 허리 겄구메(겄-) 뿔 器具 [허리(를) 껌음에 쓰는 기구]

위와 같이 동일한 동사가 자동사로도, 타동사로도 쓰였는데 이외에도 ‘열다(開), 닫다(閉,) 비취다, 냇다, 흘다’ 등 능격동사의 종류가 현대국어에 비해 무척 다양했다.

126) 한국어의 능격성에 대해선 연재훈(2008)과 고영근(2015)이 참고된다.

127) 관련 기출로 17 수능 13번이 있다.

3.5. 어휘론 (☆☆)

언어의 어휘는 한 시대의 사회·문화·사상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영역으로, 문법 체계보다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외부 요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특히 한자어의 확산과 외래 요소의 유입은 국어의 어휘 체계를 변화시켰다. 어휘의 변화는 단어의 형태에도 변화가 발생할 뿐 아니라 의미가 재편되면서 단어의 의미 관계가 변한다. 여기선 우선 어휘들 사이의 의미 관계, 중세국어 시기 어휘 체계의 변화 양상과 어휘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3.5.1. 어휘의 의미 관계

단어들은 서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의미가 서로 비슷할 수도, 관계가 없을 수도, 정반대일 수도 있다. 서로 의미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유의, 반의, 동음이의 등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여기서는 중세국어의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만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¹²⁸⁾

3.5.1.1 유의 관계

유의 관계란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끼리 서로 맺는 관계를 뜻한다. 중세국어에서 유의 관계를 이루는 단어들을 몇 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어	의미	단어	의미
가다 ~ 녀다	가다	각시 ~ 갓 ~ 겨집	아내
값 ~ 빙	값	괴다 ~ 듯다 ~ 소랑하다	사랑하다
그위 ~ 마술	관청	쁘 ~ 빠니 ~ 빼 ~ 적	때
느외 ~ 다시	다시	눔 ~ 녀느	남
돌다 ~ 입다	좋다	만흐다 ~ 하다	많다
뛰다 ~ 움즈기다	움직이다	소스 ~ 서리	사이
오히려 ~ 순지	오히려	작다 ~ 혁다	작다

중세국어의 많은 유의 관계는 현대국어에서까지 지속되지 못했는데 이는 유의 관계가 지닌 본질적 속성 때문이다. 서로 유사한 의미를 지닌 어휘가 공존하는 경우, 화자는 미세한 의미적 차이를 의식적으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한쪽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로 인해 유의 관계를 이루던 어휘들은 상호 간에 사용 빈도를 두고 경쟁하게 되며, 경쟁에서 진 어휘는 점차 사용이 감소하여 사어화되거나 의미 영역이 바뀌어 새로운 쓰임을 얻게 된다.

3.5.1.2 반의 관계

반의 관계란 의미가 반대되는 단어끼리 맺는 관계를 뜻한다. 중세국어에서 반의 관계를 이루는 단어들을 몇 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8) 중세국어 어휘의 의미에 대한 연구로는 흥사만 교수의 연구가 참고된다.

상보 반의 관계		등급 반의 관계		방향 반의 관계	
단어	의미	단어	의미	단어	의미
남진~겨집 ¹²⁹⁾	사내~여자	덥다~춥다	덥다~춥다	형~아 우	형~아우
아들~딸	아들~딸	깊다~얕다	깊다~얕다	얇~퉁	앞~뒤
알다~모른다	알다~모르다	넓다~좁다	넓다~좁다	주다~받다	주다~받다
이시다~없다	있다~없다	쉽다~어렵다	쉽다~어렵다	풀다~사다	팔다~사다

반의 관계는 그 성격에 따라 세 부류로 분류가 가능하다. 반의 관계는 ‘아들~딸’과 같이 한 영역 안에서 상호 배타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보(모순) 반의 관계, ‘덥다~춥다’와 같이 두 단어 사이에 등급성이 있어서 중간 단계가 있는 등급(정도) 반의 관계, ‘형~아우’나 ‘앞~뒤’ 등과 이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방향(대칭) 반의 관계로 나뉜다.¹³⁰⁾

3.5.2 어휘 체계의 변화

3.5.2.1 한자어의 증가

중세국어는 기본적으로 고유어가 현대국어보다 훨씬 많이 쓰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세국어 시기의 어휘 체계는 이전 시기에 비해 한자어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조선은 정치·법률·학문·교육의 거의 모든 영역이 한문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관료 선발을 위한 과거제 역시 한문 독해와 문장 능력을 핵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배층에게 한문학은 필수 교양이자 실질적인 통치 도구였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행정, 학술, 의례, 법률, 의학 등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한자어가 지속적으로 유입·정착되었고, 일부는 일상어휘로도 확산되었다. 또한, 15세기 이후 불교 관련 문헌의 언해본을 대량으로 간행하면서 한자어와 관련된 불교 관련 어휘가 한자어 형태 그대로 유입되어 쓰이게 됐다. ‘布施(포시), 三昧(삼매), 釋迦(석가), 成佛(성불), 慈悲(자비), 衆生(중생), 解脫(해탈)’ 등과 같은 불교 용어가 그러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고유어 어휘가 한자어로 대체되었다. ‘즈믄(千)’, ‘잣(城)’, ‘아슴(親戚)’, ‘미르(龍)’, ‘아롭뎌(私私로이)’, ‘ㄱ 룸(江)’, 등과 같이 고유어가 한자어로 교체되는 것은 모든 품사에 걸쳐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고유어가 사어가 됐다. 게다가 한자어가 한자음 그대로 한글로 표기되면서 한자어로 인식되지 않고 고유어로 인식되게 되었다. ‘위두(<爲頭)’, ‘딤치(<沈菜)’, ‘남진(<男人)’, ‘녀편(<女便)’, ‘컷것(<鬼+ㅅ+것)’, ‘차반(<茶飯)’ 등이 그러한데, ‘딤치’처럼 음운 변화를 통해 완전히 귀화한 것도 있다.

129) ‘남진’과 ‘겨집’은 다의어라서 ‘남진’은 ‘사내’와 ‘남편’을, ‘겨집’은 ‘여자’와 ‘아내’를 모두 뜻했다. 따라서 ‘남진-겨집’은 ‘사내-여자’의 의미라면 상보 반의 관계, ‘남편-아내’라면 방향 반의 관계가 된다.

130) 방향 반의 관계는 그 단어들의 의미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형-아우’ 등과 같은 역의 관계, ‘팔다-사다’ 등과 같은 역행 관계, ‘시작-끝’ 등과 같은 대척 관계가 그렇다. 자세한 것은 구본관 외 (2016)의 의미론을 참고하자.

3.5.2.2 차용어의 유입

중세국어 시기에는 차용어도 많이 유입되어 쓰였다. 특히 중국어 차용어가 대량으로 들어왔다. 중국어 차용어는 문화적인 어휘가 많았는데 의복, 옷감, 기구 등에 관련된 어휘가 대표적이다. 현대 국어로 이어져 널리 쓰이는 중국어 차용어로는, ‘감토(<敢頭:감투>)', ‘다홍(<大紅:대홍>)', ‘비치(<白菜:배추>)', ‘사탕(<砂糖:사탕>)', ‘상투(<上頭>)' 등이 있다.

전기 중세 국어에서 후기 중세 국어로 넘어올 즈음에 몽고어 차용어 유입도 어휘 체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몽고어 차용어로 알려진 것이 ‘말’과 ‘매’에 관한 단어인데 ‘가라물(검은 말), 간자물(눈 위에 흰 점이 있는 말), 가리온물(갈기와 꼬리가 검은 말)’ 등과 ‘갈지게(누른 매), 럭진(늙은 매), 도롱태(작은 매의 일종), 송골(매의 일종)’ 등이 그 예이다. 이 밖에 ‘必者赤(서기)', ‘達魯花赤(진수관)' 등과 같은 관직명이나, ‘火尼赤(양치는 사람)', ‘時波赤(매 다루는 사람)' 등과 같은 명사도 있다. 또, 어원적으로 몽고 차용어이지만 현대 국어에서 귀화되어 고유어화한 것으로는 ‘갈비, 사돈, 오랑캐’ 등이 있다.¹³¹⁾

여진어(만주어) 차용어도 소수지만 관찰되는데 『용비어천가』에 기록된 함경도 지명 ‘투먼(두만강: 만(萬)의 여진어)', ‘퉁견(동간산: 종(鍾)의 여진어)', ‘나단(나단산: 7의 여진어)' 등이 그 예이다.

3.5.3 어휘 형태의 변화

어휘 형태 변화는 어휘마다 과정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규칙화하기 어렵다. 대체로 어휘의 변화는 개별적이기 때문에 ‘개별 어휘사’의 예를 몇 개 소개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중세국어 문헌에 문증되는 단어가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하였는지 다룬다.

어휘 변화는 원래의 기본적인 어휘 형태를 유지하면서 어형이 바뀌는 ‘어형 변화’와 기존의 어휘 형태가 아예 다른 어휘 형태로 바뀌는 ‘어휘 교체’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늙’이 ‘하늘’이 된 것은 기본적인 형태는 같으나 ‘、’의 소실로 지금의 형태가 된 것이니 ‘어형 변화’이다. 어형 변화는 음운 체계의 변화나 개별적인 음운 현상 또는 이형태의 합류로 일어난다. 특히 중세국어 시기 특수 어간교체를 하던 ㄱ 덧생김, ㅅ ㅇ, ㄹ ㅇ, ㄹㄹ류 체언은 이형태가 하나로 합류하여 더 이상 불규칙적인 교체를 보이지 않고 단일화했다. ‘나모-낡, 아속-았, 누르-눌 ㅇ, 흐르-훑’ 등의 교체는 일어나지 않고 각각 ‘나무, 아우, 노루, 하루’로 단일화했다. ㅎ 종성 체언도 더 이상 ㅎ이 덧나지 않는다.

반면, ‘머구리밥’은 현대국어에선 ‘개구리밥’으로 쓰이는데 이는 ‘머구리’와 ‘개구리’는 별개의 단어 이므로 ‘어휘 교체’이다. 어휘 교체는 기존에 있던 어휘인 보수형과 새롭게 등장한 개신형 간의 경쟁으로 일어나며 이때 개신형이 승리하면 보수형은 쓰이지 않게 되거나 방언과 같은 일부 제한된 환경에서만 쓰인다.

3.5.4 어휘 의미의 변화

어휘의 의미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그 의미 변화의 양상에 따라 확대, 축소, 이동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여기서도 중세국어 문헌에 문증되는 단어가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131) 몽고어 차용어 연구로는 이기문(1985/1991/2007)이 참고된다.

변하였는지 다룬다. 의미의 변화가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보통 근대국어 또는 개화기 시기에 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5.4.1 의미의 확대

단어의 원래 의미가 변화하여 그 적용되는 영역이 원래 영역보다 넓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의 확대라고 한다. 의미 확대의 예로는 ‘다리(脚), 영감, 겨례’ 등이 있다.

‘다리’는 원래 ‘사람’이나 ‘짐승’과 같은 유정 명사에만 붙을 수 있던 말인데 그 의미가 확대되어 ‘상, 책상’ 등의 무정명사에까지 쓰이게 되었다. ‘영감’은 원래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일반적인 남자 노인을 가리키는 말도 뜻하게 되면서 의미가 확대되었다. 또한 ‘겨례’는 본래 종친 또는 친척이라는 의미였으나 현대국어에서는 ‘민족’을 뜻하기도 하며 이 역시 의미의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기존의 의미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었다.

3.5.4.2 의미의 축소

단어의 원래 의미가 변화하여 그 적용되는 영역이 원래 영역보다 좁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의 축소라고 한다. 의미 축소의 예로는 ‘증상, 놈, 겨집, 얼굴, 힘, 여워다, 소랑하다’ 등이 있다.

‘증상’은 불교 용어 ‘衆生’에서 온 말로 원래 생물 전체를 뜻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가리키는 말인 ‘짐승’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놈’은 보통의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남자를 비하하는 말’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겨집’ 역시 본래 일반적인 여자 전체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여자를 낮추어 말할 때 쓰는 말인 ‘계집’으로 의미 영역이 줄어들었다. ‘얼굴’은 원래 ‘모습’이나 ‘틀’과 같은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말이었으나 현대국어로 넘어오며 ‘낯(面)’으로 그 의미 영역이 줄어들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다 좁은 의미로 의미 영역이 축소되는가 하면 여러 의미를 지니다가 하나가 사라진 경우에도 의미 축소라고 한다. ‘힘’은 원래 ‘힘(力)’과 ‘힘줄(筋)’의 의미를 모두 지녔는데 현대 국어로 오면서 ‘힘줄’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여워다’도 중세 국어 시기에서는 ‘수척하다(瘦)’와 ‘마르다(瘠)’의 뜻으로 쓰였는데 현대 국어로 오면서 ‘마르다’라는 의미를 잃어버렸으며, ‘소랑하다’는 ‘사랑하다(愛)’와 ‘생각하다(思)’라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 국어로 오면서 [思]라는 의미를 ‘생각하다’에 넘겨주어 그 의미 영역이 줄어들었다.

3.5.4.3 의미의 이동

의미의 확대도 축소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뀐 것을 ‘의미의 이동’이라고 한다. 의미의 이동의 예로는 ‘빈, 빼니, 어리다, 어엿보다, 식식하다, 쓴다’ 등이 있다.

‘빈’은 원래 ‘값(價)’ 즉 ‘가치’라는 뜻이었는데 전혀 다른 뜻인 ‘빚(債)’ 즉 ‘채무’로 의미가 바뀌었다. ‘빼니’는 원래 한자 ‘時’의 새김으로 쓰였고 ‘-할 적’ 등과 비슷한 뜻을 나타내며 ‘때’라는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현재는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먹는 밥. 또는 그렇게 먹는 일’로 의미가 바뀌었다.

‘어리다’도 의미 이동의 예로 자주 거론된다. 중세국어의 ‘어리다’는 ‘어리석다(愚)’의 뜻을 나타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며 ‘나이가 어리다(幼)’는 뜻으로 바뀐 것이다. 이외에도 ‘어엿보다’는 ‘불쌍하다’의 뜻에서 ‘예쁘다, 아름답다’로 바뀌었고, ‘식식하다’는 ‘장엄하다’의 뜻이었는데 현대 국어에서 는 ‘씩씩하다’의 뜻으로 바뀌었다.

‘쓰다’ 역시 의미 이동을 겪었다. ‘쓰다’는 원래 ‘값이 나가다’라는 뜻으로 현대 국어의 ‘비싸다’를 뜻하는 단어였다. 그런데 ‘빈 쓰-’와 같이 ‘값’이라는 뜻을 가진 ‘빈’과 자주 어울리면서 이 결합 형태가 ‘비쓰다’가 되어 ‘값이 나가다’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쓰다’는 ‘비쓰다’에 대립되는 형태·의미가 되어버려 현대 국어의 ‘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결국 ‘쓰다’는 ‘값이 나가다’에서 ‘값이 낮다’로 되어 그 의미가 정반대로 변화했다.

참고 문헌

<기본자료>

- 민병곤 외 (2025), 고등학교 『화법과 언어』, 미래엔.
- 민현식 외 (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 방민호 외 (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미래엔.
- 서혁 외 (2025), 고등학교 『화법과 언어』, 지학사.
- 이관규 외 (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비상.
- 이관규 외 (2025), 고등학교 『화법과 언어』, 비상
- 이삼형 외 (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지학사.
- 전은주 외 (2025), 고등학교 『화법과 언어』, 천재교육.
- 최형용 외 (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창비.
- 최형용 외 (2025), 고등학교 『화법과 언어』, 창비.
- EBS (2025), 『수능특강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한국교육방송공사.
- EBS (2025), 『수능완성 국어영역 독서·문학·언어와 매체』, 한국교육방송공사.

<논저>

- 고경재 (2023) 「15세기 국어 용언 활용의 규칙성에 대한 검토 - 소위 ‘ㅂ, ㅅ 불규칙 활용’과 ‘특수 어간 교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4, 국어국문학회.
- 고경재 (2023), 「15세기 국어 ‘특수 어간 교체’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주로 후음 ‘ㅇ’의 음가와 ‘흔적’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72, 우리말학회.
- 고광모 (2012), 「15세기 국어의 종성 ㅅ에 대하여 - 종성 ㅅ을 확인하고 선어말어미 {-삽-}의 교체를 설명함-」, 『국어학』 64, 국어학회.
- 고광모 (2023), 「된소리의 발달」, 『언어학』 95, 사단법인 한국어학회.
- 고영근 (1980), 「中世語의 樣態·情感의 敍法에 대한 研究」, 『인문논총』 5,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고영근 (1982), 「敍述性語尾와 冠形詞形語尾의 關聯性에 관한 研究」,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고영근 (2005),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 - 형태음운론적 교체를 중심으로 -」, 『국어학』 46, 국어학회.
- 고영근 (2010), 『제3판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 고영근 (2012), 「언어 유형론 노트 (1)」, 『형태론』 14, 형태론.
- 고영근 (2015), 「민족어에는 정말 능격 구문이 없을까」, 『형태론』 17, 형태론.
- 고영근 (2020), 『제4판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 고영진 (2007), 「제주도 방언의 형용사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재 시제에 대하여」, 『한글』 68, 한글학회.
- 구본관 (1996),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본관 외 (2015), 『한국어문법총론 1』, 집문당.
- 구본관 외 (2016), 『한국어문법총론 2』, 집문당.
- 국립국어원 (1996),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1』, 국립국어원.
- 김성규 (2007), 「중세국어의 형태 분석과 성조」,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 김성규 (2009), 「중세국어 음운론의 쟁점」, 『국어사연구』 9, 국어사학회.

- 김성규 (2017), 「訓民正音의 聲調」, 『관악어문연구』 4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영옥 (1989), 「중세국어 원칙법 -니-와 둘째설명법 어미 -니라의 설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완진 (1985), 「母音調和의 例外에 대한 研究」, 『한국문화』 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김유범 (2007), 「15세기 문헌자료의 특수 분절 표기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연구」, 『한말연구학회』 20, 한말연구학회.
- 김유범 (2008), 「이형태교체의 조건과 중세국어 이형태교체의 몇 문제」,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 김유범·고경재 (2019) 「‘훈민정음’의 각자병서자와 전탁음의 음가에 대한 재론」, 『우리말연구』 59, 우리말학회.
- 김유범 (2024), 「형태론으로 바라본 국어사 교육」, 『형태론』 26, 형태론.
- 김정인 (2023), 「15세기 속격 ㅅ의 음가 변화의 몇 가지 의문점 - 속격 ㅅ 표기 용례 검토를 통하여」, 『국어국문학』 204, 국어국문학회.
- 김정인 (2024), 「15세기 ㅅ계 합용병서 음가 변화의 배경과 기제」, 『국어국문학』 208, 국어국문학회.
- 김지은(2022), 「중세·근대 국어 자음체계 연구의 성과와 전망」, 『국어사연구』 35, 국어사학회.
- 김한별 (2012), 「순경음 ‘崩’에 대한 통시적 연구 - ‘ㅂ’ 약화 규칙의 어휘 확산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 (1998), 「중세국어 형용사 파생 접미사 {-돕-}의 이형태 빈도와 역사적 변화」, 『관악어문연구』 2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나벼리 (2020), 「중세 국어의 ‘니’와 ‘리’ 종결문의 어미 생략 현상」, 『우리말연구』 61, 우리말학회.
- 나찬연 (2020), 『중세 국어의 이해』, 도서출판 경진.
- 남미정 (2012), 「중세국어의 사이시옷과 합성명사」, 『언어와 정보 사회』 18,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 문병열 (2019), 「중세 한국어의 선어말 형태 ‘-니-’에 대하여 - 기존 논의 검토를 중심으로 -」, 『국어문학』 71, 국어문학회.
- 박용찬 (2010), 「중세국어 속격조사의 예외적 쓰임」, 『어문학』 110, 한국어문학회.
- 박용찬 (2024), 「중세국어 비자동적 교체 용언의 통시적 변화 - ‘ㅁ/ㅁ’ 말음절 용언과 ‘ㄹ/ㄹ’ 말음절 용언을 중심으로 -」, 『우리말글』 103, 우리말글학회.
- 박진호 (2019), 「15th century Korean Grammar from a Viewpoint of Linguistic Typology and Historical Grammar」,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배영환 (2011), 「중세국어 후음 ‘ㅇ’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언어학연구』 21, 한국중원언어학회.
- 배주채 (2000), 「불규칙활용」, 『새국어생활』 10, 국립국어원.
- 석주연 (2014), 「선어말어미 ‘-오-’의 연구 성과와 쟁점」, 『국어사연구』 19, 국어사학회.
- 소신애 (2008), 「중세 국어 음절말 유음의 음가와 그 변화 - 방언 자료와 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국어학』 53, 국어학회.
- 소신애 (2012) 「점진적 음변화로서의 ㅅ > ㅊ」, 『국어국문학』 162, 국어국문학회.
- 소신애 (2024), 「중세 국어 후음 ㅇ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 『국어학』 112, 국어학회.
- 신기상 (1974), 「15世紀 ‘나모와’語 放」, 『국어국문학』 65·66, 국어국문학회.
- 신성철 (2022) 「고대 국어 음운 체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 『국어사연구』 35, 국어사학회.
- 신승용 (2021), 「15세기 국어 적극적 기능의 ‘ㅇ’ 재고」, 『한글』 82, 한글학회.
- 엄상혁 (2018), 「‘ㄹ’ 말음 용언과 으-계 어미 결합의 변화」, 『구결연구』 40, 구결학회.

- 연재훈 (2008), 「한국어에 능격성이 존재하는가 -능격의 개념과 그 오용 -」, 『한글』 69, 한글학회.
- 유필재 (2001), 「중세국어 성조 연구사」, 『울산어문논집』 15,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
- 윤현우 (2024), 「/ㄱ/ 탈락 현상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문 (1962), 「中世國語의 特殊 語幹 交替에 대하여」, 『진단학보』 23, 진단학회.
- 이기문 (1978), 「十五世紀 表記法의 一考察」, 『언어학』 3, 사단법인 한국어학회.
- 이기문 (1985), 「蒙古語 借用語에 대한 研究」, 『언어학』 3, 사단법인 한국어학회.
- 이기문 (1991), 「Mongolian loan-words in Korean」, 『알타이학보』 3, 한국알타이학회.
- 이기문 (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기문 (2007), 「중세몽고어 차용어에 대하여」, 『어학연구』 2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이동석 (2014) 「국어사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독서와 문법 II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학』 69, 국어학회.
- 이동석 (2017), 「훈민정음의 자음」, 『관악어문연구』 4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이문규 (2017), 「성조형 실현 규칙의 임의화와 16세기 말엽의 성조 체계」, 『어문학』 137, 한국어문학회.
- 이병기 (2014), 「선어말어미 {-거-}의 연구 성과와 쟁점」, 『국어사연구』 19, 국어사학회.
- 이병기 (2023), 「문법사를 활용한 현대 국어 문법 교육」, 『국어사연구』 37, 국어사학회.
- 이승재 (1983), 「再構와 方言分化-語中 ‘-시-’類 단어를 중심으로-」, 『국어학』 12, 국어학회.
- 이승희 (2014), 「선어말어미 ‘-돗-’의 연구사와 쟁점」, 『국어사연구』 19, 국어사학회.
- 이유기 (2013), 「선어말 형태소 ‘-니-’의 기능」, 『국어사연구』 16, 국어사학회.
- 이준환 (2010), 「중세국어 ㅎ말음 체언의 음운론」, 『구결연구』 24, 구결학회.
- 이진호 (2017), 「훈민정음의 모음」, 『관악어문연구』 4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임동훈 (1998), 「어미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8, 국립국어원.
- 임지룡 외 (2020),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 최준호 (2019), 「한국어 어미 ‘-을’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웅 (1987), 「15세기 국어 맞춤법」, 『국어생활』 8, 국립국어원.
- 허원영 (2019), 「국어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선엽 (1998), 「중세국어 ‘술갑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2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황선엽 (2016), 「중세·근대국어 속격조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국어사연구』 23, 국어사학회.
- 河崎啓剛 (2014), 「소위 감동법 ‘-ㅅ-’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9, 국어사학회.
- 河崎啓剛 (2015), 「15세기 한국어 속격 ‘-ㅅ’의 이표기들의 분포」, 『진단학보』 123, 진단학회.
- 河崎啓剛 (2016), 「중세한국어 감동법 연구 -깨달음과 복수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河崎啓剛 (2020), 「중세한국어 감동법 연구 노트」, 『형태론』 22, 형태론.
- Lee, Ki Moon and S. R. Ramsey (2011), 『A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제3 장 근대 국어

붙임

국어사 자료가 필요하거나 또는 국어사 연구를 따로 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유용한 사이트를 정리함. 학회 사이트에서 논문을 무료로 제공하니 필요하면 읽어 보길 권한다.

학회

- [국어학회](#)
- [국어사학회](#)
- [구결학회](#)
- 이외에도 참고문헌에 제시된 학회 사이트 모두 유용하다.

사전

- [우리말샘](#)
 - 단어를 검색하면 그 단어의 어휘사를 알려주며, 몇몇 오류가 보이긴 하나 매우 편리하다. 또, 여러 방언형도 제시하므로 방언 목록을 가볍게 정리하기도 좋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한다.
- [근현대 국어사전](#)
 - 『수정 증보 조선어사전』(문세영 저, 1940)과 『큰사전』(한글학회 저, 1947~1957)을 웹으로 정리한 사이트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한다.

한글 문헌 원본 사진

- [세종한글고전 DB](#)
 - 검색 기능이 다소 불친절하나 중세 및 근대국어 원문 영인본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 [국립한글박물관 아카이브](#)
 - 중세부터 근현대까지의 한글 자료를 원문으로 볼 수 있다.
 - 왼쪽의 “학술 정보” 탭을 누르면, 200여개의 자료에 대한 설명과 각 자료를 연구한 연구논문들을 제시하며, 어떤 외부 사이트에서 원본을 공개하고 있는지도 알려 준다. 가령, 학술 정보 탭에서 훈몽자회를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가 제공되어 원본을 편히 볼 수 있다.

고어자료 검색 사이트

-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
 - 장경준 교수님이 연구자들에게 공개한 구결 sktot 파일을 비롯한 여러 국어사 자료들이 전산화되어 정리돼 있다.
- [어드메](#)
- [초자씨](#)
 - 검색 기능이 무척 편리하며 모바일로도 옛한글 검색이 쉽게 가능하다. 또한 구결자도 검색이 가능할뿐더러 시기별로 또 문헌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위의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kohico)의 자료를 접근성 좋게 정리한 사이트라고 볼 수 있다.